앙카라학원

평화와 희망의 보금자리



피란민과 전쟁고아



앙카라학원과 앙카라형제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공간 시리즈 ④

앙카라학원

평화와 희망의 보금자리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앙카라학원

평화와 희망의 보금자리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Contents

제1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01 먼 나라에서 온 형제들 :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사진 아카이브 008
02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과 활약 136
03 세대를 잇는 전쟁의 기억 :
튀르키예 3대가 겪은 세 개의 전쟁 168

제2부
한국전쟁 피란민과 전쟁고아

01 수원의 피란민과 피란민촌 200
02 수원의 전쟁고아와 아동보호시설 242

제3부
앙카라학원과 앙카라형제회

01 앙카라학원의 설립과 운영 284
02 '앙카라학원'이라는 이름의 지붕 아래에서 346
03 "앙카라학원을 마음에 품고" 430

제4부
다큐멘터리와 영화 속 앙카라학원

01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와 영화 <아일라> 516
02 <내 기억 속의 전쟁 : 앙카라학교>
다큐멘터리 제작기 546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1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튀르키예군의 한국전쟁 참전

1950~1971



1950년

6월 30일
튀르키예 정부, 유엔의 요청에 따라 파병 결정

7~9월
제1튀르키예 여단 편성 및
에티메스굿(Etimesgut) 교육단에서 훈련

9월 25일
제1진 이스켄데룬(İskenderun) 항구에서 출발

10월 17~20일
부산항 도착 후 대구로 이동하여 훈련 개시

11월 10일
대구 출발, 개성·청단 방향으로 북상

11월 12일
미 제25사단 배속 후 후방 계릴라 소탕 및
보급로 보안 임무 완수(첫 실전 임무)

11월 26~30일
군우리 전투 참전.
와원·신립리 등지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세 저지.
백병전을 불사하여 미 제8군의 퇴로 확보
(부대원 15% 손실)





1951년

1월 1~6일
신정 총공세로 서울이 함락되며 천안으로 철수

1월 25~27일
김량장리 및 151고지 전투 참전.
백병전으로 중공군 격퇴

1월 27일
의무중대는 수원 서둔동 주둔

1월 30일~2월 6일
수리산 전투

3월 16일
튀르키예에서 파견된 1차 증원 병력
(기푸르 에뉘 증령 이하 643명) 부산 도착,
수원에서 훈련 실시

4월 22~23일
중공군 춘계 공세 당시 장승천
전투에서 포위 위기를 뚫고 철수 성공

5월 17~18일
중공군 야간 기습을 총검 돌격으로 격퇴

6월 13~16일
507고지 쟁탈전, 철원·김화지구 점령

7월 2~15일
제1여단 병력 순차적으로 본국 복귀

7월 6일
미 대통령 '우수부대 표창
(Distinguished Unit Citation)' 수여

9월 8일
제2여단 상륙

11월 8~11일
별고지 전투에서 고지 완전 장악

11월 16일
제1여단(타흐신 야즈즈)에서
제2여단(나믹 아르귀츠)으로 지휘권 인계



1952년

4월 17~18일
1052고지 기습 작전에서
적 참호 침투 및 전술적 성과 달성

6월 5일
연대장 누리 파미르 대령,
1052고지 시찰 중 전사

6월 9일~7월 13일
제3여단장과 선발대 부산 상륙,
제2여단 병력 본국 복귀

8월 24일
제2여단에서 제3여단(스르 아자르)으로
지휘권 인계.
제1~2여단 통합 누적 손실 2,508명
(사망 515명 포함) 기록

9월 17일
김량장리 전투의 공로로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 표창' 수여

11월 14일
철원-김화 사이 주 전투선(MLR)
제1선 방어 임무 투입



1953년

5월 5일
판문점 인근 임진강 북쪽 교두보
(베가스·엘코·카르산 전초) 인수

5월 28~29일
네바다 전초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8월 4일
제3여단에서 제4여단
(케말 아쿠르트)으로 지휘권 인계

8~9월
튀르키예군 포로 전원 북귀

1954년

8월
제4여단에서 제5여단으로 지휘권 인계

1960년

6월
제10여단 주둔 종료
제11차 한국부대(소령 파루크 폴랏)부터
중대급(100~150명) 규모로 전환

1966년

7월
제16차 한국부대 복귀를 끝으로 파병 종료
제1의장분대(상사 쾨크살 캘레시)부터
분대급(10명 내외) 규모로 축소

1971년

6월 30일
제5의장분대 복귀를 끝으로
튀르키예군의 공식적인 한국 주둔
임무 종료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먼 나라에서 온 형제들 :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사진 아카이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낯선 땅, 한국으로 향하다



1950년 7월 25일 튀르키예 공화국 정부에 의해 파병이 결정된 튀르키예군(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1950년 파병 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튀르키예 군인들(국가기록원 제공)
튀르키예 제1여단은 장교 259명, 군무원 18명, 민간 직원 4명, 부사관 395명(이 중 76명은 현역 하사),
병사 4,414명으로 편성되어 총 5,090명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SUWON PEACE RESEARCH INSTITUTE 수원평화연구원

1950년 8월 튀르키예 제1여단 여단장 타흐신 야즈즈(Tahsin Yazici)의 첫 공식 부대 점검(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한국 튀르키예 제1여단은 1950년 8월 7일 앙카라 에티메스굿에 있는 제2훈련여단 주둔지로 이동하였다.





1950년 한국으로 출발 전 바이람(명절) 예배를 마친 뒤, 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튀르키예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1950년 9월 20일 양카라역에서 배웅을 받는 군인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1950년 9월 21일 이스켄데룬역에 도착한 튀르키예 제1여단(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제1여단은 1950년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앙카라를 떠나 이스켄데룬으로 이동했다.
출정길 곳곳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환송이 이어졌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 9월 26일 이스켄데룬 항구에서 승선을 기다리는 튀르키예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제1여단은 1950년 9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세 차례로 나뉘어 출항하였다. 여단 사령부는 제2진으로 출항하였다.



배 갑판 위에 선 장교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한국으로의 항해 중인 튀르키예 군인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6·25전쟁학연구센터 RESEARCH INSTITUTE



1950년 10월 17일 한국에 도착하여 하선 중인 튀르키예 제1여단(ATASE 제공)
1950년 10월 16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튀르키예 제1여단은 유엔군의 제공권 장악 덕분에
안전하게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하역을 진행하였다.
17일에는 여단 지도부가 포함된 제2진이 21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도착하였다.



부산항에서 튀르키예 제1여단을 환영하는 시민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여단 주둔지에서 함께 순찰하는 군사경찰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찍고 있는
튀르키예 기자 히크메트 페리둔 에스(Hikmet Feridun Es)(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여단 주둔지 정문에서 경계 근무 중인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제1여단은 하선 후 부산항에서 열차로 약 95km 떨어진 대구로 이동하여 여단 전체의 집결을 마쳤다.
이후 장비는 트럭으로, 병력은 도보로 3.5km 거리에 위치한 옛 일본군 병영 주둔지로 이동하였다.



지급받은 무기를 손질하는 병사들(ATASE 제공)



버려진 가옥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 병사들(ATASE 제공)
튀르키예 제1여단은 한국 도착 직후, 미군 무기와 지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였다.



튀르키예 제1여단 포병대대 훈련(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10월 23일 부산항에 도착한 튀르키예 제1여단의 장비는 25일부터 대구로 운송되어 부대에 즉시 배치되었다.

SRI
수원사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군우리 전투, 포위 속에서 버려낸 방어선



1950년 12월 계월라 세력과 교전 중 진격하기 위해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튀르키예 군인들(국사편찬위원회 제공)



1950년 11월 26일 군우리 지역에 도착한 튀르키예 여단(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급변하였고, 튀르키예 여단은 포위된 덕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임무를 받고 군우리로 이동하였다.



1950년 11월 작전 수행 중인 튀르키예 여단 포병대대(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 11월 30일 군우리 남쪽 부근에서 철수 중 붕괴된 사단사령부(ATASE 제공)



순천 협곡에서 남쪽으로 철수 중인 튀르키예 여단(ATASE 제공)



1950년 11월 27일 생포한 적군 포로(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늦은 밤 여단 진지로 들어온 이 병사들은 패주하여 흩어진 한국군 제2사단 병력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들 사이에는 적군도 섞여 있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1950년 11월 30일 철수 중인 군인들(ATASE 제공)



서울로 후퇴하는 군부대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





1 2

1. 1950년 12월 1일 휴식 시간에 잠이 든 튀르키예 병사(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2. 군우리 전투 이후 평양에 집결하여 짧은 휴식을 가지고 있는 튀르키예 여단
(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김량장리 전투,
반격을 통해 되찾은 전선



1951년 1월 고지로 전진하고 있는 튀르키예 여단(ATASE 제공)



639고지 공격을 지휘 중인 여단 부사령관 젤랄 도라(Celal Dora) 대령(ATASE 제공)



전투 중 튀르키예 여단 보고소(ATASE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3월 계속해서 고지를 향해 전진하는 튀르키예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1951년 1월 27일 156고지를 점령한 튀르키예 여단(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는 튀르키예 병사들(ATASE 제공)

한국전쟁연구원
KOREAN WAR RESEARCH INSTITUTE
구세터

계속되는 고지전과
전장에서의 생활



1951년 3월 수륙양용 차량을 이용한 도하 훈련(하르비에 군사박물관 제공)



소형정을 이용한 도하 훈련(하르비에 군사박물관 제공)



교량을 통해 강을 넘는 미군 포병부대와 튀르키예 여단(하르비에 군사박물관 제공)

1952년 튀르키예 장교들(ATASE 제공)
마을 입구에 유엔한국위원단을 환영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투 중 무기를 손질하고 있는 튀르키예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1951년 6월 아군의 507고지 포격을 지켜보고 있는 튀르키예 병사(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1951년 6월 13일부터 16일 사이 금화 방어선에서는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다.



1951년 최전선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배달된 식사(국사편찬위원회 제공)



1951년 50구경 기관총을 장착한 장갑차에서 동료들이 식사하는 동안 갑작스런 적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보초를 서고 있는 튀르키예 병사(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부대 방공호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튀르키예 군인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전선에서 고향에 편지를 쓰고 있는 튀르키예 병사(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선으로 이동 중 편지를 쓰고 있는 튀르키예 병사(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요새'라고도 불린 튀르키예 여단의 중기관총 진지(ATASE 제공)



1951년 7월 30구경 기관총을 발사하여 적 진지를 공격하는 튀르키예 병사들(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적에게 들키지 않게 은폐해 놓은 진지(ATASE 제공)



1951년 10월 26일 김화 부근 적 진지에 사격 중인 튀르키예 병사들(국사편찬위원회 제공)

SRI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11월 16일 적진으로 출발하기 전 휴식하고 있는 튀르키예 여단 정찰대(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당시 튀르키예 여단 정찰대는 미 육군 제25보병사단에 배속되어 활동하였다.



1951년 11월 16일 적진으로 출발하는 튀르키예 여단 정찰대(국사편찬위원회 제공)



1951년 3월 28일 미 25사단 관할 지역에서
깃발을 게양하고 있는 튀르키예군 포병대대원들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탱크와 함께 이동하는 튀르키예 보병들(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대부분의 튀르키예 여단 차량은 무기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었기에
보병 부대는 전투를 위해 긴 도보 행군을 해야만 했다.

수원시대학교
SUWON SEOUL UNIVERSITY
수원시대학교

1951년 9월 6일 탱크를 타고 새로운 주둔지로 이동하는 튀르키예 병사들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수원박물관
SUWON MUSEUM INSTITUTE

부상병 치료와
튀르키예 여단 의무중대의 활약



전투에서 발생한 부상자 수송(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1953년 5월 29일 전초기지로 후송되는 부상당한 튀르키예 보병연대 병사들(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수원시 수원학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부상자를 치료하는 야전병원(하르비에 군사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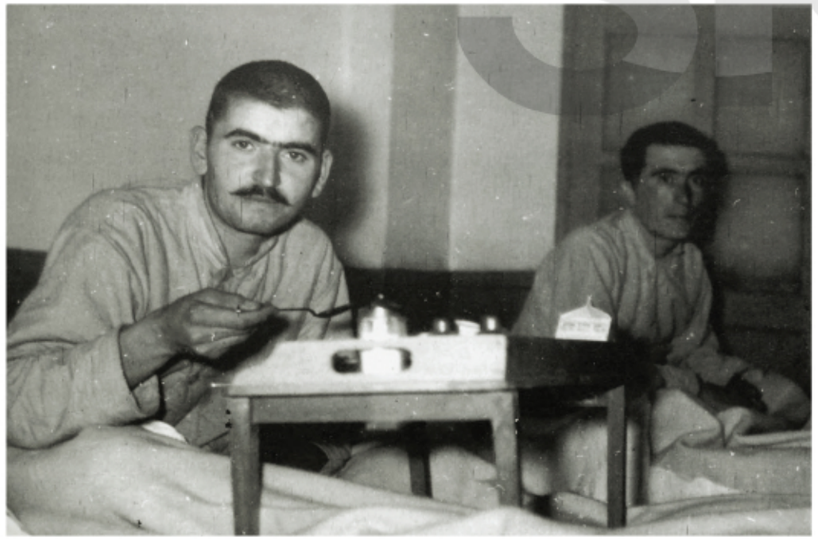


부상병 수술(하르비에 군사박물관 제공)
제말레틴 탄르외베르(Cemalettin Tannöver) 대위 (군의관)가 수술을 지켜보고 있다.

수원시정연구
SUWON RESEARCH INST
수원학연구센



병원에서 회복 중인 미군과 튀르키예 여단 부상병들(ATASE 제공)



일본에 있는 미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부상병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부상병들을 위문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매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유엔군사령관(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수원에 주둔하던 튀르키예의 육중대 전경(ATASE 제공)



튀르키예 의무중대에서 치른 전사자 장례식(ATASE 제공)



튀르키예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는 양카라학원 교사들



튀르키예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는 양카라학원 원생들

정연구원
RESEARCH INSTITUTE
정연구센터



튀르키예 의무중대를 찾아온 민간인 부상자(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부상자를 살피는 의무중대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SUWON





수원학연구센터
SUWON

1 2

1. 부상자를 살피는 의무중대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2. 의무중대의 보살핌을 받는 여성(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팔에 부상을 입은 남성을 살피는 의무중대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마을에 있는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튀르키예 의무중대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여단이 주둔한 지역에서는 많은 민간인들이 도움을 청하였다.



부상자를 치료하는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SRI 수원사회적경제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심한 부상을 입은 민간인을 치료하는 의무중대 병사들
(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SRI 수원역사문화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튀르키예 의무중대 병사들("LIFE」 제공)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용기와 헌신의 증명 :
튀르키예 여단의 훈장과 표창



1950년 12월 13일 튀르키예 여단에 훈장 수여를 위해 방문한 미 제 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중장(좌측)과 튀르키예 제1여단 여단장 타흐신 야즈즈(국사편찬위원회 제공)



군우리 전투의 공적을 인정받아 미군의 '실버스타(Silver Star)' 훈장을 받은 타흐신 야즈즈와 장교들 (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훈장 수여식(하르비에 군사박물관 제공)



훈장을 단 장교들(하르비에 군사박물관 제공)



훈장을 받은 튀르키예 병사들(하르비에 군사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7월 6일 군우리 전투, 185고지 전투, 156고지 전투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부대 표창'을 받은 튀르키예 여단(ATASE 제공)



1952년 9월 14일 김량장리 전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은 튀르키예 여단(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사
SUWON RESEA
수원학





1951년 5월 병사들의 진급을 축하하는 튀르키예 여단 여단장 타흐신 야즈즈(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이즈미트 출신 하이리 쿠르트(Hayri Kurt)와 에르진잔 출신 카즘 사르보아(Kazim Sarıboğa)가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되었다.



1951년 6월 미 대통령 부대 감사장 수여식을 앞두고 정렬한 튀르키예 여단 기수(국사편찬위원회 제공)

SRI 수원학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튀르키예 여단
보충병 도착과 전투 훈련



한국에 도착한 튀르키예 여단 증원부대원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군우리 전투 등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충하기 위해 튀르키예는 장교 21명, 부사관 14명, 병사 608명으로 구성된 증원부대를 구성하여 파견하였다.



수원행 열차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증원부대 부대원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뒤르키예 여단 보충병 등록 전경(국사편찬위원회 제공)
부르한 토크소이(Burhan Toksoy) 하사가 터키군 신입 부대원을 등록하는 모습.



새로 온 부대원들에게 소총 장전과 작동 방법을 설명하는 고참병
무스타파 바이사르(Mustafa Bayear) 일등병(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전투고참병인 세다트 아크불라트(Sedat Akbulat) 중위와
알리 남르(Ali Namli) 일등병의 총검 사용법 시연(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새로 온 부대원들에게 무기 사용법을 시연하는 고참 병사(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자대 배치 후 지도를 보며 지리를 파악 중인 병사들(국사편찬위원회 제공)



가상의 적을 목표로 105㎜ 유탄포 총(105㎜ Howitzer Gun)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튀르키예 군인들의 부대 생활과 휴식(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튀르키예 군인들의
부대 생활과 휴식



도로 교차로에서 근무 중인 튀르키예 여단 헌병('LIFE』 제공)
사진 속 표지판은 이곳이 튀르키예 여단 지휘소와 통신본부임을 알려 준다. '북극성(North Star)'은 튀르키예 여단을 가리키는 코드명이다.



튀르키예 본국에서 튀르키예 여단에게 보내 온 깃발(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발르케시르 사범학교 학생들이 한국으로 보내 온 비단 깃발(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고국에서 온 편지와 신문을 받은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신문을 통해 고국 소식을 읽는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모닥불을 쬐며 휴식을 취하는 병사들(「LIFE」 제공)



전투장비를 점검하는 병사들(「LIFE」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
수원학

휴식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춤을 추는 병사들(『LIFE』 제공)







음악에 맞추어 함께 즐기며 춤을 추는 병사들(『LIFE』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도서관



1950년 12월 30일 튀르키예 총참보부 부참모총장 샤하프 귀르레르(Şahap Gürler) 장군의 튀르키예 여단 사찰(ATASE 제공)



1951년 2월 13일 맥아더 장군의 튀르키예 여단 방문(ATASE 제공)



맥아더 장군을 맞이하는 튀르키예 제1여단 여단장 타흐신 야즈즈(ATASE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5월 보호지역으로 이동 중 튀르키예 여단 병사들의 휴식(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정연구원
EARCH INS
연구소



후방 대기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튀르키예 여단 장교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여단을 방문한 미 제25사단장 브래들리(Joseph S. Bradley) 장군과 타흐신 야즈즈 장군(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수원시 SUWON RE 수원학연구원



한국인과 대화하는 튀르키예 병사(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여단에 방문한 마을 주민(ATASE 제공)
여단 주둔지 인근에 살던 한국인들과 튀르키예 병사들은 서로에게 많은 호의를 보였다.



마을 주민과 함께 장난치며 사진을 찍는 병사(『LIFE』 제공)

SRI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1954년
튀르키예 제5여단 부대 행사



1954년 튀르키예 제5여단 부대 행사(ATASE 제공)



튀르키예 제5여단장 메테 유르다쿨(Mete Yurdakul)(흰색 옷 착용) 준장과 주요 인사들(ATASE 제공)
튀르키예 제5여단(1954년 6월~1955년 8월)은 양카라학원의 원사 신축 및 토지 구입을 지원하였다.

SWRI 수원세계평화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FOR WORLD PEACE 수원세계평화연구원

튀르키예 병사들의 총검술 시연
(ATASE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병사들(ATASE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국 국기를 들고 걸어오는 양카라학원 학생들(ATASE 제공)



꽃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 중인 양카라학원 학생들(ATASE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2

1. '앙카라학원(ANKARA OKULU)' 팻말 옆 아이들
2. 공연 중인 앙카라학원 원생들



SPI 수원지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긴 여정의 끝,
고국으로의 귀환



부대 교체를 위해 전선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전선에서 귀국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작별 인사를 나누는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하는 부상병들(ATASE 제공)
몇몇 부상병들은 일본에 위치한 미군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항공편으로 귀국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부상병(ATASE 제공)



비행기 내부에 탑승한 부상병들(ATASE 소장,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2년 튀르키예 제2여단 병사들이 인천에서 탑승한 귀국선 USS 우드퍼드호(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귀국하는 튀르키예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제1여단을 본국으로 수송한 미군 수송선 General W.C. Langfilt호(ATASE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즈미르 항구에서 귀국하는 참전용사들을 기다리는 시민들(ATASE 제공)







이즈미르 항으로 들어오는 귀국 병사들을 환영하기 위해 배를 띄워 마중하는 시민들(ATASE 제공)



항구에서 귀국 병사들을 환영하는 시민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귀국하는 튀르키예 참전용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1951년 이즈미르 항으로 귀환한 튀르키예 제1여단을 환영하는 시민들(ATASE 제공)





1 2

1. 한국에서 귀환한 한 병사를 부모가 환영하고 있다(ATASE 제공)
2. 귀국한 부상병이 어머니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ATASE 제공)

한국전쟁연구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쟁학교센터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참전용사들(하르비에 군사박물관 제공)







환영식을 위해 탁심광장으로 이동하는 튀르키예 제1여단 병사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탁심 기념비에 화환을 바치는 참전용사들(ATASE 제공)

KRI 수원시 SUWON RE 수원학연

02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과 활약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튀르키예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 한반도 전개

1) 튀르키예군의 참전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아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열전이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5일(한국 시각), 주한 외교사절이나 로이터, AP, AFP 등 세계 굴지의 통신사 소속 특파원들에 의해 이 소식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한반도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세계평화를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따라 창설(1945년 10월 24일)된 국제연합(UN)은 북한의 남침 공격이 있던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한국 시각)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고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권고'를 결의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당국에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군대를 즉시 38도선 이북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

6월 26일 권고 조치에도 북한의 침략 행위가 멈추지 않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 결의안을 6월 28일(한국 시각)에 가결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Hürriyet
La Familia
Pazartesi 26 Haziran 1950
Kore'de harp başladı
Rus uçakları tarafından da desteklenen
Komünist Kore ordusu güney Kore toprağına girip ilerlemeğe başladı
Komünistler başşehir olan Seul'un 40 kilometre yakınına kadar geldiler, güney Kore Amerikalılardan acele yardım istedi
Yamyamlar tarafından yendiği söylenen
Hazine'nin mezarı bulundu ve cesedi muayene edildi
Ağa Han'la Nasıl Tanıştım?
HİKMET FERİDUN ES

공산군들의 서울 침공 기사('휘리예트', 1950년 1950년 6월 26일)


Hürriyet
La Familia
Çarşamba 26 Temmuz 1950
Kore'ye silâhlı kuvvetler gönderiyoruz
Dün Ankara'da Bayar'ın riyasetinde toplanan Bakanlar Kurulu, Birleşmiş Milletler emrine 4500 mevcutlu bir savaş birliği verilmesine karar verdi
Ankara dün fevkalâde heyecanlı günlerinden birini daha yaşadı
Selim Sarper de dün gece Vaşington'a hareket etti
Birleşmiş Milletler Genel Sekreterine çekilen telgraf
Amerikalı Âyan azası Ankarada neler görüştü

한국전쟁에 4,500명의 군인 파병을 결정한 튀르키예('휘리예트', 1950년 7월 26일)

이 결의안은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엔 회원국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2] '6·28결의안'은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라는 점과 이를 계기로 한국전쟁이 '북한 대 유엔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뒤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7월 7일 미국이 작성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유엔군사령부 설치를 의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해 한국에서 침략자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유엔 회원국에서 파견한 군대를 미군의 통일된 지휘하에 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3]

결의안이 통과된 당일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우선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7월 24일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UNC)를 설치하였다. 그동안 미 제8군 사령관, 미 극동해군 사령관, 미 극동공군 사령관이 각각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지상군과 해·공군 부대들을 통합 지휘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군도 7월 14일 작전지휘권 이양에 따라 이 체계에 포함되었다.[4]

미국 이외 국가들의 참전은 주로 미국과 유엔사무총장 간의 협의로 이루어졌다. 유엔 회원국 대부분은 북한의 남침이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데 공감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유엔의 결의에 찬성하면서도 병력 파견에는 신중함을 기하는 사례도 있었고, 너무 적은 수의 병력 파견 의사를 표명하여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기각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의 참전을 시작으로 16개 국가가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며, 스웨덴과 인도를 비롯한 6개 국가가 의료지원을 제공하였다.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 국가 중 하나인 튀르키예군은 미국·영국·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군대였다. 한국에 대한 유엔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한 튀르키예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고서 7월 18일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1개 여단 병력을 파병하기로 하였다. 튀르키예 국회도 정부의 이러한 결정 사항을 7월 25일에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같은 날 튀르키예의 파병 결정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되었다. 튀르키예군의 파병 결정은 지상군 부대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5]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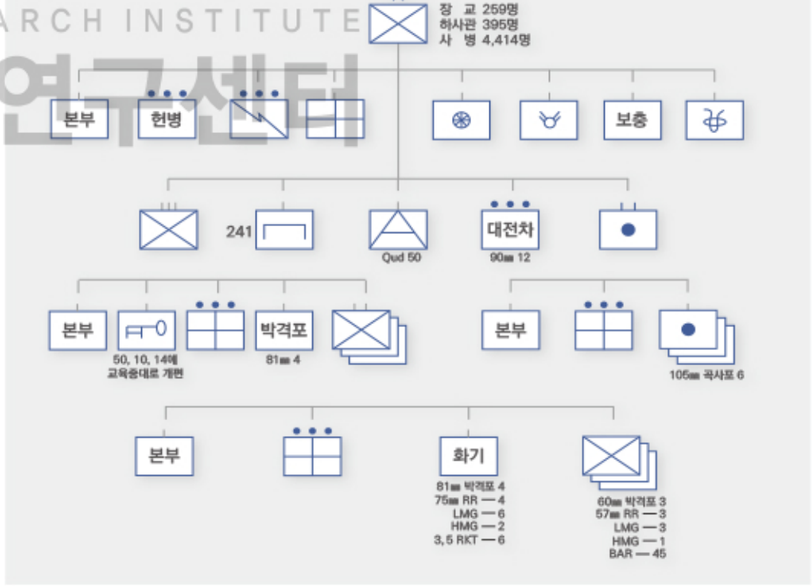
튀르키예의 신속한 파병 결정에는 몇 가지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첫째는 세계평화의 확립이 곧 튀르키예의 조국과 가정에 필요조건이라는 튀르키예인들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었다.[6] 둘째는 소련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었다. 소련의 위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다르다넬스와 보스포러스 해협의 통제권을 요구하고 북쪽의 아나토리아(Anatolia) 지방의 합병을 갈망하면서 증폭되었다. 이에 튀르키예는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 아래 소련과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7] 따라서 튀르키예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유엔의 집단행동에 동참함으로써 강한 결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훗날 자신들의 나라에 좀 더 많은 미국의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셋째는 1949년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된 후 여기에 가입하려는 튀르키예의 열망을 현실로 실현할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에 NATO에 가입하여 유럽 지역 군사동맹 체제의 주요 구성 국가가 되었다.[8]



1950년 8월 한국 파견을 앞둔 튀르키예 군인들
(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타흐신 야즈즈 준장, 젤랄 도라 대령,
나트크 포이라즈오울루 중령이 사열을 받고 있다.

2) 파한(派韓) 튀르키예군 제1여단 편성과 한국 파병

한국 파병이 결정되자, 튀르키예 육군은 1950년 8월 3일을 기해 보병 제28사단 제241연대(연대장 Celal Dora 대령)와 제2기갑여단 제2포병대대(대대장 Tahsin Kurtay 중령)를 중심으로 '파한(派韓) 튀르키예군'이라는 전투부대를 편성하였다. 또한, 튀르키예군 제8군단 예하 제4군관구에서 공병, 수송, 의무, 병기, 통신 등의 지원부대를 차출하여,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한 여단급 전투부대 편성을 완료하였다. 이 여단의 여단장에는 9월 10일 제2기갑여단장인 야즈즈(Tahsin Yazici) 준장이, 참모장에는 토케이(Selahattin Tokay) 중령이 각각 임명되었다. '튀르키예 제1여단'으로 명명된 이 부대는 1950년 9월 13일까지 병과별 단기 교육을 완료하고, 9월 14일 앙카라 에티메스굿(Ankara-Etimesgut)에 집결하였다.[9]



튀르키예 제1여단 편성표(국가보훈처, 2007,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터키군 6·25전쟁 참전사』, 64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 9월 제1차 한국 파병 군인들의 선박 승선(ATASE 제공)



1950년 9월 파병 군인들이 탄 배를 향해 인사하는 튀르키예 국민들(ATASE 제공)



한국에 도착한 튀르키예 제1여단(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파병 당시 튀르키예 제1여단의 총병력은 5,090명이었으며, 이들은 에티메스굿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열차로 이동해 9월 20일 항구도시 이스켄데룬(Iskendrun)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제1여단은 3개 제대로 나뉘어 9월 25일부터 미 수송선으로 한국을 향해 출항하였다.[10] 한국전쟁에서 영연방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전국은 자체적인 무기체계가 부족해 미군의 무기와 전술에 의존했으며, 튀르키예 제1여단도 항해 도중 동승한 미군 교관에게서 미제 무기 운용법과 전술을 교육받았다. 21일간의 항해 끝에 튀르키예군의 제1제대가 부산항에 도착한 것은 1950년 10월 17일이었다.

한국전쟁에서 튀르키예군은 제1여단의 참전을 시작으로 이후 제2여단과 제3여단이 약 1년 주기로 교대하며 전선에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우리 전투, 김량장·151고지 전투, 수리산 전투, 장승천 전투, 사기막 전투, 네바다 전초전 등 주요 전투에 참여하여 활약하였다.[11] 한국전쟁 기간 튀르키예군의 참전부대와 주요 지휘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제1여단장 타흐신 야즈즈(Tahsin Yazıcı)



제2여단장 나므크 아르구츠(Namık Argüç)



제3여단장 스르 아자르(Sırrı A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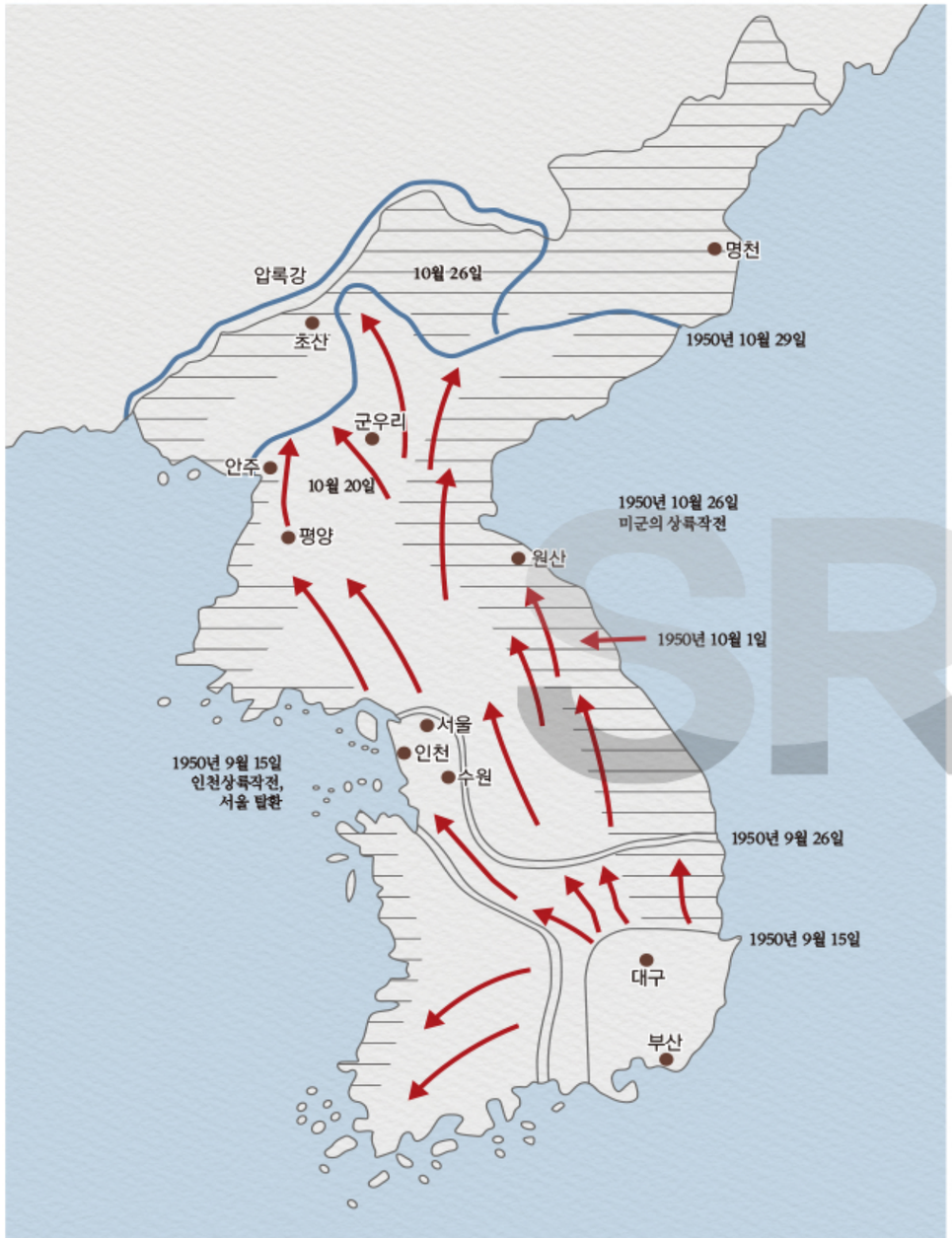
표 1 튀르키예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직위	지휘관			비고
		계급	성명	참전기간	
제1여단	여단장	준장	Tahsin Yazıcı	1950년 9월~1951년 12월	
	제1대대장	소령	Imadetin Kuranel	1950년 9월~1951년 4월	
	제2대대장	소령	Mithat Uluunlu	1950년 9월~1951년 5월	1951년 5월 17일 전사
	제3대대장	소령	Lutfu Bilgin	1950년 9월~1951년 5월	1951년 5월 23일 전사
	포병대대장	소령	Tahsin Kurtay	1950년 9월~1951년 8월	
제2여단	여단장	준장	Namık Argüç	1951년 8월~1952년 9월	
	제1대대장	소령	Tahir Alaybeyii	1951년 6월~1952년 8월	
	제2대대장	소령	Enver Saltik(Atak)	1951년 8월~1952년 9월	
	제3대대장	소령	Yekta Koran	1951년 8월~1952년 9월	
	포병대대장	소령	Kerim Kirtes	1951년 6월~1952년 8월	
제3여단	여단장	준장	Sırrı Acar	1952년 7월~1953년 9월	
	제1대대장	소령	Fahrettin Ulukan	1952년 7월~1953년 9월	
	제2대대장	소령	Nizazi Bengisu	1952년 7월~1953년 9월	
	제3대대장	소령	Turgut Vural	1952년 7월~1953년 9월	
	포병대대장	소령	Faruk Guventurk	1952년 7월~1953년 9월	

자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유엔군 참전편 [II]』, 1980, 387~388쪽.

튀르키예 제1여단은 부산 도착 후 대구 유엔군 수용대로 이동해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전선 투입 전까지 보급로 경계 임무와 미제 무기 사용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에 전선 상황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넌 중공군이 10월 25일을 기해 제1차 공세를 시도하여 압록강으로 향하던 유엔군의 진격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 9월 15일~11월 25일 UN군의 반격작전

저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 제8군 사령관 워커(Walton H. Warker) 중장은 한강 이남에서 작전 중이던 미 제9군단과 함께 튀르키예 여단에 전선 진출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튀르키예 여단은 11월 12일까지 평양 북방 군우리로 이동할 계획을 세웠다.

튀르키예 여단의 첫 전선 이동은 준비 단계에서 일부 작전계획이 수정되었다. 북한군 유격대가 이천·평강·철원·연천·개성·금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자, 워커 미8군 사령관은 미 제25사단과 함께 튀르키예 여단을 후방지역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하였다. 튀르키예 여단은 11월 16일까지 철도편으로 장단 지역에 집결한 후 20일까지 보급로 경계 임무와 북한군 유격대 소탕 작전을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군 참전 후 첫 전사자를 비롯해 총 2명이 전사하였다.[12]

2. 튀르키예군 제10여단의 주요 전투

1) 군우리 전투(1950년 11월 26일~12월 1일)

군우리 전투는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한 미 제8군이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직면하여 철수작전을 수행할 때, 튀르키예 제1여단이 군우리–순천 협곡 지대에서 중공군 제38군 소속 제112·113·114사단의 공격을 받아 이를 돌파하며 전개한 철수작전이다. 군우리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80㎞ 지점에 있으며, 청천강 하류 평야 지대가 끝나는 지점이자 동쪽으로 묘향산의 험준한 산맥과 이어지는 청천강 주변에 자리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튀르키예군의 군우리 전투는 단순히 군우리 협곡에서의 철수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어진 일련의 전투를 포괄한다. 튀르키예군은 11월 26~28일 저녁 와원리에서 중공군과 첫 교전을 벌였고, 28일 밤부터 29일 오후까지 신립리에서,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봉명리–군우리 철수로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지연시켰다. 이어 11월 30일 아침부터 12월 1일까지 '태형의 계곡'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으로 알려진 군우리-순천 간 협곡 지대에서 포위망을 돌파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튀르키예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군우리 전투라 부른다.[13]

튀르키예군이 후방지역 게릴라 소탕작전을 벌이던 장단 지역에서 전방인 군우리로 이동을 완료한 것은 1950년 11월 26일이었다. 미 제9군단 예비로 군우리 남서쪽 2.5㎞ 지점에 집결하고 있던 튀르키예군은 한국군 제2군단의 덕천-영원 선이 붕괴되자 군우리에서 덕천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군우리-덕천 간 도로는 1,000m 이상의 산악지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험로로서, 특히 와원-알일령-용덕리 구간 20㎞는 바위와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통행에 큰 제약이 있었다.

1950년 11월 25일 군우리 전투를 위해
이동하는 튀르키예 제1여단(ATASE 제공)



11월 26일 18시, 명령에 따라 튀르키예군은 부여단장 도라(Dora) 대령이 지휘하는 '도라특수임무부대'를 선두로 와원리로 향해 자정을 넘어 도착하였고, 다음 날 덕천으로 진출하던 중 알일령을 통과할 즈음 덕천 진출을 중지하고 용덕리 부근에 저지진지를 구축하라는 수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여단장은 현 상황에서는 군단이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병력을 다시 와원리로 복귀시켰다.

약 10시간의 강행군 끝에 와원리에 돌아온 튀르키예군은 휴식 중 후미가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소대장들이 전사하고 미 고문관이 포로가 되었다. 튀르키예군은 대응을 시도했으나 적의 진출로 실패했고, 중공군은 도로와 산악을 통해 공격하여 격전이 벌어졌다. 제2·제3대대가 여러 차례 공격을 격퇴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했으나, 11월 28일 대규모 공격으로 진지 일부가 무너지자 도라 대령이 직접 2㎞ 후방에 위치한 여단 본부로 가서 여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방어에 좀 더 유리한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여단장은 적 병력을 2개 사단 규모로 판단하고, 5㎞ 후방 신립리를 새로운 저지선으로 정해 28일 15시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14]

일몰 무렵 튀르키예 여단은 신립리로 철수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좌우에 우군 없이 고립된 채 공포와 추위, 배고픔 속에서 1950년 11월 28일을 보냈다. 미 제9군단은 이날 24시부로 여단을 미 제2사단에 배속시켰지만, 여단은 임무를 받지 못했고 통신도 끊긴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29일 0시, 중공군은 양측에서 기습을 가하고 피란민으로 위장한 병력까지 투입해 차량과 탄약, 포병대대, 박격포중대, 제3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진지는 불바다가 되었고, 병사들은 무질서하게 봉명리 방면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포를 견인해야 할 포차나 박격포를 실어야 할 차들도 포를 버린 채 콩나물시루처럼 병사들을 싣고는 서로 앞을 다투어 빠져나갔다. 칠흑 같은 밤에 차를 타지 못한 병사들이 빠져나가는 차를 타려다 차에 치이기도 하는 등 일대 혼란이 야기되었다.

중공군의 기습 1시간 뒤, 봉명리 학교 건물에 있던 여단본부는 신립리에서 부대들이 무질서하게 철수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본부 앞 도로는 차량과 병사들로 혼란스러웠고, 신립리 방향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이어졌다. 여단장은 전방 제1·2대대와 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 11월 군우리 전투 당시 튀르키예군(ATASE 제공)



1950년 11월 30일 포화 속에서 철수하는 튀르키예 군인들(ATASE 제공)

신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때 신립리 동쪽의 제2·제3대대도 적의 기습을 받아 교전 중이었다. 여단장은 우선 봉명리 동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전방부대와 연락이 되는 대로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헌병소대를 투입해 질서를 회복하고, 차량에 탑승한 병사들을 하차시켜 철수 병력을 150명 단위로 재편성해 동쪽 야산에 투입하였다. 또 군우리로 철수한 병력 복귀를 위해 장교들을 파견했으며, 미 제2사단에 지원을 요청해 전차 1개 소대가 증강된 미 제38연대 제3대대가 봉명리 북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혼란을 수습한 여단장은 군우리의 탄약과 식량을 봉명리로 옮기고 전방 대대들과 교신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당시 제1·2대대는 중공군의 파상공세에 맞서 백병전을 벌이며 고립된 채 사투를 이어가고 있었다. 포위망 속에서 지휘관이 착검하고 선두에서 돌진하자 병사들이 뒤따라 돌격해 퇴로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 병사들의 전통적인 용맹이 유감없이 드러났다. 결국 전방부대는 29일 오후에야 봉명리로 철수할 수 있었으며, 튀르키예 제1여단은 미 제8군 우측을 위협한 중공군의 대규모 침투를 24시간 동안 저지한 뒤 포위망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희생도 컸는데, 제1대대에서 전사 16명, 부상 17명, 실종 8명 등 41명의 피해가 발생했고, 제2대대에서도 18명이 부상했으며 다른 부대의 피해는 확인조차 어려웠다.[15]

11월 29일 17시경 북쪽 방어를 맡던 미군 대대가 중공군에게 밀려 여단에 알리지도 않고 철수함으로써 여단본부가 위험에 처하였다. 군우리로 이어지는 도로 쪽에서 격렬한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곧이어 미군을 태운 차량이 군우리 방향으로 떠나는 것을 확인한 여단장은, 단독으로 현 진지를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 부대에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제2·제3대대가 먼저 이동하고, 제1대대가 미 전차소대와 함께 후위를 맡아 철수를 개시하였다. 봉명리 서쪽 900m 지점부터 뱀처럼 굽은 도로를 포병 등 일부 병력이 빠져나간 후 보병부대가 진입할 무렵 도로 양편에서 적의 기관총과 포탄이 쏟아졌다. 여단은 소규모 부대 단위로 분산하여 철수하였으나, 후미에서 철수하던 제1대대는 적의 공격으로 진출하지 못한 채 고지에 머물게 되었다.

11월 29일 자정 무렵, 무선 교신이 재개되면서 튀르키예 제1여단은 미 포병대대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원 포격과 유엔공군의 항공지원으로 철수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여단은 30일 새벽 군우리 서남쪽 외곽에서 미 제2사단 제38연대와 합류해 사단 집결지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2대대는 미군 차량으로 안주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던 여단은 미 제2사단 주력과 함께 철수했으나, 양측 능선을 장악한 중공군이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을 퍼부으며 '태형의 계곡'이라 불린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 철수 대열은 순식간에 지휘 체계가 붕괴하여 혼란에 빠졌고, 튀르키예군은 제1대대장 대리가 전사하는 등 큰 피해를 당한 끝에 계곡을 벗어나 12월 1일 아침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 장병들은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며 착검 후 적진으로 돌격해 강한 군기와 응집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군우리 전투 7일 동안 튀르키예 제1여단은 병력의 15%와 105㎜ 곡사포를 포함한 주요 장비 70%를 상실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튀르키예군의 결사적인 분전 덕분에 미 제2사단은 계곡을 돌파할 수 있었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16]

튀르키예 제1여단은 12월 5일 개성을 거쳐 7일 서울 서쪽 18㎞ 지점인 소사에 도착해 부대를 재편하였다. 이후 12월 10일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문산 서쪽 임진강 방어 임무를 맡았고, 14일에는 김포반도로 진출하였다. 여단은 1951년 1월 4일까지 이 지역을 방어한 뒤 수원과 오산을 거쳐 천안으로 이동하여 미 제25사단과 함께 군단 예비로 편성되었다.[17]

2) 김량장 및 151고지 전투(1951년 1월 25~27일)

김량장 및 151고지 전투는 1951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전투로, 미 제1군단 예하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튀르키예 제1여단이 수행하였다. 이 전투에서 여단은 중공군 제50군 소속 제149사단 제447연대와 제150사단 제448연대를 격퇴하고 김량장과 151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김량장은 현재 용인시 처인구에 속하고, 151고지는 기흥구 보라동에 해당하며, 신갈저수지 동쪽 약 3㎞ 지점에 위치한다. 두 지역은 오산-송전리 선에서 수원-광주 방



1951년 1월 12일~11월 27일 한국군과 UN군의 반격작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1월 27일 151고지를 점령한 튀르키예군(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고지를 향해 포복으로 전진하는 튀르키예군(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면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있어 전술상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지였으며, 특히 151고지는 1번 국도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제고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았다.

중공군의 제3차 공세(신정 공세)로 북위 37도선까지 밀려난 유엔군은 1951년 1월 15일 공세로 전환한 후 1월 25일부터 공격부대를 증강하여 단계적인 반격 작전을 시작하였다. 썬더볼트작전(Operation Thunderbolt)으로 명명된 이 작전에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미 제25사단을 공격부대로 투입하였으며, 미 제25사단은 5개의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1번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에서 북상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단의 우측 부대로 튀르키예 제1여단이 신갈과 김량장 탈환을 목표로 진격하였다.[18]

튀르키예 제1여단은 안성-송전 선에 전개하여 12㎞에 달하는 넓은 정면을 공격하기 위해 2개의 공격 제대로 나뉘었으며, 제2대대가 김량장을, 제1·제3대대가 151고지를 공격하였다. 당시 중공군도 이 선에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월 26일 튀르키예 제1여단의 공격작전은 김량장에서 제2대대가 먼저 시작하였다. 김량장 전투에서는 고착된 상황을 개척하려는 튀르키예군과 결사적으로 현 진지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중공군 간에 격전이 계속되었다. 이날 일몰 직전에 제2대대가 유엔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으며 시가지 중심부로 돌진해 김량장을 탈환했지만, 시가지로부터 북쪽 고지군에 이르는 200m가량의 개활지를 돌파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날 김량장에서 약 8㎞ 서쪽에 위치한 신갈의 151고지에서는 정오부터 제3대대가 목표를 탈환할 때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제3대대는 군우리 전투에서의 불명예를 만회하려는 듯 쏟아지는 적탄을 뚫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였다. 대대원들은 요새화된 중공군 진지로 돌격하면서 '알라'를 외쳤고, 백병전을 통해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3대대의 151고지 점령은 김량장 전선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퇴각으로 제2대대가 1월 27일 오전 시가지 북쪽 고지군을 탈환할 수 있었다.[19]

김량장과 151고지 전투에서 튀르키예 장병들은 총검을 이용한 백병전으로 1명당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약 40명의 중공군을 무찌르며 '용감한 튀르키예군'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3일간의 전투에서 확인된 중공군 전사자 수는 김량장 전투에서 77명, 151고지 전투에서 397명으로, 총 474명에 달하였다. 이들 전사자의 대부분은 개머리판에 의해 턱이 깨지고, 총검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국제합동통신(UPI) 기자가 151고지 전투 상황을 생생하게 전 세계에 보도하면서, 참전국들 사이에서는 '백병전' 하면 튀르키예군을 떠올릴 정도로 "인류 역사상 길이 빛날 튀르키예군의 전공"이라는 극찬이 쏟아졌다. 이 전공으로 튀르키예 제1여단은 1951년 7월 6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1952년 9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20]

김량장과 151고지 전투 이후 튀르키예군은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안양·군포·안산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에서 중공군 150사단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 장승천 전투(1951년 4월 22~23일)

장승천 전투는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천군 신서면 장승천 일대에서 벌어진 방어전투로,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튀르키예 제1여단이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4·제35사단과 제60군 예하 제181사단의 공격을 이틀 동안 저지한 전투였다.

김량장 전투 이후 튀르키예 제1여단은 미 제25사단에 계속 배속되어 유엔군의 반격 작전에 참가했으며, 안산·양수리·퇴계원·포천을 거쳐 1951년 4월 초에는 38도선 북쪽의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양양을 연결하는 캔사스선(Line Kansas)까지 진출하였다. 이는 전쟁 전의 영토를 회복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유엔군은 휴전을 염두에 두고 이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한편, 공산군도 38도선 북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중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철의 삼각지대(평강·철원·김화 일대)에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켰으며, 유엔군은 이를 근거로 공산군이 방어보다는 대규모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밴플리트 미 제8군 사령관은 중부전선에서 캔사스선의 방어 종심을 확대하고 공



1951년 4월 23일 튀르키예 포병대대(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산군의 공세 준비를 차단하기 위해, 철원과 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연천-고대산-와수리-화천저수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선인 와이오밍선(Line Wyoming)을 설정하고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이를 점령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제1여단은 1951년 4월 5일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해 4월 21일 장승천 부근까지 진출했으나, 중공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였다. 결국 튀르키예군은 장승천 북방의 옛고개, 306고지, 350고지, 348고지, 425고지로 이어지는 고지군에 급히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중공군은 1951년 4월 22일 저녁, 한국전쟁 참전 이후 다섯 번째 공세인 이른바 '춘계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날 초저녁부터 포격이 이어지다가 저녁 7시 15분경 급격히 강도가 높아지며 약 40분 동안 튀르키예 제1여단 전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어 저녁 8

시를 전후하여 중공군 제60군 제181사단이 튀르키예 제1여단과 우측의 미 제24사단을 분리하기 위해 전투지경선을 따라 공격을 가했고, 동시에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4사단과 제35사단이 여단 정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튀르키예군은 수적 열세에 더해 진지조차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력을 다해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장병들은 피리와 나팔을 불며 돌입하는 중공군과 뒤엉켜 백병전을 치렀으나, 도중에 포병 지원이 중단되면서 전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중공군은 여단을 정면에서 압박하는 동시에 좌우 인접 부대와의 전투지경선 부근에 연대 규모 병력을 투입해 튀르키예군을 포위하려 하였다. 결국 이날 자정 무렵 미 제25사단장은 튀르키예군에 한탄강 남쪽의 캔사스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여단 우측으로 침투한 중공군이 철수로 상의 요충지인 다라미고개를 차단하여 여단의 철수는 위기에 빠졌다. 이때 제3대대가 끝까지 철수 병력을 엄호한 덕분에 1951년 4월 23일 새벽 2시 30분경 본대가 무사히 철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철수 과정에서는 퇴로가 차단되어 중공군에게 포위된 제9중대가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중대장을 포함한 다수의 병력이 부상을 입거나 포로가 되었다. 특히 철수로 상의 요충지인 다라미고개 정상에 배치된 제1중대 경계소대는 본대의 철수를 끝까지 엄호하면서 중공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소대원 전원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렀다.[21]

장승천 전투에서 튀르키예군은 전사 66명, 부상 35명, 실종 105명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으나, 중공군 3개 사단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지연시켜 인접 부대들의 안전한 철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이 차후 반격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22]

장승천 전투 이후 튀르키예 제1여단은 수리산, 퇴계원, 불암산, 포천, 김화 등지에서 1951년 6월 19일까지 작전을 수행한 뒤 퇴계원 부근 내곡리로 이동하였다. 이때는 전쟁 양상이 기동전에서 진지전으로 전환되던 시기였으며, 튀르키예 제1여단도 제2여단과 교대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951년 6월 18일 기준으로 튀르키예 제1여단은 전사 423명, 부상 1,118명, 실종 293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반면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를 각각 38명과 308명 확보하고, 1만 명(추정)의 전사상자를 낳게 하였다. 또한 노획한 무기로는 105㎜ 곡사포 2문, 75㎜ 곡사포 3문, 기관총 26정, 소총 158정 등이 있었다.[23]

3. 튀르키예군 전투부대 교대와 주요 전투

튀르키예군은 퇴계원 부근 내곡리에서 부대 정비와 훈련을 하는 동안에 약 8개월간 한국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제1여단을 대신해 제2여단이 임무 교대를 시작하였다. 임무 교대는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는 1951년 7월 2일 제2여단의 1진이 인천에 도착한 뒤 이들과 교대한 제1여단의 귀국 1진이 7월 15일에 본국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제2차는 9월 13일에 제2여단의 2진이 인천항에 도착해 제1여단 잔여 병력과 함께 합동 근무를 하면서 현지 적응하는 것으로 수행되었고, 제2여단의 잔여 병력이 제3차로 11월 18일 인천항에 도착하였다.[24]

튀르키예 제2여단이 활동할 당시에는 정전회담과 고지쟁탈전이 병행되던 시기였다. 정전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전선이 소강상태였으나,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군사작전의 목표를 정전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는 데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는 공방전보다 진지전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따라서 튀르키예 제2여단도 대규모 교전보다는 정찰 및 방어에 주안점을 두고 작전을 전개하였다. 여단은 1952년 2월 23일 서부전선의 방어 임무를 종결하고 중동부전선으로 이동해 단장의 능선 우측에서부터 가칠봉 좌측까지의 진지를 점령하고 적과 대치하였다. 이곳에서 제2여단은 1952년 6월 제3여단과 교대할 때까지 적과 전초전을 벌였는데, 특히 샌드백 캐슬(Sandbag Castle) 전초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부여단장 누리 파미르(Nuri Pamir) 대령이 전사하기도 하였다.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2월 2일 튀르키예 제2여단의 한국 도착(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제2여단과 제3여단의 교대는 1952년 6월에 시작되었다. 장교 90명과 사병 1,364명으로 구성된 제3여단의 1진은 6월 15일 부산에 도착하여 23일에 제2여단과 임무 교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2년 8월 20일, 제3여단이 제2여단의 임무를 모두 인계받은 뒤 미 제25사단의 작전통제 하에 계속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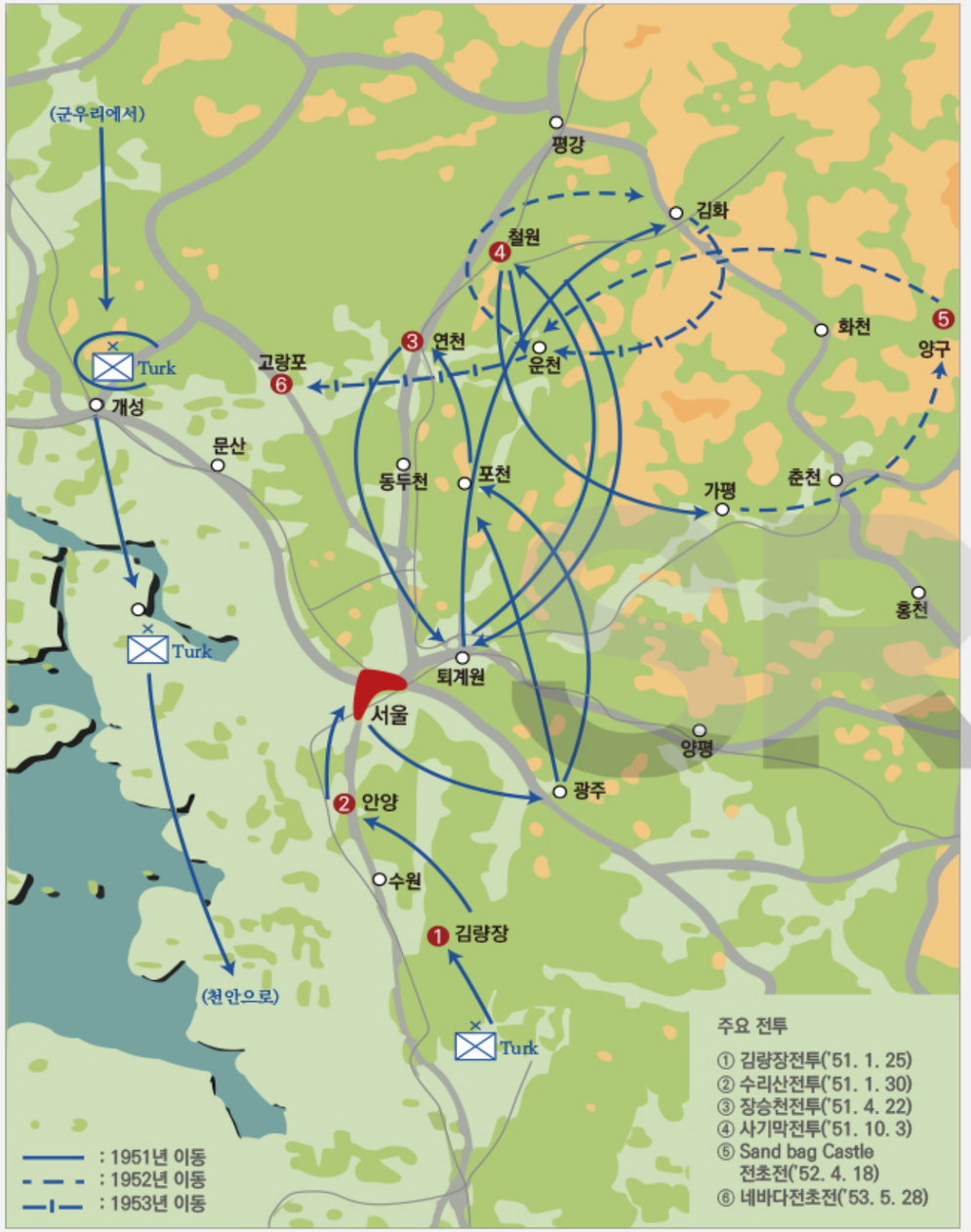
튀르키예 제3여단의 주요 전투로는 1953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 인근 고랑포에서 중공군 제120사단 예하 제358·제360연대와 벌인 이른바 '네바다 전초전'을 들 수 있다. 제3여단은 1953년 5월 2일 미 제25사단이 미 해병 제1사단과 임무를 교대함에 따라 고랑포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중공군의 최후 공세 시기에 이 전초전을 수행하였다. 당시 공산군은 유엔군의 보복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후 공세를 감행해 점령지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휴전 반대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튀르키예 보병부대(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중공군의 최종 목표는 한국군 제2군단이 담당하던 화천 북방의 금성 돌출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그들은 5월 27일부터 이른바 6월 공세(1953년 5월 27일~6월 16일)를 감행해 금성돌출부 지역 우측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양공이나 양동 작전으로 전 전선에 걸쳐 전초전을 감행하였다. 튀르키예 여단이 배치된 서부전선에서도 중공군 제19병단의 공격으로 격렬한 전초전이 전개되었다.

당시 튀르키예군은 아바(Ava), 카슨(Carson), 엘코(Elko), 베가스(Vegas), 베를린(Berlin), 동베를린(East Berlin) 등 7개의 주요 전초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 중 미국 네바다주의 지명을 따 명명된 카슨, 엘코, 베가스 전초는 군단의 후방지역까지 감제 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튀르키예군 주요 전투 상황도(손규석·조성훈·김상원, 2015, 『6·25전쟁과 UN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9쪽)

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지물이었다. 중공군 제46군 제120사단이 5월 28일 밤 이곳을 공격하면서 네바다 전초전이 시작되었다.

튀르키예군은 5월 29일 저녁까지 베가스 전초를 다섯 차례나 빼앗기고 빼앗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이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카슨과 엘코 전초에서는 중공군의 맹렬한 공격을 끝내 막아내지 못하였다. 확보한 베가스 전초 역시 인명을 아끼지 않는 중공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미 제25사단장 윌리엄스(Samuel T. Williams) 소장의 철수 명령에 따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단장은 베가스 전초가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의 전술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로써 '네바다 전초전'은 일단락되었다. 비록 이틀간의 전투였지만, 튀르키예 제3여단에서 전사 151명, 부상 239명, 실종 2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네바다 전초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네바다 전초전 이후 여단 정면의 상황은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매일 3~4명의 손실이 발생하는 포격 및 정찰전이 계속되었다. 이후 여단은 1953년 7월 7일 임무를 미 제7해병연대에 인계하고 의정부 5㎞ 동남쪽에 있는 용현동으로 이동하여 미 제1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이곳에서 튀르키예 제3여단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제4여단과 임무 교대를 수행하였다.[26]

4. 튀르키예군의 참전 결과와 정전 후 활동

튀르키예군은 한국전쟁 동안 연인원 2만 1,212명을 파병하여 전사·사망자 966명, 부상자 1,155명, 포로 234명의 인명 손실을 기록하였다.[27] 참전 기간 중 군우리 전투, 김량장·151고지 전투, 장승천 전투, 네바다 전초전 등에서 보여 준 용맹은 전사에 길이 남을 만큼 눈부신 것이었다. "튀르키예군의 전투는 백병전으로 끝난다."라는 말은 그들의 용맹성을 잘 드러낸다.

튀르키예 제1여단은 김량장 및 151고지 전투의 전공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으로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 12월 13일 미8군 사령관 월턴 워커에게 표창을 받는 튀르키예 부대(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부터 각각 부대 표창을 받았으며, 군우리 전투의 공적으로도 미국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하였다. 제3여단은 네바다 전초전의 전공으로 미국 공로 훈장을 받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튀르키예 장병들에게 을지무공훈장 10회, 충무무공훈장 22회, 화랑무공훈장 10회를 수여하였고, 미국 정부는 은성훈장 5회, 동성훈장 7회를 수여하였다.[28]

전선 곳곳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튀르키예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의정부 부근 용현리에 주둔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4년 여름에 주력이 철수한 뒤에도 1960년 8월까지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이 파병되었다. 여단 규모로는 튀르키예 제10여단이 가장 마지막이었으며 이후 1960년 6월부터는 파견 규모를 축소하여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1966년 7월 6일 상징적으로 남겨두었던 1개 분대 규모의 의장대를 제외한 마지막 1개 중대가 귀국하였다. 1971년 6월 27일 의장대원 11명마저 귀국함으로써 튀르키예군의 한국전쟁 참전사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부대 표창을 받는 튀르키예 보병부대(국가기록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제4여단장 케말 아쿠르트
(Kemal Akkurt)



제5여단장 메테 유르다쿨
(Mete Yurdakul)



제6여단장 힐미 기라이
(Hilmi Giray)



제7여단장 제밀 울루체비크
(Cemil Uluçevik)



제8여단장 니야지 첼리크
(Niyazi Çelik)



제9여단장 라심 아타칸
(Rasim Atakan)



제10여단장 파흐리 왼괴르
(Fahri Öngör)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ncerning the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at the 473rd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25 June 1950(S/1501)」,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74004?v=pdf#files), 2025년 8월 4일 검색.
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ncerning the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at the 474th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27 June 1950(S/1511)」,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504316?v=pdf), 2025년 8월 4일 검색.
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ncerning the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at the 478th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7 July 1950(S/1588)」,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74613?v=pdf), 2025년 8월 4일 검색.
4 박동찬, 2016,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3~74쪽.
5 손규석·조성훈·김상원, 2015, 「6·25전쟁과 UN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7쪽.
6 Muge Ocal, 2018, 「한국전쟁과 터키 군의 참전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쪽.
7 박동찬, 2016, 「한국군 건설의 기획자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한양대학교출판부, 94~95쪽.
8 박동찬, 2016, 「한국군 건설의 기획자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한양대학교출판부, 100쪽. 멘데레스 총리는 한국전쟁 참전 결정에 대해 "터키의 나토가입에 가교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으며(알리 데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2014,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4쪽), 케인 상원의원도 1950년 7월 25일 성명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터키의 나토가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Muge Ocal, 2018, 「한국전쟁과 터키 군의 참전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쪽).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 : UN군 참전편 Ⅲ」, 289~290쪽.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 : UN군 참전편 Ⅲ」, 290쪽. 튀르키에 제1단의 제1제대(1,882명)는 9월 25일에 제너럴 맥레이(General Mcrae)함으로, 제2제대(2,461명)는 26일에 제너럴 하안(General W. Haan)함으로, 그리고 제3제대(740명)는 29일에 프라이빗 존슨(Private Johnson)함으로 각각 출항하였다.
11 국가보훈처,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 : 터키군 6·25전쟁 참전사」, 2007, 64~97쪽.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 : UN군 참전편 Ⅲ」, 291~295쪽.
13 알리 데니즐리 지음, 이선미 옮김, 2014,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41~54쪽.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6·25전쟁사 :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⑦, 450~453쪽.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 : UN군 참전편 Ⅲ」, 308~318쪽.
16 손규석·조성훈·김상원, 2015, 「6·25전쟁과 UN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12~213쪽.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 : UN군 참전편 Ⅲ」, 324~326쪽.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6·25전쟁 주요전투 1」, 452쪽.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6·25전쟁 주요전투 1」, 453~454쪽.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6·25전쟁사 :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⑧, 239~240쪽.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6·25전쟁 주요전투 1」, 502~504쪽.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 : UN군 참전편 Ⅲ」, 357쪽.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 : UN군 참전편 Ⅲ」, 365쪽.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 : UN군 참전편 Ⅲ」, 370쪽.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 : UN군 참전편 Ⅲ」, 373~374쪽.
26 국가보훈처, 2007,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 : 터키군 6·25전쟁 참전사」, 92~96쪽.
27 손규석·조성훈·김상원, 2015, 「6·25전쟁과 UN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21쪽.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한국전쟁사 : UN군 참전편 Ⅲ」, 387쪽.

03

세대를 잇는 전쟁의 기억 : 튀르키예 3대가 겪은 세 개의 전쟁

손예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1950년 10월 한 젊은 튀르키예 군인이 한국의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75년 뒤 그의 손자 에크렘 카라데니즈(Ekrem Karadeniz) 소령도 한국 땅을 밟았다. 유엔군 사령부 소속 네덜란드 왕립 육군인 에크렘에게 한국은 단순한 파견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할아버지와의 약속, 에크렘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곳이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네덜란드에 병력 파견을 요청하였는데, 그 파병지는 바로 한국이었다. 이 요청은 네덜란드군 내 파견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되었고, 한국으로 갈 파병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다. 마침 우연이었는지, 에크렘은 다섯 달 전 다른 부서에서 파견 담당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에크렘 할아버지의 참전사를 잘 알고 있었던 상사는 그에게 파병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상사가 파견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물었기에, 에크렘은 거절하였다. 그는 군 생활 중 계속된 파견 업무로 지쳐 있었고, 집 가까이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자 상사는 파견지가 한국이라고 해도 갈 의사가 없는지를 다시 물어보았고, 에크렘은 "지금 바로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지금 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에크렘이 꼭 가고 싶었던,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 한국에 갈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에크렘은 한국으로 파견된 세 명의 인원 중 한 명이 되었고, 2025년 1월 6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세 세대의 전쟁과 기억

에크렘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이다. 이는 그의 가족과 얽힌 참전사 때문이다. 에크렘의 집안은 대대로 군인의 길을 걸어온 가문으로, 3세대에 걸쳐 세계사의 굵직한 전쟁에 참여해 왔다.

표 1 카라데니즈 가문의 참전 현황

이름	소속	참전 경험	비고
메흐메트 카라데니즈 (Mehmet Karadeniz)		제1차 세계대전 튀르키예 독립전쟁	에크렘의 증조부
이스마엘 카라데니즈 (Ismail Karadeniz)	튀르키예 제1여단	한국전쟁	에크렘의 조부
에크렘 카라데니즈 (Ekrem Karadeniz)	네덜란드 왕립 육군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본인(구술자)

에크렘의 증조할아버지인 메흐메트 카라데니즈(Mehmet Karadeniz)는 제1차 세계대전, 튀르키예 독립전쟁, 그리고 예멘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이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진 큰 전투 중 하나인 갈리폴리 전투에 참전하였고, 이후 와하비 세력과 싸우기 위해 예멘으로 파견되었다. 예멘 전선에서 전투 중 포로로 잡혀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7명의 동료와 함께 극적으로 탈출하여 예멘에서 튀르키예까지 도보로 귀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휘하의 군인이 되어 튀르키예 독립전쟁에 참전하였고, 이즈미르를 포함한 서부 지역 해방 작전에 참여하였다. 증조할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전장을 누비며 12번이 넘게 부상을 입었지만, 매번 살아남아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에크렘은 증조할아버지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주위 어른들로부터 그의 용맹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는 예멘 전투 당시 포로로 잡혔을 때도 끝까지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와하비 세력을 지원하던 동맹국 장교가 그에게 커피를 내오라고 명령하자, 그는 순순히 따르는 척하며 커피를 내놓은 뒤 그 자리에서 테이블을 뒤엎었다. 분노한 장교가 그를 붙잡고 위협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



튀르키예 독립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 보병들(1922년, 『Milliyet』 소장)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주년 기념 연설 중인 아타튀르크(1933년, 튀르키예 대법원 소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고 침을 뱉으며 "죽일 테면 죽여 보라."고 소리쳤다. 그의 기개에 감탄한 다른 장교가 나서 처벌을 막았고, 별다른 처벌 없이 상황이 정리되었다.

튀르키예 독립전쟁 중 이즈미르 인근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한 일화도 듣게 되었는데, 당시 증조할아버지의 전우였던 이는 "그의 전투 능력은 무서울 정도로 대단했다."고 회상하였다. 증조할아버지가 속해 있는 부대가 작은 마을 근처를 지나던 중, 적군이 마을 여성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병력의 규모 차이가 커 즉시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 전우가 곧장 공격하자고 했으나, 증조할아버지는 "지금 움직이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하며 부대를 멈췄다. 밤이 깊어지자 그리스군이 술에 취해 잠들었고, 그는 공격 허가를 받아 부대를 이끌고 진입해 적을 제압하였다.

증조할아버지는 전쟁 후유증 때문인지, 1950년 55세라는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의 죽음은 에크렘의 할아버지인 이스마엘 카라데니즈(Ismail Karadeniz)의 한국전쟁 참전 계기가 되었다. 이스마엘 카라데니즈는 1928년생으로, 1950년에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을 잃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가족 세 명을 잃은 이스마엘은 삶에 대한 의지를 잃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라디오에서 정부가 한국전쟁에 병력을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스마엘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에 한국전쟁에 지원할 것을 결심하였다. 거기다 전쟁에 나가 전사하면 남은 가족들에게 보상금이 나왔다. 이발사인 큰형의 수입만으로는 가족들이 풍족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국전쟁이 자신에게 더욱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이스마엘은 곧바로 친구 세 명과 함께 부대 지휘관을 찾아가 참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휘관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라며 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최근 참전용사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조국을 품고 있다면, 어디에 가서 무엇



1950년 한국으로 떠나는 파병 군인들을 배웅하는 시민들(튀르키예 군사박물관 제공)



짐을 들고 한국행 배에 승선하는 튀르키예 군인들(튀르키예 군사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 튀르키예 제1여단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스마엘 카라데니즈
(튀르키예군사박물관 제공)

을 먹고 마시든지 그곳이 곧 조국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지휘관은 깊이 감동하여 이스마엘과 친구들의 참전을 허락하였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튀르키예 여단에 합류해 한국행 배에 오르게 되었다.

2. 한국 땅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다

튀르키예 여단은 1950년 9월 앙카라에서 기차를 타고 항구 도시인 이스켄데룬에 도착한 후 한국행 배에 올랐다. 한국까지의 항해는 약 28일이 걸렸다. 에크렘이 이스마엘에게 이 항해가 어떠했는지 묻자, 이스마엘은 특유의 표정으로 슬쩍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나오는 웃음이었기에 에크렘은 한국으로의 여정에서 무언가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튀르키예 여단은 부산에 도착한 뒤 기차를 타고 대구로 이동하였다. 약 열흘간의 훈련을 마친 튀르키예 여단은 울산, 평택, 수원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였다. 그 무렵 튀르키예 사령부는 전선 근처에서 수행될 위험 임무에 자원할 병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그 임무는 전방에 접근해 약 100~115m 크기의 백색 사각 플라스틱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일이었다. 이는 파일럿들이 아군 위치와 전선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였고, 그 신호에 맞춰 폭격이 이루어졌다. 이 임무는 폭격에 휘말리거나 적군에게 포로로 잡힐 위험이 매우 커 사실상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다.

가능한 빠르게 전사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스마엘은 자신이 이 임무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였고, 지원 명단에 바로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한 병사가 다가와 대대장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하였다. 수백 명을 지휘하는 대대장이 자신을 호출했다는 사실에 놀란 이스마엘은 곧 대대장을 찾아갔다.

대대장은 이스마엘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군이 이스마엘 카라데니즈인가?"라고 물었다. 이스마엘은 그렇다고 답하였다. 대대장은 대답을 듣더니 이스마엘의 얼굴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러더니 고향을 물어보았고, 이스마엘은 앙카라라고 답하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집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스마엘(우측)과 동료(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다. 대대장은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무스타파 카라데니즈라는 사람이 있나?"라고 물어 보았고, 이스마엘은 웃으며 큰형의 이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대대장은 곧바로 이스마엘의 뺨을 두 대 내리쳤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미친 임무에 지원한 건가!"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다.

대대장의 이름은 미크타트 울루윈뤼(Miktat Uluünlü)로, 튀르키예 제1여단 제2대대장이었다. 대대장은 과거 초급 장교 시절 앙카라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부대의 이발사가 무스타파 카라데니즈, 즉 이스마엘의 큰형이었다. 둘은 돈독한 친구 사이였기에, 대대장은 명단에서 '카라데니즈'라는 이름을 발견한 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불러 확인했던 것이었다. 결국 이런 인연으로 이스마엘은 해당 임무를 맡지 못하게 되었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여러 전투를 치르는 동안, 전사할 계획이었던 이스마엘의 생각은 점차 바뀌어 갔다. 전쟁 한복판에 놓인 한국인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며 그는 자신의 고통을



1950년대 한국전쟁기 고아들(ATASE 제공)

되돌아보게 되었다. 민간인들이 처한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고,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스마엘은 그런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는 그만의 감정이 아니었다. 함께 파병된 다른 튀르키예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보급품을 한국인들을 위해 기차역에 그대로 남겨 두고 떠나곤 하였다. 한국인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본 이상, 그 음식을 입에 넣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고,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3. 생존의 전선, 군우리 전투

1950년 11월 튀르키예 제1여단은 군우리 전투에 참전하게 된다. 중공군이 미 제8군의 전선을 돌파하며 남하하자 튀르키예 여단은 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로 긴급히 전선에 투입되었다. 11월 27일 새벽, 후위 정찰대가 철수 도중 중공군의 급습을 받으며 전투가 시작되었다. 정찰대는 밤새도록 격전을 벌여 여단이 전투태세를 갖출 시간을 벌어 주었지만, 장교 2명과 병사 4명만이 생환하였다.

이후 튀르키예 여단은 군우리에서 덕천까지 이동하며 중공군의 연속적인 공격을 받았다. 당시 여단은 측면과 후방이 모두 열려 있는 상태였으며, 미군의 지원 없이 홀로 포위망을 돌파해야 하였다. 더욱이 당시 유엔군 내에는 튀르키예어 통역사가 없었고, 전황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부대는 퇴각을 시작했지만, 튀르키예 여단은 그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중공군에게 포위된 상태였다. 튀르키예군은 지도를 꺼내 들고 인근의 미군과 프랑스군 위치를 확인했지만, 다른 부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중공군은 두 개 사단을 투입해 튀르키예군 세 개 대대를 압도적인 병력으로 포위하였다. 그러나 튀르키예 여단은 끊임없는 저항을 이어가며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것을 세 차례나 반복하였다. 보급품과 탄약이 소진된 뒤에는 총검 돌격을 감행하며 백병전에 나섰고, 병사들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밀집하여 전열을 유지하였다.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가장 마음을 졸이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은 튀르키예에 남아 있는 참전용사들의 가족이었다. 당시는 전쟁에 참전한 가족, 친구의 소식을 신문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투 첫날, 튀르키예 신문에는 '튀르키예 여단, 와원(瓦院)에서 백병전 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자신의 아버지, 형, 친구가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에는 '튀르키예 여단, 다섯 배에 달하는 적과 교전 중, 여단장의 생사 확인되지 않아'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또다시 밤을 새워 가며 기사를 기다렸다. 그다음 날에야 '여단장 생존 확인'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튀르키예 여단이 무사하다는 마지막 기사가 보도되기 전까지, 이런 기다림은 참전용사들의 가족에게 큰 걱정과 고통을 주었다.



1950년 군우리 전투 중 휴식하고 있는 튀르키예 군(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한편, 이스마엘이 있었던 군우리 전선의 상황은 처참하였다. 전투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붕괴된 상태에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에 여러 부대의 병사들과 함께 모여 있었다. 대부분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고, 불리한 전황으로 공포에 질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튀르키예 제1여단장 타흐신 야즈즈(Tahsin Yazici)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세계가 제군들을 지켜보고 있다. 중공군의 포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에 남을 용감한 군인이 될 것인가?"라고 외쳤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깃발을 땅에 꽂으며 한 병사에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었다. 그 병사가 이스탄불이라고 답하자 장군은 "이곳이 이스탄불이라고 생각하고 지키게."라고 답하였다. 그 뒤, 모든 병사에게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지금 있는 곳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라고 외쳤다. 이스마엘은 그 순간 함께 있던 병사들의 전의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 기세로 이어진 사흘간의 전투에 치열하게 임하였다.

미군 병사 앤서니 허버트(Anthony Herbert)는 그의 회고록 『Herbert-The making of a soldier』(Hippocrene Books, 1982)에서 군우리 전투의 참혹함과 튀르키예 군인들의 용맹함을 글로 남겼다. 그는 부대이동 중 낙오되어 우연히 튀르키예군과 합류하게 되었고, 전투의 전 과정을 함께 겪게 되었다. 물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몸짓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 다음 날 아침, 앤서니의 눈에 비친 튀르키예 병사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온 듯 차를 마시며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은 180도 달라졌다. 무서운 기세로 전투에 임했으며, 단 한 발의 총알도 낭비하지 않고 적군에게 정확히 명중시켰다.

전투 마지막 날, 튀르키예군의 탄약이 모두 소진되었다. 그 순간 병사들은 서로를 껴안기 시작하였다. 미군 병사였던 앤서니는 처음에는 그 포옹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훗날 그것이 다가올 백병전을 앞두고 전우들과 나누는 마지막 인사이자 작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튀르키예 병사들은 총 앞에 대검을 장착하고 전투 준비를 마쳤다. 중공군의 수적 우세를 고려하면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이었기에, 앤서니는 대검을 이용해 공격을 시도하려는 튀르키예 군인들을 무모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결연한 태도를 본 앤서니는 결국 그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튀르키예군이 다시 공격을 개시하자, 이를 예상치 못했던 중공군은 놀라서 크게 흔들렸고, 전황은 점차 뒤바뀌기 시작하였다. 앤서니는 당시 튀르키예 군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UN이든, 신이든, 그 누구든 간에, 내가 그 전투에서 튀르키예군과 같은 편이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라고 회고하였다.

전투가 이어질수록 오히려 중공군이 포위되는 형세가 되었다. 앤서니는 튀르키예 병사들의 무서운 용기와 기개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특히 그들의 '총검술'은 생전 처음 접하는 전투 기술이었다. 그 기술은 전투 동작을 넘어, 마치 이슬람 수도승 '데르비시(Dervish)'의 춤처럼 보였다. 칼을 휘두르며 몸을 회전시키는 그들의 동작은 마치 전장의 춤 같았고, 동시에 적에게는 치명적이었다. 튀르키예군의 총검술은 전투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앤서니 허버트는 이 전투에서 보여 준 용감한 행동으로 튀르키예군과 함께 훈장을 받았으며, 한국전쟁 중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공식 훈장을 받은 유일한 미국인이 되었다.



미 제7군 사령관 워커에게 훈장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여단 사령관 타흐신 야즈즈(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군이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시작했을 무렵, 유엔군 측에서는 그들이 이미 전멸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당시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병사 한 명당 8~10명의 적군을 상대해야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튀르키예군은 약 17%의 병력을 잃는 선에서 중공군 약 5,000명을 사살하며 포위망을 뚫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미 언론은 "중공군보다 더 놀라운 것은 튀르키예군의 용맹함이었다."라고 평가했고, 미 제8군 사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령관 워커(Walton H. Walker)는 "튀르키예군이 사흘 동안 벌어 준 영웅적인 전투가 아니었다면, 제2사단은 전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우리 전투는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었다. 이는 전면 붕괴 위기에 처한 전선을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주력을 포위하기 위해 전선을 돌파했지만, 튀르키예군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미 제8군은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었다. 튀르키예군이 지켜낸 '사흘의 시간' 덕분에 유엔군은 전면 포위를 피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전황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결국 튀르키예 여단은 미 8군의 철수로를 지켜내었고, 한국전쟁사에 길이 남을 공을 세웠다.

4. 복수와 승리, 김량장리 전투

군우리 전투 이후 재정비를 마친 튀르키예 제1여단은 미 제25사단 예하 부대로 배속되었다.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남하하여 한강 이남에 전력을 집중하자, 튀르키예 여단은 안성 방면에서 철수 중이던 아군의 측면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후 미 제8군 사령관 리지웨이(Ridgway)는 중공군의 작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찰 공격을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튀르키예 여단은 1951년 1월 24일부터 김량장리 방면으로 진격해 갔다. 주요 전선은 156고지 일대였으며, 중공군은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해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다.

이스마엘도 김량장리 전투에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튀르키예 부대가 정찰 도중 소수의 중공군 병력을 발견해 그들을 사살하였다. 전사자의 유품을 수색하던 병사들은 군우리 전투에서 사망한 동료의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김량장리에서 마주한 중공군이 바로 군우리 전투 당시 튀르키예 여단을 포위했던 부대였다. 이는 병사들의 전의에 불을 지폈다. 병사들은 이를 단순한 전투가 아닌 '복수의 기회'라 여겼으며, 전사한 전우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싸움에 임하였다. 이스마엘은 훗날 이 전투를 떠올리며 손자 에크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투에 나가기 전, 마치 결혼식 전날처럼 가슴이 뛰었다."

김량장리 전투를 앞두고, 인근에 있던 미군 전차대대는 튀르키예 여단에 병력 지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튀르키예 군인들은 정중히 이를 거절하였다. 이번 전투는 군우리 전투에서 전우를 잃은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었고, 설사 자신들이 전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튀르키예군은 미군으로부터 받은 다수의 수류탄을 모두 몸에 착용하여 전투 준비를 마쳤다. 이후 몇 시간에 걸쳐 포복으로 중공군 진지 가까이 접근한 뒤,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하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류탄이 모두 폭발하자 튀르키예 병사들은 총검을 들고 즉시 백병전에 돌입하였다. 튀르키예군은 파죽지세로 맞서 싸우기 시작하였고, 중공군은 그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김량장리 전투에서 상대 진영을 조준하고 있는 튀르키예군(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전투를 마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튀르키예 군인들('LIFE' 제공)



이후 미군 전차대대의 대대장이 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투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중공군이 모두 철수한 뒤였으며, 들판 전체에 중공군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 미군 측의 공식 전투 결과 집계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총 1,734명의 중공군이 사망했고, 부상 또는 생포된 포로의 수는 82명에 달하였다. 반면 튀르키예군의 사상자는 전사자 12명, 중상자 4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에 불과하였다. 전우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전투에서 돌아오는 모든 튀르키예 군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량장리 전투를 통한 튀르키예군의 집중 공격으로 중공군 수백 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포로로 잡히면서 전황은 급격히 뒤바뀌었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이 처음으로 명확한 패배를 경험한 전투로 기록되었으며, 이 승리는 유엔군이 철수 계획을 재고하게 하였고, 전선을 유지하며 다시 반격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승리로 튀르키예 여단은 비(非)미군 부대로서는 처음으로 미 의회로부터 '우수부대훈장(Meritorious Unit Commendation)'을 받았다. 튀르키예군의 활약은 자유진영 국가들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한국전쟁의 향후 전황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튀르키예 여단 병력의 세 배가 넘는 중공군을 세 차례나 연이어 격퇴시킨 튀르키예 여단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51년 한국 대통령에게서 부대표창(Presidential Unit Citation)을 받았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5. 전쟁 속 희망의 이름, 양카라학원

튀르키예 군인들은 전투를 거듭하며 한국의 여러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튀르키예 군인들은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깊이 마음 아파하였다. 튀르키예 문화에서는 아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에, 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그들은 길에서, 산에서 아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부대로 데려왔다. 이는 군 규율상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아이들이 적국의 첩자일 가능성도 있었고, 실제로 전



튀르키예 군인과 아이(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군인과 고아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1957년 튀르키예 군인들과 양카라학원 원생들(에크렘 카라데니즈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

쟁 중 아이들이 첩자 역할을 하여 정보가 새어 나간 일도 있었다. 튀르키예 군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아이들을 자신들의 부대로 데려왔다. 그렇게 부대 안으로 데려온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자, 부대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워졌다. 이에 튀르키예군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앙카라학원'이었다.

앙카라학원은 한국전쟁 당시 외국 군대가 설립한 최초의 고아원이었으며, 튀르키예 군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었다. 병사들은 자신의 월급 일부를 모아 학원을 후원했고, 자신들이 받은 음식이나 의류도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다. 아이들의 옷은 주로 일본에서 사들여 보냈고, 그 덕분에 앙카라학원의 아이들은 전쟁 중에도 비교적 좋은 옷과 따뜻한 식사를 누릴 수 있었다.

군인들은 종종 고아원을 직접 찾아 아이들과 놀아 주거나 악기를 나누어 주며 함께 음악을 배우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튀르키예군 부대를 찾아가 위문공연을 펼치기도 했고, 이러한 교류는 튀르키예군이 철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국으로 파병 온 튀르키예 군인은 앙카라학원을 찾아 아이들과 인연을 맺는 것이 일종의 전통처럼 이어졌다. 에크렘의 친족들은 이 특별한 인연을 이어 갔는데, 이스마엘의 처남도 1958년, 증위로 한국에 파병되어 앙카라학원을 방문한 바 있다.



앙카라학원 아이들이 만들어 준 주머니에 담긴 카라데니즈 가문의 부적 (에크렘 카라데니즈 제공)

에크렘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부적도 앙카라학원과 깊은 인연이 있다. 이 부적은 튀르키예 국기 무늬의 주머니에 싸여 있는데, 부적을 싸고 있는 이 주머니는 약 70년 전 앙카라학원의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부적의 역사는 에크렘의 증조할아버지 메흐메트로부터 시작되었다. 메흐메트가 전쟁에 나설 때,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뜻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만들어 주었고, 해당 부적은 훗날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이스마엘에게 전해졌다.

한국전쟁에서 돌아온 이스마엘은 군인이 된 손자 에크렘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나가게 되었을 때 부적을 손에 쥐여 주며 이야기하였다.

"이 부적을 가지고 내 아버지가 집에 무사히 돌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돌아온 것처럼, 너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후로 에크렘은 모든 작전을 나설 때 이 부적을 옷 속에 넣어 두었다.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이 부적은, 에크렘이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며 75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하나의 낡은 부적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전쟁 속에서 맺어진 인연과 에크렘 가족들의 헌신, 그리고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의 깊은 정을 잇는 상징이 되었다.

6. 끝나지 않은 전쟁

1951년 이스마엘은 한국을 떠나 앙카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그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가 열렸다. 가족들은 이스마엘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였고, 이스마엘의 형은 신께 감사하는 뜻으로 양 두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스마엘은 전통에 따라 제물로 바쳐진 양 두 마리를 뛰어넘었고, 이후 가족 모두가 함께 고기를 나누며 그의 무사귀환을 축하하였다.

이스마엘에게 한국전쟁 참전은 자부심이자 명예였다. 중요한 행사나 기념일에는 한국전쟁에서 받은 훈장을 늘 가슴에 달았으며, 집 대문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집 (Korea veteran Ismail Karadeniz)'이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 두었다. 또한 이스마엘은 한국전쟁 참전 사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코리안(Korean)'이라 불렀고, 그가 거리를 지나가면 커피숍에 앉아 있던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하곤 하였다.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쟁이 끝난 후 앙카라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이스마엘(에크렘 카라데니즈 제공)



한국전쟁 전공으로 얻은 공훈 메달을 가슴에 달고 결혼식을 올린 이스마엘(에크렘 카라데니즈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스마엘은 이후 이발사로 일하며, 또 다른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1964년 이스마엘은 부인과 함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삶과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 네덜란드로 이주하였다. 그들이 처음 정착한 곳은 네덜란드의 알멜로(almelo)라는 도시였고, 정육 공장에서 일하다 마스트리흐트(Maastricht)로 이주하여 타일 제작 공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근무하였다. 이스마엘이 처음 네덜란드에 왔을 때는 가족의 수가 적었지만, 은퇴할 무렵에는 23명의 대가족이 되어 있었다. 2007년,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동년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삶의 마지막을 조국에서 보내기 위해 이스마엘은 부인과 함께 다시 고향 앙카라로 돌아왔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로서의 자부심과는 별개로, 이스마엘은 자신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오랜 시간 전쟁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에크렘이 군인이 되어 전투에 앞서 교육을 받을 때였다. 정신과 의사들이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에 대해 강연하며 몇 가지 증상을 보여 주었다. 에크렘은 그 증상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는 참전용사였던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에크렘은 가족 어른들에게 증조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평소에는 온화했지만, 특정한 자극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고, 잠든 상태에서도 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다. 잠을 자면서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질하며 "너희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 "복수할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다. 잠을 잘 때 언제나 한쪽 눈을 다 감지 않은 채로 잠이 들었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가족들은 단지 그가 예민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으나, 그것이 전쟁의 후유증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전쟁 참전용사로부터 자신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에크렘에게 "당신의 할아버지도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조용히 전하였다. 이스마엘은 전쟁에서 돌아온 후 60년 동안 아무에게도 전쟁의 기억과 아픔을 털어놓지 않았다. 누군가 그 경험이나 기억에 대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스마엘의 부인조차도 그가 몇십 년 동안 종종 악몽을 꾸며 괴로워했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이스마엘의 침묵이 깨진 것은, 에크렘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에서 돌아온 후였다. 에크렘은 자신의 파병 경험을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해 할아버지에게 보여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마엘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다. 입대 배경부터 한국에 도착한 이야기, 전투 중 겪은 일과 부상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기억을 차분히 풀어놓았다. 때때로 말을 멈추기도 했지만, 그는 에크렘에게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순간 에크렘은 이스마엘에게 한 명의 참전용사로 인정받았다.

7. 시간을 넘은 임무, 기억으로 이어지다

에크렘은 어릴 때부터 군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랐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배웠고,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그가 군인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였다. 네덜란드 군인으로 복무하며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여러 작전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군인이 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한국전쟁 참전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후, 에크렘은 자신의 경험은 할아버지의 참전 경험과 비교할 바가 아님을 깨달았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겪은 혹독한 환경과 절망적인 전황 속에서의 전투는 자신이 겪었던 것과 전혀 다른 수준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에크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애를 넘어선 다른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과 할아버지의 참전 경험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군이 전쟁 중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앙카라학원을 세운 것처럼, 에크렘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 갈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

에크렘이 파견된 지역은 부족 간 오랜 갈등으로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고, 아이들 역시 각자 부족 내에서 서로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다. 해당 지역에 파견된 에크렘과 호주 군인들은 힘을 합쳐 부족장과 지역 지도자 등 총 87명의 대표를 모아 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 함께 생활하고 놀 수 있게 하자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 진행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을 설득하며 양측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에크렘과 동료들은 그들에게 다음 세대는 싸움 없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해당 일을 진행하였다.

이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아이들은 함께 공부하고, 장난감을 나누며 친구가 되었다. 에크렘과 동료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에게는 자전거를 선물하며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 이후 그 지역 부족들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는 에크렘이 머물던 부대 인근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때 에크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스마엘의 훈장들(에크렘 카라데니즈 제공)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훗날, 할아버지에게 앙카라학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에크렘은 '나도 같은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그는 왜 이스마엘이 아이들을 돌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같은 마음이 세대를 건너 이어졌음을 깨닫고, 그 순간 할아버지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후 에크렘은 한국전쟁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를 포함한 참전용사들의 기록을 하나둘 모아갔다. 그들의 경험을 알면 알수록 깊은 존경심이 생겼고, 이 기억을 남기고 전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크렘은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도 되는지 물었고, 이스마엘은 자신이 죽고 난 뒤, 모두에게 알리라고 대답하였다.

현재 에크렘은 암스테르담에서 사회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힘이 있다면, 그것을 선하게 써야 한다.'라는 신념 아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을 통해 전하고 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는 매달 한 번씩 뉴스레터를 작성해 한국에 대한 소식과 역사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에크렘 가족의



이스마엘(왼쪽)과 에크렘(오른쪽)(에크렘 카라데니즈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네덜란드 한국전쟁 참전용사 행사에 참석한 에크렘(에크렘 카라데니즈 제공)

3대에 걸친 군 복무와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에크렘은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필요한 일이었을 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에크렘은 할아버지와 한국을 함께 다시 방문하자는 약속을 했었다. 전쟁 중 거쳐 갔던 장소들을 다시 함께 방문해 보자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2019년 이스마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약속은 에크렘의 몫이 되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사회 활동을 이어 오던 에크렘은 우연히 70년 전 이스마엘의 임무와 마찬가지로 UN사령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원, 용인, 평택, 부산 등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지역을 직접 찾아다녔다. 앙카라학원이 있었던 자리 근처의 서호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도 전하였다. 에크렘의 동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네가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었구나(You closed the circle)."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에크렘은 2025년 4월 할아버지와의 약속이자 임무를 완수하였다.

에크렘은 누군가의 이야기 혹은 누군가의 삶은 기록하지 않으면 한 세대만 지나도 사라지지만, 누군가 기록한다면 모두가 기억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매일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진 작은 부적처럼, 기억도 그렇게 전해진다. 에크렘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와 기록은 앞으로도 시간을 넘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이어질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2부

한국전쟁 피란민과 전쟁고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수원의 피란민과 피란민촌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1. 수원으로 밀려드는 피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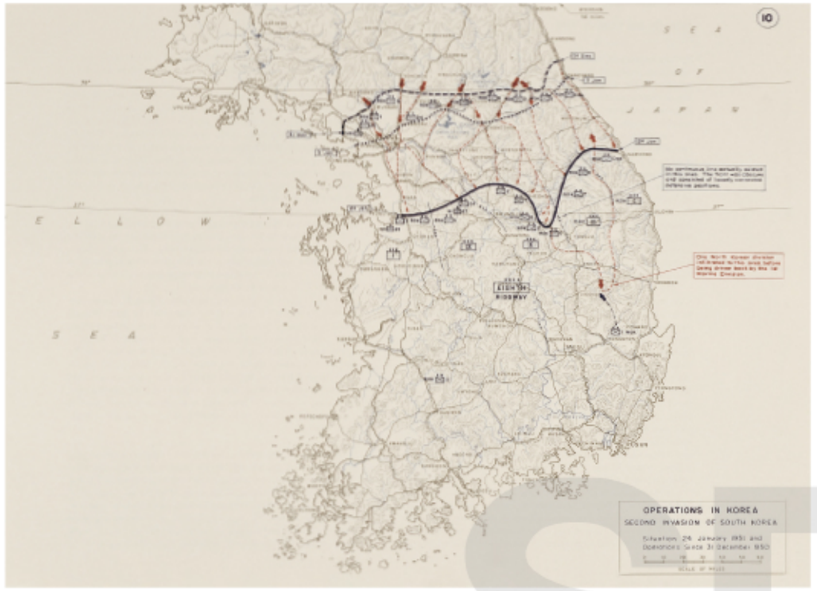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였으나 정부의 피란민 대책은 즉각 나오지 못하였다. 전쟁 개시 후 보름 정도가 지난 7월 9일 국군은 육군본부에 민사부를 설치하였고, 7월 10일 정부는 실질적인 피란민 대책인 '피란민 분산 계획 요령'을 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 각 지사에게 내렸다.[1]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피란민 구호 대책 요강'에서는 대구-영천-경주-포항을 잇는 직선의 남쪽, 대구-경산-청도-밀양-창원을 잇는 선의 동쪽 지역, 기타 완전한 지역 및 제주도 내에 피란민을 수용하도록 정하였다.

피란민은 갈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수용소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빈 건물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피란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사회부장관이 귀속재산 건물과 그 외의 건물에 피란민을 수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고, 피란민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게 하였다.[2]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면서 전세가 역전되어 미군과 국군은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시작하였지만, 곧 중공군의 참전으로 1951년 1·4후퇴가 일어났다. 한강 선에서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은 수원과 오산을 지나 평택에서 안성을 연결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1·4후퇴 당시 수원역
(국가기록원 제공)



1951년 1월 위도 37~38도선에서 전개되는 전투(이뮤지엄 제공)

는 37도 선까지 철수하였다. 1951년 1월 7일 수원은 중공군 제50군에게 점령당했고, 이때 수원역은 남행열차를 타기 위한 피란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중공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피란민들은 더욱 늘어 갔고, 남하를 시작한 피란민들은 일일 평균 3만 명 이상이 반월-수원-신갈-이천-여주를 연결하는 피란민 통제선을 통과하였다. 이렇듯 전쟁 발발 직후와 1·4후퇴기에 수많은 피란민이 수원으로 밀려왔고, 수원을 경유하여 남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때 수원은 피란민들의 통과지역이었다.

1951년 1월 27일 미 제1군단이 수원의 칠보산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수원을 재탈환하자, 경기도는 1951년 2월 18일 '경기도구호대'를 편성한 후 2월 24일 구호대를 수원으로 이동시켜 안성·평택·화성·용인·수원·광주에 집결해 있는 피란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3] 당시 수원지구에는 15만 명의 피란민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한파와 식량난으로 아사상태에 빠져 있었다.[4]

피란민의 규모가 커지고 그 경로도 복잡해지면서 정부는 피란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5] 통계에 따르면 1951년 3월 셋째 주부터 복귀하는 피란민이 추산되었고, 그 수는 4월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반월-수원-신갈-이천-여주를 연결하는 지역의 북방에서는 중공군이 집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북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 지역에 있는 피란민들은 천안 이남으로 피란할 것을 권고하였다.[6]

4월 27일에 '서울철수령'이 선포됨에 따라 서울에서 피란민들이 수원, 인천 등으로 더욱 몰려들었다. 남쪽으로 피란 갔다가 한강 이북으로 올라가려는 북상 피란민들과 '서울철수령'으로 남하하려는 피란민들이 몰려 수원은 거대한 '피란민수용소'를 이루었다.

한편 1951년 3월 20일 수원시청이 복귀하고, 4월에는 경기도 임시청사가 수원에 설치되면서 피란민 구호가 본격화하였다. 5월 경기도 일대에 140만 명의 피란민이 모여들자 경기도청은 반월-수원-용인-이천을 운수하는 A선과 발안-평택-안성-장호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1월 유엔군에게 재탈환된 수원시 중동(이뮤지엄 제공)

을 운수하는 B선을 정하고 이 두 선에 중앙정부, 경기도청, 시·군청 세 관청에서 의료반, DDT반, 공급반을 편성한 후 피란민에게 구호미를 무상공급하고 천막을 배포하였다.[7] 이때 정부는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먼 곳으로 피란민을 남하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 때문에 구호미도 남하자를 1순위로 하여 지급되었는데, 남하자는 수원시에서 3일치의 식량을 받은 후 평택에서 가서 다시 받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피란민을 수용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기간 구호본부로부터 1만 8,000석의 구호미를 받아 가지고 있으며 배급대상을 삼구분하여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남하자를 1위, 수원 체류자를 2위, 원주민 복귀자를 3위로 정하고 비농가와 공무원 및 동 가족에게는 매일 1인당 2홉 5작씩의 유상배급을 하고 극빈자에게는 일재 구호미를 풀어 구호미와 부식비 50원씩을 배급하였었다 한다. 그러나 남하자에 한하여서는 그들의 남하를 권유하기 위하여 수일 전 3일분의 식량을 배급하였을 뿐 수원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식량배급을 중지하여 남하민의 수원 집중을 피하려는 듯한 현상에 있는데, 5일 경기도 산업국장이 언명한 바에 의하며 남하자 특배용으로 구간 확보 중에 있던 700톤의 쌀은 유엔민사처의 특명 있을 때 배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5일부터 이를 배급하기로 연락이 되어 있어 남하자는 언제나 수원에서 3홉씩 3일분의 식량배급을 받고 길을 떠나면 평택에 가서도 동량의 배급을 계속하여 수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8]

그러나 1951년 5월 수원시는 8만 6,106명에 달하는 피란민과 4만 5,887명의 원주민, 제2국민병 귀환 장정 등 20만 명을 구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구호미가 남아 있지 않아 배급을 실시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수원시는 피란민의 수원 집중을 우려해 식량 배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수도 서울에 통하는 관문이며 서부 일대 교통의 중심지인 수원시는 이제는 북상 남하하는 피란민의 집산지이기도 하여 피란민들의 집산이합이 심하고 따라서 피란민구호도 수원을 중심지로 전개하고 있는 이즈음 전황의 호전과 함께 또다시 피란민들이 시내 각처에 모여들기 시작하여 5월 9일 현재 시내 전체 난민의 총수는 8만 6,106명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 통계에 들지 않은 추정인원까지 승하면 십만을 넘을 것이라고 수원시 당국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여기에 수원시의 원주민인 4만 5,887명을 합하여 십오만가량의 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 제2국민병 귀환 장정들이 통과하고 있는 수원시로서는 결국 피란민, 시민, 귀환 장정 등 약 20만 명을 구호 구제하여야 하게 되고 말았다 한다. 그러나 수원시에는 5월 15일 현재까지 쌀 한 톨 없이 다 굶어먹고 빈손을 털고 20만 명의 구호대상을 대하게 된 한심하고도 놀라운 형편에 처해 있다.[9]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팔달산 자락에 자리한 피란민촌(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수원으로 피란 온 조선일보 이야기


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 應 謨
印刷人 金 振 浩
印刷所 水原市
發行所 朝鮮日報社

수원에서 발행된 『조선일보』

1951년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에 밀려 4월 25일 또다시 '서울철수령'이 내려지자, 피란길에 오른 조선일보사 사원들은 평판기 한 대와 활자 약간을 트럭에 실었다. 목적지를 대전으로 잡았지만 수원에서 트럭이 고장 났다. 마침 전선이 소강 상태여서 수원에서 신문을 내기로 했다. 당시 수원경찰서장 최정득의 도움으로 경찰서 앞에 있던 경기도립병원 사택에 '조선일보사 수원임시발행소'를 차렸다. 그들은 서울을 떠난 지 1주일 만인 1951년 5월 3일에 "살길은 무엇인가, 수원에서 본보를 내며"라는 기사를 실은 타블로이드판(2면) 신문을 발행하였다. 그것이 『조선일보』 '제4차 전시판'이었다. 이에 따라 1951년 5월 3일자(8,582호)부터 7월 31일자(8,671호)까지 『조선일보』의 발행 주소는 '수원시'였다.

수원 시절의 전시(戰時) 편집반은 라디오 한 대를 주 취재원으로 삼았다. 몇몇 기자가 일선 취재에 나서기는 했으나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을 뒤져 헌 라디오 한 대를 구입하였다. 라디오를 듣고 쓰는 뉴스를 '알피통신'이라 불렀는데, '알피(RP)'는 'Radio Press'의 첫 글자이다. 이에 [워싱톤 ○○일발 알피-수원통신], [동경 ○○일발 RP수원], [부산 ○○일발 RP수원]이라는 표시를 달고 기사가 실렸다.

기자가 최전선에 특파되거나 피란민 대열을 따라가 르포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 수원 피란민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사화되었다. 또한 1951년 5~8월에는 가족들을 찾는 수원 피란민들의 광고가 대거 게재되었고, 1951년 6월 2일자부터 7월 7일자까지 32회에 걸쳐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들 이름과 나이, 살던 곳을 신문에 실었다. 이는 언론이 펼친 최초의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이었다. 이 외에도 수원으로 피란 나와 임시 진료소를 차린 의원과 약국, 경기도계엄민사부, 수원경찰서 등에서 광고를 게재하였다. 전시 중이었지만 그날그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조선일보』는 인기를 끌어 발행 부수가 1만 부를 넘어섰다.


全戰線은極히平穩
敵死傷七萬五千(九日間에)
敗敵、中東部에移動
六百十一億弗
救護에萬全態勢
살길은무엇인가
水原에서本報를내며!
知事 李海翼
道 議
京 畿
署長 崔正得
署 察
警 察
水 原
署長 崔正得
警察課長 李三龍
警察係長 金漢根
警察係長 李正鎭
保安係長 朴周恩
京畿道警察局長 崔應福
警察部長 韓景祿
內務局長 尹源善
文教社會局長 金弘植

수원에서 발간된 『조선일보』 1951년 5월 3일자 1면
라디오를 듣고 쓴 뉴스기사를 '알피(RP)통신'이라 하였는데, 알피-수원통신으로 표기되어 있다.

가족을 찾는 수원 피란민들의 광고

('조선일보', 1951년 5~8월)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연구소

女兒를찾음

姜文子 七歲 女兒 이르 모쌍계올
이지고원는이를찾습니다

姜文淑 四歲 女兒 절이 모눈부
이가 昨年十月에 함께 어니와 함께이
다가 安養近處에서 消息이 모눈부
끈아줍시나 있는것을 이시는
분은 하기로通知 하여주시면 厚謝
하겠나이다
水原市細柳洞(버스내)二六番地
서울特別市西大門區新門路一街
一七一의六
指金順粉
水原警察署朝鮮日報社
戰時移動編輯班

다섯살된사나이
오세웅 이를찾음
교 눈이쌍꺼풀지고 부
원자쓰에 국방색양복바지입고 키
전을입었음 이아이를 지난十八日영
동시장에서 잃었으니 보시거나 아지
하분은알려주시면사례를하겠습니다
수원적골공장내 오 한석
서우제 서울중노동가二九

찾는사람
서울城東區往十里洞七五
姜舜默 이를찾음
우記人의居所를아시는분은左記場所
로連絡하여주시면感謝하겠습니다
水原市飛行場內 生活協力會社
李英植



1951년 5월 철원 근교의 공산군 보급창을 폭격하는 미 5공군 452경폭격비행단 B-26 폭격기(국사편찬위원회 | NARA 제공)



1951년 6월 26일 후방으로 피란하기 위해 철원에서 운송수단을 기다리는 피란민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6월 27일 며칠간 고갯길을 넘어 전선에서 후방으로 피란하는
운송수단이 출발하는 철원에 도착한 피란민들(국사편찬위원회 | NARA 제공)



1951년 7월 4일 후방으로 피란하기 위해 철원에 모인 한국인
피란민에게 먹을 것을 주는 UN군(국사편찬위원회 | NARA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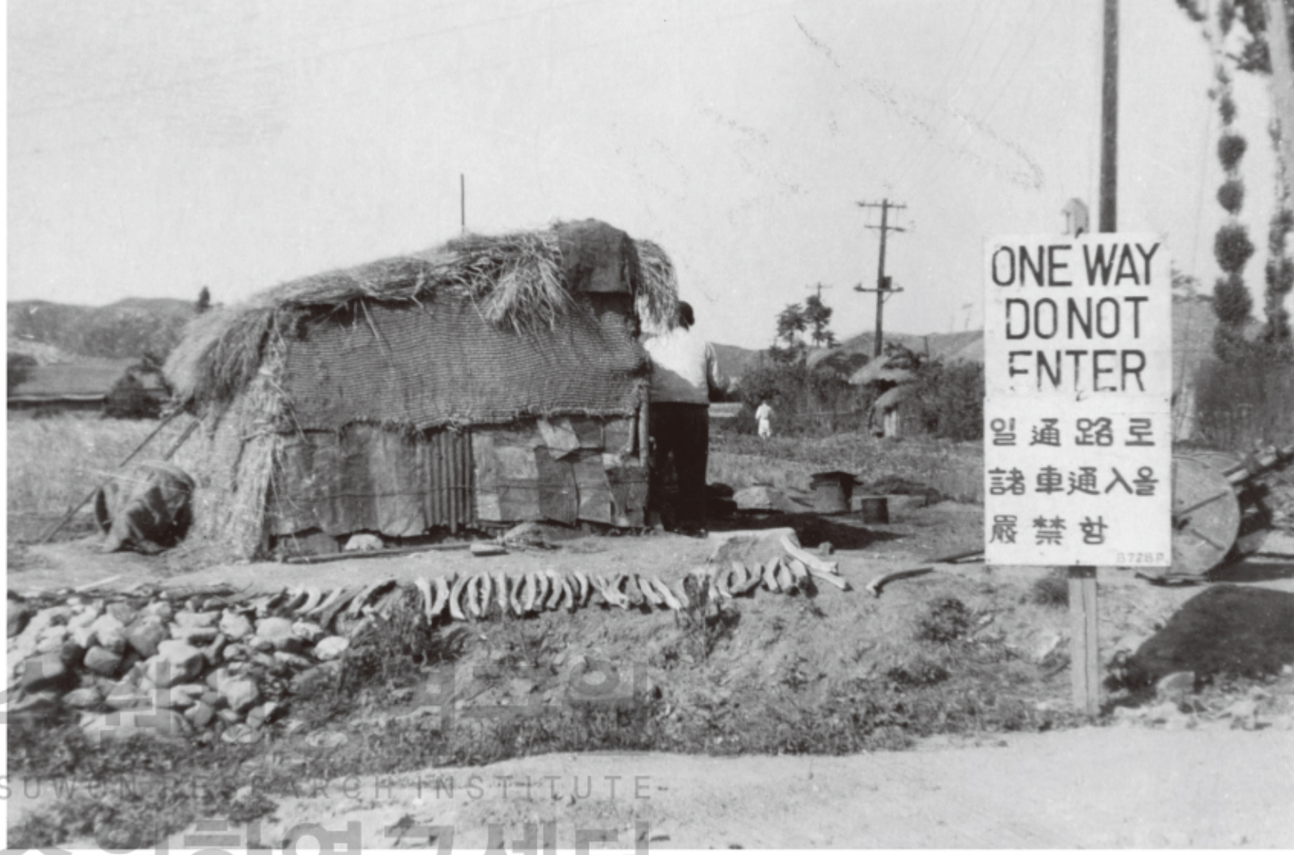


산자락에 천막으로 지은 피란민 가옥(수원화성박물관 제공)

수원에 유입된 피란민들은 여관이나 일반 민가의 방, 상점이나 기관의 건물 등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머물렀다. 하지만 많은 피란민들은 마땅한 거처를 얻지 못해 천막으로 막사를 짓거나 토굴을 파고 거주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 경기도에서 수원시 지동에 건축한 피란민 가막사 견본가옥을 보면 18평 대지에 30명(약 6세대)의 피란민이 거주하도록 계획되었다.[10] 피란민 토굴도 10여 명이 집단으로 거주하였고, 심지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거주민이 죽기도 하였다.

> 수원시 내의 토굴 속에서 살던 피란민 5명이 토굴이 허물어져서 즉사하였다. 즉 38 이북에서 수원으로 피란 나와 토굴 속에서 지내던 김용준 씨와 그의 처 한씨 그리고 본적 미상인 남자 2명 여자 1명이 수원시 매산로3가 35번지 토굴 속에서 20일 갑자기 토굴이 무너지는 바람에 즉사하였는데 동 토굴 속에 같이 있던 그 외 8명은 다행히 구출되었다.[11]

1951~1953년 경기도 지역에는 피란민이 계속 늘어났는데, 경기 북부에서 경기 남부로 피란 온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북한 출신과 서울 출신이 비슷한 규모였다. 특히 북한 출신 피란민은 전국에서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있었다. 유엔군들은 한강 유역으로 북상하려는 피란민들을 수원에 떨궈 놓았는데, 1번국도와 경부철도를 따라 북상하던 피란민들은 도강(渡江) 금지에 따라 한강 남쪽인 수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창룡문 부근 길가에 자리한 피란민 움집(수원화성박물관 제공)

> 부동(浮動) 난민들이 수원으로의 집중률은 급작이 높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거중을 보게 된 원인은 한강 유역으로 북상하려는 부동난격을 그동안 유엔군이 자동차로 수원에다 실어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원시와 수원서에서는 주로 작전상 지장을 이유로 하는 유엔군 측의 엄한 요청도 있고 또다시 자체의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식량을 주지 못했을뿐더러 작금부터는 부동 난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민의 식량 배급신청을 일시 접수치 않기로 된 데 비추어 피란민은 좌우간 수원시 내에서 떠나 달라는 권고문을 기 시와 서의 연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12]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피란민들은 한강을 건너기 위해 불법 도강을 시도하였다. 특히 1952년 1월 한강이 얼어붙자 몰래 강을 건너려는 피란민들이 더욱 늘어났으며 불법 도강을 시도하다가 강에 빠져 죽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다.

남하 피란민들의 마음의 고향 서울에 돌아가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강이 얼어들고 3월 귀향설과 더불어 더욱 자극을 받아 일로 높아 가고 있는데 서울 경찰국 경비계에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적발 취급한 소위 밀도강자의 수는 123명에 달한다고 한다. (중략) 1·4후퇴 당시 수원 이남으로 피란 갔던 박기홍 씨는 서울에 복귀하고자 아내 이선옥, 장녀 옥희, 장남 규진을 데리고 영등포에 머물러 있으면서 밀도강할 기회를 노리던 중 후퇴 당시 같이 피란을 나갔던 황홍관 씨를 만나게 되어 밀도할 것을 의론한 끝에 지난 7일 하오 9시경 황씨 가족 7명과 밤섬을 떠나 얼음을 타고 마포 강뚝을 향하여 강 중간 지점 살얼음 지대에 이르러 불행히도 빠져죽었다.[13]

2. 수원 피란민 대책

1952년 2월 수원시를 포함하여 경기 남부 8개 시군의 계엄령이 해제되자,[14] 남부지방에 머물던 피란민들이 대거 경기 남부지역으로 복귀하였는데, 특히 수원과 광주지역 집결이 두드러졌다. 이에 피란민 구호양곡 부족 문제가 부상하였는데 경기도는 수원에 집결한 피란민을 인근 화성이나 용인의 농촌 지역으로 분산시키기도 하였다.

전라남북도로 피란하였던 미수복지 피란민들이 계속 북상하여 경기도의 수원, 광주 등지를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어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북상 이유는 대부분이 고향을 한수 이북 미수복지에 둔 자로서 고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풍문을 그대로 믿고 고향에 들어갈 욕심으로 떠나온 것

과 피란지인 전라남북도에서는 금년도 한재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관계로 피란민과 원주민 구별 없이 구호하는 관계로 구호가 박약하다는 것 등이다. 4월부터 북상한 피란민들의 실정을 보면 4월에는 2,700명, 5월에 1만 9,200명, 6월에 1만 7,600명, 7월에 2만 3,800명, 8월 3만 9,200명, 9월 3만 9,800, 10월 2만 8,350명 등으로 점차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에 비하여 약 16만여 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반비례하여 배당된 구호양곡의 실태를 보면 지난 4월에 5,000톤에 배당되었고 그 후로는 매월 3,000톤가량이 배당되고 있어 도내 전 구호대상자에 1개월 평균 4일분에 불과한 현상으로 늘어가는 유동 피란민 구호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바 경기도에서는 이들 피란민을 정착 구호하는 견지에서 농촌 분산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닥쳐올 엄동기를 앞두고 중앙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구호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15]

피란민뿐만 아니라 1952년 7월 서울 출신 의용군도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을 때 수원까지의 북상만 허락되어 수원 구호소에 머물러야 했다.[16] 이렇듯 많은 피란민들이 수원에 유입되자 피란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처가 될 수 있는 난민수용소가 설치되었다. 1952년 7월 수원에는 9개의 수용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연천·철원·개성 등 피란을 나왔던 지역별로 수용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면업주식회사(대한방직) 터에 자리한 피란민촌(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2년 6월 30일 구호양곡을 배급받고 있는 수원 피란민(NARA 제공)

수원경찰서장 박계훈 씨는 미군부대에 교설 결과 밀가루를 배급받아서 빵을 만들어 시내 연천피란민수용소 외 8개 수용소를 일일이 방문하고 1년 이상이나 되는 피란살이의 고초를 위로한 다음 피란 어린이들에게 빵을 노나 주어 피란민들의 감사를 받고 있다.[17]

1952년 11월 말까지 수원시에는 모두 12개소의 수용소가 설치되어 3만 1,516명의 피란민을 수용하였다.[18] 피란민수용소에는 남녀 노약자 및 부녀자, 무의탁자 등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피란민이 우선 수용되었고, 무주택 피란민도 수용되었다. 피란민수용소는 경기도청에서 운영하였으며, 주로 기존의 학교·공장,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19] 수원시공설운동장, 수원역전, 공장(수원성냥공장과 대한방직



서북공심돈 앞 피란민 가옥(수원박물관 제공)



방화수류정 일대 피란민 가옥(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2년 수원시 피란민 거주 토굴(korean image archive 제공)



1952년 수원시 피란민 움집(korean image archive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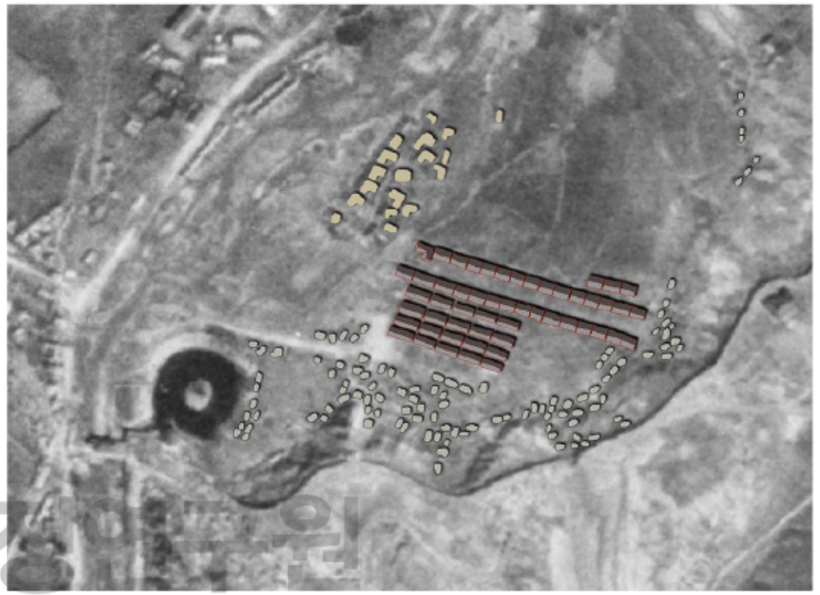
공장 등), 학교 등지에 피란민수용소가 마련되었다. 피란민수용소에서 피란민들은 밀집되어 살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1952년 연무동 피란민수용소, 1953년 매산로3가 35번지와 45번지 피란민수용소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였다.[20]

1951년 하반기부터 1953년 7월 휴전 이전까지 수원은 고향을 향해 북상하는 피란민들의 결집지이자 잠정적 정착지 역할을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피란민 수원연락소, 개성피란민 수원연락소(팔달사), 철원피란민 수원연락소(화서문 부근) 등이 설치되어 피란민증 발급과 구호양곡 배급 등의 피란민 지원을 담당하였고, 경기도청이나 연백군청처럼 아직 복귀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임시청사가 수원에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 수원연락소에서는 수원지구에 체류하는 서울 피란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1951년 10월에 피란종합국민학교와 피란종합고등중학교를 개소하였다.[21]

국경 아닌 경계선 한강이 가로막아 수복을 못한 채 아직도 수원에서 부모들과 함께 피란살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서울피란민종합국민학교의 1,400여 명의 아동들은 닥쳐오는 엄동을 앞두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실태를 살펴보건대 명실공히 순전한 서울피란민들의 자녀로 구성된 1,400여 명의 동교 아동들은 전부 19학급으로 나누어 파괴된 수원중학교 강당을 비롯한 수개 분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교 교장 김종태 씨의 적극적인 주선과 아동들의 총동원으로 토막교실 4개소 신축하여 수일 후면 완성을 보아 전부 수용케 되기는 하였으나 난방장치가 전연 없을뿐더러 원래가 피란민들의 아동들이라 사친회비를 못 내고 있는 아동들이 전체의 2할을 넘으며 궐식아동이 전체의 3할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당국은 물론 학부형들은 이에 당국의 적절한 선처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22]

1951년 10월에 수원중학교 별관에서 개교한 피란종합국민학교는 학생수가 1,400여 명에 이르렀다. 피란종합국민학교는 1954년에도 500여 명이 재학 중이었으나 3월 31일자로 해산되고 학생 중 100명은 서울로 복귀하고 400여 명은 수원 내 국민학교에 편입하였다. 교원도 10명 중 4명을 수원 내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6명은 서울학교로 복귀하였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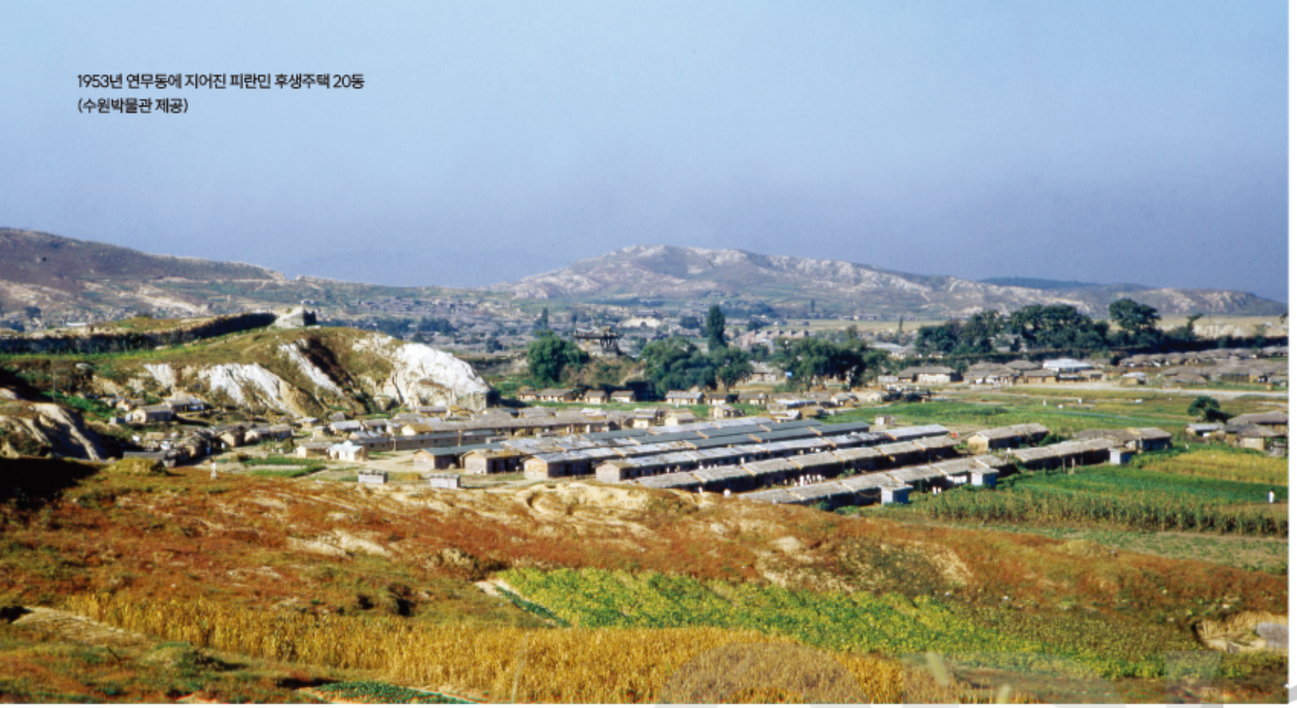


1954년 연무동 193번지 피란민촌(이상구, 2022, 「연무동, 이 동네 이 골목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수원류마실)

경기도는 1951년에 피란민들을 위해 1만 4,700호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이 중 움집이 1만 3,000호이고 농민주택이 1,200호, 피란민용 긴급주택이 500호였는데, 피란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대부분은 움집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과동용(過冬用) 주택으로 도합 1만 4,700호 각종 주택을 완축하였다고 한다. 이해익 경기도지사는 전기 1만 4,700호의 주택은 약 7만 5,000명에 달하는 집 없는 농민과 피란민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움집 1만 3,000호와 농민주택 1,200호, 피란민용 긴급주택 500호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지사는 이러한 주택은 주로 안양, 수원, 양주, 발안 등지에 건축되었으며 이러한 주택의 건축자재는 정부 및 유엔에서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동 주택들의 완축으로 경기도 내 집 없는 주민들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한다.[24]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3년 연무동에 지어진 피란민 후생주택 20동
(수원박물관 제공)

또한 고향 복귀가 어려운 피란민들은 오랫동안 피란 생활을 해야 하므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알선하고 직업을 소개하였다.[25] 수원시에서는 염업자와 절충하여 피란민들을 염부로 취업시키고 양곡과 주택을 제공하였으며,[26] 경기도는 대규모 사방공사를 실시하여 피란민을 사역하게 하고 토탄 채취에 피란민을 취역하게 하였다.[27] 하지만 피란민의 수에 비해 일자리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피란민 정착을 위해 주력한 사업 중 하나인 국민후생주택(國民厚生住宅) 건설사업은 유엔한국지원단(UNKRA)의 무상원조 자재로 실시되었는데, 수원시에는 1952년에 220호, 1953년에 350호가 건축되었다. 또한 유엔의 원조 자재로 반항구적인 간이주택 200호와 월동수용소(越冬收容所) 40호를 수원시 내에 건축하여 피란민을 수용하였다. 1955년까지 수원에는 유엔한국지원단 원조 자재로 9평(77동) 내지 12평(123동) 규모의 재건주택 200호가 지어졌는데, 영화동에 50동, 지동에 20동, 고등동에 22동, 세류동에 44동, 교동에 22동, 매산로1가에 24동, 매산로3가에 18동이 할당되었다.[28]

이처럼 후생주택은 수원 내에서 피란민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에 지어졌는데, 건축 과정에서 자재 부족과 부실공사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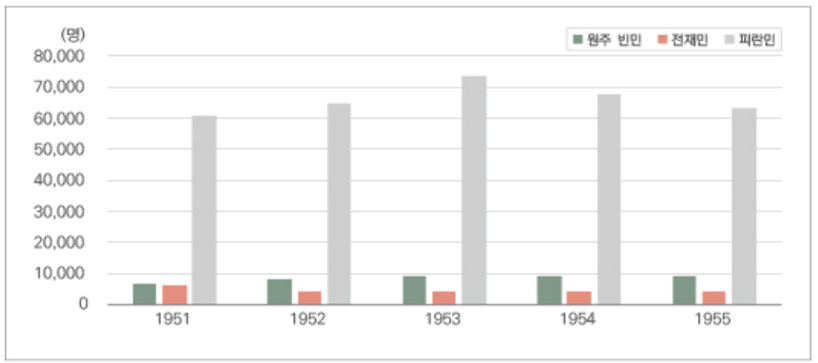
> 앞서 귀국한 주 유엔대사 임병직 씨는 작 2일 기자와의 회견에서 유엔의 힘을 입어 한국에 건축된 운크라 원조의 후생주택을 실지로 시찰한 결과 의외에도 동 주택들이 모두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야만적인 가옥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말하였다. 임 대사는 운크라 단장 콜터 장군 및 동 직원 일행과 함께 시흥 안양에 있는 91동의 운크라 후생주택(윤필한 씨 청부)과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50동의 후생주택(조중원 씨 청부)을 시찰하였던 것인데 벽이 무너지고 천정이 떨어졌으며 비에 쉽사리 허물어지고 마는 동 가옥들은 모두가 규격대로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1동당 350불로 건축되도록 할당된 동 주택 건립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말하였다.[29]

표1 1951~1955년 수원시 구호대상자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	원주 빈민		전재민		피란민		계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1951	1,240	6,531	1,082	6,059	11,842	60,902	14,164	73,492
1952	1,784	8,283	895	4,412	12,673	64,764	15,352	77,459
1953	1,849	9,028	839	4,109	13,390	73,636	16,078	86,773
1954	1,847	9,023	838	4,106	12,336	67,465	15,021	80,594
1955	1,803	9,020	832	4,081	11,497	63,264	14,132	76,365

출처 : 경기도, 1956, 『경기도지』.
비고 : 작성기준은 1951~1954년이 12월 말, 1955년이 9월 말임.



1951~1955년 수원시 구호대상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대 방화수류정 피란민 가옥(수원화성박물관 제공)



1950년대 피란민 가옥(수원박물관 제공)



1953년 8월 24일 성 안 민가 사이에 설치된 피란민 가옥(수원화성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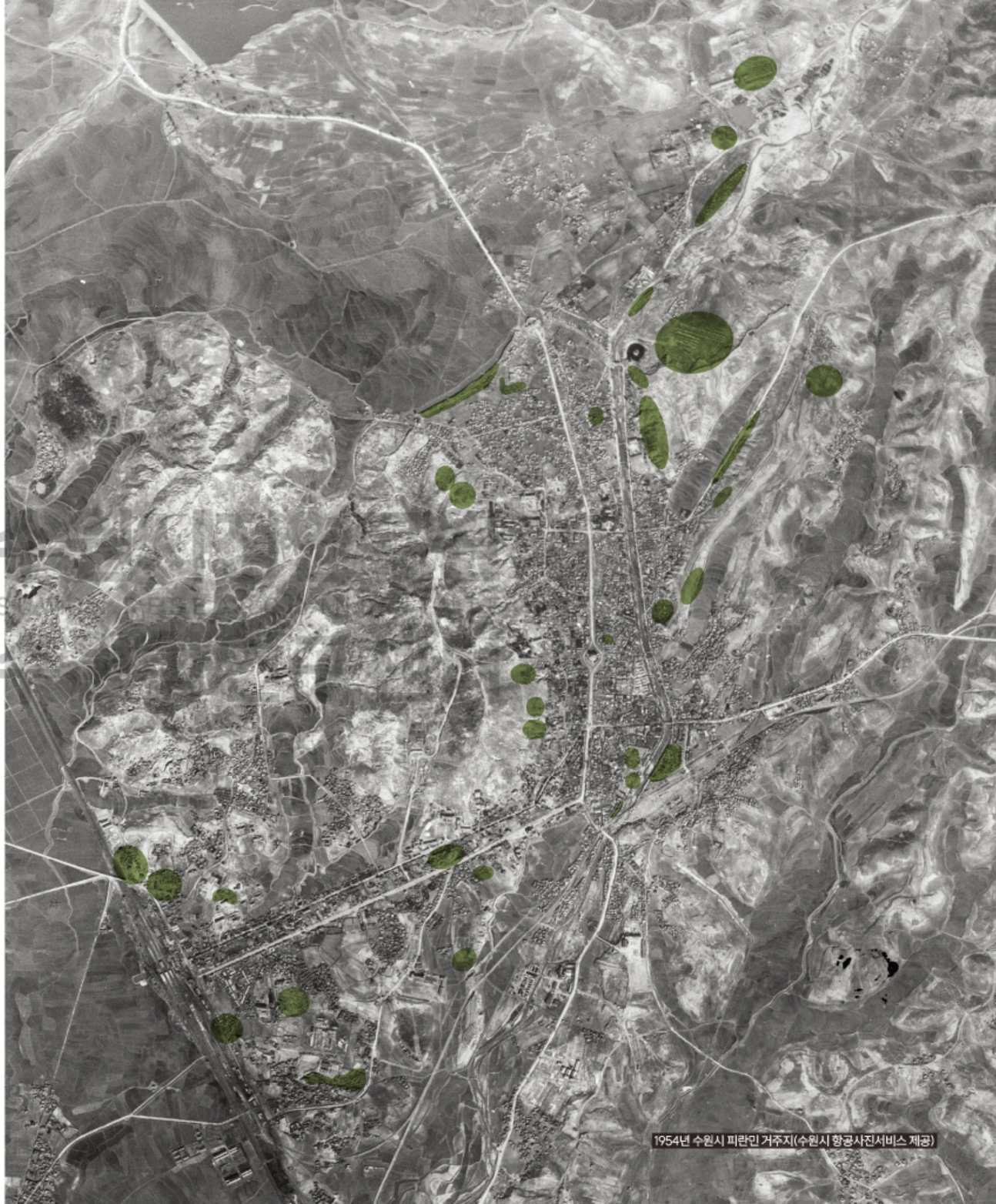
수원시 피란민의 수는 1953년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휴전 후부터 줄어들었다.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에 91만 3,447명의 피란민이 있었다. 1954년에는 38선 이북 지역 피란민들의 복귀도 허가되었다. 1954년에 3월 15일부터 수원 거주 피란민 중 철원·김화·연천·평강·파주 등지의 귀농 희망자 7,372명이 복귀하였고, 11월 17일 그동안 군정이 관할하던 연천군과 포천군 일부 지역이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이곳 주민의 복귀가 가능해졌다.[30]

그러나 복귀가 불가능한 월남 피란민도 많았기 때문에 1955년에도 6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수원에 잔류하고 있었다. 또한 월남 피란민들의 유입은 지속되었는데, 월남민들은 수원이 지리적으로 고향과 가까워 심리적 근접성을 느꼈고, 가족 · 친척이 이미 수원에 정착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쟁 후 고향으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타 지역과의 연계가 없는 월남민들은 수원을 정착지로 삼고 생활 터전을 마련해 갔다. 이 시기에 수원은 잔류 월남민들의 영구 정착지로 전환되어 갔다.

3. 수원 피란민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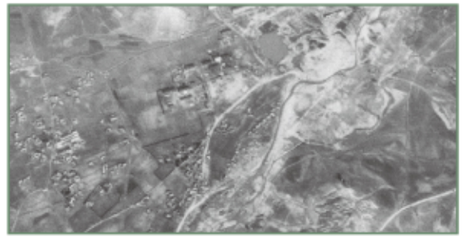
수원 피란민 정착지는 ① 장안문 밖 연무동과 영화동 권역 ② 수원화성 시설물 주변인 신풍동·장안동·매향동·남수동 권역 ③ 지동·인계동·구천동 권역 ④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고등동·매산동·매교동·세류동 권역 ⑤ 화홍문에서 매교다리까지의 수원천변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권역인 장안문 밖 연무동과 영화동, 조원동 일대는 수원의 대표적인 피란민 정착촌이다. 연무동 193번지 일대는 수원시공설운동장 자리였는데, 방화수류정 주변부터 용연을 둘러싸고 피란민촌이 들어섰다. 연무동 피란민촌에는 강원도 철원과 김화 등지에서 온 월남민들이 주로 수용되었다. 영화동 37번지는 주식회사 부국원 소유 토지였고, 영화동 125번지와 127번지는 수원인촌주식회사와 광교수리조합 토지였다. 영화동 250번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영화동 291~293번지 일대는 일본인과 수



1954년 수원시 피란민 거주지(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조원동


영화동


연무동


지동


장안동


신풍동


팔달로3가


구천동과 인계동


매산동


매산동


교등동


세류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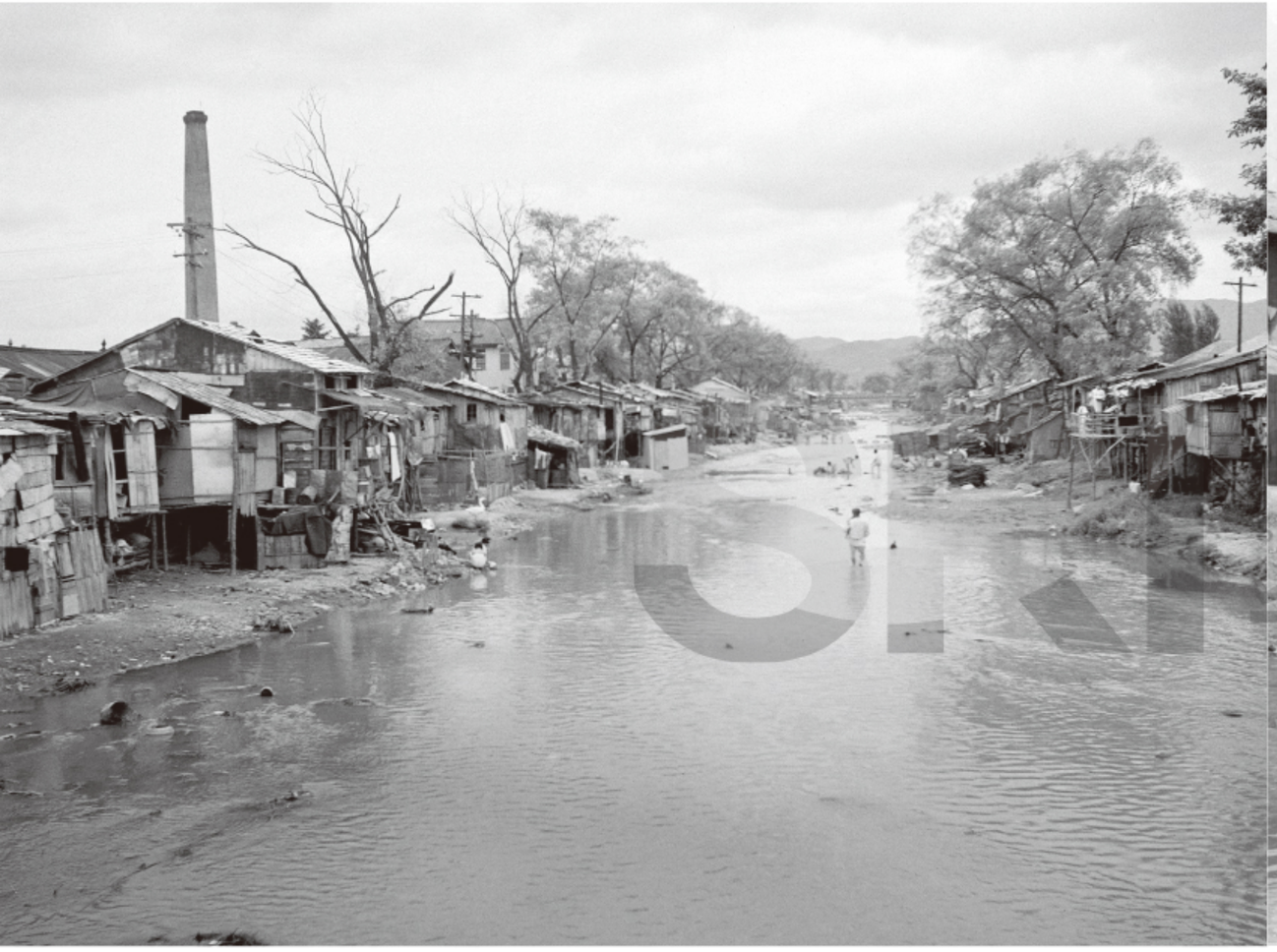
원토지개량조합 토지이다. 영화동에는 피란민을 위한 후생주택이 가장 많이 제공되었다.

두 번째 권역은 수원화성 성곽 주변이나 성 안의 국유지를 따라 신풍동 · 장안동 · 매향동 · 남수동에 형성된 피란민촌이다. 이 중 남수동 11번지에는 1954년 3월 31일 강원피란민정착사업장이 설치되어 1955년 12월 현재 83세대 46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곳은 남편이 없는 부녀자를 우선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일명 '과부촌'이라고도 불렸다.

세 번째 권역은 수원화성 동쪽 성벽 밖과 수원천이 연결되는 지역인 지동 · 인계동 · 구천동 권역이다. 지동의 경우 두 번째 권역의 남수동과 연결되는 성격을 지닌 곳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 인계동과 구천동은 다섯 번째 권역인 수원천변을 따라 형성된 피란민 거주지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권역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매산동 · 고등동 · 세류동 · 교동 · 매교동 등에 형성된 피란민 거주지이다. 이 지역은 일제시기에 일본인 회사와 일본인이 소유 토지에 피란민 거주지가 만들어졌는데, 세류동은 황해도 피란민 정착촌으로 알려져 있다. 피란민들은 역전시장(당시 매산양곡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을 하였고, 그 상권이 확대되어 매산시장까지 만들어졌다.

다섯 번째 권역은 수원천 일대로, 하천부지를 따라 피란민 거주지와 간이 점포가 자리하였다. 수원천을 따라 화홍문 일대에서 매교다리까지 이어지는 피란민 간이 점포



1954년 수원천변 피란민 가옥(UN Photo 제공)



수원천변 피란민 가옥(수원화성박물관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가 길게 늘어서 있는데, 피란민들의 거주지보다는 생업 터전의 성격이 더 컸다. 피란민들은 영동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점차 상권이 커지면서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구천동 공구시장까지 만들어지면서 피란민들이 생업 터전은 확대되어 갔다.

〈표 2〉는 피란민들의 구술과 신문, 항공사진 등을 참고로 하여 1950~1960년대 수원 지역 피란민 거주지의 위치를 추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지역에 피란민 거주지가 분포되어 있었다.

표 2 1950~1960년대 수원 피란민 거주지(추정)

권역	법정동	번지	소유자	권역	법정동	번지	소유자
Ⅰ권역	조원동	495	국유지	Ⅲ권역	지동	261	국유지(임야)
		638	국유지-수원읍			145	국유지
	영화동	22	수원북중학교			271	국유지
		37	주식회사 부국원-국			276	국유지
		125	수원인촌주식회사-국			294	
		127	광교수리조합			301	국유지(임야)
		250	동양척식주식회사-국			302	국유지
		288	경기도-수원시, 수원토지개량조합		인계동	770	국유지(구거)
		291	일본인-국유지			847	국유지
		292	일본인-국유지		구천동	10	개인(차재윤)
		293	수원토지개량조합			46	개인(차재윤)
	연무동	193	수원시(공설운동장)		교동	174	일본인-대한민국
		176	수원시			185	삼화철공업주식회사
Ⅱ권역	신풍동	123	국유지		매교동	295	
	장안동	25-2	국유지(임야)		매산로1가	53	일본인-국
		53	대화유직직물회사			56	동산농사주식회사-국
	팔달로3가	103	국유지			57	일본인-국
		126	조흥은행		매산로2가	90	남북면업주식회사-국
		131	국유지		매산로3가	35	개인(홍사훈)
	북수동	232	대한민국	Ⅳ권역		45	서법사-대한민국
	매향동	6	국유지		고등동	253	동산농사주식회사-국
		7	국유지			258	동산농사주식회사-국
		10	국유지			265	동산농사주식회사-국
	남수동	11	국유지(임야)			267	동양척식주식회사-국
		98	대한민국			268	동양척식주식회사-국
Ⅲ권역	우만동	596	국유지(지동 119번지)		세류동	225	국유지(철도부지)
		598	국유지(지동 143번지)			245	국유지
	지동	232	국유지(임야)			1270	
				Ⅴ권역	수원천변		하천부지

피란민들이 정착한 곳은 대개 일제시기에 일본인(회사)이 소유하였다가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 토지와 건물, 국가나 수원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국유지 · 공유지 또는 하천부지인데, 이 지역은 정부의 피란민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피란민 거주지로 제공되었다.

1950년대 수원시에는 피란민 거주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당시 수원시의 영역이 27동에 23.5㎢이고, 원 거주민이 4만 5,000명에 불과하였는데 피란민이 6만~8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 지역이 '피란민촌'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원 지역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피란민 거주지는 1950년대 후반에도 확장되었는데, 전쟁 중 수원에 정착한 피란민들의 친인척들이 전쟁 후 수원으로 유입되거나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정착지를 찾아 들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움막이나 타인의 집에 얹혀살던 피란민들이 정착을 위한 주택을 지으면서 피란민 거주지 경관이 더 뚜렷한 형태를 띠었다.

1955~1960년 수원시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아직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수원시는 25%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화수류정 부근인 북수동과 동쪽 성벽 옆 남수동, 수원천변인 구천동과 수원역 주변인 매산동 · 고등동 · 세류동 · 매교동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수원 피란민 거주지는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빠르게 해체되는 곳도 있었다. 화홍문 부근의 피란민 거주지는 문화재인 화홍문을 지키기 위해 일찍부터 정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조원동 피란민 거주지는 450세대가 거주할 만큼 규모가 컸지만, 육군본부에서 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철거를 요청하였다.

> 화홍문이 피란민 수용소처럼 되어 나날이 변모되어 가고 있으나 그들을 내보내자면 주택지를 알선하여 주어야 하겠는데 예산관계로 속수무책이며 경기도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부기관에서 지시 있기를 기다릴 뿐이다.[31]

영화동(조원동) 피란민 집단수용소는 한미 육군본부로부터 동 지점에 고급부관학교를 신축하기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되어 오는 20일까지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도에서는 이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9일 민사처(CAC) 당국과 절충한 결과 450여 세대 중 이주 불가능한 83세대에 대하여 1세대당 구호목재 300보르피-트의 무상 배부하여 줄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한다.[32]

1950년대 후반이 되면 피란민수용소로 사용된 곳이 본래의 용도를 찾게 되면서 피란민 거주지가 사라지기도 했는데, 수원북중학교와 남북면업주식회사(대한방직)에 있던 피란민 거주지도 철거되면서 피란민들은 이주하였다. 팔달산 자락인 신풍동과 팔달로3가 피란민촌도 1960년대 팔달산에 산림녹화가 추진되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해체되는 피란민 거주지를 대신해 영화동 남수동 지동 세류동 등은 1950년대 후반 피란민 재정착작지로 자리 잡았다.

수원 피란민 거주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피란민 주택이 지어졌는데, 피란민 주택은 형태와 건축자재 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구릉이나 밭, 대지 등에 흙을 파서 거주공간을 만든 후 천막이나 움으로 지붕을 얹은 움집이다. 경기도에서는 1951~1952년 움집의 지붕을 덮은 천막으로 광목을 피란민들에게 대량으로 배급하였는데, 만들기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가장 많이 지어졌다. 두 번째는 '하꼬방'이라 불리는 판잣집인데, 침수 또는 지형적 조건으로 움집을 지을 수 없었던 수원천변을 중심으로 지어졌다. 주변에 파괴된 주택의 목재와 미군부대에서 나온 깡통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세 번째는 흙집이나 흙벽돌집으로 일반 민가와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다. 주변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황토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었으나, 낮은 강도로 인해 내구성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흙집과 흙벽돌은 부족한 건축자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으며, 강회를 사용하여 강도를 높이고 흙벽돌 기계가 제공되면서 연무동 피란민촌에는 규모가 큰 연립주택형 흙벽돌 주택도 지어졌다. 네 번째는 1950년대 유엔한국지원단이 제공한 목재와 슬레이트로 지어진 후생주택으로, 다가구가 살 수 있는 연립주택 형태였다. 다섯 번째는 1962년 정부가 지은 간이주택으로 시멘트벽돌로 지은 후 시멘트로 마감하고 기와로 지붕을 얹은 연립주택형 가옥이었다.

註

1 국방부, 『한국전란1년지』, 1951년 10월 15일, C49~50쪽.
2 『피란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145호, 1950년 8월 4일 제정; 법률 제146호, 1950년 9월 25일 일부개정).
3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4 「수원 등지에 운집 긴급한 구호책을 간망」, 『동아일보』 1951년 2월 28일.
5 사회부, 「지방장관회의지시사항」, 『특별지방관회의관계서류』, 1951(국가기록원 BA0135101).
6 「소개(疎開)는 천안 이남으로 미군민사처 먼스키 대령 담」, 『조선일보』 1951년 5월 18일.
7 「이백사십만의 난민괴 대책 집단수용을 추진중」, 『조선일보』 1951년 5월 3일.
8 『피란민에 쌀 배급』, 『조선일보』 1951년 5월 6일.
9 「난민과 동등한 수원시. 쌀 한 톨 없는 적수공권(赤手空拳)」, 『조선일보』 1951년 5월 16일.
10 『피란민 위한 가막사(假幕舍) 시축(試築)」, 『조선일보』 1951년 8월 15일.
11 「土窟이 문허저」, 『조선일보』 1951년 10월 24일.
12 「유동 피란민 수원 체류는 금지, 시경(市警) 양 당국 금명 離水(離水) 권고」, 『조선일보』 1951년 5월 26일.
13 「한강(恨江)의 도강(渡江)은?」, 『경향신문』 1952년 1월 22일.
14 「수원을 포함한 경기 남부 10개 군의 비상계엄해제」, 『동아일보』 1952년 2월 7일.
15 「한강을 건너려는 피란민들 수원에 집결」, 『조선일보』 1952년 12월 1일.
16 「역류자들 희망의 귀향」, 『경향신문』 1952년 7월 3일; 「도강 주선에 합의」, 『조선일보』 1952년 7월 10일.
17 「피란아동에 방을 수원서장이 분여」, 『조선일보』 1952년 7월 29일.
18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42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19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24~325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20 「난민토막에 화재」, 『조선일보』 1952년 4월 19일; 「수원에 또 큰 불」, 『경향신문』 1953년 2월 24일.
21 「중합초등학교」, 『조선일보』 1951년 9월 12일; 「수원중합중학 16일 개교식」, 『조선일보』 1951년 10월 20일.
22 「궐식아동이 삼할」, 『조선일보』 1952년 12월 2일.
23 「피란국민교 해산」, 『조선일보』 1954년 4월 5일.
24 「집 없는 서름을 일소 경기도에서 만여호 완축」, 『조선일보』 1951년 11월 30일.
25 「연합신문」, 1952년 4월 14일.
26 「피란민들에게 직업을 알선」, 『조선일보』 1953년 6월 11일.
27 「경기도에서 대규모 사방공사」, 『조선일보』 1952년 2월 15일; 「토탄채취에 피란민 취역」, 『조선일보』 1953년 12월 8일.
28 수원시, 『시세일람』, 1956.
29 「영터리 후생주택」, 『동아일보』 1955년 9월 3일.
30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15~316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5에서 재인용.
31 「버림받는 문화재, 피란민들의 기거(起居)로 파손일로(破損一路)」, 『서울신문』 1953년 10월 13일.
32 「피란민 철거에 CAC서 목재 분배」, 『경향신문』 1954년 9월 18일.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2

수원의 전쟁고아와 아동보호시설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1. 전쟁고아의 발생과 사회적 대응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은 대규모의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전쟁고아가 발생하였다. 부모를 잃은 아동뿐 아니라, 생존한 보호자와 분리·유기된 아동, 극심한 빈곤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등 다양한 형태의 '요보호 아동'[1]이 전국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쟁 직후부터 수많은 영유아가 병원, 경찰서, 관공서 앞에 유기되는 사례가 잇따랐으며, 상당수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부랑 상태에 놓였다.[2] 또한 피란 과정에서도 다수의 미아가 발생하였다. 1951년 5월 경기도 내 고아원에 수용된 고아는 2,700여 명이었는데, 그 중 반수가 피란 중에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였다. 이듬해인 1952년 사회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구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아 3만 1,000여 명 중 3,000여 명이 미아였다.[3]

표 1 1950년대 육아시설과 수용인원의 증가

연도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육아시설(개소)	153	215	361	440	495	534	496	490
수용인원(명)	10,469	24,945	39,617	53,964	54,428	54,927	53,592	54,829

출처 : 보건사회부, 『한국아동복지사업(1949~1958)』, 보건사회부, 1958, 4~6쪽(소현숙, 2020, 「'자유동원'을 통해 본 1950년대 고아원의 설립과 운영」,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화성시문화재단, 133쪽 재인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2월 5일 미군이 부상당한 소녀에게 휴대용 식량을 먹여 주는 모습(국사편찬위원회 | NARA 제공)
수원 북쪽 작은 마을에서 James R. Areys 상병이 휴대용 식량을 어린 소녀에게 나눠 주고 있다.
이 소녀는 전쟁으로 눈이 멀고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수원 시내에서 구걸하는 아이(수원화성박물관 제공)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아이의 주변으로 음료를 파는 가게와 한양공업사가 위치해 있다.
사진 뒷면에는 "우리가 지프를 타고 시내를 돌던 날 오후에 우연히 이 소년을 만났는데
전혀 수줍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2 1955년 12월 수원 후생시설(아동보호시설) 인가 현황

시설명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	수용인원			직원 수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성베드로보육원	교동 11	1946년 9월 20일	구세현 (영국인)	2	67	69	1	5	6
앙카라학원	서둔동 45	1951년 6월 11일	지동익	80	48	128	3	9	12
자유등원	팔달로2가 4	1951년 10월 16일	김양배	1955년 11월 25일 화성군 일왕면 조원리로 이전					
수원육영원	매향동 34	1951년 11월 1일	김난진	41	41	82	4	6	10
중앙재생원	팔달로1가 88	1952년 11월 6일	이정구	21	22	43	1	5	5
경동원	고등동 13	1952년 11월 8일	정의순	10	35	45	1	8	9
혜광원	남창동 134	1952년 4월 20일	신현익	38	33	71	3	2	5
삼일애육원	북수동 11	1952년 6월 1일	김병호	70	55	125	5	7	12
수원보육원	고등동 95	1953년 8월 24일	김재석	103	72	175	2	13	15
합계				365	373	783	19	55	74

출처 : 수원시, 『수원시 시세일람』, 1956, 109~110쪽.
비고 : 설립연월일은 『수원시 시세일람』과 시설·법인 인가 서류가 다를 경우 인가 서류를 기준으로 함.

이 시기 수원은 서울과 가까운 후방 피란 거점이자 교통 요지로서, 피란민과 전쟁고아가 집중 유입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고아원이 여럿 설립되었다. 1955년 수원시 관내에 설립된 아동 보호시설은 〈표 2〉와 같다.

정부는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외국 민간 원조단체(이하 '외원단체')와 유엔군의 자발적 구호 활동에 의존하였다.[4] 1950년대 초 정부가 직접 운영한 국공립 육아시설은 전체 시설의 4%도 채 되지 않았으며, 고아원 대부분은 종교단체, 사회운동가, 외원단체의 후원을 통해 민간에서 설립·운영되었다.[5] 특히, 한국전쟁 직후의 긴급구호 상황에서 외원단체의 지원은 절대적이었다.

정부는 1952년 4월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 신청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제정함으로써 민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시도하였다. 이 조치들은 전쟁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각종 수용시설의 운영을 일정한 행정 기준 안에 두고자 한 시도였으며, 시설의 수용인원, 생활 조건, 아동에 대한 처우 등을 국가 차원에서 규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실제 운영은 개별 시설의





삼일학교 교장이었던 김병호가 설립한 삼일애육원(수원시, 1956, 『수원사진대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재량에 맡겨 놓은 경우가 많았다.[6]

1955년 체결된 '한미 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은 외원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가 일정 부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협정은 민간 구호물자의 반입, 유통, 배분 과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 목적은 정부의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외원 활동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었다.[7]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제도적 지원이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설립된 시설들은 초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었으며, 영세한 규모로 시작해 정부의 공식 인가 없이 아동을 수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설 내 생활환경은 협소하고 비위생적이었으며, 영양 부족과 의료 사각지대도 상존하였다.[8] 외원의 지원이 편중되거나 단절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영양 부족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였다. 일부 원장은 원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원조 물자를 암시장에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아동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확보하려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다.[9] 하지만 아동복지시설들은 전쟁고아와 요보호아동을 긴급하게 수용하고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였다.



수원시 팔달로2가 4번지에 개설된
자유동원(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2. 1950년대 수원 아동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1) 자유동원의 설립과 운영

자유동원은 김양배(金良培, 1915~1979)가 1951년 10월 16일 팔달로2가 4번지에 설립한 아동보호시설이다. 김양배는 수원의 유력한 김해 김씨 가문 출신으로, 김현갑(金顯甲, 1893~1954)과 차석순(車石順)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차석순도 수원을 대표하는 연안 차씨 집안 출신으로, 차석완(車錫完)의 장녀이자 수원 누룩 회사와 소화직물을 운영한 차재윤(車載潤, 1896~1964)과 차정윤(車正潤)의 누나였다. 김양배는 부계와 모계 모두에서 수원 지역의 유력 가문 네트워크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었다.[10]

김양배의 집안은 당대 수원의 지식인 네트워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큰아버지 김석환(金晳煥, 1888~1918)은 나기원의 셋째 딸이자 나중석(羅重錫)의 여동생인 나정석(羅貞錫)과 결혼했는데, 나정석은 나혜석과 사촌 관계였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김숙배(金淑培, 1904~1997)는 일본여자고등사범학교에 유학할 때 나혜석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동아일보사 사장이었던 고재욱과 결혼하였다. 또 다른 형제 김원배(金元培, 1910~?)는 일본 메이지대학을 졸업한 뒤 수원에서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였다. 김양배가 사회주의자인 변기재와 결혼하게 된 데에도 이 사촌오빠 김원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11]



자유동원 숙소 안 자유동원 원생들(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김양배는 수원에서 소학교를 마친 뒤 서울로 유학하여 1933년 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변기재와 결혼 후 부부는 수원 읍내에서 생활했으며, 해방 직후에는 연무동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김양배는 1948년 12월 이혼계를 제출하였고, 변기재와의 결혼 생활은 종결되었다.[12]

전쟁은 김양배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피란을 떠났다가 수원으로 돌아온 그는 1951년에 자유동원을 설립하였다. 외삼촌 차정윤의 가옥(팔달로2가 4번지)을 빌려 개원한 이 시설은 피란통에 부모를 잃고 떠도는 전쟁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13]

1958년에 작성된 「자유동원 발족 급 취지서」에 따르면, 김양배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며 "동일한 민족으로서 눈물을 금할 수 없어 여자지만 미력이나마 전력을 경주하여 구제하고자" 하는 심경에서 고아원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14]



대한상이용사회 경기도 화성군분회 창립 제3주년 기념대회 위로공연(1954년, 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미군부대 위문공연 후 기념 촬영(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1955년 제3회 어린이예술제에 참가한 자유동원 원생들(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경향신문』(1955년 11월 30일)에 따르면 수원애향사업회에서는 수원시 교육구청의 후원을 받아 1955년 11월 23일 오후 1시부터 수원중앙극장에서 제3회 어린이예술제를 거행하였다.



자유동원 수업(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설립 초기 자유동원은 약 150명의 원생을 수용하였으며, 대부분 7~10세 전후의 전쟁고아들이었다. 아이들은 한 방에 약 10명씩 나뉘어 생활하였다. 규모 면에서 아주 영세하지는 않았으나, 운영 여건은 극히 열악하였다. 재정은 정부 보조와 미국 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정부는 고아 1인당 하루 3홉의 구호양곡과 30환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취지서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받은 양곡은 한 달 분량으로 계산해도 약 15일치가 모자랐으며, 부족분은 김양배가 사재를 털어 충당해야 했다.[15]

자유동원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중시하였다. 김양배 외에 총무, 무용 교사, 음악 교사, 취사 담당 아주머니 두 명이 근무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피란민이었고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특히 무용 교사와 음악 교사를 둔 점은 당시 고아원으로서는 이례적이었다. 김양배는 음악과 무용을 통해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으며, 합창단과 무용단을 조직해 위문공연과 어린이예술제에 참가시키기도 했다. 한글 교육을 비롯한 기초교육도 병행되었다.[16]



원조물자를 지원받은 자유동원(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조받은 모포를 옮기는 자유동원 원생들(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수확한 볏짚을 탈곡하는 자유동원 원생들(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자유동원 원생들(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자유동원에서 조성한 토끼장(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 재정난을 메워 준 것은 외원단체와 인근 미군부대의 원조였다. 특히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지원이 컸는데, 이는 김양배의 지인이 운크라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인맥 덕분이었다. 초콜릿, 통조림, 미국 쌀, 담요, 옷감 등 다양한 구호물자가 들어왔고, 이 시기에는 찰기 없는 미국산 쌀이었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며 때때로 고기도 먹을 수 있었다. 미군들은 고아원을 자주 방문해 아이들과 놀아 주고, 집을 수리해 주었으며, 자유동원의 식당도 미군들이 지어 준 것이었다. 일부 아이들은 미군에게 입양되기도 했다.[17]

김양배는 외원 의존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립을 시도하였다. 화성군 일왕면 정자리에 기계부속품 공장을 세웠으나 자금 부족으로 곧 중단되었고, 이후에는 토끼 사육과 밭농사 등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려 했다. 제31사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군과의 협력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재정난을 극복하기는 어려웠다.[18]

1955년 고아원(팔달로2가 4번지)의 건물주가 집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유동원은 화성군 일왕면 조원리 662번지로 이전하였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어 입주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며 외원단체의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재정 압박이 심화되었고, 원생 수도 설립 당시 150명에서 30~4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전쟁고아 중심이던 구성도, 부모는 있으나 양육이 어려운 아동 위주로 바뀌었다. 토끼 사육과 농사 등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은 가중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사기 피해까지 겪으면서 자유동원은 1963년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19]



1955년 화성군 일왕면 조원리 662번지로 이전한 자유동원(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자유동원 숙소 안 자유동원 원생들(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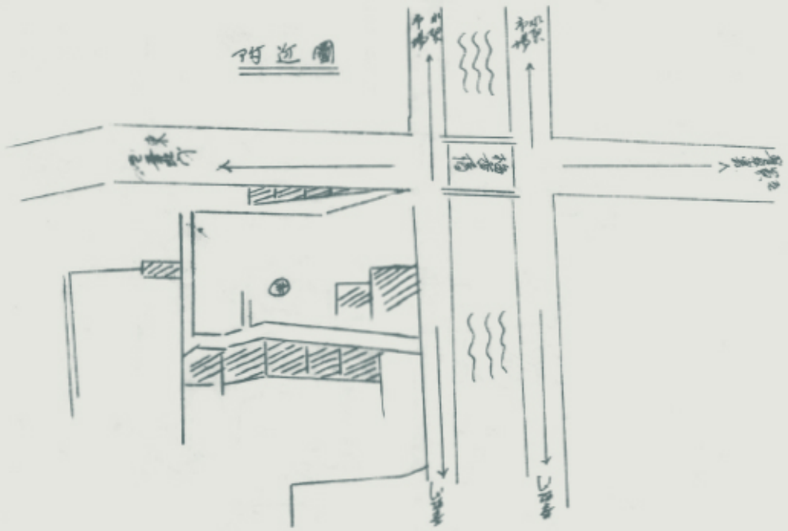
2) 수원육영원의 설립과 운영[20]

수원육영원은 1951년 11월 1일 김난진이 수원시 매향동 34번지에 설립된 민간 주도의 아동보호시설로, 한국전쟁 직후 급증한 전쟁고아와 무연고 아동의 보호·양육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1952년 12월 6일 경기도로부터 후생시설로 인가를 공식적으로 획득하였고, 1955년 5월 7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재단법인 수원육영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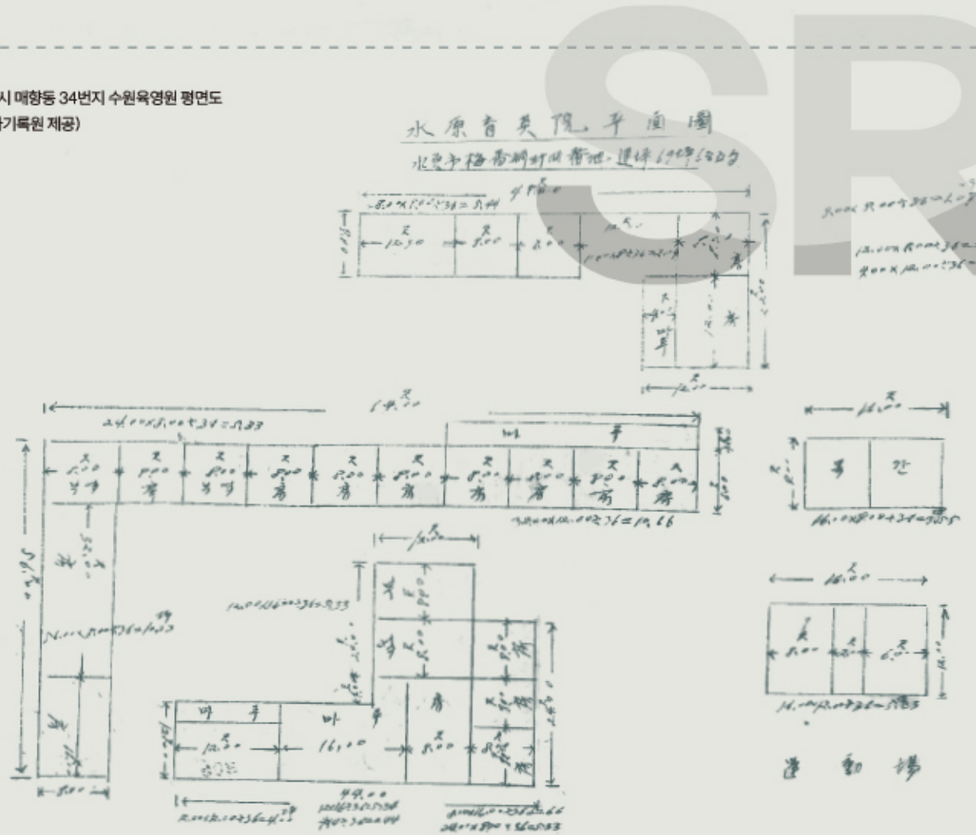
그러나 수원육영원은 원사를 매향동에서 연무동으로 이전하였다. 1964년 재단법인 수원육영원의 기본재산은 수원시 연무동 일대의 전답과 임야 7,100평으로 구성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 매향동 34번지 수원육영원 부근도
(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 매향동 34번지 수원육영원 평면도
(국가기록원 제공)



어 있었다. 건물은 목조기와 구조 숙사 34평(식당·창고 포함), 숙사 27평, 사무실·의무실·숙직실 등으로 구성된 별동, 초가 구조 숙소 10평 등의 규모였다.

표 3 1955년 후생시설 인가 당시 수원육영원의 기본재산

소재지	지목	지적(평)	비고
수원시 매향동 34번지	건물	86	목조가옥 1동
수원시 매향동 34번지	대	390	
수원시 매향동 85번지	대	235	
화성군 향남면 상두리	임야	12,000	
화성군 향남면 상두리	수전	1,248	

출처 : 수원시, 『시설관리 수원육영원(1951-1978)』(BA0173874, 국가기록원 제공).

표 4 1960년대 재단법인 수원육영원의 기본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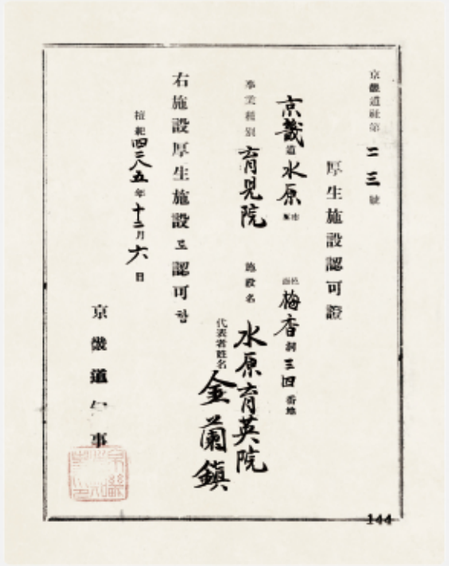
소재지	지목	지적(평)	건물
수원시 연무동 75-1	대	500	
수원시 연무동 75-2	대	339	식당 겸 침실(27.34평), 사무실(13.4평), 변소(2.7평), 침실(15평)
수원시 연무동 79	대	291	침실(34.75평)
수원시 연무동 산11-1	임야	5,970	

출처 : 수원시, 『시설관리 수원육영원(1951-1978)』(BA0173874, 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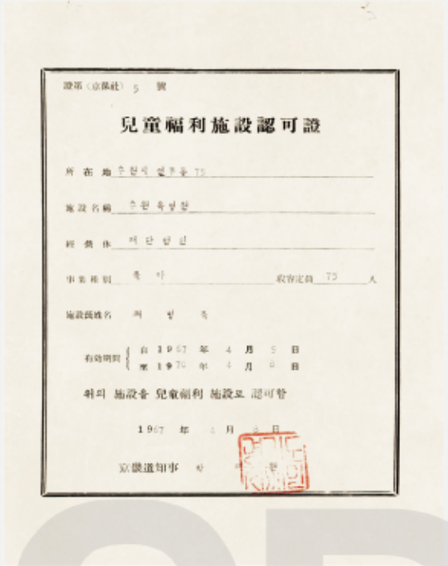
한편 초대 원장인 김난진이 사망함에 따라 1964년 9월 5일 부원장인 공재희를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하지만 공재희가 1965년 4월 20일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11월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증부연회 수원동지방 감리사였던 최병욱을 원장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1968년 12월 14일 보건사회부의 시설운영 실태조사 결과, 수원육영원 시설장 최병욱의 심각한 회계 비위와 시설 운영상 중대한 문제점이 적발되었다. 최병욱 원장은 개인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동아산업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임하면서 부도를 초래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최병욱을 시설장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교체 명령을 내렸다.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시설장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시설 운영의 정상화와 행정적 신뢰성 회복을 위해 새로운 인물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였다.[21] 이에 1969년 시설장으로 한완식을 선임하였다. 한완식은 이미 육아사업 분야에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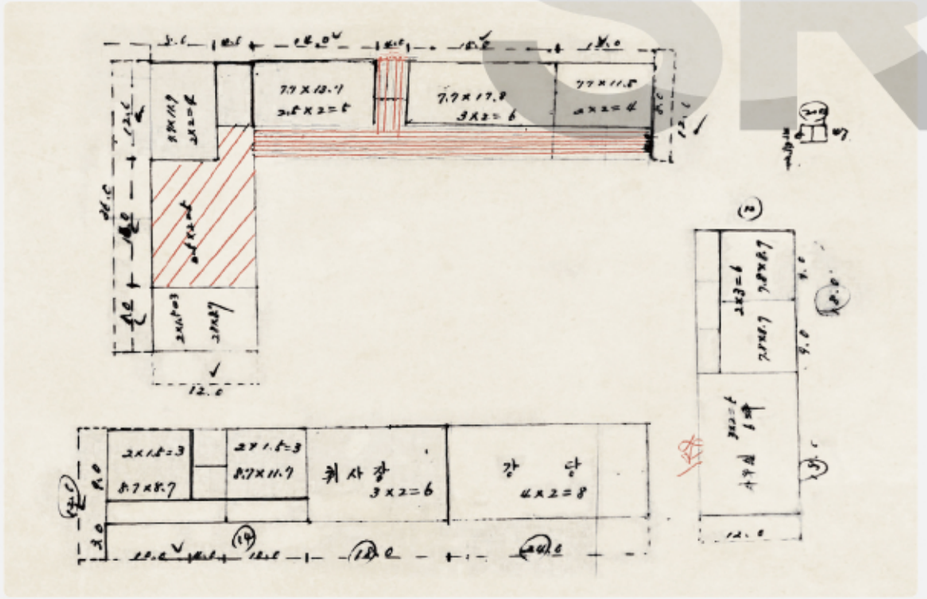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京畿道社第 二三 號
厚生施設認可證
京畿道 水原 市
梅香 洞三四 番地
事業種別 育兒院
施設名 水原育英院
代表者姓名 金蘭鎭
右施設厚生施設로 認可함
檀紀 四三八五 年 十二月 六 日
京畿道知事
144

1952년 후생시설허가증(국가기록원 제공)


證第(京孫社) 5 號
兒童福利施設認可證
所在地 수원시 연무동 79
施設名稱 수원육영원
經營主 재단법인
事業種別 축 아 收容定員 75 人
施設長姓名 최 성 축
有效期間 自 1967 年 4 月 5 日 至 1970 年 4 月 8 日
위의 施設을 兒童福利 施設로 認可함
1967 年 4 月 8 日
京畿道知事

1967년 아동복리시설인가증(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 연무동 79번지로 이전한 수원육영원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여 년 동안 봉사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는 그가 지닌 육아사업에 대한 열의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복리시설 본연의 운영방안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시설장 교체는 앞서 시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재정적 부실을 해결하고 시설의 안정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수원육영원은 운영상의 한계가 계속되었으며, 보건사회부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1978년 2월 28일 기존 육아시설을 폐지하고 부랑인 선도시설로 전환하게 된다. 법인명은 유지된 채 시설의 성격만 변경되었으며, 기존 육아시설 운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시설 폐지 과정에서는 당시 수용 중이던 아동들은 파주보육원과 동광원 등으로 이송 조치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경동원의 설립과 운영

경동원은 1952년 11월 8일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설립자 정의순은 강원도 출신으로, 한국전쟁 중 1·4후퇴 무렵 연년생 두 자녀를 홍역으로 잃은 개인적 경험을 계기로 영아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남편 신익선의 근무지가 경기도청으로 옮겨지면서 수원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원 지역에 영아보호시설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당시 수원에서 버려진 영아가 발생할 경우, 인천의 해성보육원 등 타 지역 시설로 이송해야 했는데, 군용차로 이동하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영아의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정의순은 이러한 상황에서 영아를 외부로 '이송'하는 방식 자체에 한계를 느끼고, 수원 내에서 직접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의순은 남편과 상의한 끝에 1952년 신풍동 186번지에 전셋집을 얻어 아동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소 직후부터 수용 영아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고, 단기간에 수십 명의 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 시기 경동원



신풍동 시절의 경동원(경동원 제공)

은 공식적인 제도나 행정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과 친인척을 동원한 '가족노동'에 기반하여 운영되었다.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 이전까지 경동원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식량과 운영비였다.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재정 기반은 취약했으며, 이에 따라 정의순 가족은 자급적 생존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돼지와 병아리를 기르고 농사를 병행하며 운영비를 보충하였고, 연료와 식재료도 비공식적 유통망과 지역사회의 지원에 의존하였다.

시설 확장 필요성에 따라 경동원은 수원시 고등동 71-3번지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 시점부터 일부 정부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원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시설 운영의 안정화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럼에도 고등동 시기의 경동원은 양육 방식과 보호 환경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고, 서울 사직동 시립영아원 관계자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현장 운영의 전문성이 주목되었다.

설립 8년 만인 1959년 경동원은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는 민간 주도의 아



1953년 6월 20일 경동원을 찾은 수원비행장 주둔 미 제8전투폭격비행단 장교와 사병(국사편찬위원회)
7일간 모금한 기부금 5,000달러를 유엔주한민사처(UNCACK)를 통해 경동원에 전달하였다.

SRI 한국전쟁 피란민과 전쟁고아



고등동으로 이전한 경동원(경동원 제공)



아이들이 뒤엉키지 않도록 큰 상자에 천을 감아 만든 침대(경동원 제공)



난롯가에 모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아들(경동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



아이들에게 더 많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텃밭을 가꾸던 남편(경동원 제공)

동보호 활동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정의순은 개인 명의의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출연하였으며, 이후 정부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국제 민간구호단체인 CCF(기독교아동복리회, 현 한국어린이재단)의 지원이 연계되면서 경동원의 재정 구조는 이전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후원 아동 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1968년 경동원 주변에 소방도로 개설이 추진되어 고등동 부지에서 이전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1970년 하광교동으로 이전하여 새 건물을 준공하였다. 당시 하광교동 시설은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당시 기준에서 비교적 현대적인 시설로 평가되었으며, 1세부터 7세까지 127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이전 직후 수원시 하광교동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설 증축이 불가능해졌고, 교통·통신 인프라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경동원은 국회의원, 지역 인사,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버스 노선 확보, 진입로 포장, 전화선 개설 등 생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경동원의 운영 지속성은 정의순 개인의 헌신만이 아니라 가족, 종교, 제도, 지역사회가 중층적으로 결합된 결과였다. 정의순은 시설 운영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는 운영의 지속성과 정체성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남편 신익선은 재정적·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 환경 조성, 생활 지원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후 딸 신승주가 1986년 총무로 참여하였고, 나아가 제2대 원장이 선임되어 경동원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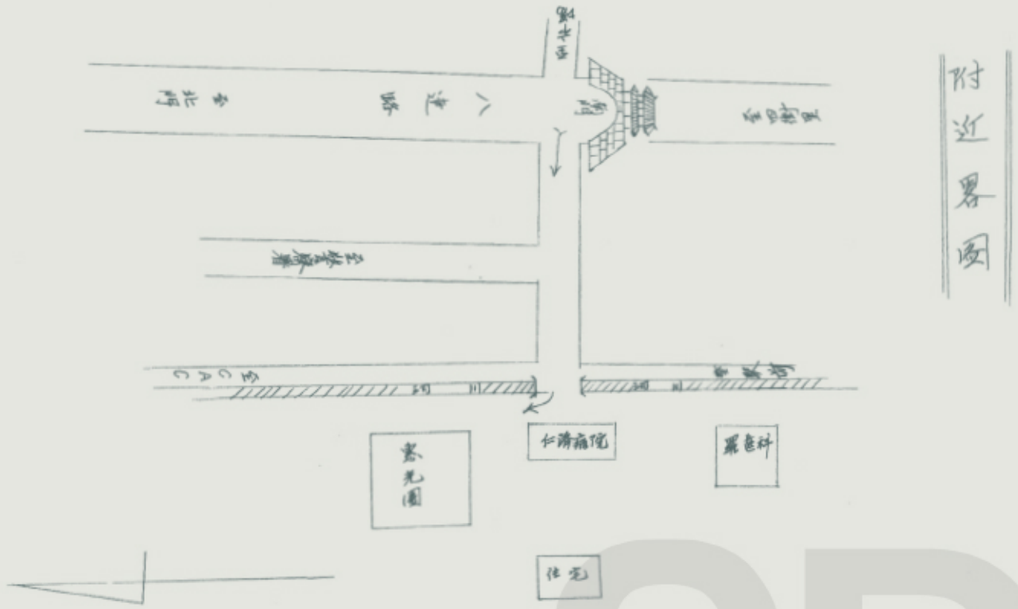
4) 혜광원의 설립과 운영[22]

혜광원은 신현익이 1952년 4월 20일 수원시 남창동 134번지에 설립한 시설로, 1953년 제출한 후생시설 인가신청서에 '혜광아동병원·혜광보육원(속칭 혜광원)'으로 시설명을 기재하였다. 혜광원 설립취지서에 따르면, 기존 고아 수용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 영역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고아환자 치료'라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수시설로 혜광원을 구상하였다고 한다. 즉 각지에 고아원과 피란민 수용소가 설치되어 최소한의 수용과 급식은 이루어졌으나, 의료·보건시설은 거의 전무하거나 극히 불완전한 상태였다. 그 결과 질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에 설립자 신현익은 기독교 침례회 신자로서 기독정신에 입각한 자선사업으로 수원에 고아보육과 진료를 병행하는 시설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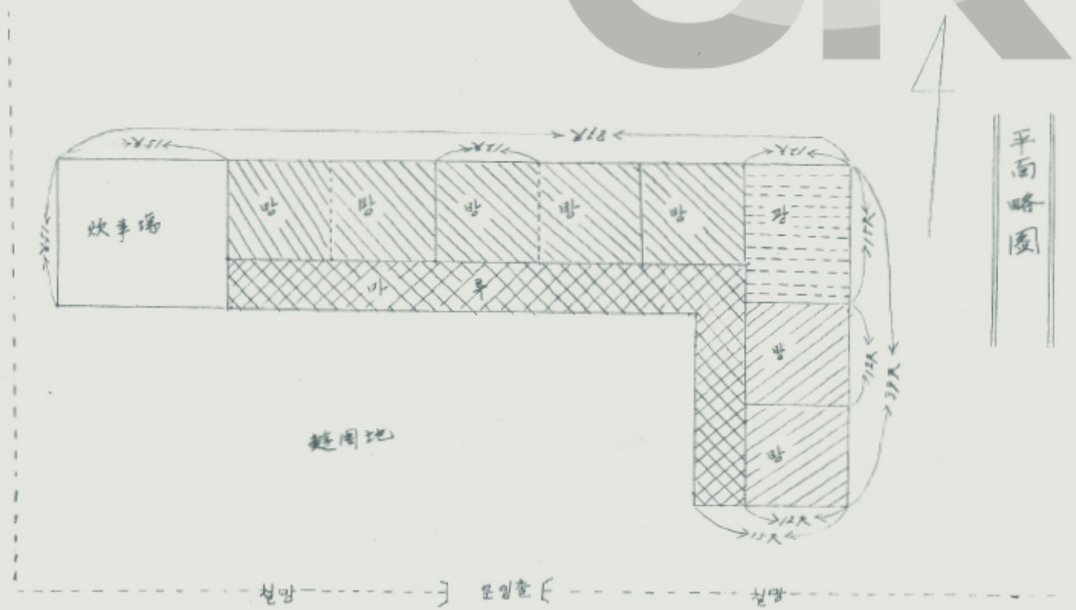
경영방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경기도 고아수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설임을 강조하였는데, 기존 고아원들은 구호와 수용에는 일정한 질서를 갖추었으나, 환자 치료 대책은 극히 미약하였고, 고아환자는 각 시설과 당국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다고 진단하였다. 둘째,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료치료 중심의 고아환자 치료시설'이라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경기도 내 각 고아원을 대상으로 환자를 외래 진료하고, 위급환자에 대해서는 왕진을 실시하며, 동시에 약 60명 규모의 영양부족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로 운영할 것을 밝혔다. 셋째, 향후에는 적절한 건물을 확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혜광원(수원시 남창동 134) 부근 약도(국가기록원 제공)



혜광원(수원시 남창동 134)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平面略圖
炊事場
밤
밤
밤

이 장성초로 변경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다. 이에 1953년 당시 수원시 남창동과 영화동에 소재하던 혜광원의 자산은 1960년대에 수원시 정자동과 용인구 기흥면 보라리로 재편되었다〈표 6〉. 1966년에는 수원시 남창동 134번지 건물을 매각처분하고 수원시 정자동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표 7〉.

표 7 1966년 재단법인 혜광원의 자산 취득

소재지	지목	지적(평)	소재지	지목	지적(평)
수원시 정자동 10	건물	16	수원시 정자동 9-1	전	148
수원시 정자동 10	건물	6	수원시 정자동 9-2	전	230
수원시 정자동 10	건물	6	계		406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혜광원)인가(1953-1971)』(BA0173980, 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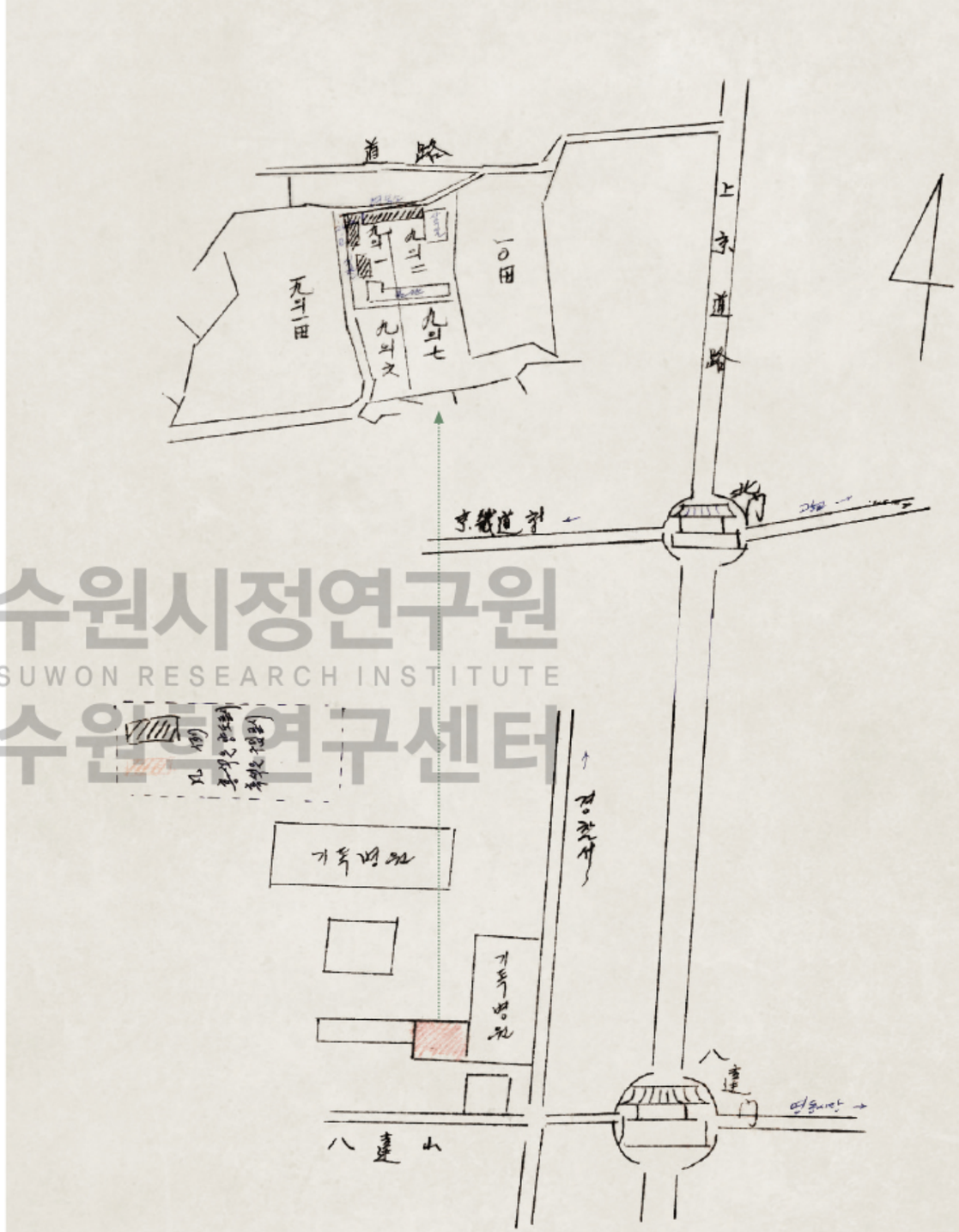
1962년 초대 원장 겸 이사장인 신현익은 건강 문제와 개인 사유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이에 따라 장성초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장성초는 유치원 보육 현장(진명유치원 등)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부인회 경기도본부 부회장, 수원시지부장,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상임이사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재단법인 혜광원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표 8 1957~1963년 재단법인 혜광원 임원 개선

직명	1957년	1962년	1963년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학력	종교
이사장	신현익	신현익	장성초	1908.01.10.	보육학교 졸	침례교 집사
이사	장성초	장성초	최성업	1988.03.25.	신학 졸	침례교 목사
이사	이동전	최성업	오기동	1927.09.15.	고졸	침례교인
이사	정해운	오기동	김장환	1934.07.25.	신학대 졸	침례교 선교사
이사	정존수	이동전	홍수복	1902.12.26.	농교 졸	침례교 집사
감사	오원근	오원근	오원근	1922.03.03.	고졸	
감사	장명신	김희순	김희순	1920.11.20.	농대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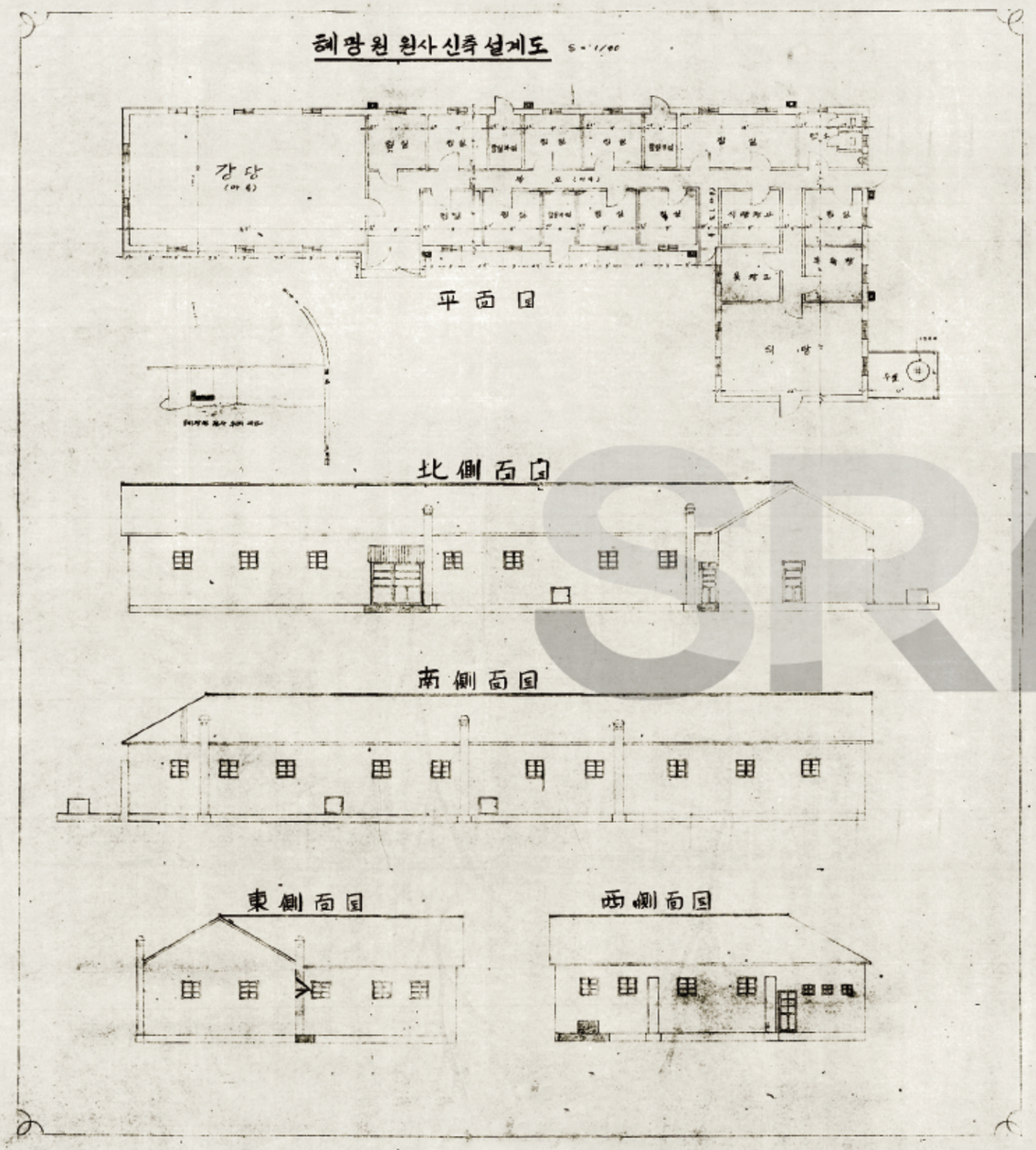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혜광원)인가(1953-1971)』(BA0173980, 국가기록원 제공).

1957년 설립 당시부터 1960년대까지 재단법인 혜광원 임원은 침례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5년 임원 구성에서도 장성초는 이사장직을 유지하였으며, 이사로 홍수복, 오기동, 김장환, 이승준이, 감사는 김희순과 오원근이 계속



수원시 남창동에서 정자동 10번지로 이전한 혜광원(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센터



수원시 정자동 10번지 혜광원 원사 신축 설계도(국가기록원 제공)



서강학원으로 변경된 혜광원(1981년, 수원상공회의소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학연구센터

해서 재임하였다. 1968년에는 이정환(수원기독병원 원장)이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는 혜광원의 촉탁의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1969년에는 혜광원의 시설 대표가 장성초에서 신방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장성초가 건강 문제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혜광원은 1979년 사회복지법인 앙카라학원과 합병하기로 뜻을 모았고, 4월 10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합병 허가를 받았다. 5월 21일 두 법인을 통합한 새로운 법인체인 '사회복지법인 소천유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이어 소천유지재단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앙카라학원은 폐지하고, 수원시 정자동 7-12번지에 위치한 혜광원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명칭도 '서강학원'으로 변경하였다. 서강학원 운영은 앙카라학원 원장이었던 홍석영 대표가 맡았고, 법인 이사장은 장성초가 맡았다.

5) 수원중앙보육원의 설립과 운영[23]

수원중앙보육원은 전쟁고아와 무연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김재석이 1953년 8월

24일 수원시 고등동 95번지에 설립한 아동보호시설이다. 설립자 김재석(1905년생)은 전라남도 광산군 출신으로, 식민지시기 엘리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물이었다. 그는 1925년 경성제1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28년 수원고등농림학교 임학과를 수료하였다. 이후 1932년 조선총독부 기수로 근무하며 관료 조직에 편입되었고, 1937년에는 함경남도 산업부에서 재직하였다. 이러한 이력은 김재석이 식민지 행정 체계와 산업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음을 보여 준다. 1940년 이후에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남하하였다.

수원중앙보육원은 설립 이후 일정 기간 개인 운영 시설의 형태로 유지되다가, 1957년 8월 1일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는 1950년대 후반 민간 아동복지시설들이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적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던 전국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재단법인 설립 당시 수원중앙보육원이 보유한 기본재산은 수원시 고등동 95-1번지 일대의 전과 주택, 그리고 화성군 태장면 권선리 일대의 전을 포함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원시 고등동 95-1번지에는 전 2,130평과 주택 24평, 그리고 동일 지번의 주택 2,125평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화성군 태장면 권선리에는 233번지 전 2,050평과 256-2번지 전 1,217평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표 9〉.

표 9 1957년 재단법인 수원중앙보육원 기본재산

소재지	종별	면적(평)	소재지	종별	면적(평)
수원시 고등동 95-1	전	2,130	화성군 태장면 권선리 233	전	2,050
수원시 고등동 95-1	주택	24	화성군 태장면 권선리 256-2	전	1,217
수원시 고등동 95-1	주택	2,125			

출처 : 수원시, 『법인관리 수원중앙보육원(1957-1970)』(BA0173848, 국가기록원 제공).

재단법인 수원중앙보육원의 임원 구성도 주목할 만하다〈표 10〉. 1957년부터 1969년에 이르기까지 이사장은 일관되게 김재석이 맡았으며, 이는 설립자 주도로 시설이 운영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사회 구성원으로는 김성관(농천교회 목사), 조성지(서울농대 교수), 김현숙(수원중앙보육원 총무), 김명관(경복고등학교 교감) 등이 참여하였다. 이후 시기별로 임경애와 신현정 등이 이사로 추가되었다. 감사도 박영관(서울농대 전임강사)과 김순임(서울대학교 사회학부 재학)이 지속적으로 맡아, 학계 인사들이 시설의 재정과 운영을 점검하는 구조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임원 구성을 통해 볼 때 수원중앙보육원은 농천교회와 서울농대 관계자들이 시설 운영에 인적·물적으로 지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 재단법인 수원중앙보육원 임원 변화

구분	1957	1966	1969
이사장	김재석	김재석	김재석
이사	김성관(농천교회 목사) 조성지(서울농대 교수) 김현숙(수원중앙보육원 총무) 김명관(경복고등학교 교감)	조성지 김현숙 김명관 임경애	김명관 임경애 신현정
감사	박영관(서울농대 전임강사) 김순임(서울대학교 사회학부 재학)	박영관 김순임	박영관 김순임

출처 : 수원시, 『법인관리 수원중앙보육원(1957-1970)』(BA0173848, 국가기록원 제공).

1957년에는 보육원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숙사 신축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원중앙보육원은 미 제8군사령부와 군수물자조달처를 통해 건축 자재를 지원받았다. 이는 전후 한국 사회에서 미군이 잉여 군수물자를 민간 구호시설에 제공하던 관행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 재정이 미비했던 시기에 아동복지시설들이 의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외부 자원이었다. 아울러 수원중앙보육원은 세계기독교 구제선명회 아세아본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었다. 이러한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의 지원은 시설 운영비 보조, 물자 지원, 후원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1950년대 수원 아동복지시설의 의의와 한계

한국전쟁은 수많은 전쟁고아와 기아(棄兒)를 양산하였는데, 서울의 배후이자 피란의 거점이었던 수원 지역은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가장 극명하게 투영된 공간 중 하나였다. 당시 국가의 행정력과 복지 예산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제도적 공백기' 속에서,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대 수원중앙침례교회 터에 자리한 중앙재생원(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중앙침례교회가 교동으로 이전한 후 1952년 중앙재생원이 설치되었다.



1950년대 중앙재생원 원아들(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의 아동복지시설들은 국가를 대신해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끌어안은 '사회적 안전망'의 시초였다.

수원 지역의 시설들은 설립자의 배경과 철학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분화하며 발전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역적 특수성을 갖는다. 김양배의 자유동원은 예술 교육을 통해 전쟁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했던 시도였으며, 정의순의 경동원은 이송 중 사망하는 영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된 보호소였다. 또한 의사 신현익이 설립한 혜광원은 의료와 보건이라는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당시 민간의 구호 활동이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각적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 준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복지행정의 제도화를 본격화하며, 아동복리법 제정과 함께 후생시설 인가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하였다.[24] 이에 따라 수원의 아동복지시설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었고, 법인 설립, 시설장 교체, 이사진 구성, 자산 정비 등의 과정을 통해 행정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혜광원, 경동원, 수원중앙보육원 등은 법인화와 자산 확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응급 구호소' 단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복지시설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려 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한계도 명확하였다. 대부분의 시설은 미군 부대와 외원단체(UNKRA, CCF 등)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원조가 축소된 1960년대 이후 시설의 존폐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동원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수원육영원과 같이 운영 비리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국전쟁 후 수원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역사는 폐허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민간의 치열한 헌신과, 외원 의존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복지체계로 편입되어 가는 한국 사회복지 발달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닦아 놓은 터전은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토양이 되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25]은 한국전쟁



후원물품을 옮기고 있는 자유동원 원생들(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이후 급증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법제화한 최초의 아동복지 법률이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유실·유기·방임·학대 등의 상황에서 아동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개입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이처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민간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였다. 1960년대에도 아동복지시설의 이용 아동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전쟁고아보다는 빈곤과 가정문제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었다. 특히 가출 아동과 기아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시설은 점차 후원금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일부 빈곤가정은 아이의 생계와 교육을 위해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관행이 발생하였다.

1960년대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사회정책은 구조적으로 미진한 상태에 머물렀다. 전쟁고아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빈곤하거나 기능적으로 취약한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이 고아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시설 보호는 외원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구조 속에서 지속되었다.

註

1 「아동복지법」 제2조는 '요보호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보호자가 양육에 부적당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기타 이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고아, 기아, 부랑아, 가출아,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게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 등이 포함된다. 요보호아동은 크게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아동과, 가정 내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영아원·보육원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 과거에는 '고아'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복지 행정에서는 그 의미와 범위를 보다 넓게 포괄하는 '요보호아동'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한국전쟁은 대규모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초래하였고, 이는 이후 시설 중심 보호체계의 확립과 제도적 아동복지 법령 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 소현숙, 2018,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 」,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4집, 325쪽.
3 「미아가 반수」, 『조선일보』 1951년 6월 4일; 「향상되는 고아들 생태」, 『조선일보』 1952년 5월 19일.
4 이혜경, 1993, 「경제성장과 아동복지정책의 변용」, 『한국아동복지학』 제1호, 202쪽.
5 소현숙, 2018,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 」,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4집, 328쪽.
6 서울기록원,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변화」, 『서울기록원 복지 사료특집 – 복지정책사 연표』, https://archives.seoul.go.kr/contents/welfare-01(검색일 2025년 7월 17일).
7 김은정, 2021, 「1950-60년대 아동복지사업의 내용과 성격 – CCF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사학』 제47호, 298쪽.
8 소현숙, 2018,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 」,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4집, 329쪽.
9 소현숙, 2018,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 」, 『한국근현대사연구』 제84집, 334~335쪽.
10 화성시문화재단, 2020,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24쪽.
11 화성시문화재단, 2020,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25쪽.
12 화성시문화재단, 2020,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25쪽.
13 화성시문화재단, 2020,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131쪽
14 「자유동원 발족 급 취지서(1958)」(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15 「자유동원 발족 급 취지서(1958)」(화성시독립기념관 제공).
16 화성시문화재단, 2020,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140~141쪽.
17 화성시문화재단, 2020,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137쪽.
18 화성시문화재단, 2020,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137쪽
19 화성시문화재단, 2020,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141쪽.
20 수원시, 「시설관리 수원육영원(1951-1978)」(BA0173874, 국가기록원 제공).
21 수원시, 「시설관리 수원육영원(1951-1978)」(BA0173874, 국가기록원 제공), 71쪽.
22 수원시, 「사회복지법인(혜광원)인가(1953-1971)」(BA0173980, 국가기록원 제공).
23 수원시, 「법인관리 수원중앙보육원(1957-1970)」(BA0173848, 국가기록원 제공).
24 정부는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제정하고, 민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시도하였다. 이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되던 수용시설을 국가의 규범 안으로 편입하고자 한 최초의 조치였다(이혜경, 1993, 「경제성장과 아동복지정책의 변용」, 「한국아동복지학」 제1호, 199쪽).
25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최초의 아동복지 관련 법률로, 한국전쟁 이후 급증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유실·유기·이탈 또는 보호자가 부적당하거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서 아동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제1조, 제2조).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모자보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 등 다양한 아동복리시설을 법률로 규정하였으며(제3조), 각 시·도에는 아동복리지도원을, 시·군·구에는 명예직 아동위원을 두어 현장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제5조, 제6조). 구청장·시장·군수는 요보호아동 발견 시 일시보호 후 시·도지사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제8조), 시·도지사는 입양, 보호시설 입소, 위탁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법은 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나 착취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제15조), 위반 시 벌칙을 두었으며(제27조), 아동복리시설 운영 시 비용보조 및 면세 조항도 포함하였다(제21조, 제24조). 이후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요보호아동 중심의 구호적 복지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체계로 전환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리법」(법률 제912호, 1961.12.30.); 국가기록원, 「아동복리법」 제정 기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아동복지법」 항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제3부

앙카라학원과 앙카라형제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앙카라학원의 설립과 운영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1. 튀르키예 의무중대의 수원 주둔과 앙카라학원 설립

서울 재탈환을 위한 '썬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에 투입된 튀르키예 제1여단은 1951년 1월 25~27일에 용인 김량장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 현재의 안양과 군포 경계에 위치한 수리산 일대에서 격전을 벌였다. 또한 튀르키예군 의무중대는 1951년 1월 27일부터 수원시 서둔동 중앙농업기술원 일대에 주둔하며 후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튀르키예 2여단의 훈련소도 이곳에 설치되었다.

중앙농업기술원은 농업 연구를 수행하던 곳으로, 1906년 일제가 일본의 농법과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설립한 권업모범장에서 비롯된 기구이다. 이 기구는 1929년 농사시험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데 이어 1947년 농사개량원으로, 1949년 중앙농업기술원으로 개칭되었고, 1957년 농사원을 거쳐 1962년 농촌진흥청으로 개편되었다.

튀르키예군은 군우리 전투 이후 남하하는 과정에서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들을 막사로 데려와 보호하였는데,[1] 시간이 흐르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 상황은 튀르키예 제1여단장 타흐신 야즈즈(Tashin Yazici) 장군에게 보고되었고, 장군은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여 보호하도록 지시하였다.[2] 이에 따라 의무중대가 주둔하던 수원시 서둔동 중앙농업기술원 주변에 아동들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 서둔동에 주둔한 튀르키예 의무중대("LIFE", 제공)



튀르키예군 전사자 장례식(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수원시 서둔동에 주둔한 튀르키예 부대(ATASE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 서둔동 주둔 튀르키예 예의무중대의 한국인 민간인 환자 치료(『LIFE』 제공)



튀르키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최민자(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영화 〈아일라〉의 주인공 김은자(ATASE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1년 하산 휘세인 딘치튀르크와 앙카라학원 원생들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이 시설을 튀르키예 수도의 명칭을 따 '앙카라학원(ANKARA OKULU)'으로 명명하였다. 튀르키예군은 이 시설을 교육시설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앙카라학원 설립을 주도했던 선임하사 하산 휘세인 딘치튀르크(Hasan Hüseyin Dinçtürk)는 다음과 같이 설립 당시를 전하였다.

> 나는 여단의 후방에서 근무하는 참모부 하사관이었다. 미군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남은 음식이 버려지는 곳에서 몇몇 노인들과 분명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음식 찌꺼기를 줍는 모습을 보았다. 자식 생각이 나서 그들과 말을 트기 시작했다. 부모가 전쟁에서 죽었고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군대 배식에서 나온 음식과 내 몫의 보급품, 비누와 초콜릿, 껌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동료들도 나의 행동에 동참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튀르키예식 이름을 붙여 주고, 이스티클랄 마르쉬(튀르키예 국가)와 '앙카라행진곡'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후 현지 당국에서 교사 두 명을 배정해 주었고, 내가 있던 창고 옆 공간을 교실로 꾸몄다. 이렇게 해서 앙카라학원이 세워진 것이다. 처음엔 5~10명분이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모든 필요를 우리가 해결했다.〈Ali Denizli, E. Kurmay Albay, 2014, *KORE SAVAŞINDA TÜRK ASKERİNİN KORE HALKINA YARDIMLARI* VE ANKARA OKULUNUN AÇILMASI, Ankara, 튀르키예군 참전기념연구소〉

앙카라학원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951년 7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앙카라학원은 수원 농사시험장 인근의 '관사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농사시험장 어구 관사촌은 일제시기부터 농사시험장에서 근무하던 관리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서둔동 209번지에 소재하였다.



水原郊外에 "앙카라"學院
土耳其部隊에서設置
學用品과 다듯한料理도

튀르크예 부대의 앙카라학원 설치 기사
(『조선일보』 1951년 7월 7일)

수원 교외 농사시험장 어구에 있는 관사촌에서는 지금 7~8세로부터 12~13세가량 되어 보이는 93명의 어린 남녀들이 아침부터 「가갸거겨…」 귀여운 목소리로 공부도 하고 노래도 하고 뛰엄박질을 하다가는 점심때가 되면 그 앞에 있는 유엔군 토이기 부대 취사장 「바히틴 에리사야」 특무 상사가 갖다주는 토이기 요리를 마음껏 먹고 있는데, 이 학교 이름은 토이기의 수도명을 따서 앙카라학원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내용을 알아본즉, 각 국민학교가 개학도 하기 전, 전쟁통에 시달리며 공부도 못 하고 유엔군 부대 가시철망에 매달려 쵸코레트, 양담배를 찾는 불쌍한 한국의 아동들을 본 수원 주둔 토이기 부대 부대장 「사-듸 우루소이」 소령과 중대장 「메메시발」 대위, 그리고 「애듸 괴카이나크」 중위 등은 전쟁 중 우연히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권업모범장 관사촌



일제시기 권업모범장(농사시험장) 본관과 관사촌(사카이 마사노스케, 1914, 『발전하는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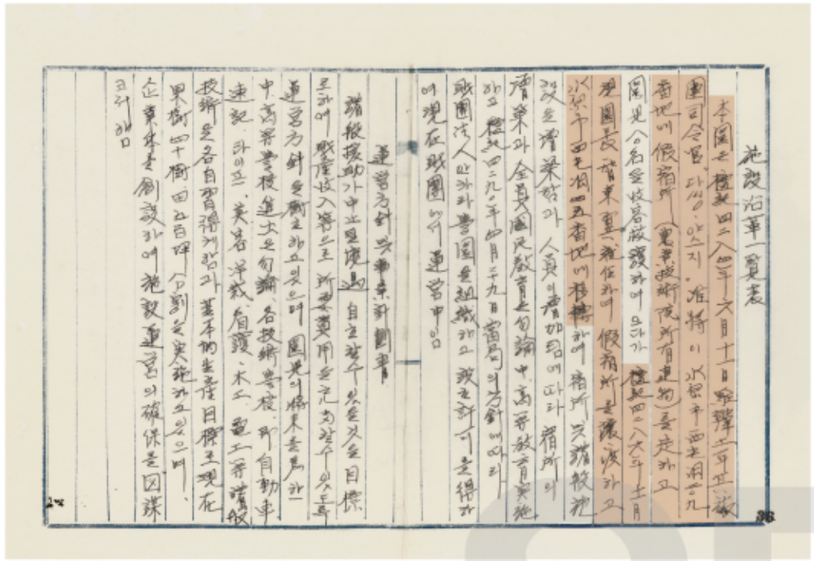


1951년 튀르키예 군인들이 보호하던 아이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통역장교인 백상기이다.



1951년 서둔동 중앙농업기술원 관사촌 건물에 설립된 양카라학원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施設沿革一覽表

本園ヲ擧ゲ四二八四年十六日 敎育之部 ㅣ
團司令官 ㅣ ㅣ ㅣ

원은 지속적인 체계를 갖춘 기관이 되었다. 제2여단 이후 제3여단장 스르 아자르(Sırrı Acar) 준장도 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학교는 나날이 더욱 완벽한 면모를 갖추어 갔다. 또한 제4여단은 학교의 내외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지속했다. 이 시기에 학교의 초석을 닦았던 최태영 교장이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떠났고, 뒤를 이어 1953년 8월 8일 지동익(Ci Dongik) 선생이 부임했다. 제4여단이 귀국할 때, 케말 아쿠르트(Kemal Akkurt) 장군은 1954년 7월 11일 학교를 제5여단에 인계했다.〈「13 – 수원 앙카라학원」, ATASE 제공〉



지동익 원장
(수원시, 1956, 『수원사진대관』)

튀르키예군은 앙카라학원의 운영 전반을 최태영 교장에게 맡겼으나, 최태영은 1953년 안성의 개산국민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사임하였고, 곧이어 권 원장이라는 분이 잠시 학원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권 원장이 앙카라학원을 원활하게 이끌지 못하자,[5] 지동익으로 원장이 교체되었다. 지동익의 자필 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1927년 장단군 장단면 노상리(현 파주시)에서 출생하였으며, 일제 말기인 1941년 수원농업중학교(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1947년 졸업하였다. 졸업 이듬해인 1948년 5월 장단금융조합에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950년 2월 사직하였으며, 1951년 4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하였다가 1955년 졸업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재학 중이던 1953년 11월에 앙카라학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 지동익이 젊은 나이에 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통역을 하면서 튀르키예군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7]

단기 4286년(1953) 12월 현 원장 지동익이 취임하여 가숙소를 양도하고, 수원시 서둔동 45번지에 이전하여 숙소 및 제반 시설을 증축하고,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숙소의 증축과 전원 국민교육을 물론 중고등교육 실시하고 단기 4290년(1957) 4월 29일 당국의 방침에 따라 재단법인 안카라학



TURK SUVAN OKULU
VE YETIM HANESI 안카라학원

서둔동 45번지와 51번지 일대로 이전한 양카라학원(ATASE 제공)
맨 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최태영 원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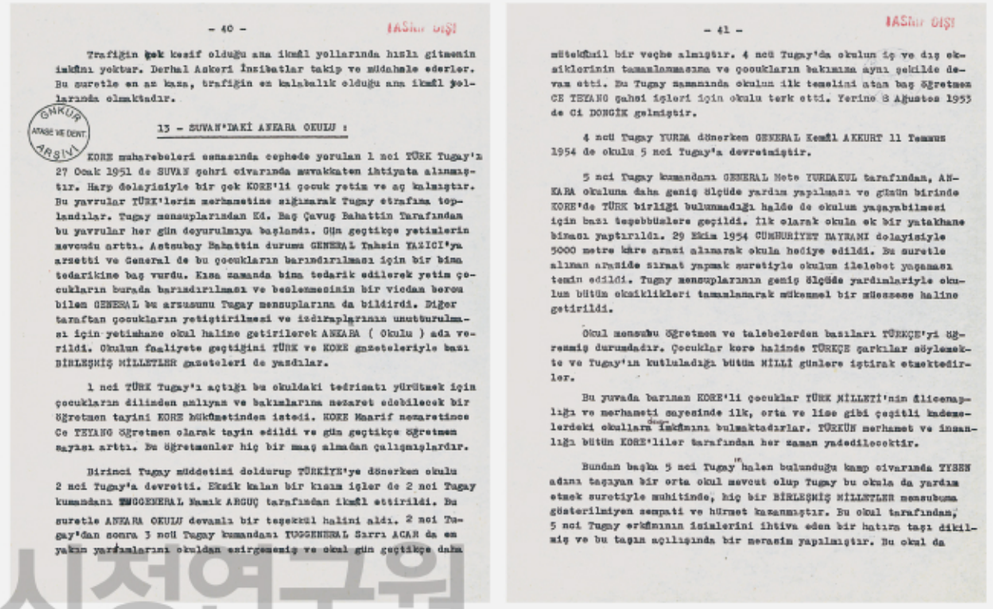
원을 조직하고 설립허가를 득하여 현재 재단에서 운영 중임.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원장 취임 직후인 1953년 12월 지동익은 앙카라학원 원사로 사용하던 서둔동 209번지의 가숙소를 양도하고 앙카라학원을 이전하였다. 1953년 휴전이 현실화하자 정부에서는 중앙농업기술원(구 농사시험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이런 정상화 과정에서 앙카라학원의 이전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앙카라학원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과 연접한 서둔동 45번지와 서둔동 51번지 일대로 이전하였는데, 지동익은 이곳에 있던 일제시기 건물을 개조·증축하여 앙카라학원 숙사와 제반 시설을 마련하였다.

한편, 튀르키예 제5여단장 메테 유르다쿨(Mete Yurdakul, 임기 1954년 6월~1955년 8월) 준장은 1954년 10월 29일 튀르키예공화국 건국 31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였다. 10월 29일 행사는 오전 8시 축하 인사로 시작되어 밤늦은 시각까지 이어졌고, 방문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장 상태에서 음악과 함께 진행된 체육 시범이 있었으며, 병사들이 운동장 위에 튀르키예 여단의 상징인 북극성 문양을 형상화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또한 튀르키예 각 지역의 민속놀이 시연과 장구·피리 연주, 전통 씨름 경기 등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외국인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튀르키예 여단의 보호 아래 운영되던 앙카라학원 원생들의 공연이 진행되었고, 미국 쇼단의 무대 공연과 영국군과의 축구 경기도 열려 국제적 친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저녁에는 외빈을 위한 야간 연회가 개최되어 첫째 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어 10월 30일과 31일에는 한국 공연단이 초청되어 공연을 펼쳤으며, 각 부대 간 체육 경기와 다양한 오락 행사가 이어지면서 기념행사는 여러 날에 걸쳐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8]

또한 메테 유르다쿨 준장은 부대가 철군한 이후에도 앙카라학원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튀르키예공화국 건국 기념



- 40 -

TASNİF DIŞI

Trafiğin çok kesif olduğu ana ikmâl yollarında hızlı gitmenin imkânı yoktur. Derhal Askeri İnzibatlar takip ve müdahale ederler. Bu suretle en az kaza, trafiğin en kalabalık olduğu ana ikmâl yollarında olmaktadır.

13 - SUVAN'DAKİ ANKARA OKULU :

KORE muharebeleri esnasında cephede yorulan 1 nci TÜRK Tugay'ı 27 Ocak 1951 de SUVAN şehri civarında mevkiimizden ihtiyata alınmıştır. Harp dolayisiyle bir çok KORE'li çocuk yetim ve aç kalmıştır. Bu yavrular TÜRK'lerin merhametine sığınarak Tugay etrafına toplandılar. Tugay mensuplarından Ed. Baş Çavuş Bahattin Tarafından bu yavrular her gün doyurulmaya başlandı. Gün geçtikçe yetimlerin mevcudu arttı. Astsubay Bahattin durumu GENERAL Yahsin YAZICI'ya arsetti ve General de bu çocukların barındırılması için bir bina tedarikine baş vurdu. Kısa zamanda bina tedarik edilerek yetim çocukların burada barındırılması ve beslenmesinin bir vicdan borcu bilen GENERAL bu arzusunu Tugay mensuplarına da bildirdi. Diğer taraftan çocukların yetiştirilmesi ve izdiraplarının unuttturulması için yetimhane okul haline getirilerek ANKARA (Okulu) adı verildi. Okulun faaliyete geçtiğini TÜRK ve KORE gazeteleriyle bazı BİRLEŞMİŞ MİLLETLER gazeteleri de yazdılar.

1 nci TÜRK Tugay'ı açtığı bu okuldaki tedrisatı yürütmek için çocukların dilinden anlıyan ve bakımlarına nezaret edebilecek bir öğretmen tayini KORE hükûmetinden istedi. KORE Maarif nezaretince Ce TEYANG öğretmen olarak tayin edildi ve gün geçtikçe öğretmen sayısı arttı. Bu öğretmenler hiç bir maaş almadan çalışmışlardır.

Birinci Tugay müddetini doldurup TÜRKİYE'ye dönerken okulu 2 nci Tugay'a devretti. Eksik kalan bir kısım işler de 2 nci Tugay kumandanı TUGGENERAL Namık ARGUÇ tarafından ikmâl ettirildi. Bu suretle ANKARA OKULU devamlı bir teşekkül halini aldı. 2 nci Tugay'dan sonra 3 ncü Tugay kumandanı TUGGENERAL Sarri ACAR da en yakın yardımlarını okuldan esirgemeniş ve okul gün geçtikçe daha

- 41 -

TASNİF DIŞI

mütekâmil bir veçhe almıştır. 4 ncü Tugay'da okulun iç ve dış eksiklerinin tamamlanmasına ve çocukların bakımına aynı şekilde devam etti. Bu Tugay zamanında okulun ilk temelini atan baş öğretmen CE TEYANG şahsi işleri için okulu terk etti. Yerine 8 Ağustos 1953 de Ci DONGİK gelmiştir.

4 ncü Tugay YURTA dönerken GENERAL Kemâl AKKURT 11 Temmuz 1954 de okulu 5 nci Tugay'a devretmişt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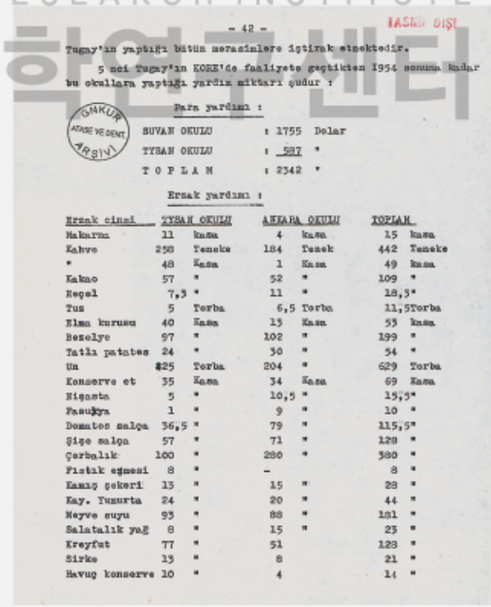
5 nci Tugay kumandanı GENERAL Mete YURDAKUL tarafından, ANKARA okuluna daha geniş ölçüde yardım yapılması ve günün birinde KORE'de TÜRK birliği bulunmadığı halde de okulun yaşayabilmesi için bazı teşebbüslere geçildi. İlk olarak okula ek bir yatakhane binası yaptırıldı. 29 Ekim 1954 CUMHURİYET BAYRAMI dolayisiyle 5000 metre kare arazi alınarak okula hediye edildi. Bu suretle alınan arazide ziraat yapmak suretiyle okulun ilelebet yaşamasını temin edildi. Tugay mensuplarının geniş ölçüde yardımlariyle okulun bütün eksikliklerı tamamlanarak mükemmel bir müessese haline getirildi.

Okul mensubu öğretmen ve talebelerden bazıları TÜRKÇE'yi öğrenmiş durumdadır. Çocuklar kore halinde TÜRKÇE şarkılar söylemekte ve Tugay'ın kutladığı bütün MİLLİ günlere iştirak etmektedirler.

Bu yuvada barınan KORE'li çocuklar TÜRK MİLLETİ'nin âlicenaplığı ve merhameti sayesinde ilk, orta ve lise gibi çeşitli kademelerdeki okullara imkânını bulmaktadırlar. TÜRKÜN merhamet ve insanlığı bütün KORE'liler tarafından her zaman yadedilecektir.

Bundan başka 5 nci Tugay halen bulunduğu kamp civarında TYSAN adını taşıyan bir orta okul mevcut olup Tugay bu okula da yardım etmek suretiyle muhitinde, hiç bir BİRLEŞMİŞ MİLLETLER memuruna gösterilmiyen sempati ve hürmet kazanmıştır. Bu okul tarafından, 5 nci Tugay erkânının isimlerini ihtiva eden bir hatıra taşı dikilmiş ve bu taşın açılışında bir merasim yapılmıştır. Bu okul da

튀르키예 여단의 앙카라학원 운영 및 지원 관련 내용(ATASE 제공)



- 42 -

TASNİF DIŞI

Tugay'ın yaptığı bütün meraimlere iştirak etmekted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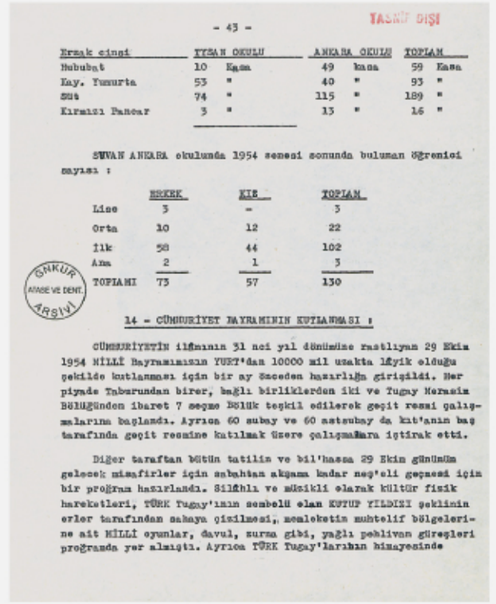
5 nci Tugay'ın KORE'de faaliyete geçtiğinden 1954 sonuna kadar bu okullara yaptığı yardım miktarı şudur :

Para yardımı :

SUVAN OKULU	:	1755 Dolar
TYSAN OKULU	:	587 "
T O P L A N	:	2342 "

Ersak yardımı :

Ersak cinsi	TYSAN OKULU	ANKARA OKULU	TOPLAM
Makarna	11 Kasa	4 Kasa	15 Kasa
Kahve	258 Teneke	184 Teneke	442 Teneke
"	48 Kasa	1 Kasa	49 Kasa
Kakao	57 "	52 "	109 "
Reçel	7,5 "	11 "	18,5"
Tuz	5 Torba	6,5 Torba	11,5Torba
Elma kurusu	40 Kasa	13 Kasa	53 Kasa
Benzlyo	97 "	102 "	199 "
Yatlı patates	24 "	30 "	54 "
Un	425 Torba	204 "	629 Torba
Konserve et	35 Kasa	34 Kasa	69 Kasa
Nişasta	5 "	10,5 "	15,5"
Pasuğyn	1 "	9 "	10 "
Domates salça	36,5 "	79 "	115,5"
Şişe salça	57 "	71 "	128 "
Çorbalık	100 "	280 "	380 "
Fıstık eşmesi	8 "	-	8 "
Kamış şekeri	13 "	15 "	28 "
Kay. Yumurta	24 "	20 "	44 "
Meyve suyu	93 "	88 "	181 "
Salatalık yağ	8 "	15 "	23 "
Kreyfut	77 "	51	128 "
Sirke	13 "	8	21 "
Havuç konserve	10 "	4	14 "



TASNİF DIŞI

- 43 -

Ersak cinsi	TYSAN OKULU	ANKARA OKULU	TOPLAM
Hububat	10 Kasa	49 Kasa	59 Kasa
Kay. Yumurta	53 "	40 "	93 "
Süt	74 "	115 "	189 "
Kırmızı Pancar	3 "	13 "	16 "

SUVAN ANKARA okulunda 1954 senesi sonunda bulunan öğrenici sayısı :

	ERKEK	KIZ	TOPLAM
Lise	3	-	3
Orta	10	12	22
İlk	58	44	102
Ana	2	1	3
TOPLAMI	73	57	130

14 - CÜMHURİYET BAYRAMININ KUTLANMASI :

CÜMHURİYETİN ilânının 31 nci yıl dönümüne rastlıyan 29 Ekim 1954 MİLLÎ Bayramlarının YURT'dan 10000 mil uzakta lâyık olduğu şekilde kutlanması için bir ay önceden hazırlığa girişildi. Her piyade Taburundan birer, bağlı birliklerden iki ve Tugay Merkezin Bölüğünden ibaret 7 seçme Bölük teşkil edilerek geçit resmi çalışmalarına başlandı. Ayrıca 60 subay ve 60 astsubay da kıt'anın baş tarafında geçit resmine katılmak üzere çalışmalara iştirak etti.

Diğer taraftan bütün tatilin ve bil'hassa 29 Ekim gününün geleceği müsaffirler için sabahtan akşama kadar neş'eli geçmesi için bir proğram hazırlandı. Silâhlı ve müsâkli olarak kültür fizik hareketleri, TÜRK Tugay'ının sembolü olan KUTUP YILDIZI şeklinin erler tarafından sahaya çizilmesi, memleketin muhtelif bölgelerine ait MİLLÎ oyunlar, davul, surna gibi, yağlı pehlivan güreşleri proğramda yer almıştı. Ayrıca TÜRK Tugay'larının himayesinde

튀르키예 제5여단(1954년 하반기)의 앙카라학원 지원 식품(ATASE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4년 튀르키예 제5여단의 부대 행사(ATASE 제공)



1954년 튀르키예 제5여단의 부대 행사에 참가한 양카라학원 원생들(ATASE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CENTER



제5여단장 메테 유르다쿨의 양카라학원 방문(ATASE 제공)



서둔동 39번지에 신축된 양카라학원 남자 기숙사(수원시, 1956, 『수원사진대관』)



양카라학원 신축 기념 파티(수원시, 1956, 『수원사진대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일을 맞아 5,000㎡의 토지를 구입해 학원에 기증함으로써,[9] 앙카라학원이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원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 건물을 추가로 건설하도록 하였고, 운영비로 1,755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제5여단은 1954년 연말까지 다량의 식료품을 제공하였다.

표 1 튀르키예 제5여단(1954년 하반기)의 앙카라학원 지원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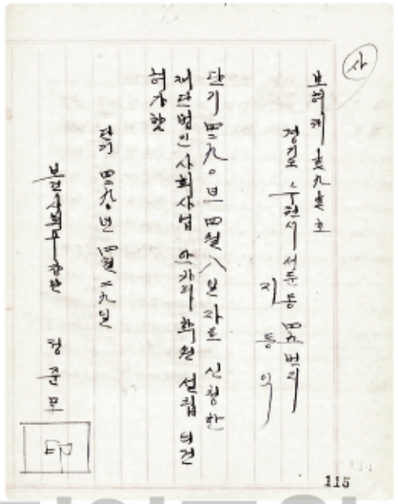
식품	지원량	식품	지원량	식품	지원량
마카로니	4상자	밀가루	204자루	과일 주스	88상자
커피(깡통)	184통	통조림 고기	34상자	식용유(샐러드용)	15상자
커피(상자)	1상자	전분	10.5상자	자몽	51상자
코코아	52상자	콩	9상자	식초	8상자
잼	11상자	토마토 페이스트	79상자	당근 통조림	4상자
소금	6.5자루	병조림 소스	71상자	곡물	49상자
말린 사과	13상자	수프용 식재료	280상자	건조 달걀	40상자
완두콩	102상자	사탕수수 설탕	15상자	우유	115상자
고구마	30상자	건조 달걀	20상자	붉은 사탕무	13상자

튀르키예 제5여단의 지원으로 앙카라학원은 1955년 이후 서둔동 39번지에 새로운 기숙사를 건립하였고, 앙카라학원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들을 매입하였다. 이처럼 튀르키예 장병들의 지속적인 원조는 학원의 재정적·시설적 기반을 보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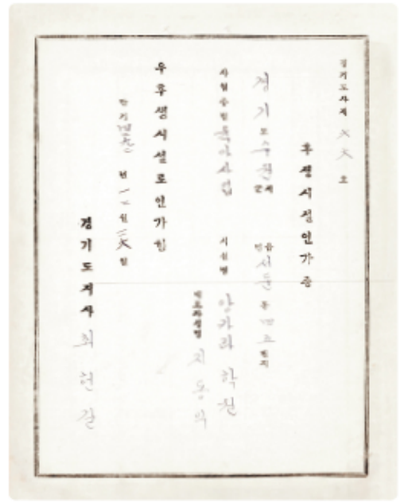
2. 1950년대 앙카라학원의 운영

1) 재단법인 앙카라학원의 설립과 후생시설 인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수많은 전쟁고아와 미망인, 피란민이 발생하며 사회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구호 활동은 주로 개인이나 종교 단체의 선의에 의존한



1957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설립 허가(국가기록원 제공)



1959년 앙카라학원 후생시설인가증(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임시방편인 경우가 많았으나, 시설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후생시설'들이 재단법인이라는 법적 형태를 갖추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개인 자격으로는 대규모 부지 확보나 건물 신축, 계약 체결에 한계가 있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시설 자체가 독립된 법적 주체가 되어 재산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설립자 개인이 사망하거나 신변에 변화가 생겨도 시설 자산이 상속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구호와 복지라는 본래 목적에 계속 쓰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당시 보건사회부는 시설의 난립을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법인화된 시설'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50년대 한국 복지의 핵심이었던 해외 원조기관들은 물자 배분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들은 개인보다 회계 투명성이 보장된 '법인' 형태의 조직을 파트너로 선호했고, 이를 원조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정부는 전쟁 초기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수용시설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 노력하였다. 1952년 '후생시설 설

치기준'이 마련되면서 시설의 설비와 인력 기준이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권장하거나 사실상 강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재단법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받아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재정 상태가 열악했던 시설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57년 3월 지동익은 '사회사업법인 앙카라학원'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 임원 명부, 취임 승락서, 신원 보증서, 재산목록, 설립취지서 등의 문서를 구비하여 인가 절차에 착수하였다.[10] 그 결과 1957년 4월 29일 재단법인 사회사업 앙카라학원 설립이 인가되었다. 또한 그동안 미인가시설로 운영되었던 앙카라학원은 1959년 12월 26일 정식으로 후생시설 인가를 얻었다. 〈표 2〉와 같은 서류들이 인가 과정에서 제출되었는데, 이 자료를 통해 1950년대 후반 앙카라학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 재단법인 설립인가 및 후생시설 인가 시 구비 서류

1957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설립 인가	1959년 앙카라학원 후생시설 인가
설립허가신청서	시설현황표
재단법인 사회사업 앙카라학원 설립요강 (설립취지서, 목적, 사업, 명칭, 사업소 등)	시설연혁일람표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창립회의 회의록	재산목록(등기등본 첨부)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기부행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창립회의 회의록
재산목록(재산소유증명서, 재산가격증명서, 현금예치증명서)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기부행위
재산소유자의 인간증명서	앙카라학원장 임명결의서
재산기부승락서(기부증서)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서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인허증
수지예산서	아동명부
임원취임승락서	신원증명서(대표자)
임원신원증명서	직원이력서
임원이력서	앙카라학원 평면도, 부근약도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2) 앙카라학원의 시설과 재정 운영

1953년 말 서둔동 45번지와 서둔동 51번지 일대로 이전한 앙카라학원은 1955년 이후에는 서둔동 39번지 일대까지 시설을 확장하였다. 1959년 당시 앙카라학원은 총 316평 규모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주요 생활시설로는 남자 숙사 86평, 여자 숙사 24평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식당 34평, 취사장 9평, 목욕장 9평, 이발실 4평 등 원생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이 구비되었다. 또한 응접실 8평, 오락실 22평을 두어 외부 손님 응대와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시설로는 도서실 9평, 음악실 9평, 재봉실 8평, 강당 36평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의무실 8평을 두어 의료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 50평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처럼 1959년 앙카라학원은 생활, 교육, 의료, 여가 기능을 아우르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었다.

표 3 1959년 앙카라학원의 주요 시설

시설	면적(평)	시설	면적(평)	시설	면적(평)
숙사(남)	86	응접실	8	오락실	22
숙사(여)	24	취사장	9	창고	50
재봉실	8	목욕장	9	식당	34
도서실	9	의무실	8	음악실	9
강당	36	이발실	4	계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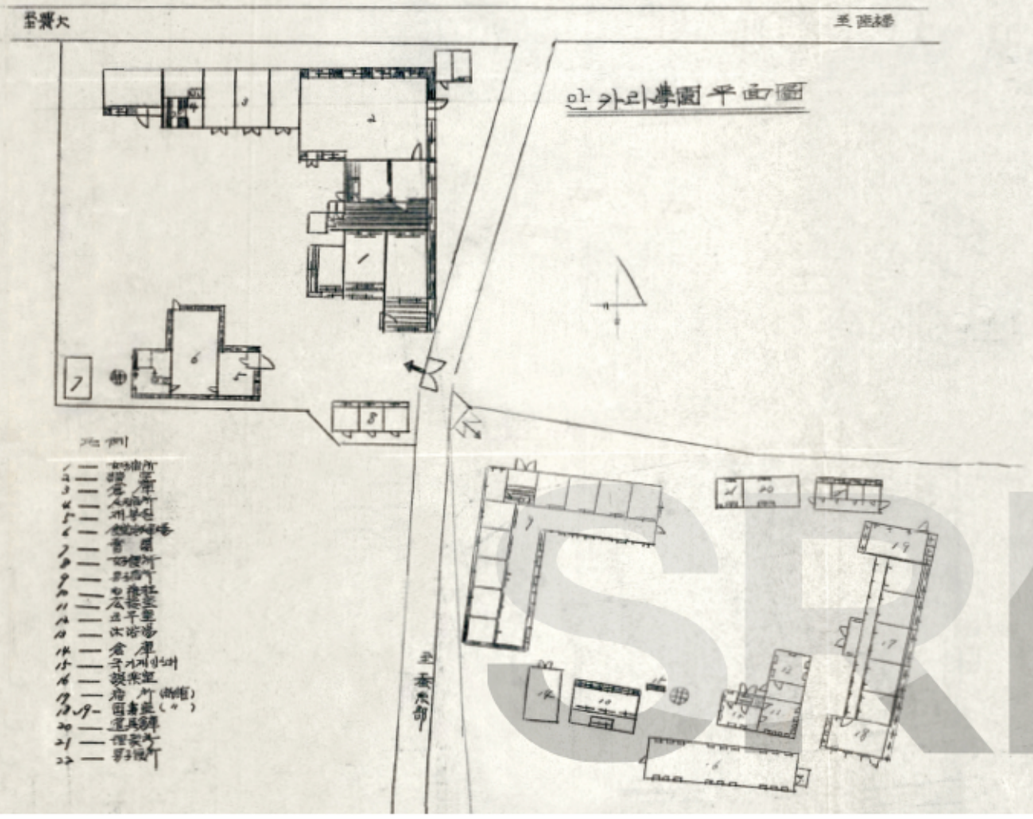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1957년에 작성된 앙카라학원의 재산목록을 보면 시설의 성격과 운영 방식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재산은 크게 토지, 건물,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자산은 296만 3,100환이었다. 이 가운데 토지가 153만 900환(51.7%)으로 절반을 넘고, 건물이 90만 9,500환(30.7%), 현금이 52만 2,700환(17.6%)을 차지하였다. 즉 현금보다 부동산, 그중에서도 농지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였다.

건물은 수원시 서둔동 39-1번지에 위치한 35평 목조건물과 3.45평 목조건물(화장실)이 법인 재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평가액은 90만 9,500환으로 토지 한 필지보다 높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9년 양카라학원 평면도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양카라학원)인가 1952-1964』, 국가기록원 제공)





양카라학원 원사 추정도(1959년 양카라학원 평면도를 기반으로 추정한 복원도)

다. 특이한 점은 〈표 4〉에서 제시한 서둔동 39번지, 45번지와 51번지 일대의 토지는 〈표 5〉의 재단법인 양카라학원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 4〉에서 지동익이 1955년 2월 19일 소유권을 획득한 서둔동 39번지 일대 토지는 1954년 튀르키예 제5여단에서 신축 원사 건축을 위해 마련한 토지로 추정되며, 〈표 5〉에서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일대 토지도 1955년 2월 20일에 소유권이 획득된 것으로 볼 때 튀르키예 제5여단의 지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일대 임야의 면적은 총 7,347평이며 평가액은 73만 4,700환이었다. 천천리 23-1번지, 22-2번지, 382번지, 424번지 네 필지 모두 지목이 임야였지만 '전으로 개간'되었다. 이는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숲이나 산지를 농지로 바꾸었다는 뜻으로, 시설이 식량과 운영비를 스스로 마련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토지는 이미 전으로 사용되던 농지였다. 반월면 입북리 585-1번지, 585-7번지, 586-3번지, 586-1번지, 585-8번지 다섯 필지의 면적 합계는 5,308평이고 가격은 79만 6,200환이었다. 천천리 개간지와 합치면 농지 규모는 1만 2,655평으로 약 4㏊가 넘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표 4 양카라학원 원사 일대(서둔동 39번지, 45번지, 51번지) 지동익 소유 토지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평)	소유자	소유권 획득	소유권 이전
서둔동 39-1	답	2,183	지동익	1955년 2월 19일	1970년 6월 5일
서둔동 39-9	답	343	지동익	1955년 2월 19일	
서둔동 39-13	답	812	지동익	1955년 2월 19일	1971년 10월 31일
서둔동 39-14	답	346	지동익	1955년 2월 19일	1971년 10월 22일
서둔동 39-15	전	400	지동익	1966년 12월 31일	
서둔동 39-17	대	27	지동익	1955년 2월 19일	1971년 10월 22일
서둔동 39-21	전	151	지동익	1968년 1월 12일	
서둔동 45-4	답	673	지동익	1971년 8월 12일	1971년 8월 12일
서둔동 45-7	답	57	지동익	1964년 7월 6일	1967년 4월 12일
서둔동 45-9	대	167	지동익	1971년 1월 19일	1971년 11월 13일
서둔동 48-1	답	572	지동익	1965년 3월 2일	1968년 12월 18일
서둔동 51-2	대	199	지동익	1965년 2월 15일	1973년 12월 29일
서둔동 51-4	답	352	지동익	1967년 4월 12일	1973년 7월 30일
서둔동 51-6	대	82	지동익	1965년 2월 15일	1973년 12월 29일

출처 : 수원시, 『구책(토지)대장』.

표 5 1957년 양카라학원 재산목록

소재지	지적	면적(평)	가격(환)	비고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23-1	임야	4,962	496,200	전으로 개간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22-2	임야	426	42,600	전으로 개간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382	임야	237	23,700	전으로 개간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424	임야	1,722	172,200	전으로 개간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1	전	684	102,600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7	전	659	98,850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6-3	전	712	106,800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6-1	전	13	1,950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8	전	3,240	486,000	
수원시 서둔동 39-1	건물	35	875,000	목조와즙평가
수원시 서둔동 39-1	건물	3.45	34,500	목조와즙평가
현금			522,700	
합계			2,963,100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양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비고 :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23-1번지는 423-1번지, 22-2번지는 423-2번지의 오기로 보임.

재산목록은 재단법인 앙카라학원이 농업을 기반으로 운영을 유지하려 했던 것임을 보여 준다. 넓은 농지를 확보하고 개간까지 진행한 점, 건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현금 비중이 낮은 점을 종합하면 앙카라학원은 전후 사회에서 고아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과 생활을 결합해 유지되던 농장형 복지시설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표 6 1959년 양카라학원 수입예산서

관	항	목	예산액(환)	비율(%)	비고
재산 수입	기본재산 수입	농경작 수입	1,210,000	14.8	답 1,600평 18홉 1,300환씩 234,000환, 전 7,100평 평당 100환씩 710,000환, 과수원 3,000평(266주) 266,000환
보조비	정부보조금	부식비	1,080,000	12.3	월 평균 90,000환씩
사업비	기본수입	재단수입 교부금	5,818,000	71.3	양카라학원 교부액 4,650,000환, 원사 증축 및 수리보조비 1,168,000환
잡수입			50,000	0.6	
계			8,158,000	100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양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표 7 1959년 양카라학원 지출예산서

관	항	목	예산액(환)	비고
사무비	사무원	봉급 및 수당	600,000	월봉 5,000환씩 10명
		여비	180,000	용처실비 월평균 15,000환씩
	유용비	비품비	200,000	책상 탁자 의자 세면기 등 구입 연액
		소모품비	70,000	각종 용지장 구입 연액
수용비	식량비	급량비	1,290,000	주식보충 50홉 15,000환씩 750,000환, 부식비 월 40,000환씩
	의복비	의류비	700,000	1인 연 5,000환씩 140명분
		침선비	50,000	
	난방비	연료비	480,000	월 평균 40,000환씩
	교도비	교육비	1,800,000	1인당 15,000환씩 100명분
		호적비	18,000	월 1,500환씩
	의료비	약품비	70,000	
		치료비	50,000	
시설비	신축비	원사신축	1,600,000	
	시설수리비	보수비	300,000	
잡지출	잡비	세금	25,000	
		회비	18,000	사회사업연합회비
		○○료	120,000	월 평균 10,000환씩
		구독료	12,000	신문구독료
		잡비	50,000	
영농비	농경작비	비료비	96,000	
		인건비	360,000	
		종자비	50,000	
예비비			19,000	
계			8,158,000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양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는 1957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이 작성한 운영 방침 및 사업계획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당 문건에는 외부 원조가 중단되더라도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산수입으로 소요 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과수 40주를 식재하고, 전 500평을 분할 경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아가 자체 기업체를 창설하여 시설 운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었다.[11]

그러나 실제 재정구조는 이러한 계획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1958년 1월 튀르키예 적십자사는 주한 튀르키예군을 통해 앙카라학원에 의연금을 전달하였는데, 전달된 성금은 총 222만 7,700환에 달하였다.[12] 또한 〈표 6〉과 〈표 7〉에 정리된 1959년 앙카라학원의 수입·지출예산서를 보면, 재산(농경작)수입은 전체 수입의 14.8%에 불과하였다. 정부보조비는 13.2%, 사업비는 71.3%, 잡수입은 0.6%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비는 튀르키예 여단사령부의 지원금이었다. 이는 재산수입과 정부보조금만으로는 시설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보여 준다. 즉, 당초 재단법인 앙카라학원의 사업계획과 달리 앙카라학원의 재정은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후반에도 앙카라학원의 재정은 튀르키예군 및 관련 기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자립을 지향한 운영 방침은 현실적 재정 여건 속에서 구현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3)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임원과 직원

1957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설립 과정에서 앙카라학원 운영을 담당할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원장인 지동익이 이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성환·김호식·심종섭·이실경·박대득·오익환·신재상·원연진 등 8명의 이사, 이동수·박익재 2명의 감사로 구성되었다. 임원진 이력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현 서울대학교 농생대)과 '수원농업중학교'(현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수원농업중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지동익 이사장의 인적 관계망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표 8 1957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이사 및 감사

성명	출생연도	본적지	주소지	주요 이력
김호식	1905	경기도 용인군	수원시 서둔동 58	보성고등보통학교 졸업, 수원고등농림학교 농학과 졸업, 일본규슈제국대학 농학부 졸업, 평양숭실전문학교 교수, 수원농림전문학교 교수, 중앙농업기술원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이성환	1920	경기도 이천군	수원시 고등동 139	서울배재중학교 졸업,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 경성목재제약주식회사 입사, 만주국립대학 신정개척의학원 입학, 중앙농업기술원 농화학과 근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신재상	1921	강원도 김화군	수원시 서둔동 98	춘천공립농업학교 임과 졸업, 수원고등농림학교 임학과 졸업, 강원도청 산림과 근무, 수원농림고등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심종섭	1927	전북 김제군	수원시 고등동 137	수원고등농림학교 임학과 졸업, 규슈제국대학 농학부 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강사, 예일대학교 대학원 석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박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이실경	1912	수원시 장안동	수원시 매산로1가 84	동서상업학교 제5학과 졸업, 일본대학 전문부 예과 졸업, 내무부 사회과 근무, 수원시 보건후생과장, 수원시 부시장
박대득	1913	경기도 평택군	수원시 매산로1가 82	대전제1공립보통학교 졸업, 대전공립고등소학교 고등과 졸업, 교통부 수원역 조역, 교통부 조치원역 역장
오익환	1916	서울시 중구	수원시 영화동 55	경성제2공립고등보통학교 졸업, 수원고등농림학교 농학과 졸업, 조선총독부 세무감독국 기사, 평양세무감독국 직세과 근무, 조선공립중학교 교훈, 수원농림고등학교 근무, 수원농림고등학교 교감
원연진	1927	함남 함주군	수원시 고등동 139	일본동경안전공업학교 전기양성과 졸업, 동경삼양전기공업사 근무, 함남합동전기주식회사 함흥지점 근무, 경성전기주식회사 수원지점 근무, 수원상공회의소 감사
이동수	1924	수원시 매산로2가	수원시 팔달로2가 90	신경시립공학원 기계과 졸업, 육군호국토관학교 입학, 수원북중학교 교련 교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치 중등농업교사양성소 졸업, 수원북중학교 교사
박익재	1918	경기도 평택군	수원시 영화동 118	평양상유공립보통학교 졸업, 일본대학 전문부 법률과 중퇴, 평안남도 지방기사 근무, 수원시청 근무, 수원농림중학교 교사, 수원북중학교 교사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이사진 경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학 계열 지식인들이 다수 참여한 점이다. 김호식, 이성환, 신재상, 심종섭 등은 모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였다. 특히 중앙농업기술원 원장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 교수를 역임한 김호식은 제자인 지동익이 앙카라학원과 연결되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분야의 이사들은 의사결정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기관의 공공성을 보증하는 상징적 권력을 담당하는 존재에 가까웠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양카라학원 이사

다른 한편으로 지역 행정과 경제 분야 인물들이 포진한 점인데, 수원시 보건후생과장과 부시장을 역임한 이실경을 비롯하여 철도역장, 수원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임원진에 참여하였다. 당시 민간 복지시설은 인허가·배급·후원금 관리 등에서 지방 행정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했고,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존속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은 의결권 행사자라기보다 외부와의 연결 통로이며, 기관을 둘러싼 정치·행정적 위험을 완충하는 후견 네트워크였다. 감사의 성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회계 전문 감독 기능보다는 사회적 보증인의 의미가 강하다. 법인의 재정이 투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전문 감사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신뢰할 만한 인물이 이름을 올림으로써 후원자와 행정기관에 안정성을 보여 주는 장치였다.

이러한 구성을 종합하면 형식상으로는 이사회가 이사장을 감독하지만, 실제로는 지동익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교수 집단이 기관의 정당성을 제공하며 지역 유지들이 그 운영을 사회적으로 보호하였다. 이사회는 연합 후견체계이며, 각 구성원의 역할은 통제·결정·집행이 아니라 '보증·정당화·지원'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표 9 1959년 양카라학원 직원 현황

성명	출생연도	본적지	주소지	주요 이력
이순자	1937	경북 성주군	서둔동 45	1951년 예산공립여자중학교 졸업 1955년 양카라학원 보모 근무
윤재정	1933	충남 당진군	서둔동 45	1951년 예산공립여자중학교 졸업 1956년 양카라학원 보모 근무
이정용	1937	강원도 철원군	서둔동 45	1947년 철원군 제1국민학교 졸업 1949년 철원여자중학교 졸업 1953년 한성여자고등학교 졸업 1955년 이화여대 의대 예과 2년 수료 1957년 양카라학원 교사 근무
이옥희	1935	경기도 포천군	서둔동 45	1946년 철원군 제3국민학교 졸업 1948년 철원여자중학교 졸업 1953년 동덕여자고등학교 졸업 1958년 양카라학원 교사 근무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양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한편, 1959년 양카라학원의 직원은 원장을 비롯하여 보모와 교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모인 이순자와 윤재정은 같은 여자중학교를 졸업한 후 양카라학원에 취업하였는데 취업 정보가 지역 인맥과 선후배를 통해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인 이정용과 이옥희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들은 철원여자중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비슷한 진학 궤적을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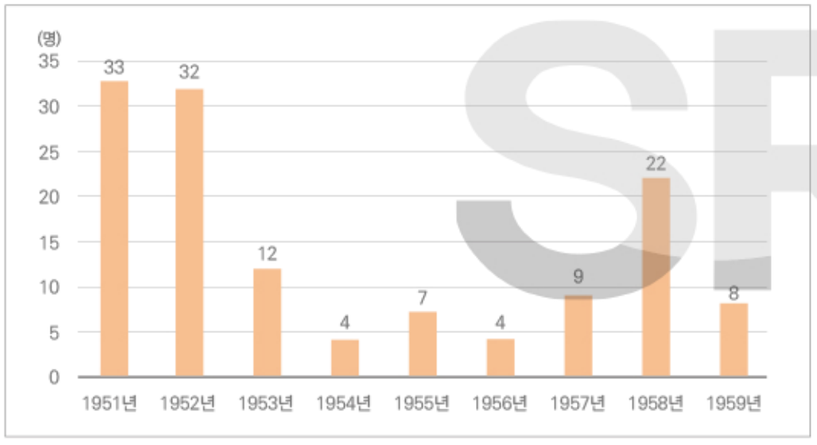
4) 양카라학원 원생들

양카라학원 원생 수는 설립 초기 약 80~90명이었으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수용 정원이 130명이었다. 1959년 후생시설 인가 신청서류에 따르면 실제 수용 인원은 131명이었고 남자 아동이 78명, 여자 아동이 53명이었다. 〈표 10〉은 1959년 양카라학원에 수용되어 있던 아동 131명의 입소시기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시설이 언제 가장 집중적으로 아동을 수용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입소 양상이 어떻게 변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전체 분포를 보면 전쟁기 집중 → 전후 감소 → 후반기 재증가라는 흐름이 나타난다.

가장 많은 아동이 입소한 시기는 1951년과 1952년이다. 1951년 33명(25.2%), 1952년 32명(24.4%)으로 두 해에만 전체의 약 절반(49.6%)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한국전쟁 초기 대량의 전쟁고아와 피란 아동이 발생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즉 앙카라학원은 설립 직후 전쟁 피해 아동을 긴급 보호하는 구호시설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53년은 12명(9.2%)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는 시기이다. 다만 정전 이후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대량 유입 단계는 지나가고, 보호 수요가 완만히 줄어드는 전환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1959년 앙카라학원 아동의 입소시기

표 10 1959년 앙카라학원 아동의 입소시기

입소연도	아동수(명)	비율(%)	입소연도	아동수(명)	비율(%)
1951년	33	25.2	1956년	4	3.0
1952년	32	24.4	1957년	9	6.8
1953년	12	9.2	1958년	22	16.8
1954년	4	3.0	1959년	8	6.1
1955년	7	5.3	계	131	100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孤兒院서의 父子相逢記

찾아 헤매기를 1年2個月

한때는 養子의 生活도

아빠의 자첫失手가 喜悲의길로

1년 만에 부모를 상봉한 앙카라학원 보호 미아(『조선일보』, 1959년 7월 14일)

1954~1956년에는 입소 인원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1954년 4명(3.0%), 1955년 7명(5.3%), 1956년 4명(3.0%)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전쟁 직후 긴급 구호 단계가 종료되고 국가·지역사회 복구가 진행되면서 대량 고아 발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앙카라학원은 대규모 수용시설이라기보다 기존 아동을 장기 보호·양육하는 시설로 성격이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1957년 이후 입소 아동 수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957년 9명(6.8%), 1958년 22명(16.8%), 1959년 8명(6.1%)이 입소하는데, 특히 1958년에 입소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전쟁 직후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고아의 유입과는 성격이 다르며, 전후 사회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 가족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해진 기아·미아의 증가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시설의 기능이 전쟁 피해 아동을 긴급 수용하던 단계에서 일반 아동복지시설로 전환되는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 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대 후반 양카라학원 사람들(길문자 제공)



이러한 변화는 혈연관계에 있는 입소 아동의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남매·형제·자매 등 가족 단위로 입소한 아동은 총 28명인데, 이 가운데 1953년 이전 입소자는 8명, 1955~1956년 입소자는 4명에 그친 반면, 1958~1959년 입소자는 1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쟁기에는 주로 개별적으로 분리된 아동이 보호 대상이 되었던 데 비해, 후기로 갈수록 가족 단위의 입소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부모의 사망뿐만 아니라 생존 가족이 있음에도 양육이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사례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957년 이후 나타나는 입소 증가 현상은 전쟁고아 수용의 연장선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전후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 기능이 확대·강화되어 가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1959년 앙카라학원 아동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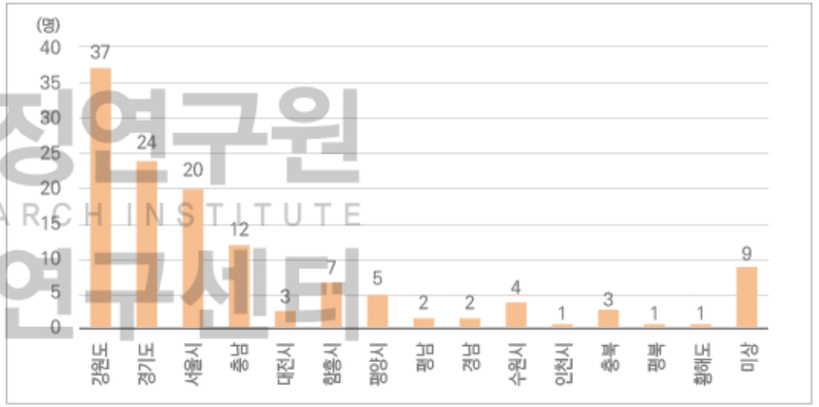
연령	아동수(명)	비율(%)	연령	아동수(명)	비율(%)
3세	1	0.8	13세	25	19.1
4세	5	3.8	14세	7	5.3
5세	3	2.3	15세	8	6.1
6세	3	2.3	16세	6	4.6
7세	8	6.1	17세	8	6.1
8세	5	3.8	18세	20	15.3
9세	2	1.5	19세	9	6.9
10세	4	3.0	20세	4	3.0
11세	7	5.3	계	131	100
12세	6	4.6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앙카라학원 원생의 연령을 살펴보면 영유아 및 저연령층은 매우 적다. 3~6세는 각각 1명(0.8%), 5명(3.8%), 3명(2.3%), 3명(2.3%)으로 합계 12명, 전체의 약 9% 수준에 불과하다. 7~10세도 각각 8명(6.1%), 5명(3.8%), 2명(1.5%), 4명(3.0%)으로 많지 않다. 반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는 연령은 13세 이상이다. 13세 25명(19.1%)으로 가장 많고, 18세 20명(15.3%)이 뒤를 잇는다. 또한 15세 8명(6.1%), 17세 8명(6.1%), 19세 9명(6.9%), 20세 4명(3.0%) 등 청소년 후반에서 성년 초입까지 고르게 존재한다. 13세 이상만 합하면 약 절반을 훨씬 넘는 비중을 차지하여, 앙카라학원 아동의 다수는 이미 성장 단계에 접어든 연령층이었다.

이 구조는 시설 운영의 시간적 성격을 잘 보여 준다. 1959년 시점에 13세 이상이 87명으로 66.4%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들이 대략 1951~1953년에 입소했음을 의미한다. 즉 전쟁 직후 보호된 5~12세 아동들이 시설에서 계속 성장하며 청소년이 된 상태였던 것이다.

1959년 기준 앙카라학원 아동 131명의 본적지 분포를 보면, 시설이 특정 지역의 고아만을 수용한 곳이 아니라, 전쟁으로 전국에서 유입된 피란·이산 아동의 집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9년 앙카라학원 원생의 본적지 분포

표 12 1959년 앙카라학원 아동의 본적지

본적지	아동수(명)	비율(%)	본적지	아동수(명)	비율(%)
강원도	37	28.2	경남	2	1.5
경기도	24	18.3	수원시	4	3.0
서울시	20	15.3	인천시	1	0.7
충남	12	9.2	충북	3	2.3
대전시	3	2.3	평북	1	0.7
함흥시	7	5.3	황해도	1	0.7
평양시	5	3.8	미상	9	6.9
평남	2	1.5	계	131	100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먼저 가장 큰 비중은 강원도를 본적지로 둔 아동인데 전체의 28.2%에 해당하는 37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김화군 7명, 원주군 2명, 철원군 21명, 춘천시 2명, 평창군 4명, 기타 1명이었으며, 이들은 1951년 4월부터 1952년 12월 사이에 입소하였다. 강원도는 전쟁 당시 전선 이동이 반복되고 민간인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족 해체와 아동 유실이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앙카라학원은 전쟁 피해 지역 아동을 집중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1951년 5월 유엔군 재반격으로 철원 지역에 다시 미군과 국군이 진주하였다. 그리고 산속에 숨어 있던 주민들에게 "우리는 국군입니다. 산속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나오십시오."라는 안내 방송을 계속하며 전단을 뿌려 대었다. 이때 많은 주민들이 피신처에서 나왔고 미군 트럭에 실려 38선 근처 포천군 영평천 일대에 집결하였다. 여기서 남자들은 전방으로 다시 보내져 전선에서 KSC(Korean Service Corps)의 노무자로 일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나루(현 서울 천호동) 피난민수용소로 보내졌으며 이중 상당수가 신갈을 거쳐 수원으로 이동하였다.[13] 그 후 1952년 8월 5일부터 1952년 9월 28일까지 김화 동북방 수도고지 전투, 1952년 10월 6일부터 1952년 10월 15일까지 백마고지 전투, 1952년 10월 14일부터 1952년 11월 24일까지 저격능선 전투 등이 벌어졌는데,[14] 이때에도 다수의 피란민들이 수원으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앙카라학원뿐만 아니라 수원의 아동보호시설에는 강원도 철원과 김화 피란민들이 다수 입소하였다.

그다음은 경기도 24명(18.3%)과 서울시 20명(15.3%)으로, 합해서 약 33.6%에 달하였다. 1951년 4월 서울철수령 이후 피란에 나섰던 서울시민들이 다시 북상하는 과정에서 수원에서 장기간 피란 생활을 이어 갔는데, 이때 다수의 서울 출신 아동들이 입소하였다. 경기도 출신의 경우 1953년 이전 입소자는 12명이고, 나머지는 1954년 이후 입소자였다. 이는 전후에 경기도 권역의 아동들이 행정적 이송이나 경찰·구호기관을 통한 보호 조치 과정에서 시설로 편입된 결과이다.

그 외에 충청 지역과 북한 지역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였다. 충남 12명(9.2%), 충북 3명(2.3%), 대전 3명(2.3%)으로, 이들은 대부분 전쟁기 이후 편입된 아동이었다. 또한 평양 5명(3.8%), 평남 2명(1.5%), 평북 1명(0.7%), 함흥 7명(5.3%), 황해도 1명(0.7%) 등 총 16명(약 12%) 이상이 북한 지역 본적을 가졌다. 이들 중 상당수가 1950년대 후반 앙카라학원에 유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수원에 재정착한 피란민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5) 앙카라학원 원생들의 교육

한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지만, 후생시설 아동들의 취학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사친회비를 비롯한 각종 잡부금이 많이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1953년 문교부는 이듬해부터 후생시설(고아원) 수용 아동의 교육 부조금을 감면하도록 각 도지사에게 통첩하였으나, 고아원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이러한 잡부금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 학교들은 사친회비나 기부금을 낼 수 없는 고아들의 입학을 꺼렸고, 학교별로 입학 정원을 소수로 제한함으로써 고아들의 취학을 사실상 제약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고아들은 일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고아원 내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원아들 스스로 학교 교육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15]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고아원에서는 자체 시설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아원에 부속 학교를 설치하여 원내 교육을 시행한 사례는 1952년 서울 영등포보육원에 부속 공민학교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정부도 원아 수가 100명을 넘는 보육시설에 국민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파견하도록 조치하였다.[16]

1955년 수원 후생시설의 아동 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앙카라학원과 혜광원, 수원보육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원내 교육이 이루어졌다. 앙카라학원은 국민학교 1~4학년 과정을 자체 운영했으며, 아동들은 이 과정을 마친 뒤 지역 국민학교(매산국민학교와 고색국민학교)로 진학해 5~6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였다. 혜광원도 수용 인원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이었지만 원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내 교육이 실시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대 앙카라학원 원생들(오수업 제공)



1950년대 중학교 재학 중인 앙카라학원 원생들(최정자 제공)

는 앙카라학원과 혜광원·수원보육원의 경우 기타로 분류되는 아동, 즉 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내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 자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중등교육을 받는 앙카라학원 아동의 비율이다. 앙카라학원 아동의 26.6%가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는 다른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타 시설의 중학교 재학자 비율은 혜광원 14.1%, 삼일애육원 9.6%, 수원보육원 8%, 수원육영원 6.1%, 성베드로보육원 5.8%, 중앙재생원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10대 후반 아동이 많이 수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튀르키예군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군의 지원 덕분에 앙카라학원 원생들은 실력만 갖춘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중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표 13 1955년 12월 수원 후생시설 아동 교육 상황

(단위 : 명)

시설명	수용 인원	원내 교육 (초등)	원외 교육				미취학	기타
			초등	중등	고등	계		
성베드로보육원	69		29	4	3	36	25	8
앙카라학원	128	31	54	34	3	91	6	
수원육영원	82		27	5		32	17	33
중앙재생원	43		6	1	3	10	13	20
혜광원	71	29	25	10		35	7	
삼일애육원	125		87	12	3	103	19	3
수원보육원	175	17	83	14	5	102	56	
합계	783	77	311	80	17	409	143	64

출처 : 수원시, 1956, 『수원시 시세일람』, 111쪽.

표 14 1959년 앙카라학원 원생 교육 현황

구분	아동수(명)	구분	아동수(명)
국민학교	54	대학교	1
중학교	18	기술학교	8
고등학교	19	계	100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9년 앙카라학원 원생 교육 현황을 보면, 국민학교 재학생이 5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는 시설 내 아동의 기본 연령층이 학령기 아동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며, 최소한의 의무교육 이수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중학교 재학생이 18명, 고등학교 재학생이 19명으로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당시 보호시설 아동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아동이 의무교육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술학교에도 8명이 재학하고 있었는데, 취업과 자립을 목표로 한 직업교육 경로가 함께 운영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보호기간 종료 후 사회 진출을 고려한 현실적 교육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교 재학생은 1명으로 소수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 원생들이 고등교육 단계까지 진입했다는 점은 시설이 단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사회 이동 가능성을 열어 주었음을 의미한다.

3. 1960년대 앙카라학원의 운영

1960년대 중반에 앙카라학원은 전쟁 시기에 입소했던 아동들이 대거 퇴소하는 변화를 겪었다. 1964년까지 앙카라학원은 총 545명의 아동을 보호·양육하였으며, 이 가운데 초·중·고·대학교 교육과 기술교육을 통해 사회로 진출한 인원은 총 398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109명, 출전 49명, 부모 및 연고자 인계 210명, 입양 30명 등이다.[17]

이처럼 기존 전쟁고아들이 대거 퇴소함에 따라, 1960년대 중반 이후 학원에는 새로운 유형의 아동들이 입소하게 되었다. 1964년 기준 수용 아동 147명의 입소 전 상태를 살펴보면, 144명이 '부랑아고아'로 분류되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선감원에서 이송된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빈곤, 가족 해체 등에 따른 사회문제로 발생한 고아들이었다.

표 15 1960년대 앙카라학원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1964	1967
수용 현황	수용 능력	150	120
	수용 인원	147	156
교육 현황	국민학교	92	102
	중학교	25	30
	고등학교	5	4
	기술학교	4	3
	고등기술학교	6	4
	기타		5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표 16 1960년대 앙카라학원 수입·지출예산서

(단위 : 원)

구분		1963	1966
수입예산서	단체수입	200,000	442,980
	원조단체보조금	1,040,000	4,091,507.31
	기부금	1,000	10,698
	국고보조	115,864	213,445
	지방비보조		114,892
	기타수익	121,343	3,701
	계	1,478,207	4,877,223.31
지출예산서	주식비	265,700	1,082,996.31
	부식비	240,386	674,210
	피복비	160,725	812,575
	교육비	109,605	377,889
	O창비	37,176	134,474
	건물유지비	74,225	309,027
	직원인건비	120,000	455,000
	기타	470,390	1,031,052
	계	1,478,207	4,877,223.31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또한 이 시기에 앙카라학원은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튀르키예군이 감축·철군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앙카라학원 수입·지출예산서를 살펴보면 원조단체 보조금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며, 1963년 수입 항목 중 원조단체 보조금 104만 원을 지원한 기관은 CCF(Christian Children's Fund)였다. CCF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66년 양카라학원 주변 환경(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69년 12월 23일 양카라학원을 방문한 경기도지사(경기도청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호 활동을 전개한 국제 아동구호단체로, 후원자와 아동을 1 대 1로 연결하는 '결연후원' 방식을 통해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원조가 축소되자 1960년대 양카라학원 아동의 고등학교 진학자 비중이 195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즉 양카라학원이 원조단체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원조가 줄어들면서 고등학교 진학에 제약이 커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은 연령과 보호 목적에 따라 영아원과 육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영아원은 주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보호하는 시설로,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곤란한 영아를 대상으로 수유, 위생 관리, 의료적 돌봄 등 생존 중심의 보호를 제공하였다. 반면 육아원은 영아기를 지난 아동, 즉 만 2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양육과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시설이었다. 육아원에서는 의식주 제공뿐만 아니라 기초교육, 생활훈련, 사회성 함양 등 장기적인 양

육과 사회화 기능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재단법인 앙카라학원은 1965년 8월 15일 앙카라영아원을 개설하였으며, 이로써 기존의 앙카라학원(앙카라육아원)과 앙카라영아원 2개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다.[18]

4. 1970년대 앙카라학원의 변화와 폐쇄

1960년대 말부터 재단법인 앙카라학원의 운영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시설 재인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즉 앙카라육아원은 1970년 8월 시설 인가가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채 운영되었으며, 앙카라영아원도 1971년 4월 시설 인가 종료 이후 재인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 결과 1971년 행정 당국으로부터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경고를 거듭 받게 되었다.[19]

운영상의 진통을 겪은 이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은 1971년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하고 운영 정상화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앙카라육아원과 앙카라영아원에 대한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행정적 절차를 재정비하였다.[20] 또한 1971년 9월 연장(年長) 아동들의 취업과 사회 진출로 수용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진 앙카라육아원의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75명으로 감원하였다. 반면 영유아 보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앙카라영아원의 수용 정원은 75명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육아원 중심에서 영아원 중심으로 운영의 무게를 옮기는 정책적 전환이었다.[21]

표 17 1971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임원

직위	성명	주소	비고	직위	성명	주소	비고
이사장	지동익	수원시 서둔동 45	유임	이사	진일화	수원시 교동 97	신임
이사	오익환	수원시 영화동 142-3	연임		이상붕	수원시 교동 150	신임
	이서래	수원시 서둔동 88	신임		김경배	수원시 북수동 103	신임
	차상태	수원시 지동 297-11	신임	감사	김신옥	수원시 북수동 326	신임
	안병환	수원시 구천동 10-27	신임		용영창	수원시 고등동 97-4	신임
	백수인	안성군 안성읍 금산동 33	신임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표 18 1971년 앙카라육아원과 앙카라영아원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원)

구분	관	항	목	앙카라육아원	앙카라영아원
세입 예산서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영농수입	1,175,000	790,000
	보조비	사업보조	도보조	320,000	289,000
			시보조	530,000	315,000
			기독교아동복리회 보조	2,332,300	1,296,000
			복리회 축금	100,000	
	기타수입	잡수입	기부기금	6,000	10,000
			잡수입	1,000	10,000
	이월금			2,823	31,000
	계			4,466,828	2,741,000
세출 예산서	사무비	제사무비	급료	480,000	864,000
			사무용품비	3,000	
			통신비	7,000	7,000
			여비	6,000	6,000
			사진비	10,000	10,500
			연합회비	36,000	
		제세비	전열비	21,600	18,000
			세비	10,000	12,000
		잡비	잡비	50,000	30,000
	수용비	식량비	주식비	570,000	144,000
			부식비	638,000	620,000
		신탄비	신탄비	444,000	240,000
		의료비	의약, 치료비	60,000	80,000
			위생비	100,000	84,000
		피복비	의류, 침선	550,000	210,000
		교육비	교육비	270,000	24,000
			문구비	50,000	
			통학차비	50,000	
		복리회 축금	축금	100,000	
		잡비	잡비	450,000	
	활용비	시설비	가구비	150,000	
			수리비	200,000	40,000
			식기		20,000
			소창비		80,000
		농경작비	영농비	153,600	115,000
	예비비			26,228	137,000
	계			4,466,628	2,741,500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1년 12월 23일 양카라학원을 방문한 경기도지사(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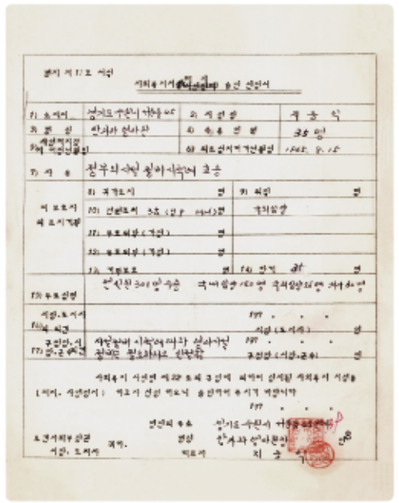


1973년 주한튀르키예 대사의 수원시 방문과 성금 전달(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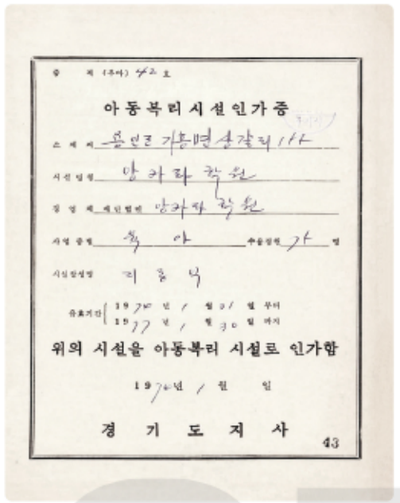


1973년 주한튀르키예 대사의 성금을 전달받은 지동익 원장(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양카라영아원 폐지 승인신청서(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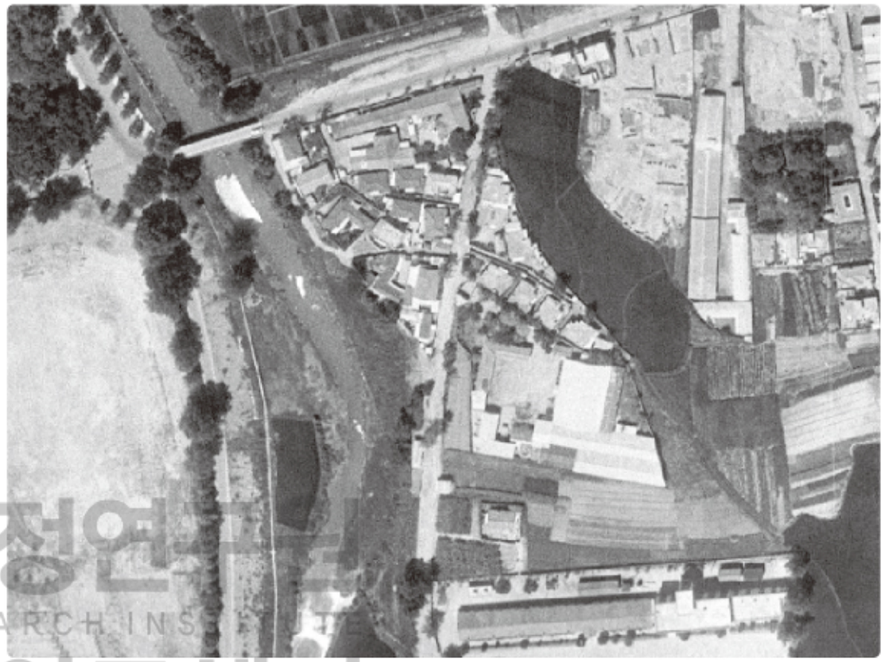


용인으로 시설 소재지를 변경한 후 발급된 시설인가증
(국가기록원 제공)

아울러 1971년 11월 10일부터 기아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기아일시보호소는 시·군에서 이송되는 5세 미만의 기아 및 미아를 일시 보호하고, 연고자 유무를 확인한 뒤 무연고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위탁 또는 시설 수용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경기도는 인천, 수원, 양주, 고양 등 4개 지역에 기아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확대하였다.[22]

한편, 재단법인 앙카라학원은 1973~1975년에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첫 번째 조치는 앙카라영아원 폐쇄였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앙카라학원은 1973년 5월 31일자로 앙카라영아원을 폐쇄하고, 수용 중이던 영아 35명을 홀트아동복지회로 전원(轉院) 조치하였다. 1973년 폐쇄될 때까지 앙카라영아원은 연인원 301명을 수용하였고 그중 150명을 국내 입양, 56명을 국외 입양, 60명을 귀가하도록 지원하였다.[23]



1974년 앙카라학원 주변 환경의 변화(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두 번째 조치는 재단법인 앙카라학원의 기본재산 대체와 시설 소재지 변경이었다. 이는 기존 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수반한 구조적 재편이었다. 재단법인 앙카라학원은 1973년 4월 13일 기본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실시하였고, 7월 3일에는 새로 취득할 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진행하였는데 기본(처분)재산은 576만 6,700원이고, 취득(대체)재산은 854만 5,400원이었다. 이후 8월 1일 부동산을 매입하고 8월 11일 등기를 완료하였다.[24]

이어 1973년 9월 10일 이사회에서는 기본재산 대체 안건이 가결되었는데, 신규 재산 확보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이사장 지동익이 보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사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시설 이전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기존 소재지의 환경적 문제였다. 당시 앙카라학원 일대에는 민가가 밀집해 있었으며, 각종 공장시설이 인접해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있어 공해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서울농대와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수용 아동의 건강과 보육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중대한 제약 요인이 되었다. 또한 지역적 여건도 시설 이전의 배경이 되었다. 수원시에는 이미 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밀집해 있었던 반면, 이전지인 용인군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앙카라학원의 이전은 지역 간 복지시설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었다.[25]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인의 성격을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하고(1974년 4월 9일 인가), 아울러 이사의 수를 축소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앙카라학원은 23년간 이어져 온 수원 시절을 마무리하고, 1974년 1월 31일부터 시설 소재지를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55-7번지로 변경하였다.[26] 이어 1974년 4월 1일자로 기본재산 대체가 공식 허가되었는데,[27] 기존 재산을 처분하고 이전지에서 새로운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승인됨으로써, 시설 이전은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추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74년에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는 소재지 이전, 기본재산 대체, 법인 성격 전환으로 이어지는 전면적인 체제 정비 과정이었다. 이는 앙카라학원이 운영 방식과 조직 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표 19 1974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기본재산 대체

(단위 : 평)

처분재산		대체재산	
지목	지적	지목	지적
대지	273	대지	80
전	2,225	전	2,454
유지	253	건물	36.4
답	73	답	5,337
잡종지	3,010	하천	195
임야	6,821		
계	12,655	계	8,102.4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표 20 1974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처분재산

(단위 : 평)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		
			지동익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수원시 천천동 423-4	대지	173			
수원시 천천동 423-5	대지	162			
수원시 천천동 424	임야	1,722	1955년 5월 20일	1958년 4월 14일	1974년 4월 17일
수원시 천천동 382	임야	237	1955년 5월 20일	1958년 4월 14일	1974년 4월 17일
수원시 천천동 423-1	임야	4,689	1955년 5월 20일	1958년 4월 14일	1974년 4월 17일
수원시 천천동 423-2	유지	253	1955년 5월 20일	1958년 4월 14일	1974년 4월 17일
수원시 천천동 423-3	대지	111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7-7	전	659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6-1	전	13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6-3	전	639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6-4	답	73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1	전	319		1958년 4월 14일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8	전	422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10	잡종지	365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11	잡종지	2,645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12	전	173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표 21 1974년 재단법인 앙카라학원 대체재산

(단위 : 평)

소재지	지목	지적	소재지	지목	지적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55-7	대지	49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5-1	답	5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55-4	대지	31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5-2	답	24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55-7	건물	18.2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5-3	답	390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55-4	건물	18.2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5-4	답	13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287	답	1,063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5-5	답	90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290	전	188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5-6	답	26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291-1	답	351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6-2	답	36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291-2	전	490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296-2	답	223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297-5	답	596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297-1	답	489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0-1	전	126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3	답	137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1	전	132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6-4	답	723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소재지	지목	지적	소재지	지목	지적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2	전	414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4-12	답	495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4-7	전	487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6-1	전	527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4-6	답	638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6-5	전	90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4-11	답	38	용인군 용인면 마평리 304-4	하천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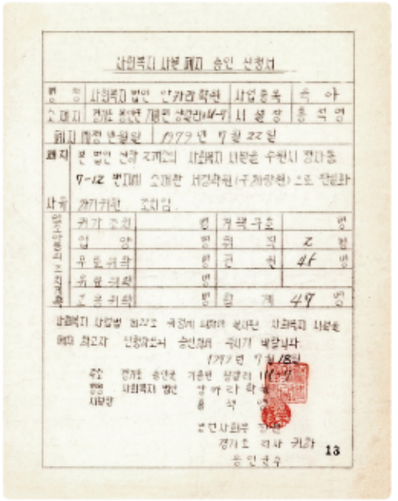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세 번째 조치는 1975년 1월 17일 이루어진 앙카라학원 시설 대표자 변경이었다. 새 원장으로 임명된 홍석영은 충청남도에서 10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였고, 이후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사노리 산104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해바라기농원에서 다시 10년간 원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장기간의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그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사장 지동익의 추천을 받아 앙카라학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해바라기농원은 1974년 11월 30일자로 폐지된 시설로, 해당 시설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 67명은 앙카라학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시되었다. 당시 해바라기농원의 원장이 바로 홍석영이었으므로, 그는 아동들과 함께 앙카라학원으로 운영 기반을 옮기게 된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홍석영의 원장 임명은 해바라기농원 폐지에 따른 아동 전원 조치와 맞물려 이루어진 조치였다.[28]

그러나 용인 지역으로 이전한 앙카라학원은 1979년 갑작스럽게 폐지되었는데, 그 정확한 내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용인 지역에서도 기대했던 것만큼 원생 충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앙카라학원의 폐지는 사회복지법인 간 합병과 시설 통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우선 1979년 4월 10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 앙카라학원과 사회복지법인 혜광원은 법인 합병 절차를 밟게 되었다. 곧이어 4월 17일 지동익, 차상태, 백수인, 오익환은 이사를 사임하였고, 5월 10일 장성초, 홍석영, 장명신, 오기동이 새로 취임하였으며, 두 법인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소천유지재단이 5월 21일 설립되었다.

이어 1979년 6월 16일 사회복지법인 소천유지재단은 기존 두 시설(앙카라학원과 혜광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았다.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친 뒤, 같은 해 7월 10일 임시이사회에서는 두 사회복지시설을 수원시 정자동 7-12번지에 소재한 혜광원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55-7번지에 위치한 앙카라학원 시설은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29]


사회복지시설 폐지 승인 신청서

앙카라학원의 사회복지시설 폐지 승인 신청서
(국가기록원 제공)

사회복지법인 앙카라학원의 명칭을 '서강학원'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시설 대표도 장성초에서 홍석영으로 교체하였다. 다만 법인 차원의 운영은 장성초가 이사장으로서 계속 총괄하였다.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앙카라학원의 폐지는 1979년 8월 4일자로 공식 허가되었으며, 당시 보호 중이던 아동 47명은 서강학원(구 혜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이로써 1951년 튀르키예 군인들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아동 보호를 수행해 온 앙카라학원은 28년간의 운영을 마감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30]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앙카라학원의 설립과 변천

1951~1979

1950년대

1951년 1월 27일
튀르키예군 의무중대가 수원시 서둔동 중앙농업기술원 일대에 주둔



1951년 6월 11일
튀르키예 제1여단장 타호신 야즈즈 장군의 지시로 서둔동 209번지에 가숙소를 설치하고 원생 80명 수용



1951년 7월 7일
『조선일보』에 앙카라학원 관련 최초 기사 게재(원생 93명)



1953년 11월
지동익 원장 취임



1953년 12월
중앙농업기술원 내 가숙소를 양도하고 서둔동 45번지 및 51번지 일대로 시설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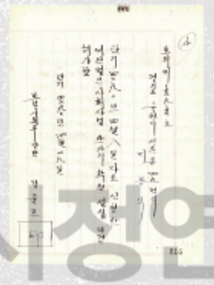
1954년 10월 29일
튀르키예 제5여단장 메테 유르다쿨 준장이 공화국 건국 기념일을 맞아 5,000㎡의 토지를 학원에 기증하기로 결정

1955년
서둔동 39번지에 새로운 기숙사를 건립하고 운영 기반 토지 매입



1960년대

1957년 4월 29일
재단법인 사회사업 앙카라학원 설립 인가



1959년 12월 26일
후생시설 인가 획득 (정원 1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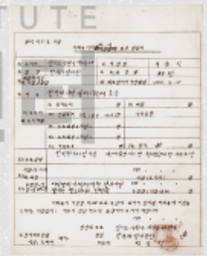
1965년 8월 15일
앙카라영아원 개설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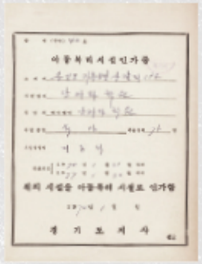
1971년 8월
임원진 개편 및 수용 정원 조정 (육아원 75명, 영아원 75명)

1971년 11월 10일
5세 미만 아동 보호를 위한 기아임시보호소 설치

1973년 5월 31일
앙카라영아원 폐쇄



1974년 1월 31일
수원시 서둔동에서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55-7번지로 시설 이전



1974년 4월 9일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 인가

1975년 1월 17일
홍석영 원장 취임

1979년 5월 21일
혜광원과 법인을 합병하여 사회복지법인 소천유지재단 설립

1979년 8월 4일
앙카라학원 시설 폐지 승인



SRI 수원시정연구원의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

註

1 Ali Denizli·E. Kurmay Albay, 2014, *KORE SAVAŞINDA TÜRK ASKERİNİN KORE HALKINA YARDIMLARI VE ANKARA OKULUNUN AÇILMASI*, Ankara, 튀르키예군 참전기념연구소. p.64, p.119.
2 튀르키예 참모본부 군사사·전략연구국 기록보관소, 「13 – 수원 앙카라학교」.
3 튀르키예 참모본부 군사사·전략연구국 기록보관소, 「13 – 수원 앙카라학교」.
4 「援助까지도 辭讓 앙카라學院 土耳其部隊」, 『조선일보』 1951년 8월 9일.
5 임재희 구술. 임재희는 1951년 앙카라학원에 입소하였는데 1953년 5월 조카 임덕환이 입소하던 때에도 최태영이 원장이었고 곧이어 권 원장이 잠시 앙카라학원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6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7 오수업 구술.
8 튀르키예 참모본부 군사사·전략연구국 기록보관소, 「14 – 공화국 기념일의 거행」.
9 튀르키예 참모본부 군사사·전략연구국 기록보관소, 「14 – 공화국 기념일의 거행」.
10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11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52-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12 「앙카라학원에 성금 – 튀르키예 적십자사에서 222만 환 전달」, 『경향신문』 1958년 1월 29일.
13 「6·25전쟁(https://www.grandculture.net/cheorwon/search/GC07800459?keyword=%EC%A0%84%EC%9F%81&collection=text&page=1&pageSize=10&facet=times%3A%ED%98%84%EB%8C%80)」, 「디지털철원문화대전」.
14 「6·25전쟁(https://www.grandculture.net/cheorwon/search/GC07800459?keyword=%EC%A0%84%EC%9F%81&collection=text&page=1&pageSize=10&facet=times%3A%ED%98%84%EB%8C%80)」, 「디지털철원문화대전」.
15 소현숙, 2020,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화성시문화재단, 139쪽.
16 소현숙, 2020, 「화성독립운동가 변기재, 자유를 꿈꾸다」, 화성시문화재단, 140쪽.
17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18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19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20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21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22 수원시, 「기아일시보호소인가관계철(1971)」(BA0173987, 국가기록원 제공).
23 수원시, 「기아일시보호소인가관계철(1971)」(BA0173987, 국가기록원 제공).
24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25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26 경기도, 「시설관리(앙카라학원) 1959-1979」(BA0173880, 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27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인가 1968-1983」(BA0173982, 국가기록원 제공).
28 경기도, 시설관리(앙카라학원) 1959-1979(BA0173880, 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서강학원) 정관변경」(BA0173999, 국가기록원 제공).
29 경기도, 시설관리(앙카라학원) 1959-1979(BA0173880, 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서강학원) 정관변경」(BA0173999, 국가기록원 제공).
30 경기도, 시설관리(앙카라학원) 1959-1979(BA0173880, 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서강학원) 정관변경」(BA0173999, 국가기록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2

‘앙카라학원’이라는 이름의 지붕 아래에서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튀르키예 제1여단은 한 달간의 항해 끝에 1950년 10월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전쟁에 참전했던 튀르키예 군인의 수는 당시 파병국들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였고 사상자의 수도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그만큼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며 한국의 평화에 이바지하였고 한국과는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이 없다. 여기서 튀르키예군은 그들의 목숨을 낯선 땅의 사람들을 위해 던지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하고 길러내는 데도 큰 공헌을 하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 군인들은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전쟁터에서 홀로 남은 전쟁고아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데려와 보살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들을 보호하는 앙카라학원을 후원하며 이들과 교류하였다. 특히 한 소녀와 튀르키예 군인 간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1] 1950년 11월 중공군이 개입하며 전황이 역전되었고 이때 튀르키예군은 평안북도 군우리에서 중공군을 맞아 격렬한 전투를 벌였는데 여러 미디어에서 다룬 바 있는 전쟁고아 아일라(Ayla)와 튀르키예 군인 쉴레이만의 인연이 바로 이 군우리 전투에서 시작된다. 춘천 MBC 다큐멘터리와 영화 〈아일라〉의 주인공인 전쟁고아 ‘아일라’(한국 이름 김은자)는 튀르키예군이 북한 군우리 전투 중에 길에 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하하면서 데려온 아이라고 한다. 그러나 튀르키예군은 이북의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피란민들과 남하하는 튀르키예군(『LIFE』 제공)

격전지에서만이 아니라 주둔지에서도 생명의 구제와 회복에 힘썼다.

앙카라학원의 시작은 1951년 1월 수원에 튀르키예군이 주둔하면서 전쟁의 참상 속에 홀로 헤매는 어린아이들을 본격적으로 그들의 천막 안으로 데려오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 통역관으로 근무하며 튀르키예군이 철수할 때까지 함께한 백상기는 군인들이 전쟁고아들을 데려다가 보살폈다는 사실을 춘천 MBC 다큐멘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백상기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울고 콧물 흘리고 잘 데 없고, 갈 데 없는 고아들을 데리고 부대로 오는 겁니다. 부대에 와서는 자기 천막에 같이 재워 주고 먹여 주고, 그다음에 전투 갈 때 고아들을 데려갑니다. 그 고아들을 모아서 열 사람, 스무 사람 되는 고아들을 모아서 수원에 있는 의무중대에 천막을 세웠어요. 천막에 침대를 쭉 깔아놓고 스토브에 불을 피우고 담요를 깔아 주고 말이지요.〈춘천 MBC, 〈코레 아일라(Kore Ayla)〉, 2010년 6월 25일〉

튀르키예 군인들은 1951년 6월 전쟁고아들을 위해 '앙카라학원(Ankara Okulu)'을 세웠고 자신들의 월급에서 갹출하여 지원하였다. 그 아이들은 앙카라학원에서 보호받으며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하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앙카라학원 원생들의 삶은 튀르키예군이 뿌린 작은 씨앗이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움을 틔우고 결실을 맺었는지 보여 주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학연구센터

표 1 앙카라형제회 구술자 기본 정보

이름	출생연도	성별	고향	입소시기(연령)	비고
길문자	1942	여	평안남도 순천	1952년(11세)	
김근태	1935(1938)	남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1952년(18세)	
오경복	1939(1941)	남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951년(13세)	본명 오금장
오수업	1945	남	황해도 연백	1951년(7세)	앙카라형제회 회장
임덕환	1948	남	강원도 김화	1953년(6세)	임재희 조카
임재희	1938	여	강원도 김화	1951년(14세)	임덕환 고모
최정자	1939	여	황해도 황주	1951년(13세)	

출처 :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 인가(1957~1964)』(BA0174003, 국가기록원 제공).
비고 : 출생연도와 입소시기는 구술자의 증언과 대조하여 일부 수정.

이 글에서는 앙카라학원 원생들이 모임인 앙카라형제회 회원들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튀르키예 군부대의 천막에서 시작하여 서호국민학교 북쪽 건물에 이르기까지 전쟁고아를 비롯하여 당시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아이들을 품어 주었던 앙카라학원에서 보냈던 삶을 풀어 낼 것이다.

1. 전쟁의 참화를 피해 남쪽으로

앙카라형제회의 회원 중 다수는 38선 이북 출신의 월남민이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른 채 지내다 1951년 1·4후퇴 때 가족들과 부랴부랴 피란길에 올랐고, 도중에 가족과 헤어지며 튀르키예군을 만나거나 수원에 발길이 닿아 앙카라 학원을 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들의 일상은 평범하고 따뜻하였다.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난 오수업은 그의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는 그의 집 툇마루에 앉아 넓게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설탕 단지를 끌어안고 설탕을 퍼먹었던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하였다. 천진한 어린아이 시절의 기억은 형제들에게 모두 조금씩 남아 있다.

한때 평양에서 아버지가 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평양과 순천에서 살았던 길문자는 당시 인민학교를 다녔을 때 배웠던 노래와 입었던 옷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교복인 세라복(세일러복)을 예쁘게 입고서 학교에서 "장백산 굽이굽이~"로 시작하는 노래를 배웠고, 이런 기억이 남아 있는 덕분에 가끔 교회 등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아직도 그 노래를 부르냐."며 그들과 고향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님 및 두 동생과 평온한 생활을 보내던 길문자는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피란길에 올랐다. 그의 가족들은 잠시 떠났다가 곧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10월에는 김장도 해서 앞마당에 묻어 놓고 나왔다고 한다.

황해도 황주 출신인 최정자의 가족도 11월에 김장을 한 후 피란을 나왔다.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사람들은 그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최정자 거기는 11월에 김장을 해요. 그래서 다 해서 마당에 묻어 놓고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는 잠시 피란 갔다 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부엌 바닥을 파서 다 묻어놓고, 장작도 쌓아놓고.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나게 따라 나왔지. 옛날에는 이렇게 고깔처럼 생긴 모자, 방공모가 있었는데 그걸 다 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입었고, 거의 다 한복을 입었지. 그런데 그런 명절에 입는 옷을 나에게 입히니까 어디 좋은 데 가는 줄 알았어요, 전쟁이라는 걸 생각도 못 했고.

어렸던 최정자는 추운 겨울, 명절에나 입던,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솜바지와 두루마기를 입고 집을 나서게 되자 매우 들떠 있었다. 그러나 이내 곧 오수업이 "집 나선 후로는 고생"이라고 말한 그대로, 끝없이 남쪽으로 걸어가며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였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미 떠난 사람들이 남기고 간 빈집은 많았지만, 먹을 것은 거의 없었고 간신히 시래기 말린 것들을 발견하면 끓여서 먹으며 어떻게든 남하했다고 한다. 그렇게 최정자 가족이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너고 끊어진 한강철교를 보며 망연자실할 때 뒤에서는 중공군이 따라붙어 꽹과리 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강원도 철원군에서 나고 자란 김근태는 구술자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서, 어린 시절을 평온하다고 기억하는 다른 회원들과는 달리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동네 분위기는 이미 불안정했으며 전쟁 발발 직후부터 그러한 지역 상황이 더욱 악화함에 따라 미군을 따라 남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근태 우리 집 앞에 이 도로, 서울 가는 큰 지방 도로가 있었어요.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인민군들이 그 도로를, 탱크가 지나가면서 저 동네 앞에 (탱크를) 세워서 라디에이터에 물 집어넣고 가서 그 뒤에 금학산이라고 큰 산이 있는데 거기 바위에 대고 탱크 포 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전쟁이 6월에 일어났으니까, 그게 4월쯤 됐을 거예요.

김근태의 집은 길가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민박을 겸하기도 하였는데 북한으로 넘어가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중공군도 묵었던지라 종종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운동화나 옷을 얻어 입었다고 한다. 그렇게 한국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이 드나들며 군사훈련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이에 더해 전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미군 헌병의 안내에 따라 남하하는 피란민 행렬



1951년 6월 17일 UN군이 제공한 트럭에 탑승하여 철원에서 후방으로 철수하는 피란민(국사편찬위원회 | NARA 제공)

쟁 중에는 인민군에 자원입대한 동네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김근태가 고향을 떠나게 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김근태 이제 6·25가 터져서 피란 나오는데, 아마 내가 한 살만 더 나이를 먹었다면 끌려갔을 거야. 동네 친구 중에는 자원한 놈들도 있었으니까. (1·4후퇴 때) 인민군이 다시 내려오는데, 그 친구가 [팔을 양쪽으로 길게 벌리면서] 이만한 장총을 메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걔를 다 피했어. 자원입대했다가 내려왔으니까.

1951년 1월 4일 피란 열차를 타기 위해 수원역으로 온 피란민(수원박물관 제공)



구술자들 대부분은 우여곡절 끝에 수원 혹은 그 인근까지 피란을 왔으나 전쟁통에 부모를 잃거나 헤어지면서 앙카라학원으로 들어오게 된다. 집 앞마당에 김치를 묻어 놓고 피란을 왔던 길문자는 전투 중에는 방공호에 숨었고 밤에는 하얀 옷을 입고 눈처럼 위장한 중공군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신갈까지 와서 어머니와 동생 한 명은 폭격에 희생되었고 아버지·남동생 그리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 오수업도 경부선 열차를 타고 오던 중 열차가 폭격을 맞아 같이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는 기차에서 홀로 떨어져 나와 사람들에 의해 앙카라학원으로 이끌려 갔다고 한다.

전쟁 중 희생과 이별은 폭격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았는데, 열악해지는 환경은 전염병의 발생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김근태의 부모님은 동네에 퍼진 전염병으로 사망하였고, 그 또한 전염병을 앓았으나 다행히 회복하였다. 김근태는 리어카에 부모님의 시신을 실어 중공군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미군이 각 지역에 보낸 트럭에 몸을 싣고 수원으로 내려왔다.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에서 자동차 수리 기술자인 아버지를 두어 남 부럽지 않게 살던 오경복은 피란길에서 미아가 되어 부모·형제와 생이별을 하였다. 그렇게 가족들이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오던 길을 더듬어 올라가던 그는 길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동생을 데리고 있는 또래 남자아이를 만났다. 아이들 세 명은 1번 국도를 따라 하염없이 수원까지 걸어서 올라왔고, 도중에 배가 고프면 주변의 빈집에 들어가 이불 속이나 벽 속, 바닥 밑에 숨겨진 쌀이나 먹을 것들을 찾아내어 어떻게든 먹으며 살아남았다.

오경복 아버지가 자동차 수리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설탕이나 쌀, 밀가루를 배급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지. 미역이나 그런 게 참 귀했을 때인데도 그런 걸 먹고 그랬는데. 6·25가 터져서 아버지가 (납북되어) 끌려서 (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피란을 늦게 갔어요. 피란을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고 소식도 없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나간 날, 그날로 제사를 지냈거든. 어쨌든 온양까지는 피란을 갔는데, "엄마, 나 소변 좀 볼게." 하고 신나게 소변을 보고서 돌아보니 (가족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 없어진 거야. 그런데 그게 여자들은 가던 길로 가고 남자들은 온 길을 찾아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네요. 나는 이제 왔던 길을 찾아 더듬어서 그냥 올라온 거야, 서울 쪽으로 다시.

2. 앙카라학원에 첫발을 딛고

앙카라학원은 1951년 1월 27일 튀르키예 부대가 수원시에 주둔하면서 시작되었다. 앞서 밝혔듯 튀르키예군은 북한으로 진주하여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만난, 아일라와 같은 어린 고아들을 거두어 남하할 때도 함께 데리고 오기도 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주둔지에서 본격적으로 보살피기 시작하였다.[2]

당시 수원은 한국전쟁의 격전지이자 교통의 요지로서 남하하는 피란민들의 집결지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짧게나마 당시 수원의 상황에 대해 정리한 후 앙카라학원에 발을 디딘 형제들의 삶을 회상하고자 한다. 앞서 앙카라형제회 회원들이 수원 및 인근 지역(신갈 등)에 도달했을 때 기차나 도로, 민가에 가해진 폭격으로 가족을 잃었다는 구술을 상기해 볼 때 1951년 1월의 수원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1951년 1월 7일 수원은 중공군 제50군에게 점령되었고 그에 남행열차를 타기 위한 피란민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1951년 1월 7일 중공군에게 수원이 점령되면서 수만 명의 피란민들이 반월-수원-신갈-이천-여주를 연결하는 피란민 통제선을 통과하였고, 20일 뒤 미군 제1군단이 수원을 재탈환하였다. 이즈음 수원지구의 피란민 규모는 15만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3월부터는 서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란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는데 4월 25일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에 따라 '서울철수령'이 선포되면서 다시 서울에서 수원, 인천 등으로 피란민들이 내려왔다. 이에 따라 한강 이북으로 북상하려는 피란민들과 철수령에 따라 남하하려는 피란민들이 뒤섞여 수원은 "거대한 '피란민수용소'"와 같았다.[3]

오경복을 비롯한 앙카라형제회 회원들 대부분이 1951~1952년에 앙카라학원에 입소하였다. 강원도 김화군[4]에서 피란 온 임재희는 1951년 6월 국군들이 들어와 산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로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 산에서 나왔다. 국군 트럭을 타고 천호동을 거쳐 세류동으로 옮겨 왔지만, 가족은 동생과 올케 그리고 서너 살 먹은 어린 조카뿐이었다. 국군에게 구출되었지만 피란 과정에서 폭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임재희는 1951년 여동생과 함께 앙카라학원에 입소하였다.

임재희 천호동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랑 올케도 같이 수원까지, 신갈을 거쳐서 걸어갔어. 수원에서는 수원여고 건물에서도 잤어. 철원 사람들은 거기 다 있었던 것 같아. (중략) 어머니 돌아가시고 같이 살려니 아무것도 없으니 못 살잖아. 그런데 누가 어떻게 (앙카라학원을) 알고 다녀왔더라고, 거기서 옷을 좋게 입고 왔어. 그러면서 나더러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재워 주는 참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 나 혼자 (앙카라학원에) 갔지. 조카는 아직 어리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원장에게 "동생이 있는데 데려와도 되냐?"고 묻고 허락받아서 동생도 데려왔지.

그러나 1953년 1월 그는 올케마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홀로 남은 어린 조카(임덕환)를 데리고 와 앙카라학원에서의 삶을 이어 나가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 모두 살아남아 수원에 정착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정 내 사정이 바뀌면서 앙카라학원에 입소한 경우도 있다. 당시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두 달 뒤 국무회의를 통해 '피란민 구호대책 요강'을 정하였고 그에 앞서 피란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피란민이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부족한 수용소 대신 빈집이나 일반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란민들 가운데 일반 민가의 빈방이나 여인숙, 상점이나 공공기관의 건물 등을 찾아내면 그곳에 머물렀으나, 대다수는 천막을 짓거나 토굴에 사는 등 거주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5] 길문자의 경우 아버지, 동생과 함께 수원에 도착한 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비어 있던 관사에 잠시 머무르기도 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튀르키예 군인과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튀르키예 장교(ATASE 제공)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튀르키예 장교(ATASE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튀르키예 군인과 아동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튀르키예 군인과 아동(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





1 2

1. 튀르키예군 주둔지에서 널뛰기를 하는 아이들(ATASE 제공)
2. 군용 차량에 아이들을 태워 놀아 주는 튀르키예 군인들
(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1 2

1. 튀르키예 군인과 어린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2. 한복을 입은 아이들과 튀르키예 군인
(1957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수원시정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튀르키예군과 양카라학원 원생들(하와이대학교 마노아도서관 제공)



양카라학원을 방문한 튀르키예 군인(ATASE 제공)

길문자 6·25전쟁이 난 1950년대는 1년, 2년이 굉장했어요. 그 순간에 변화가 많은 거지. 내가 아버지와 수원까지 와서, 농과대학 앞에 관사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식으로 지어 놓은 거야. 거기서 아버님, 나, 삼촌, 동생이랑 살았어. 관사는 다 방이 붙어 있어요. 농과대학 동산에 가면 소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노랗게, 새벽에 보면 땅에 떨어져 있어. 그걸 긁어다가 불 때서 밥해 먹고 거기서 살다가 아는 사람들도 만났던 거고. 피란할 때니까 (관사에 살던)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들어간 거지.

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 남겨진 피란민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식구들이 많은 집은 지속적으로 끼니를 잇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앙카라학원에는 전쟁고아만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들어왔다고 한다. 한 예로 부모님 및 남동생 셋과 함께 무사히 수원에 도착했던 최정자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앙카라학원에 자진 입소하였다. 그는 피란길에 올랐던 그 겨울,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것이고 2~3일씩 굶고 추위를 견뎌내야 했다고 말하였다. 동생들은 너무 어렸고 다섯 살 아기도 자기 짐 하나 정도는 짊어져야 했지만, 험한 길을 일곱 식구가 서로 의지하며 버텨냈고 그들은 마침내 서둔동의 빈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이윽고 봄이 되었을 때는 땅에서 올라오는 냉이 한 줌을 온 식구가 나눠 먹기도 했지만, "두부 공장에서 비지 찌꺼기, 술 공장에서 술지게미 가져다 먹던"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는 "입 하나라도 덜고자" 앙카라학원의 일원이 되었다. 길문자도 앞서 피란길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재혼하게 되면서 열한 살 남짓의 나이에 동생과 함께 앙카라학원에 입소하였다.

3. 앙카라학원에서의 생활 : 먹고, 입고, 놀고……

앙카라학원은 초기에 수원시 서둔동 중앙농업기술원 인근의 튀르키예군 주둔지 흙바닥 위의 천막에서 시작하였다. 1951년경 입소했던 최정자의 진술에서 당시 소박했던 공간의 기억이 또렷이 떠오른다.

최정자 전쟁할 때니까 학교가 아직 없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튀르키예군)이 현명한 게, '애들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애들을 모아다가 맨땅바닥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 나는 신기했던 게, 2×2=4, 2×4=8, 이런 걸 배우다 왔는데, 여기 오니까 그걸 또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꼭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데 왜 말이 똑같냐, 처음에 이상하게 여겼던 게 그거였고, 학교에 가니 또 구구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거기(이북)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정자는 평안남도 순천에서 인민학교 2학년까지 교육을 받고 1·4후퇴 때 남하했으며, 어린 마음에 피란 가는 것을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 줄로 알았던 천진한 소녀였다. 그는 오랜 시간 걸어서 도착한 타지에서 고향과 같은 언어로, 고향의 학교에서 배운 것과 같은 내용을 다시 접하게 되자 놀라면서도 신기하게 여겼다. 고된 피란길과 어지럽고 낯선 장소에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컸을 어린 소녀에게 튀르키예군이 제공한 기초 교육은 어느 정도 그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튀르키예군은 이처럼 단순히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한국인 선생님을 영입하여 기본적인 인사 예절부터 국어, 산수 등을 가르치도록 하며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수업의 증언에 따르면 초기 앙카라학원의 숙식과 교육 등 모든 것이 천막 안에서 이루어졌다. 천막 안에는 군인들이 사용하던 군용 침낭과 간이침대가 있었으며, 음식도 초반에는 군인들이 먹는 전투식량을 그대로 같이 먹었다. 군 주둔지 바깥의 피란민들과 주민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임을 상기하면 이마저도 앙카라학원 아이들에게는 낯설면서도 풍족한 음식이었던 듯하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학원 측에서는 튀르키예군으로부터 받은 군용 식량을 외부에서 한식 재료를 마련하는 데 활용하였다.

면담자 그때가 전쟁 중이라 먹는 것이 부족하진 않으셨나요?

오수업 아니, 먹는 건 좋았어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튼튼한 게, 그때 그 사람들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투식량(C-ration)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튀르키예 군인들(하르비예 군사박물관 제공)

(군인들)이 C-ration만 줬잖아. 전투식량. 이렇게 뜯어서 먹는 것.

면담자 튀르키예 군인들이 지원받았던 음식 같은 것이 식단으로 나왔군요?

오수업 그렇지. 거기서 다 같은 걸 가져다주니까. 고기가 많았죠. 통조림 같은 거. 자기들이 먹는 식품을 우리에게 준 거지.

군부대의 막사에 수용된 전쟁고아들이 증가하자 튀르키예군은 1951년 6월 서둔동 209번지 관사촌에 가숙소를 설치하고 앙카라학원을 설립하였다. 이 시기에 이미 앙카라학원에는 80여 명의 전쟁고아와 피란민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앞서 앙카라형제회 회원들 일부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만이 아니라 전쟁통에 수원시로 온 피란민들의 자녀들 등 다양한 아이들이 앙카라학원으로 몰려들면서 수용 인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면담자 서호 근처에 튀르키예 부대가 천막 치고 주둔하고 있었어요?

오경복 그럼요. 첫 번째는 거기 있었어요. 이제 장교들이 고아들을 몇 명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한 10여 명 있었어요. 군인들이 같이 데리고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따로 (고아원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물로 옮겨 간 거죠). (중략) 서호방죽 근처 천막 쳐놓은 데서 있다가 (남녀가) 같이 자거나 하는 게 안 되니까, 그 앞 관사에 가서 있으라고 해서 관사 생활을 했어요.

튀르키예 측 기록에 따르면 앙카라학원의 기틀을 다졌던 최태영 초대 원장이 물러난 후 1953년 8월 지동익이 부임하였는데 그는 튀르키예군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이러한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원아들의 복지 향상에 활용하였기에 앙카라학원에서의 생활은 풍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 인근의 천막에서 튼튼한 건물이 있는 곳으로 앙카라학원이 옮겨 가긴 했으나 처음부터 모든 건물이 갖춰진 것은 아니었다. 오수업과 오경복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튀르키예군 주둔지 천막과 중앙농업기술원 관사, 그리고 이후 서둔동 45번지에서 생활하였다.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도 앙카라학원의 아이들은 활발하게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오경복 내가 그 관사에 살면서 두 번 크게 혼날 만한 일이 있었지. 관사에 살 땐 서호에 놀러 나갔어. 그때 물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중략) 거북이 수류탄이라는 거 알아요? 주먹만 한 건데, 거북이 잔등처럼 이렇게 짝짝 쪼개진, 동그랗게 생겨서 핀을 빼서 이렇게 던지는 게 있는데, 이게 핀이 딱 튀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렸기 때문에 그게 수류탄인 걸 몰랐어요. 그게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거지. 한 아이가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주웠던 거야.

어느 날 오경복과 아이들 몇 명은 관사에 있는 것이 지루해 물이 빠진 서호로 놀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갔다가 흙이 들어가 터지지 않은 수류탄을 발견하였다. 그것이 위험한 줄 몰랐던 아이 두 명은 수류탄에 박힌 흙을 빼내고 핀을 젖혀 딸깍거리며 가지고 놀았고 오경복도 그 자리에 있었다.

오경복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서 있다가, 말잠자리 큰 게 눈에 띄어서 그걸 잡으려고, 다가가면 휙 날아가고 그러니 잠자리 잡으려고 나는 따라 나갔는데 (등 뒤에서) 벙 하고 터져 버린 거야. 나 혼자 살았어요. 다 죽어 버렸지. 그래서 이 파편이 [흉터를 보여 주며] 여기 맞고 이리로 나왔어. 이 맞은 자리는 쑥 들어가고 나온 자리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수원도립병원에 실려 갔고 거기 (입원해) 있었어. 잠자리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린 거야.

그는 흉터를 보여 주며 눈시울을 붉히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다. 잠자리를 잡으려 했던 순간의 움직임이 생사를 갈랐다는 그 사실은 어린 그에게 무척 충격을 주었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이 일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생존이 단순한 행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휴전이 선언되었음에도 여전히 전쟁의 파편이 아이들의 발걸음 닿는 곳 사방에 남아 안타까운 생명을 계속 앗아갔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그처럼 가혹하고 폐허가 된 땅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기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오경복은 수류탄 파편에 의한 흉터 외에 다른 상처 자국을 보여 주면서 또 다른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당시 튀르키예군은 '종이로 만든 드럼통'에 든 분유를 앙카라학원에 배급했는데 아이들은 이 가루를 물과 설탕 또는 소금을 넣어 섞어 먹었다고 한다. 이때 원생 한 명과 그는 불을 피우고 분유를 깡통에 넣어 끓여 먹기를 시도하였다.

오경복 나랑 두 놈서 그 깡통에 분유를 넣고 끓여서 먹겠다고 불을 피우고 끓이고 있는데 그 형이 뚜껑을 꽉 누르라는 거야. 누르면 빨리 끓는다고. 그래서 그걸 위에서 꽉 누르고 있는데 그만 폭발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병원에 갔지, 데어서. 그 관사 생활하면서 두 번 죽을 뻔했잖아.

튀르키예 제5여단은 1954년 10월 29일 튀르키예공화국 건국기념일을 맞이하여 앙카라학원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다. 또한 앙카라학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후 기존 건물(서둔동 45번지 일대)은 여자아이들의 숙소로, 서둔동 39번지 일대에 새로 지은 건물은 남자아이들의 숙소, 영아원, 유치원, 창고, 원장실 등으로 사용되었다.[6]

이처럼 앙카라학원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는데 여기에는 튀르키예군의 지속적인 후원이 그 뒷받침을 해 주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 튀르키예군의 앙카라학원 지원 규모를 언론 보도에서 짐작할 수 있다. 1958년 1월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튀르키예 적십자사에서 주한 튀르키예부대를 통해 136명의 전쟁고아를 수용 중인 앙카라학원에 총 222만 7,700환의 의연금을 기증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이곳이 튀르키예 장병들의 의연금과 튀르키예 적십자사의 원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7] 또한 1959년 5월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도 당시 백석면에 주둔하고 있는 튀르키예 여단 헌병대가 14만 환을 모아 한 고아 소년의 국민학교 및 중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8] 이로 보아 튀르키예군은 앙카라학원을 주로 지원하는 가운데 주둔 지역의 고아들을 위해서도 별도의 후원을 할 정도로 한국의 전쟁고아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오수업 튀르키예 군인들이 준 전투식량을 팔아서 한국 음식으로 (바꿨어).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중략) 통역하던 사람이 원장이 되어서 그렇게 후원받아 우리를 계속 이끌었지. 옷도 그 당시에는 전쟁통에 제대로 못 입고 그러니, 그 군인들이 우리에게 일본 정품 옷을 사다 줘서 입혔어. 세라복. 얼마나 고마웠는지. (다른 사람들은) 입어 보지도 못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우리에게 줬어.

임재희 거기 있으니 튀르키예 사람들이 정말 잘해 주더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그래서 다른 집 애들은 우리를 부러워했어. 우리가 잘 먹고 살이 쪘으니까. 옷도 일본에서 가져오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튀르키예
제5여단장의 방문



튀르키예 제5여단장인 메테 유르다쿨(1954년 6월~1955년 8월)과 지동익 원장(ATASE 제공)
메테 유르다쿨 준장은 양카라학원의 자립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토지 구입 및 원사 신축 등을 지원하였다.



메테 유르다쿨과 양카라학원 원생들(ATASE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튀르키예 군인들이 일본에서 사다 준 세라복을 입은 원생들(ATASE 제공)



어린아이를 돌보는 원생(ATASE 제공)

수원시청연구원
SUWON SEA INSTITUT
수원시청연구원

앙카라학원 원생들의 일상생활



1950년대 앙카라학원 여자 숙사 앞에서(최정자 제공)



1960년대 앙카라학원 신축 원사 앞에서(길문자 제공)



양카라학원 원사 앞에서(최정자 제공)



서호저수지 다리 앞에서(최정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



양카라학원 부근 논에서(길문자 제공)



농대다리 앞에서(오수업 제공)
농대다리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과 양카라학원 사이를 흐르는 서호천 위에 가설된 다리이다.
이 사진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양카라학원을 바라본 방향의 경관이다.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최정자 (기억나는 음식 중에서) 튀르키예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따로 줬는데, 무슨 콩을 조린 것도 있고, 외국 음식이니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 고기도 이렇게 덩어리를 넣고 요리해 줬어요. 앙카라학원에서 세라복이라고 일본에서 입는 옷 있죠? 그걸 수입해서 전부 입혔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을 못 맞춰서 그 세라복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앙카라학원에 입소한 아이들에게는 통조림이나 덩어리 고기가 든 전투식량도 처음 접하는 양질의 음식이었겠지만, 이후 늘어나는 아이들을 감당하기 위해 지동익 원장이 이끄는 앙카라학원은 군인들로부터 받은 전투식량을 외부에 팔아 그 돈을 좀 더 아이들 입맛에도 맞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재료를 조달하는 데 썼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옷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전쟁 후의 상황에서 앙카라학원과 튀르키예군은 직접 일본에서 세일러복을 수입하여 원내의 아이들이 원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받는 구호물자 속에 아이들 몸에 맞는 옷을 배분하였다고 한다.

길문자 한 달에 한 번인지, 언젠가는 뭔가 싣고 오더라고. 그게 구호물자였어. 원장님이 창고에 그걸 집어넣고 애들 옷을 실어 오면 나눠 주고 그랬지. 보따리를 풀어서 거기서 각기 맞는 것을 애들에게 입혀요. 원피스가 참 예뻤지. 우리도 그때 받아 입었는데, 그때 받은 치마가 지금도 있어.

또한 천천동 등 인근 토지를 매입해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으로 활용하였고 아이들에게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젖소와 돼지, 닭 등도 사육하였다. 앙카라학원 동쪽 "건빵 만드는 공장에서부터 큰길까지 난 빈터"에는 벼를 심었고 서호국민학교와 앙카라학원 건물 사이에는 채소밭을 가꿨다. 오경복은 원생 중 수원농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과수원과 밭을 돌봤고 다른 남자 원생들도 닭을 키우거나 밭일을 거들며 일손을 보탰다고 하였다. 한창 많이 키울 때는 닭이 100여 마리나 되어 아이들이 먹을 달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거위를 키우기도 했는데 거위는 낯선 이가 들어오면 소리를 질러대 학원을 잘 지켰다.

오경복 아침에 거위를 몰아서 고아원 한 바퀴를 빙 돌려요. 회초리를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꽥꽥 한 바퀴를 돌지. 그렇게 두면 아침 그 시간만 되면 거위들이 알아서 떼로 다니면서 (고아원 마당 안을) 돌아요. 난 참 신기했던 게, 그 거위들이 100여 명 되는 우리 식구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거위들이 놀고 있는데 애들이 뛰어가면 막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많이들 놀러 왔거든요. 그런데 걔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거위가 한 번 쪼면 시퍼렇게 멍들고 옷이 찢어져요.

남자 숙소와 원장실, 창고 등이 완비되고 난 후 남자아이들 숙소의 경우 방이 스무 개 남짓이었다. 남자아이들이 사는 숙소의 방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여자아이들이 사는 숙소의 방은 꽃 이름으로 지었다. 그리고 양쪽 끝방에는 보모들이 상주하며 영아들과 같이 자고 상시로 아이들을 돌봤다고 한다. 보모들의 손길만으로는 돌봄에 한계가 있어 한 방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배치하여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끔 하였다.

최정자 그때는 숙소에서 한방을 쓰면서 형제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언니처럼 나이 어린 애들 돌봐주고. 우리가 그래도 거의 (연령대가) 위였어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태어난 지) 몇 개월부터 한두 살 된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연령대의) 위아래 폭이 넓었죠. 중학교 이상 됐을 때부터 학교 다녀와서 동생들과 놀아 주고, 보모 선생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모처럼) 애들을 봤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동생처럼 돌본 거지.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형제처럼 자란 앙카라학원 아이들은 서로를 든든하게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받쳐 주며 두터운 우애를 자랑하였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괄시하는 서러운 세상 속에서 터득한 그들만의 생존 방식은 서로를 돕고 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앙카라학원 농사와 가축 키우기 그리고 노동



양카라학원 밭농사(오수업 제공)



제초작업을 하는 오수업(오수업 제공)





소를 돌보는 보모(오수업 제공)



양카라학원 건물을 짓는 사람들(오수업 제공)

SRI
수원
SUWON
수원

랑하는 것이었다. 앙카라학원의 큰형님이었던 오경복은 중학교 시절 부당한 차별로부터 앙카라학원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오경복 방에서 이불을 개어 (장에) 넣으면 아래위로 꽉 찼어.

면담자 그렇게 여러 명 살다 보면 싸우지 않아요?

오경복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이건 형제야. 매일 한방에서 자고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형제지. 누가 어디서 맞고 들어오잖아? 그럼 (때린 사람은) 죽어.

면담자 다 달려가는 거예요?

오경복 그럼요. (우리 애들은) 못 건드려요. 규율부장이랑 선생이 정문에 서서 꼭 우리 애들만 들어가면 잡는 거예요. 잡고서 회초리 같은 걸로 때려. 그래서 저걸 어떡할까 하다가 혼 좀 내야겠다 하고 몇 명이랑 같이 규율부장을 불렀어, 점심시간에. 너 나와 봐, 이리. 그랬더니 개가 씩씩대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변소 뒤쪽으로 데리고 갔어. 거기 공터가 있는데 그리 끌고 들어갔더니 "야 여기서 얘기하지 거긴 왜가? 냄새나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걔를 삥 둘러싸고, 발길로다가 정강이를 탁 찼어요. 그러니까 턱 주저앉아. "네 이놈 그냥 죽일까 보다. 너, 정문에서 우리 애들만 잡지? 우리 애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아, 알아요" 이래. 내가 그래서 "야, 우리는 아무도 없어. 너 따라가서 너희 집 불을 질러도 괜찮아?"하고 겁을 줬죠.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지. 우리는 그때 몰랐지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도 몰랐지. 하지만 우리만 들볶으니까.

4. 앙카라학원의 특별한 교육

앙카라학원의 어린 아동들은 4학년 과정까지 앙카라학원 내에 설치된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다. 앙카라학원의 교육은 국어, 산수, 영어 등 기본적인 초등교육 과정에 준하여 구성되었고 당시 생활지도와 보육을 겸한 한국인 직원들이 교사 역할을 도맡았는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식으로 수업이 운영되었고, 음악과 같은 특수 과목의 경우 외부에서 전문 교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학교 4학년 과정까지만 가르친 후 5학년부터는 인근의 국민학교로 편입되어 정규 교육을 받게 하였다.



앙카라학원에서 실시되던 1~4학년 초등교육 과정

오수업은 자신보다 두 살 위 선배 기수까지는 매산국민학교 등 기존의 수원 시내 국민학교에 진학했지만, 해당 기수들에서 사고가 많아 그 이후부터 앙카라학원 원생들은 당시 화성군 관할의 고색국민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오수업 나보다 한 기수 위부터 수원시에서 안 받아 줬어, 하도 말썽을 부려서. 주먹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꼼짝 못 했지. (앙카라학원 원생 중) 누가 어디 맞고 와서 "야, 쟤가 나 때렸다." 그러면 가서 또 그놈 혼내 주고, 그런 게 있었지. 선배들이 이렇게 다 터를 닦아 놔서 오죽하면 수원시에서 안 받아 줬을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앙카라학원 원생들의 교육 경험



매산국민학교 5학년 재학 중인 길문자(길문자 제공)
세라복을 입고 있는 아동들은 앙카라학원 원생들이다.



오수업의 고색국민학교 제8회 졸업기념 사진(오수업 제공)



서호천 변에서 여자 원생들과 함께(길문자 제공)



중학교에 재학 중인 양카라학원 원생들(최정자 제공)



서둔교회 학생부에서 활동하던 양카라학원 원생들(오수업 제공)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양카라학원 원생들(최정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

1
2 3
4 5

1. 중학교 1학년 때 서호 앞에서(최정자 제공)
2. 중학교 시절 최정자(최정자 제공)
3. 수원북중에 다닌 양카라학원 원생(오수업 제공)
4. 길문철의 중학교 졸업사진(길문자 제공)
5. 길문자와 동생 길문철(길문자 제공)



1959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뒷산에서 열린 수원가정기술학교 야유회(길문자 제공)
양카라학원은 진학에 실패한 원생들을 위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17회 졸업기념 수원가정기술학교(길문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한국연구세터

앙카라학원 원생들의 편입학교가 변경된 것은 앙카라학원과 가까운 거리에 고색국민학교와 서둔국민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배치학교가 근거리 학교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술은 앙카라학원과 지역 교육환경 사이의 긴장과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쟁고아 수용시설 출신 아동들이 지역사회와 맺었던 갈등과 적응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1950년대 앙카라학원에 모여든 원아들의 연령대는 매우 다양했고 전쟁 전 받았던 교육의 수준이나 정도도 각각 달랐다. 한 예로 열네 살의 나이에 앙카라학원에 입소한 임재희는 수원에 오기 전 이북에서 이미 인민학교 5학년 교육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교육 공백을 겪고 다시 매산국민학교 5학년으로 편입하였다.

임재희 내가 이북에서 5학년 올라갔는데 6·25가 났거든. 그러고 여기 와서 3년을 놀다가 매산국민학교 5학년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열일곱 살에 국민학교 졸업을 한 거야. 여기 와서 다시 공부하려니 잘 몰라서 공부를 잘 못 했지. 그런데 이제 (중학교 입학) 시험을 봐서 매향여중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눈이 떠지더라고. 그러다 공부에 대해 좀 알게 되어서 그다음부터 공부를 잘하니까 원장이 고등학교까지 보내주더라고.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하는 게 괜찮았어.

전쟁의 참화를 피해 피란 나오면서 가족의 죽음을 겪고 어린 나이에 살 곳을 찾아 형제와 조카를 데리고 앙카라학원에 도달한 임재희의 지난했던 청소년기에는 3년의 교육 공백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배움을 향한 열정과 재능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학교 편입 후 잠깐의 적응기를 지난 임재희는 공부에 눈을 떴고 홀로 수원여고에 진학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러한 노력 뒤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권한 앙카라학원의 원장이 있었다. 앙카라학원은 아이들에게 특정 진로를 강요하지 않았다. 물론 가능하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보내 먹고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권하면서, 취업이든 진학이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때로 그들이 멈춰 서고 싶을 땐 학원 일을 도우며 지낼 수 있게 하며 원생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였다.

입학금이나 기성회비를 내는 것 외에 당시 학업을 지속하는 데 드는 이런저런 비용을 앙카라학원이 넉넉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최정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당시 방에 있는 앉은뱅이책상에서 공부했고, 중학교 입학할 때는 앙카라학원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는지 교과서를 사지 못했고, 그는 임시방편으로 질이 나쁜 종이나마 구해서 친구 교과서를 일일이 베껴 가며 공부했다고 한다. 다행히 중학교 2학년부터는 교과서를 살 수 있었다. 또 어느 날은 재봉 시간에 한복 짓는 법을 배우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사비를 들여 재료를 마련해야 하였다. 최정자는 당시 앙카라학원에 '애들도 많고 힘든 시절'이라 차마 한복 재료를 살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었다.

최정자 재봉 선생님이 그때 여러 가지 옷에 대해 가르쳤는데 한복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재료를 (개인이) 사야 했어요. 그걸 사달라는 소리도 못 했고 돈도 없었어. 그 학교에 산이 있었는데, 내가 그(재봉) 시간에는 빠져나가서 거기 있었어요. 재료를 못 샀기 때문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아신 거야. 그래서 내 몫의 재료를 준비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꾸며서 한복을 만든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좋았어요. 편의를 많이 봐 주셨지.

재봉 선생님의 배려로 그는 한복 재료를 선생님께 받아 무사히 재봉 시간을 마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배려를 받기 전까지 학교 뒷산에 올라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었고,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린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앙카라학원의 또 다른 특별한 교육은 원생들이 기본 교과 외 예체능 계열의 문화적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었다. 오수업에 따르면 앙카라학원에는 밴드부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복무 기간이 끝난 튀르키예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군악대에서 사용하던 악기를 제공하였는데, 지동익 원장이 악기를 가르칠 음악 교사를 주변 학교에서 섭외해 아이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전쟁 직후 정규교육을 받는 것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8년 앙카라학원 밴드부(길문자 제공)



삼일중학교 밴드부(임덕환 제공)
앙카라학원에서 악기를 배운 원생들은 각 학교 밴드부에서 활동하였고,
이 활동은 원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었다. 이 사진은 삼일중학교 밴드부가
수원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 묘역 앞에서 찍은 것이다.





1 2

1. 양카라학원 강당에서 개최된 밴드부 공연
2. 양카라학원 어린 원생의 공연(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
SUWON RESEARCH
수원학연

어려운 시대에 앙카라학원 아이들은 음악적 소양까지 기를 수 있었다. 남학생들은 주로 악기를 배웠고 여학생들은 무용을 배웠다고 한다. 앙카라학원 밴드부는 당시 유명해서 행사가 있으면 자주 불려 나갔고, 악기를 들고 나가는 이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앙카라학원 원생들은 덩달아 자신감을 얻어 어깨를 활짝 펼 수 있었다.

오수업 군인들이 쓰던 악기를 가져와서 교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지. 우리가 중고 악기로 배워서 튀르키예 군인들에게 위문공연을 갔어. 여자애들은 무용하고 남자애들은 나팔 불고, 나는 처음에 트럼펫 불다가 그다음에 색소폰을 불었어. 그래서 나중에 군대 가서도 색소폰 불고 그랬어.

면담자 그럼 군대에서도 군악대 활동을 하신 거예요?

오수업 그렇지. 나팔 부는 사람이 그때는 많지 않았잖아. 학교 가면 (악기 다룬다는 거) 다 알아. 앙카라에 있었기 때문에 나팔을 강제로 배웠지(웃음). 그래서 음악 점수는 항상 '수'였어. (중략) 그때 당시에는 행사가 많았지, 시가행진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매번 나갔지. 그때 당시에는 어깨가 딱 펴지는 거야. 웬만해서는 나팔을 못 부니까.

최정자의 경우 춤에 재능이 있기도 하고 워낙 춤을 좋아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국 무용을 배웠다고 한다. 그가 보내진 화령전 인근 국악원의 원장은 국악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에게서 정식으로 승무, 화관무, 궁중무용 등 전통무용을 배웠던 것이 즐거운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하였다. 앙카라학원 원생들은 아침마다 농과대학 운동장을 돌면서 공연을 연습했다고 한다.

오경복의 경우 튀르키예 군인의 무릎 위에 앉아 배웠던 노래를 연습해 위문공연에서 독창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앙카라학원에서는 악기나 춤, 노래 등을 배운 아이들은 밴드부, 무용, 합창 등을 준비했고, 양주 및 동두천으로 옮겨 간 튀르키예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공연을 펼쳤다. 튀르키예의 건국 기념일이나 신입 환영식 등 중요한 날에는 튀르키예군에서 보내 온 군용 트럭을 타고 아이들은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오수업과 길문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새벽부터 준비하여 2~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공연을 하고 오는 것이었지만, 최정자의 기억에는 군부대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기도 했던 것으로 남아 있다.

최정자 튀르키예 부대가 주둔해 있을 때 (위문 공연을) 갔어요. 아무나 거기를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군용차가 와서 이렇게 타고 (부대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거지. 그때는 하루 자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군부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행사 참석하고 나면 또 데려다줘요. 그런데 위에 천을 다 덮어요, 열지도 못해. 그때는 비포장도로라 엉덩이도 너무 아프고 멀미할 것 같았죠.

독립할 시기가 된 앙카라학원의 원생들은 원장의 도움을 받아 취업 알선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오수업은 "학교를 나오면 다 취직을 시켜 줬다."고 하면서 "원장이 그만큼 발이 넓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체에 원생들이 원하는 경우 취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 튀르키예군의 원조가 끊어지면서 앙카라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원생들 가운데는 상급학교 진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임덕환 (나보다 나이가) 위인 사람들은 학교 보낼 거 다 보내고, 우리 때 되니까 학교고 뭐고, 우리 또래는 그때 당시 (상급학교에) 갈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지. 나도 말썽부리지 않고 올라갔으면 고등학교 나왔겠지. 말썽부리는 바람에 4년이 늦어져서 뭐가 있어? 그래서 비슷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직업군인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게 속 편하거든. 그래서 나도 군대 갔는데, 중대장이 "너 장교 할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생각 없습니다." 했지. 우리 때는 (베트남전쟁) 말년이라 그래서 못 갔지.

임재희의 조카 임덕환은 학교와 지역민들의 차별과 따돌림 때문에 여러 번 싸움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튀르키예 부대 행사에 참가한 양카라학원 원생들의 행렬





튀르키예 부대 행사에 참가한 양카라학원 원생들의 행렬(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2

1. 튀르키예군 행사에서 절을 하는 양카라학원 원생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2. 양카라학원 원생들의 무용 공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1 2

1. 위문 행사를 위한 무용 연습(최정자 제공)
2. 위문 공연을 기다리는 최정자(최정자 제공)



튀르키예 부대 행사에서 무용 공연을 하는 앙카라학원 원생(ATASE 제공)



튀르키예 부대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한 길문자(길문자 제공)

37 수원 사진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사진연구센터

휘말려 당시 국민학교 및 중학교 진학이 4년 더 늦춰졌고, 그가 고등학교 진학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앙카라학원의 운영이 악화하고 있었다.

5. 앙카라학원을 돕는 보살핌의 손길

앙카라학원에는 원장을 필두로 직원들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쳤다. 앞서 오경복의 진술과 같이 보모들은 각 숙소의 끝방에 머물렀고 그 방에는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들이 함께 잠을 잤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보모 한 명당 7~8명의 아이들이 배속되었고, 식사, 취침 등 생활 전반을 아이들과 함께하였다. 앙카라학원의 보모는 20대 이상의 여성이 주를 이루었는데, 초반에는 전쟁으로 부모나 남편을 잃은 채 어린 형제나 자녀들을 데리고 입소한 젊은 여성이 보모로 일하면서 앙카라학원에 몸을 의탁하였던 경우도 있었다.

이후 1960년대에는 임재희·길문자와 같이 앙카라학원 출신이 독립한 후 취업이나 결혼하기 전까지 보모로 일하기도 하였다. 그 시기 앙카라학원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생존해 있으나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스물셋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간 앙카라학원에서 보모 일을 했던 임재희는 3세에서 8~10세까지 다양한 남자아이들을 돌보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그를 '엄마'라고 부르며 의지하던 아이가 마음이 쓰였다고 한다.

> 임재희 나는 그 애가 생각나, 다리를 좀 절었는데, 참 예쁘게 생겼어. (부모가) 학원 앞에 갖다 둔 것 같았어. 그 애가 입양 간다고 하는데, "엄마, 엄마"하고 우는 거야. 너무 울어 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 애가 진짜 내 자식 같더라고. 아마 세 살인가 네 살에 입양 갔을 거야. 나를 어쩜 그렇게 따랐는지, "엄마"라고 부르면서.

앙카라학원의 보모는 원생들의 주 양육자로서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원생들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다. 그렇기에 때로 입양을 통해 원생들이 학원을 떠나갈 때 서로 헤어지는 아픔 또한 컸을 것이다. 임재희의 진술에서 보듯 1960년대에는 혼혈 혹은 경제적 사정 등의 사유로 맡겨진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보모들이 해야 하는 일의 양도 증가하였다.

> 길문자 나는 주로 남자애들을 많이 맡았지. (맡은 아이들 수가) 한 일고여덟 명쯤 되었던 것 같아. 직원들, 보모들도 다 각자 맡은 일이 세세하게 있었어요. 재봉하는 사람, 밥 하는 사람. 규모가 꽤 컸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교복을 빨아 주는 거야. 그때는 세탁기도 없으니 손빨래를 했지. 대야에 빨래를 담아서 농대 앞에 개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지고 나갔어.
>
> 임재희 방에 한 10명 정도 되는 애들을 다 발가벗겨서 재워. 그리고 빨래하고 또 씻기고. 그런데 정이 많이 들더라. 나중에 애들이 갈 때는 막 울고 그러잖아.

이와 같이 앙카라학원 안에서 엄마의 역할을 자처하는 보모들의 돌봄은 원생들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앙카라학원 울타리 너머 이웃 중에도 원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또한 원생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앙카라학원 시절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 친구 두 명과 함께 고구마밭 서리를 하다 밭 주인에게 들켜버린 오경복의 일화가 그 예다. 앙카라형제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그 시대의 다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나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었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한창 성장할 나이의 청소년이었기에 늘 배고픔은 아이들을 따라다녔다.

> 오경복 고구마가 하도 먹고 싶어서 고구마밭에 갔는데 우리가 심어 봤어야 뭘 알지. 줄기를 들어 올리니 고구마가 올라오긴 하는데, 큰 것들은 안 올라오고 중간에 끊어지고 그래. 그걸 몇 개 들고 왔는데 둘 데가 없어 풀숲에 숨겨 놨어. 둘이 언제 한 번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앙카라학원
원생들을 돌보던 사람들



양카라학원 재봉실에서 원생들을 돌보는 보모(길문자 제공)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온실 견학(길문자 제공)



양카라학원 남자 숙사 앞에서 찍은 보모들 사진(길문자 제공)



서호다리 위에서(오수업 제공)



양카라학원 정문 앞에서 찍은 보모들 사진(길문자 제공)



서호 뚝방을 산책하는 보모와 그 자녀들(오수업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양카라학원 원생이었다가 독립 후 보모로 활동했던 사람들(길문자 제공)



양카라학원 보모들과 주방·재봉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길문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깎아 먹든지 어떻게 해 보자 하고서. 그러고서 있는데 웬 아저씨가 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누가 내 밭에 왔다 갔느냐고. 그래서 원장님이 우리 애들이 왔다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 손만 보면 금방 다 안다는 거야.

고구마밭 주인이 앙카라학원 원장에게 따져 물으며 요구한 증거는 아이들의 '손'이었다. 오경복은 고구마를 캔 손은 들여다보면 티가 난다고 하였다. 고구마 줄기에서 나온 진액이 손에 묻으면 웬만해선 잘 닦이지 않아 "수세미로 문질러야" 겨우 닦인다는 것이다. 당시 변변한 비누나 닦는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대충 물로만 손을 헹군 두 아이는 불안해졌다. 원생들을 불러 모아 손을 내밀게 했을 때 오경복과 그의 친구는 쭈뼛대며 손을 뒤로 감췄다. 결국 수상함을 감지한 원장이 두 아이의 손을 보고 진상을 파악하고서 숨겨 놓은 고구마로 손바닥을 때리며 혼을 냈다고 한다.

오경복 (손바닥 맞으면서) 말도 못 하고 있었더니 이 밭 주인 양반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따가 애들 둘을 보내라."는 거야. 좀 교육해야겠다, 일을 좀 시켜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 거기로 다시 가서 (밭 주인에게) 혼났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빌고. 그런데 밭 주인이 그러더라고. "너희들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야, 이리 와 봐. 고구마는 이렇게 들면 큰 게 안 나와."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파야지 큰 게 나오지, 한번 파 봐라." 하고 호미를 주더라고. 이제 그렇게 (시킨 대로) 긁으니까 거기 큰 게 막 나와. 그랬더니 포대 자루를 주면서 담으래.

고구마 줄기를 끊고 밭을 망쳐 놓은 범인이 분명 근방의 고아원 아이들일 것이라 짐작하고 앙카라학원에 쫓아 왔던 밭 주인은 정작 범인이 밝혀지고 원장이 아이들을 혼내는 장면을 보자 마음이 누그러졌던 듯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앙카라학원 마당에 모여 있는 아이들을, 그리고 조용히 야단맞으며 반성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로소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닐지. 오경복은 훗날 다시 제대로 잘못을 빌고자 그 고구마밭 주인을 찾아갔지만 이미 그때는 돌아가셨는지 계시지 않아 만나 뵙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6. 갑작스런 폐원과 고향을 잃은 원생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 앙카라학원의 운영에 여러 형태의 변동이 일어났다. 1950년대 초중반 앙카라학원에 입소한 원생들은 한국전쟁의 피해자로, 이 시기에 앙카라학원은 튀르키예군의 도움으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전쟁고아가 아닌, 그 이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맡겨진 아이들, 특히 미취학 연령대의 영유아들이 많았다.

한편, 앙카라형제회의 회원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 독립하여 학원을 떠나 있는 상황으로, 연락이 닿는 원생들끼리 1년에 두어 번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물을 사 들고 학원에 들르거나, 군인인 경우 휴가 때 나와서 일을 거들어 주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여기에 튀르키예군의 철수는 그동안 튀르키예군의 지원에 기대고 있던 앙카라학원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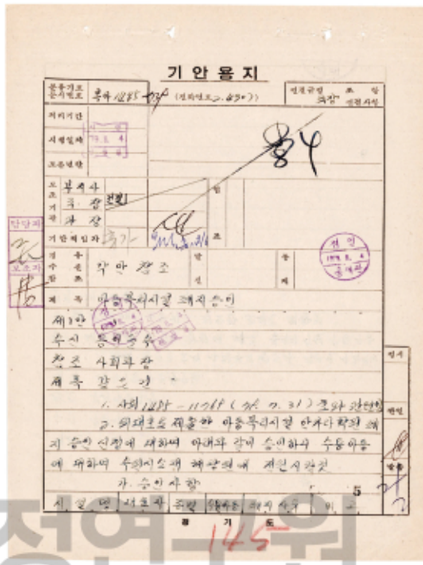
길문자 저는 1969년도에 결혼을 해서 한동안 (앙카라형제회 교류를) 안 했어요. 그런데 김강섭인가, 그 남자애가 베트남전쟁에 나갔대요. 그때가 74년도인가 그랬는데, 거기 가서 지동익 원장에게 군대 가서 받은 월급을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제대하고 와 봤더니 (학원이) 없어졌다는 거지. 자기가 74년도에 월급을 따박따박 보냈는데 (귀국해서) 오니까 학원이 없어졌다는 거야. 이전한 거지. 이제 그런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이처럼 앙카라형제회의 회원들은 자신이 자랐던 곳을 기억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소액이나마 지원금을 보냈으나, 학원이 사라질 때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앙카라학원 운영 체제가 원장 개인에 의지해 작동하고 있었고, 앙카라형제회의 회원들은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학원 운영에 개입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과 맞물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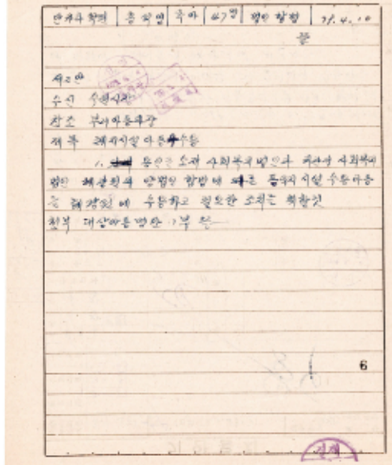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양카라학원을 방문한 원생들(오수업 제공)



기 안 용 지



경기도에서 용인군으로 보낸 양카라학원 폐지 승인 문서(국가기록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SRI 수원학연구센터

면담자 선생님, 그럼 텃밭은 당연히 그 식재료를 가지고 양카라학원 사람들이 먹는 데 쓰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입북동과 천천동의 농장에서 나는 것은 판매용이었을까요?

오수업 모르지. 당시의 우리가 어떻게 알아. (원장이) 똑똑하니까 땅을 사 놓은 거긴 하지. 그리고 (튀르키예의) 원조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원장이 다 가져간 거지. 우리를 키워준 것은 고맙지만, 말년은 좋지 않았다고 봐야 해. 튀르키예 군인들이 했는데 원장이 착복한 거야. 우리한테는 그때 당시 힘이 없었으니까, (중략) 우리에게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73년 당시 양카라학원의 자산이 대지, 논, 밭, 유수지 등 4만 2,000여㎡에 달했으며, 논농사, 밭농사만이 아니라 복숭아, 배, 포도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있었고 젖소와 닭, 돼지 등도 사육하였던 것을 확인한 바 있다.[9] 그러나 1974년 양카라학원은 수원시에 있던 시설과 재산을 정리하고 용인시로 이전하였다가 1979년 원생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 돌연 폐원하고 말았다.[10]

양카라학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은 당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성장해 한국으로 찾아오면서 또 한 번 문제가 되었다. 길문자와 임재희가 보모로 일하던 1960년대 중반 양카라학원은 따로 영아원이 있을 정도로 영유아들이 많았고 이들 중 다수가 국내외로 입양되었다.

길문자 영아들도 있었는데, 젖먹이 애들은 입양도 했어. 그런데 한 번은 튀르키예 애들이 찾아왔었어. 우리 양카라공원 만들 때(2013년), 자기가 (양카라학원에서) 입

양을 했다는 거야. 우리는 애네를 어디로 보냈는지 모르잖아, 원장이 다 했으니까, 서류(처리)를. 그런데 주소가, 우리 집(앙카라학원) 주소로 되어 있었나 봐. (앙카라학원에서 해외 입양 간) 여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의 물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자금, 기록이 없지, 원장이 다 했지.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가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타나.

길문자의 구술에 따르면 2013년 6월 앙카라학원공원 개장 행사가 열릴 때 앙카라형제회 회원들이 참석했다가 해외로 입양된 한 한국계 여성을 만났다고 한다. 그 여성이 입양되어 간 곳이 튀르키예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앙카라학원 관련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으러 그날 그 장소에 온 것이었다. 자신을 입양시킨 기관이 '앙카라학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원에 관련된 모든 운영을 지 원장이 도맡아 하고 있었기에 몇 년이나 보모로 일했던 졸업생들 누구도 앙카라학원 출신 아이들의 해외 입양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고, 그 여성도 뿌리를 찾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월요논단] 앙카라학원은 어찌 되었는지? 터키군 노병이 물었다」, 『경인일보』 2021년 11월 14일.
「6·25전쟁 고아 품어준 터키군…수원 '앙카라학교'」, 『뉴시스』 2021년 6월 25일.
「'용인 김량장 전투를 아십니까'…중공군 2개 사단 무찌른 튀르키예군」, 『뉴시스』 2023년 10월 18일.
「참전 계기로 NATO 가입 한국 간청으로 1971년까지 주둔」, 『주간조선』 2015년 6월 19일.
「앙카라학원 기억과 기록] 희망 보이지 않던 전쟁터…남겨진 아이들 데려와 교육 시작」, 『중부일보』 2022년 9월 28일.
「아시아문화연구원,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100주년 기념행사서 '앙카라학원' 소개」, 『중부일보』 2023년 10월 31일.
「'터키군'이 키운 6·25전쟁 고아, '이제 내가 도울 때'…1천만원 기부」, 『한겨레신문』 2023년 2월 9일.
디지털철원문화대전(https://www.grandculture.net/cheorwon).

영상자료

춘천 MBC, 〈코레 아일라(Kore Ayla)〉, 2010년 6월 25일.
KBS·TRT, 〈내 기억 속의 전쟁 : 앙카라학교〉, 2013년 7월 13일.
디지털 프로덕션 하우스, 〈아일라〉, 2018년 6월 21일.

註

1 춘천 MBC, 〈코레 아일라(Kore Ayla)〉, 2010년 6월 25일; 디지털 프로덕션 하우스, 〈아일라〉, 2018년 6월 21일; KBS·TRT, 〈내 기억 속의 전쟁 : 앙카라학교〉, 2013년 7월 13일.
2 국가기록원, 「사회복지법인(앙카라학원) 인가(1957~1964)」(BA0174003).
3 홍현영, 2022, 「수원 피란민촌의 형성과 변천」, 『경계를 넘어 : 수원 월남민의 삶과 경험』, 수원시정연구원, 8~10쪽.
4 1945년 해방 이후 소련군정 관할 아래 있다가 한국전쟁에서 수복, 군사분계선 이남의 김화군은 현재 강원도 철원군에 통합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김화군(金化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5년 8월 25일.)
5 홍현영, 2022, 「수원 피란민촌의 형성과 변천」, 『경계를 넘어 : 수원 월남민의 삶과 경험』, 수원시정연구원, 20쪽.
6 아시아문화연구원, 2021, 「수원 앙카라학원(고아원)의 기억과 기록」, 수원시, 22~23쪽.
7 「터키적십자사 이백만환거금」, 『조선일보』 1958년 1월 29일.
8 「고아 길러 교육까지, 토이기여단군인들」, 『동아일보』 1959년 5월 21일.
9 국가기록원, 「시설관리(앙카라학원) 1957~1964」(BA0173880).
10 국가기록원, 「시설관리(앙카라학원) 1957~1964」(BA0173880).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3

“앙카라학원을 마음에 품고”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한국전쟁에 휘말려 고통받는 아이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던 튀르키예 참전 용사들의 선행과 업적을 상기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앙카라학원을 주목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에 따른 미디어 보도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앙카라학원의 이름에만 주목하거나 튀르키예 군인과 어린아이의 감동 서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가 한국 사회에 끼친 공헌의 의미는 단순히 ‘앙카라학원을 운영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앙카라학원에서 살며 신체적·정서적으로 보호와 지지를 받으며 자란 앙카라학원의 아이들은 그러한 어린 시절을 마음에 품고 독립 후에도 홀로서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였으며 그러한 앙카라학원의 정신을 자손들에게도 전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앙카라형제회에 주목하고 이들의 생애를 탐구하여 앙카라학원이 실제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앙카라학원이라는 둥지를 벗어나 세상으로 날아가게 된 앙카라형제회 회원들의 독립, 그리고 그들의 홀로서기가 전개되면서 시사하는 바를 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려내고자 한다. 또한 앙카라형제회의 활동을 짚어 보며 이들이 상호 연대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튀르키예와 한국 사이를 잇는 가교역할까지 담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앙카라학원에서의 독립은 학교 졸업 혹은 취업 등 아이들이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원에서는 대학까지 보내줄 여력은 없었으나 가능한 한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원생들은 앙카라학원의 울타리를 벗어나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자신의 경험을 쌓고 역량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삶에는 여러 우연과 기회가 겹치고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앙카라학원에서 받은 온정과 유대감, 굳건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 산업화를 이끈 전기 기술자 오경복

오경복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에서 자동차 수리 기술자인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전쟁이 터져 1951년에 피란을 나오게 되었다.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온양 부근에서 잠깐 사이에 가족들을 잃어버려 미아가 되었다. 그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올라가다가 또래 친구를 만나 함께 수원에 정착하게 되었다. 오경복은 비어 있는 집들을 돌아다니며 생활을 이어 가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튀르키예 군인에 의해 군인 막사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다 앙카라학원에 입소하였다.

오경복과 가족이 다시 만나 앙카라학원에서 독립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이 지나서이다. 이는 옛 고향 이웃과의 우연한 조우에서 시작한다. 그가 삼일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그가 역 앞 육교를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그를 불렀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아니었다. "야, 경남아!" '경남'은 그의 동생 이름이었다. 그는 가족들과 피란길에 헤어진 뒤 생사도 모른 채로 앙카라학원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한길에서 느닷없이 고향 사람으로부터 동생의 이름을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알고 보니 그의 동생 이름을 부른 남성은 고향의 이웃집 아저씨였고 오경복을 보고서 그의 동생 '경남'이라고 착각한 것이었다.

> 오경복 그 사람이 이제 "야, 경남아! 너 여기 웬일이냐?"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마냥 쳐다보고 있었어. 또 "야, 어머니 잘 계시지?" 그렇게 말해. 그래서 "나 경남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너 죽은 놈이로구나!"

이웃집 아저씨의 강렬했던 한 마디, '죽은 놈'. 오경복의 가족들은 살았으나 길 위에서 잃어버린 어린 아들만 따로 떨어졌으니 필시 전쟁통에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 아저씨 덕분에 가족들의 근황과 사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웃집 아저씨가 그려 준 약도는 이태원 해방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가족들은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과 이재민들이 정착한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아저씨가 그려 준 약도를 보며 해방촌을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집을 찾을 수가 없더랬다.

> 오경복 그런데 몇 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 거기 조그만 계집애들이 앉아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에게 물어봤지. "얘들아, 여기 경남이네 집 알아?" 그랬더니 웬 계집애 하나가 빨딱 일어나면서 "알아요, 나 따라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라고 하네. 그 아이가 다리를 저는 거야. 그 아이가 6·25 일어날 당시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애가 내 동생인 걸 그땐 몰랐지.

우연에 우연이 또 겹쳐, 집을 찾아 헤매던 해방촌 골목에서 그가 말을 건넨 소녀가 그의 막냇동생일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소녀도 자신의 오빠인 줄 모른 채 오경복을 집으로 안내하였다. "엄마, 누가 작은오빠 찾아!" 마침 집 안에는 마실 온 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피란길에 가족과
헤어지다.



서울 해방촌에
살고 있던 가족을
수소문하여 찾아가다.



손재주가 남달라
앙카라학원 입소 당시
간이 라디오를 만들었던
오경복



어머니를 만나다.



우연히 고향 어른을 만나
가족 소식을 듣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앙카라학원을 되소한 후
신문팔이를 하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네 아주머니들과 어머니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나왔다가 마당에 서 있는 둘째 아들 오경복과 눈이 마주쳤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한다.

오경복 나도 엄마를 보고, 엄마도 나를 보고, 서로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거기 놀러 왔던 아주머니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식이 찾아왔다."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죽은 자식이 왔다니까 이제 난리가 벌어졌지. 내가 보니 방은 한 칸인데 식구가 누이 하나, 형 하나,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엄마 있고 나도 있고, 나 없어도 꽉 차는 방인데.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나라도 어떻게 좀 해야지, 안 되겠다 하고 길을 나섰는데 나오다 보니 종로까지 왔어요.

가족과의 감동적인 재회 이후에 마주한 것은 냉정한 현실이었다. 해방촌 단칸방에 다섯 식구가 간신히 살고 있는 상황을 본 오경복은 그 길로 집을 나와 가족들을 건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은 끝에 신문 대리점에서 신문팔이부터 시작하였다. 그렇게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들을 위한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당시 그에게 있어 '학교보다 더 귀한 것'은 다시 만난 가족이었다. 이미 그는 앙카라학원의 생활을 통해 비교적 풍족한 일상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앙카라학원 형제들과 원장님, 이웃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쟁의 상흔을 씻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재회한 가족을 지켜 주겠다는 더욱 강한 의지로 발현되었던 듯하다. 그는 신문팔이에 이어 구두닦이도 하며 그 당시 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려고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인 조그만 전파상 사장의 구두를 닦아 주며 나눈 대화가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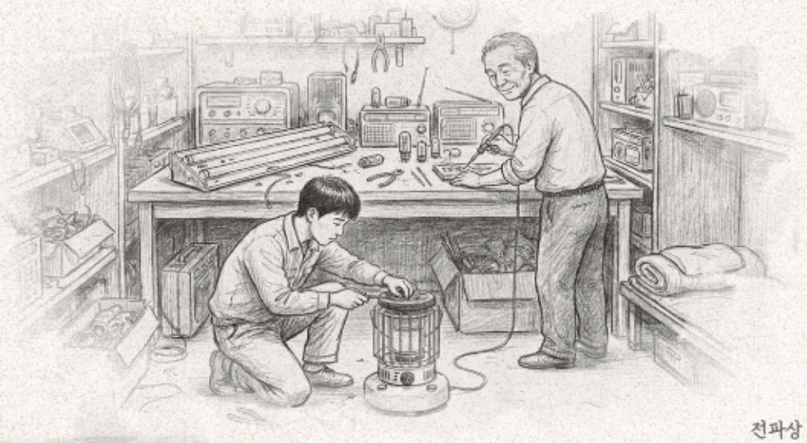
오경복 그 사람에게 "아유, 나 이거 기술 좀 배워야지, 안 되겠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우리 집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함경도 사람이었어.

좀 더 안정적인 벌이를 위해 기술이나 학력이 필요했으나, 어린 그에게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나 돈이 부족하였다.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으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한 심정에서 무심코 토해낸 그의 불안한 심정을 들은 전파상 사장은 평소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흔쾌히 자신의 가게에서 조수로 근무하며 기술을 배우라고 권하였다. 전파상에서 숙식하면서 아침에는 가게 문을 열고 밤에는 가게 문을 닫는 등 잡일을 도맡았다. 그러면서 어깨 너머로 기술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였다. 곤로의 끊어진 코일을 갈고, 형광등을 고치는 것도 그의 일이 되었다.

오경복은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는데 특히 전기 분야에서 앙카라학원에 있을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시장에서 파는 광석을 사서 바늘과 철사를 이용해 선을 만들어 광석과 이은 후 스피커를 달아 간이 라디오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가 만든 간이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10호실 보모가 "시간 좀 알려 줘." 하고 요청했고, 라디오에서 알려 주는 시각을 말해 주면 앙카라학원의 벽시계를 조정하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재능을 가진 그가 단골 전파상의 조수로 들어가 전기 기술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단지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는 평소 근면하면서도 온화하여 주변에서 끊임없이 찾는 인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전파상 사장은 서울 종로의 세기극장(오늘날의 서울극장) 전기공사 일을 맡아 왔다. 세기극장에 화재가 발생해 전기 설비를 다시 정비하는 큰 작업을 그가 조수로 있는 전파상에서 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이 작은 극장의 전기공사를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극장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파상 문을 닫은 사장은 기관장으로, 오경복은 조수로 있으면서 "보일러도 때고 발전기도 돌리며" 전반적으로 극장을 관리하였다. 그 전보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집으로 보내 주면서 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니 가족들과 오경복 모두 이전보다 생활 수준이 점점 더 나아지게 되었다. 이후 세기극장에서 근무한 지 1년 만에 전기 기술 면허를 취득했고, 한국전력 직원에 의해 "명보극장에 자리가 비었으니 그리로 가라."며 일자리를 소개받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명보극장의 전기기술 관리자로 이직했다고 한다. 그는 극장만이 아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파상 조수로
기술을 배우다.



전기 기술자로
성장하다.



포항제철 건설공사에
참여하다.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다.



전기 기술자로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다.



터르키예와의
교류를 계속하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니라 용산에 있는 나이트클럽 전기 설비까지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하러 갔다.

오경복 그 캬바레에 갔는데, 거기 먼저 있던 아이가 심통을 부리고 갔어. 지붕에 올라가면 그때는 4중선이라고 해서, 지금이야 전선이 PVC 코드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실로 묶여 있었어요. 그걸 빨간 초로 칠했어. 그걸 몇 번 이렇게 움직이면 똑 끊어져요. 그런데 실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있는 거야.

면담자 전선 속은 벌써 끊어져 있는데 겉은 멀쩡해 보이는 거군요.

오경복 그걸 천장에 몇 군데를 이 짓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애를 무척 먹었어. 그거 끊어지면, 어디까지 들어왔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알지. 전선을 흔들어 보면 번쩍번쩍해. 이제 그걸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그자를) 잡아넣어야지, 안 되겠대. 그런데 내가 잡아넣긴 뭘 잡아넣어요, 그냥 화가 나서 그랬겠지. 밥줄이 끊어졌는데. 그렇게 얘기했어.

이처럼 그는 타고난 성실함과 손재주로 기술을 익히고 현장 실무 능력을 키워 가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 갔다. 단칸방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던 소년은 어느덧 단순한 생계를 넘어 삶의 지평을 높여 가는 어른으로 성장해 갔다. 그뿐만 아니라 경복은 이때부터 '서울에서 성공한 형님'으로서 앙카라학원에서 독립한 형제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경복 이제 (서울) 와서 구경도 하고, 바로 (극장) 문 앞에 짜장면집이 있어서, 다들 오면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나는 또 형제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하여튼 여자든 남자든 찾아오면 막 좋은 거야. (중략) 이제 누가 왔다 갔어, 누가 어디 취직했어, 어디 있대. 뭐 이러고서 전부 가르쳐주고. 내가 그런 중간 역할을 했어.

처음에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신문팔이와 구두닦이로 시작하여, 우연한 기회에 전기 기술의 영역으로 뛰어들게 된 오경복은 서울 내 여러 대형 극장의 발전기, 보일러 및 전기 설비 관리 업무를 맡으며 현장 실무 경력을 쌓아 나갔다. 또한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술자로서 공사 현장 관리, 발전기 운용, 전기공사 작업 등 보다 전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차츰 맡게 되었다.

성실하고 남을 원망할 줄 모르는 천성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았던 그는 온양 관광호텔에서도 3~4년 동안 전기 설비 업무를 맡았고, 이후에는 포항제철 공사 기초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오경복 포항종합제철에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해요. 거기서부터 저 끝까지 도로에 불을 켜야 해. 불을 켜줘야 일을 할 거 아니야. 전기공사를 먼저 해 놔야 출입을 하지. 그래서 극장을 그만두고 거기 주임 기사로 있으면서 거기 1차 공사, 그러니까 108번 도로 전기 공사를 하고, 또 이제 변전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공장이 크니까. 그래서 (변전 시설 짓느라고) 거기서 또 몇 년을 있었어요.

그는 한국 사회 발전의 주요 현장마다 있으면서 국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중요한 업무를 해냈다. 특히 1960년대 중반 국가에서는 농어촌과 산골, 도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확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는 속초 지역의 전기 설비 공사를 도맡았다고 한다. 당시 고성 등 주변 지역 사람들이 "속초에만 저녁에 전기가 들어온다."고 할 정도였으며, 그는 속초시에서 전기 설비 공사를 해준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 주요 시설의 전기시설 설치 작업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 현재는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용산공원에 있던 국방부 건물의 지하 상황실 300평의 전기 설비 공사를 했었다면서, 최근 그 장소를 가보았다가 공원으로 변모한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도 감회가 새로웠다고 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도움을 받던 소년에서 도움을 주는 사업가로 성장한 오수업

황해도 연백군에서 살던 오수업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란하였다. 당시 아버지는 경부선 차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형들 또한 학업 관계로 남쪽에 내려와 있어, 어머니와 둘만 피란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다 기차에서 폭격을 당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일곱 살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 그러던 중 수원에서 튀르키예 군인들에 의해 앙카라학원에 입소하였다.

오수업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4학년까지 앙카라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초 학습을 받았고, 이후 고색국민학교,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성적이 괜찮았고 고등학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학했다고 말하였다. 앙카라학원에서는 졸업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취업이나 군 입대 등 진로를 정해 독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오수업도 학업을 마친 후 곧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의 첫 직장은 당시 서울역 앞에 있던 '화공기업사'라는 연탄보일러 제작업체였다. 그는 회사에서 도제식으로 일을 배우다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군에 입대하였다. 그는 군대에서도 앙카라학원 시절의 밴드부 경험을 인정받아 군악대에 배치되어 군복무를 수행했고, 제대 후에도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때 해외 파견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오수업 누가 사우디에서 일하러 나가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국에 나간다고 준비를 하는데, 나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게, 그때만 해도 나 혼자 아니냐고.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신원을 보증받아야지, 저놈이 해외로) 나가서 이북으로 도망가면 어떡해. 그런 상태라 신원 보증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내가 살던 동네 동장님이 신원을 보증 서 주셨지. 그런데 해외 나갔는데 호적에는 신원 불상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형들이 이제 그걸로 나를 찾은 거지. 내가 해외에 나가는 바람에 형들이 나를 찾았어.

오수업이 해외로 근무하러 가게 된 1970년대는 북한과 반목이 심했던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격하게 해외여행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일반인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원 보증 및 재무 보증 등 다양한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재무 상황을 보증한다고 해도 그의 신원을 보증해 줄 부모나 형제, 일가친척이 없었던 터라 그는 당시 거주하던 신림동 동장으로부터 신원 보증 협력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 근무를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남겨진 그의 해외 출입국 기록은 전쟁으로 인해 헤어졌던 두 형이 그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두 형은 막냇동생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수소문해 왔으며, 출입국 기록에 나타난 이름을 통해 동생의 소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오수업은 처음부터 해외로 나갈 생각은 없었고 첫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그 회사에서 어느덧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리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다.

> 오수업 화공에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을 거야. 기술자로도 일했지만 행정일도 봤지. 그 사장도 이북 사람이었어. 이북에서 피란 나와서 아내랑 애들이 없었고, 하여튼 같은 이북 사람이고 피란민이다 보니 나한테 잘해줬어. 그래서 거기 오래 있었지.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서 이걸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외국에 취업하러 가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장이) 반대하는 걸 동네 동장이 신원 보증을 서 줘서 해외로 나간 거지. 여기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좀 더 벌어 와야지, 싶었고 당시에도 외국 바람이 불었잖아.

오수업이 말한 바와 같이, 1970년대 한국에는 해외 근로 파견의 붐이 일었다. 1973년 중동전쟁 이후 석유값이 폭등, 세계 경제에 불황이 닥치면서 한국 역시 경상수지 적자 급증으로 외화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이 시기 한 민간 건설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고, 이를 알게 된 정부에서 '해외건설촉진법' 등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면서 한국 건설업체의 중동 건설 수주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1]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피란열차에서
폭격으로
모친을 잃다.



뒤르키예군이 설립한
앙카라학원에 입소하다.

고색국민학교를
졸업하다.



수원시청소년
SUWON RES
수원학연구센터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밴드부로 활동하다.

앙카라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돕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어 근무하다



앙카라학원 앞
징검다리에서



형님들과
재회하다.



부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다.



군복무 중
군악대로 활동하다.

앙카라형제회를
결성하다.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사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이때 오수업 또한 중동 건설 붐을 타고 경험을 더 쌓고 돈을 더 벌겠다는 목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앙카라 학원에 있을 때 튀르키예 군인들로부터 튀르키예어를 조금 배웠던 것이 중동에서 근무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노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낯선 땅의 사람들과 낯선 언어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만큼 현지인들에게서 호감을 사게 되었다. 그 덕분에 그는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12대를 진두지휘하는 현장 감독으로 활동하였다. 그렇게 오수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공직에 있던 그의 형들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수업을 찾아낸 것이다.

오수업은 어머니와 단둘이 피난길을 떠났고 기차에서 폭격을 당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때 나이는 겨우 일곱 살에 불과해 누나와 형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살아있는 가족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돈 벌러 간 이국에서 갑작스러운 얘기를 듣게 된 것이다.

> 오수업 사우디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 전화 받아 보라고 해서 받았더니, 형님인 거지. 이름이며 고향,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형들이 찾던 그 동생이) 맞으니까, 나더러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런 거지. 신기하긴 신기한데, 돈 벌 수 있는 걸 놓쳤지. 잘 벌고 있었는데.

그는 형들이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바람에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며 가볍게 투덜댔으나 그의 표정은 전혀 불만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형들과 재회한 후로 그들이 오수업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형들은 동생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동생을 찾아냈고, 이후로 오수업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오수업은 형들이 그의 결혼 상대를 소개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거듭 얘기하며 형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적인 만남,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앙카라학원에서 받은 보살핌, 그것을 기반으로 세상을 향해 성실하게 도전적으로 나아갔던 그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삶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근무 경험과 형들과의 기적적인 재회는 전쟁고아로 홀로 세상에 서 있던 그가 잃어버렸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가족을 꾸리며 안정된 생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처럼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오수업은 앙카라학원 출신들의 모임인 앙카라형제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모임이 점차 시들해질 위기에 놓이자 그는 형제회 일을 도맡아 맡으며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튀르키예대사관과 소통하며 한 · 튀르키예 관련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공식 행사가 열릴 때면 늘 대표로 자리를 지켰고, 2023년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앙카라형제회 이름으로 기부에 나서기도 했다. 이제 앙카라형제회 회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오수업을 찾는다. 일로 삶을 세우고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이은 그는, 같은 기억을 지닌 사람들을 묶어 세우는 또 하나의 역할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3. 수원비행장 전투기용 산소 제조 기술자 김근태

강원도 철원군에서 평화롭게 살던 김근태가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고 피란길에 동생도 잃어버린 채 간신히 미군 트럭을 타고 수원으로 왔을 때는 겨우 열일곱 살이었다. 여기저기 전전하며 일정한 거처 없이 버티다가 들어가게 된 곳이 앙카라학원이었고, 그곳에서 삼일중학교 2학년에 편입하였다. 전쟁 직후라 학생들의 나이도 들쑥날쑥했고 학습 분위기도 몹시 어수선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책을 챙겨 공부해야 했고,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 학습은 개별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는 다른 원생들에 비해 학년이 높아 처음부터 홀로 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수원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금의 수원여고 뒷길로 등하교했는데 그는 그

길이 당시에는 전부 허허벌판이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행운아'라면서 "그 시절 피란 나와서 밥 한 끼 굶지 않고 얻어먹지 않고 학교 다니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양카라학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학 진학은 아무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김근태 육군은 그냥 가지만은, 공군이나 해군은 지원해야 하잖아요. 청량리에 가서 (입대)지원서를 쓰려고 봤는데, 해군을 지원하러 갔더니 이미 원서가 없어요, 마감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옆을 보니 공군이 있어. 가서 보니 거기는 마감이 안 됐다고 해서 공군 입대를 지원했지요.

면담자 수원농고까지 나오셨다면 공공기관 같은 데도 취직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군대로 가셨어요?

김근태 그 시절에는 사실 기댈 언덕이 없잖아요. 그러니 군대를 가자고 결심했지. 군대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부모들이 면회하러 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게 없었지. 휴가를 나와도 갈 데가 없지.

양카라학원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지만 대학 진학은 엄두를 낼 수 없는데다가 당시 몰려든 전쟁고아들의 양육에 바쁜 학원에 이렇다 할 취업 알선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그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직업군인을 염두에 두고 청량리로 가 공군 부사관을 지원하였다.

이후 대전에서 공군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1958년 수원 공군기지에 배속, 야전전투대대 소속 특기병으로 근무하며 전투기 조종사 호흡용 산소를 생산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 호흡용 산소는 의료용보다도 더 순도가 높은(99.5%) 것으로 탱크에 액체 상태로 주입해 두었다가 정비사들이 전투기에 싣기 위해 가져간다.

그가 이 액화산소(LOX) 제조를 관리하게 된 것은 1965년 제10전투비행단 보유 전투기가 기존의 F-86 기종에서 액화산소를 사용하는 F-5A/B 기종으로 전면 교체되면서부터이다. 수원비행장 내에 있는 산소 제조 공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24시간 내내 가동되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그의 부대는 3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되었다. 주말에는 "기계도 쉬고 사람도 쉬기" 때문에 기계를 다시 가동해 산소가 생산되기까지는 4시간 이상 걸린다. 산소 제조 기계는 공기 중의 산소를 분리, 압축, 냉각해서 큰 저장용 탱크에도 담고 500그램짜리 탱크에도 담았다. 만에 하나라도 산소에 문제가 있을 시 조종사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곳의 최고 책임자로서 30년을 근무하고 1988년에야 제대하여 수원 공군비행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몇 번이고 공군 본부에서 강릉비행장 등 다른 곳으로 배치하려고 시도했으나, 액화산소의 순도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술자로서 그의 능력을 높이 샀던 수원비행장 측에서 그를 보내 주지 않았고, 심지어 어느 날은 처가댁 가족 행사 참석차 5일 휴가를 내고 지방으로 내려와 있는데 부대에서 급한 일이 있다며 그를 데리러 사람을 보내는 바람에 휴가를 다 보내지도 못하고 홀로 수원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요구되는 책임감과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하면 박봉인 직업군인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김근태는 결혼 전에는 비행장 밖에 있는 사글세 단칸방에서 살다가 1960년대 초반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한 직후에는 세류동 수원비행장 정문 앞에 세워진 하사관 관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에 따르면 단층 주택 건물 하나를 두 가구가 반씩 나누어 거주했는데 당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름해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세 아들이 있었고, 든든한 가족들과 함께 1988년도 전역 후에 세류동을 중심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옮겨 갈 수 있었다. 또한 관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군 동료 가족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그에게는 맨손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일터와 새로이 만든 가족 외에도, 우연히 재회하게 된 동생이 있었다. 열일곱 살에 고향 철원을 떠나 피란길 어느 곳에선지 모르고 헤어진 동생을 만나게 된 것은 그가 하사로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미군 트럭을 타고
홀로 피란길을 나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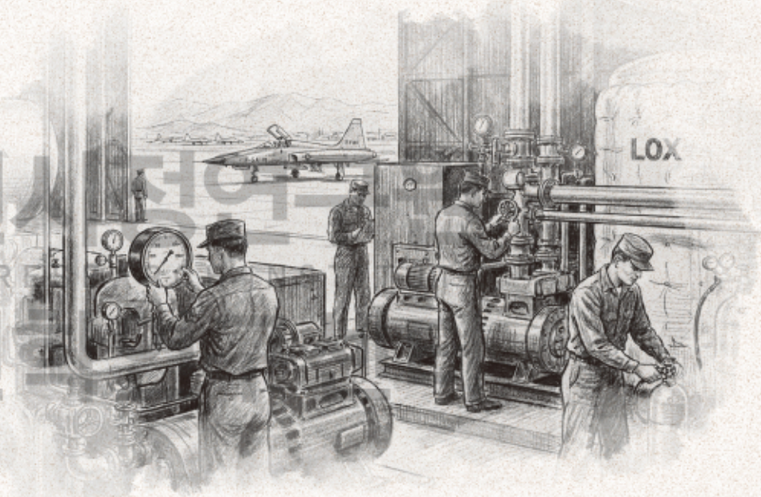
앙카라학원
친구들과 함께



공군 하사관에
지원하다.



수원비행장에
배치되다.



수원비행장
산소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다.



하사관 관사에서
생활하다.

김근태 친척, 10촌 이상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원에 사셨는데, 나도 군대 들어가고 하사 때 그분들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와서 나하고 같이 관사에서 좀 살았어요.

김근태의 아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니까 살림집이 있잖아요. 병장으로 제대를 했어. 왜 제대를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군대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여섯 살 어렸던 그의 동생은 앙카라학원에서 돌봄을 받았던 형과 달리 안정된 공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이 없었다. 김근태는 그의 동생이 "노가다 일도 하고 안 해 본 일 없이 다 했을 것"이라면서 "안정된 곳에 있으면서 공부라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니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술 퍼먹고 그래서 사람이 망가졌다."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수원농고 동창인 농촌진흥청 직원에게 부탁해 동생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기도 했으나, 동생은 "월급을 너무 조금 준다."며 금세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 알코올 중독으로 간에 문제가 생겨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겨우 열 살이 조금 넘었을 그의 동생에게 어떤 고초가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근태는 앙카라학원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으며 그곳은 아이들에게 '안정된 곳'으로서 '공부라도' 할 수 있게 도와준 공간이었다.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동생 역시 앙카라학원에 왔더라면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듯하였다.

이처럼 김근태의 삶은 일견 평범한 직업군인의 생애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쟁으로 부모님과 형제, 일가친척도 없이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홀로서기를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매 순간 치열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일구어낸 마음의 바탕에는 그가 '행운'이라고 했던, 앙카라학원의 보살핌이 자리하고 있었다.

4. 넉넉한 품성으로 원생들을 돌본 큰언니 임재희

강원도 김화(현재의 철원)에서 살았던 임재희는 가족들과 산에 숨어 있다가 1951년 6월 국군의 지원을 받아 서울과 신갈을 거쳐 수원으로 피난을 왔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올케와 조카는 세류동에 머물렀으며 그와 여동생만이 앙카라학원에 입소하였다.[2] 그러나 곧 올케마저 사망함에 따라 조카까지 앙카라학원으로 데려와 살게 하였다.

3년의 공백 뒤 뒤늦게 국민학교 5학년에 편입된 임재희는 매향중학교 시절부터 공부에 눈을 떴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장도 그에게 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했고, 그는 당시 수원시 최고의 명문 수원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줄곧 공부를 잘하기도 했지만, 인망이 두터워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2년 동안 반장도 도맡았다. 앙카라학원에서는 혼자 수원여고를 다녔기 때문에 물자가 귀하던 시대에 뭐든 독차지할 수 있어 좋았다고도 하였다.

임재희 혼자 (학교에) 가니까 여럿이 가면 우산이나 우비 같은 거, 가방 같은 것도 못 가질 텐데 혼자 가니까 우산도 개인적으로 썼지, 가방도 좋은 걸로, 나눠 쓸 필요가 없었어.

스물세 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2년 동안 앙카라학원의 영아원에서 남자아이들을 맡아 보모 일을 하다가 고향인 철원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이북에 끌려갔다던 작은오빠가 돌아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큰오빠와 작은오빠 모두 인민군에 징집되어 끌려갔으나 작은오빠는 열일곱 살의 나이에 브로커의 도움으로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도망쳐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남한에서 바로 군대에 들어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 고향으로 가서 친척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임재희 자매가 수원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앙카라학원까지 찾아왔었다고 한다.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진 남매가 감격스러운 상봉을 한 후 임재희는 더 이상 혼자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피란 트럭을 타다.



수원 영화동
성냥공장에 설치된
철원피란민수용소



앙카라학원 입소 후
수원여고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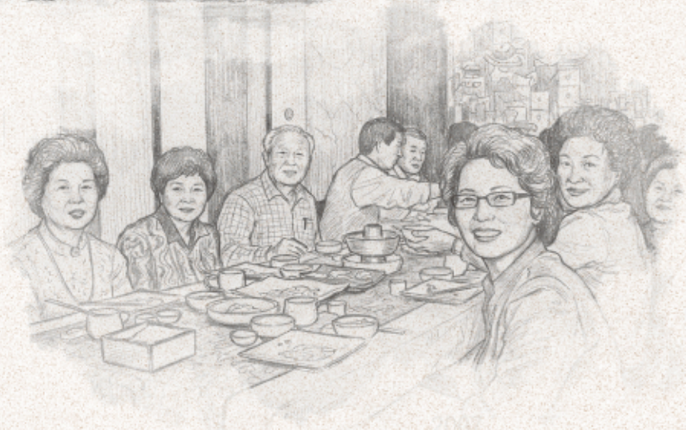
수원시립
SUWON RESEARCH INSTITUTE FOR CITY HISTORY
수원학연구



앙카라학원의
보모들



정육식당 운영



주한터키대사관
모임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다. 오빠를 만나기 전, 결혼에 대해 생각만 해도 "아무도 없으니 힘들다."고 느꼈던 그는 보모 생활을 마치고 철원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스물여섯의 나이에 결혼하였다. 그의 남편은 평양 출신의 피란민으로 한국전쟁 때 철원으로 피란 왔다가 그곳에 정착한 경우였다. 부부는 미아리 근처에서 정육점 사업을 하다가 성북동으로 옮겨 와 더욱 사업을 번창시켰고, 이후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앙카라형제회의 모임 장소로 빈번하게 이용되었다.

임재희는 어린 시절 앙카라학원에서 자라며 튀르키예 군인들과 학원에서 받았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주변에 많이 베풀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

임재희 한참 장사가 잘될 때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먹였어. 옛날에 집에 있는 광에다 모아놓고 (음식) 집어 주고 그랬잖아. 그런 걸 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는 얻어먹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었고, 그러면 다 줬어. 그땐 내가 잘했지.

앙카라학원에서 동생과 조카를 챙기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앙카라학원에 들어온 어린 아기들을 돌보았던 큰언니 임재희는 결혼한 후에도 장성한 조카의 군 입대와 결혼을 책임졌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후로는 일면식도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앙카라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그 시절을 삶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며 그때 받았던 사랑을 그의 따뜻하고 넉넉한 품성을 통해 세상에 베풀고 있다.

5. 재주 많은 소녀 최정자의 되갚은 보살핌

황해도 황주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수원으로 피란을 왔고, 어려운 가정환경에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자발적으로 앙카라학원에 입소했던 최정자는 공부를 곧잘 하는 똑똑하고 어른스러운 소녀였다. 그는 앙카라학원에서 기초 교육을 받은 후 매산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입학시험을 잘 치르고 중학교에 입학, 앙카라학원 동기들 몇 명과 함께 학업을 이어 나갔다. 그는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리듬감과 손재주도 뛰어났다.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이름 있는 무용가로부터 한국 무용을 배워 튀르키예군 위문공연에서 선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춤을 계속 배울 여건이 되지 않았고, 공부와 생계를 병행하느라 몹시 바빴다.

최정자는 중학교 시절 재봉 시간에 한복부터 양장은 물론, 십자수 놓는 법을 배워 그 기술로 베갯잇이나 횃대에 거는 광목천에 수를 놓아 조금씩 용돈벌이를 시작하였다. 추운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었지만, 장갑도 없이 밤을 새워 바느질을 했고 그렇게 5원, 때로는 10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조금씩 벌어들였다. 그 시절 그에게는 사실상 공부보다 생계가 우선이었다. 결국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앙카라학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는 다섯 명의 동생이 있었고,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그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서둔국민학교에 교생으로 나갔다가 교사 월급이 생각보다 턱없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만두고 평동에 있는 선경직물 공장에 취업하였다. 야간에는 서둔동에 위치한 잠업시험장에서 일했는데, 그가 한 일은 누에가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드는 때를 맞춰 밤새 누에를 나무 위에 올려주는 작업이었다. 이후에는 작물시험장에 가서 벼의 성장과 수확 데이터를 측정하는 일도 하였다.

면담자 그게 교사보다는 돈이 좀 더 나왔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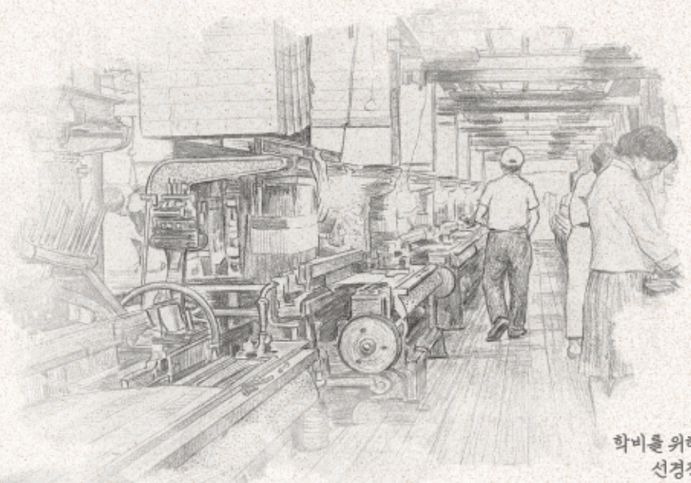
최정자 좀 더 나왔죠. 그때는 그래도 선생 하는 것보다는 (급여가) 많았으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직장에 못 다녔어요. 결혼한 날짜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1만 5천 원을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월급이 많았지.

최정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밤낮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동생들의 학업을 책임졌고 그중 한 명은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 대학교까지 진학했다고 한다. 이후 같은 회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떠났던 피란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 선택한
선경직물 취업



고아는 아니지만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입소한
앙카라학원



앙카라학원
여자 원생을
모임

수원시
SUWON RESE
수원학연



무용에도 재주가 있었던
소녀의 위문공연



튀르키예
사람들과의 교류

직원이 소개해 준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편이 방송국에 종사하는 사람인지라 전국의 여러 지역으로 자주 발령 받아 이사를 다녔다.

잦은 이사와 출산 및 육아, 가사 노동까지 감당하는 한 집안의 주부로서 그는 한동안 앙카라학원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앙카라 형제회와 연락이 닿은 것은 1980년대 초반, 서울로 올라와 자녀들을 국민학교에 보낸 후였다. 여러모로 여유를 갖게 된 후로 그는 열심히 형제회 모임과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초청 행사 등에 참석했고, 어느 날인가는 대사관 행사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탑승한 시내버스에서 튀르키예 청년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최정자 대사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오다가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어떤 청년이 앉는 거야. 그런데 튀르키예 사람인 거지. 어떻게 여기(한국)를 왔냐고 물으니 학생으로 왔대요. 걔 할아버지는 튀르키예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대. 그리고 자기는 한국외대에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걔를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학생) 혼자 (타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인연이 됐어. 내가 대치동에 살았으니까 그리 나오라고 그러면 와서 저녁도 사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코엑스에 튀르키예 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사장이 또 애를 잘 알고, 애가 학생이니까 이제 돌봐 준 거지. 그래서 그 식당에 (학생이) 나를 또 데리고 가서 사장도 나를 알게 됐어. (사장) 부인은 나더러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고 그래요. 어떤 때는 (학생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길래 교통카드에 3만~4만 원씩 충전을 해 주기도 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하고.

튀르키예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청년에게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튀르키예군 출신 할아버지가 있었다. 즉, 그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후손으로서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유학 온 국비장학생이었던 것이다. 최정자는 우연히 버스 옆자리에 앉은 학생과 그렇게 인연을 맺어 자신이 어렸을 때 튀르키예군에게 보살핌을 받았던 것처럼 그 학생을 살뜰하게 살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낯선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밥을 사주고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며 그가 끼니를 거르거나 돈이 없어 가고자 하는 곳도 못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그렇게 이어 온 인연이 해를 넘기고 넘겨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그가 만났던 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 남아 외국인학교의 행정 직원으로 일하면서 튀르키예대사관 관련 행사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청년의 가족들과도 친해져서 참전용사인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부조금을 보내기도 했고, 청년의 어머니로부터 손수 만든 튀르키예 전통 스카프를 선물로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선행은 지역사회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그는 대치동에서 오랜 세월 살면서 부녀회장과 통장 등을 도맡아 하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명예 행정관 제도에도 선발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명예 행정관은 구청과 주민들을 이어 주는 역할로 각 동에서 온 명예 행정관들과 지금도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주말농장에도 나가서 커피나 떡 등 간식을 챙겨 농장 일을 하러 온 어르신들을 챙기고 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 "얘기 들어주고 차 마시면서 놀고" 오는 것이라고 그는 웃으며 말하였다. 이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돕는 것은 그의 타고난 성품과 더불어 앙카라학원 시절의 외로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위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정자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외롭다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거기서도 추석 때가 되면 송편을 빚었어요. 왜 그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에 떡을 빚어서 저녁에 먹고 누군지는 모르겠어. 어떤 애랑 둘이 마당에 앉아 있는데 보름달이 뜬 거예요. (달을 보고) 내가 엄청 울었던 것 같아.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하고 같이 울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외롭긴 외로웠나 보죠. 그 친구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지.

그는 앙카라학원에 있던 시절이 인생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며, 그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6. 앙카라학원의 명랑 소녀에서 풀무원의 모범 사원으로, 길문자

평안남도 순천에서부터 눈길을 걸어 남하한 길문자는 신갈 부근에서 폭격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잃고 중공군을 앞세워 수원에 오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있었으나 생활 여건의 변화와 재혼 등의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동익 원장과의 인연을 통해 길문자와 그의 남동생을 앙카라학원에 입소시켰다. 당시 그의 나이는 열한두 살 남짓 되었다.

앙카라학원에 입소한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지원 아래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길문자도 처음엔 앙카라학원 내부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초빙된 외부 강사들을 통해 영어나 무용, 음악을 배웠다. 특히 그는 밴드부에서 코넷(cornet) 연주를 담당하여 동두천과 양주 등지의 튀르키예군 부대에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군용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길에 같이 가던 언니가 가르쳐준 시구를 그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길문자 "쓸쓸하고 괴로운 이 한밤을 그대들은 기억할 날이 있으리라. (내 숙명이여,) 창밖의 눈보라가 인생의 종점을 고하듯이 숲속을 방황한다." 이 시를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건데 지금도 외워지는 거야. 톨스토이 비극의 한 토막이야, 이 부분이. 이걸 차 타고 가면서 언니가 외우면서 "야, 이거 좋지." 그래서 그때 한번 주워들은 건데 그게 여태까지 기억나는 거야.

여행길을 떠나는 것처럼, 군용 트럭 안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대화를 나누며 서너 시간 이동하다 보면 군부대에 도착하고, 거기서 주는 달걀이나 사과와 커피를 아침밥으로 얻어먹었다. 앙카라학원 아이들에게 위문공연 가는 날은 오고 가는 길까지 모두 즐거운 소풍길이었을 것이다.

길문자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며 성가대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는 "이북 사람들이 음성도 크고 노래를 잘한다."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였다. 매산국민학교 5학년에 편입한 후 그는 다른 친구들처럼 중학교에 가지 않고 수원가정기술학교에 다니면서 양재 기술을 익혔다고 한다.

길문자 내가 양장(기술)을 배웠다고 했잖아. 웬만하면 내가 옷을 해 입었어. 치마 같은 건 (원단을) 잘라 가지고, 재봉틀도 다룰 줄 알았으니까 (원단) 재단하고, 내가 중학교는 안 나왔어도 그런 기술고등학교를 갔지. 옛날엔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해야 하니까.

똑똑하고 영민한 소녀였지만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예민했던 그는 학업을 잇기보다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 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단체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이런저런 일을 해 보며 복합적으로 기술을 익혀 가는 것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앙카라학원에서 영어나 한문, 음악을 배우고 한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관계 맺는 법을 익혀 온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확신이었다. 그것은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분명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이자 지식과 같은 것으로, 앙카라학원 원생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자부심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후 길문자는 외부로 일하러 나갔다가 스물세 살에 앙카라학원으로 돌아와 5년 정도 보모 일을 하며 영유아들을 돌보다가 스물여덟 살 되던 1969년에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해 서울로 이사했다고 한다. 남편을 소개해 준 사람은 앙카라학원에서 같이 일하던 보모이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다. 그가 성인이 된 후 1960년대의 앙카라학원은 더 이상 전쟁고아가 아닌,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이 입소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였다. 결혼을 중매해 준 '혜영이 엄마'는 자녀들만 데려다 놓지 않고 자신이 보모로 일함으로써 가까이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다.

길문자 남편이 이제 대학을 나와서 석탄공사에 다녔어. 그런데 같이 보모로 있던 집사님이 ○○이라는 데 살면서 아는 사람을 중매해 준 거야. 그분도 자식들을 다 (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어머니와 동생을 잃은
피란길



수원가정기술학교
시절



앙카라학원
원생들과



앙카라학원
보모 생활



앙카라학원
밴드부 활동



풀무원
모범 사원

수원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카라학원에) 맡겨 놓고 보모로 들어온 거지. 자기 애들 서너 명을 다 갖다 넣고, 같이 키우는 거지.

길문자는 결혼하면서 튀르키예군과 찍었던 사진을 많이 없애 버렸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낙인과 사회적 편견은 앙카라학원 출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하였다. 전쟁 피해자들의 어려웠던 상황은 "흉이 아닌데도" "가족이나 상대편이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앙카라학원을 나온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 시가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증거가 되는 사진을 없애고, 자녀들에게까지 낙인이 옮겨 갈까 하여 학원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수업에 따르면 "앙카라에 있었던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앙카라형제회 측에서 거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이도 있다고 한다. 임덕환도 자녀들에게 앙카라학원 기념비를 보여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내가 여기 살았다는 걸 확 터놓는 사람이 드물다, 여자들이 그래서 꺼리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도 잠시, 밝고 활발한 성격을 타고난 그는 가정주부로서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길러냈을 뿐만 아니라, 식품기업 '풀무원'에서 30년 이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상을 타기도 했다. 그러면서 앙카라학원 출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형제회 활동도 이어 나가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 그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온화한 성정으로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타인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전하고 있다.

앞서 튀르키예군과 찍은 사진은 없애 버렸다고 하지만 그 외에 앙카라학원에서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나 그때 구호물자 속에서 찾아 입었던 치마 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새벽녘 다 함께 군용 트럭을 타고 가는 길에 외웠던 톨스토이의 시 한 구절처럼, '쓸쓸하고 괴로웠던 이 한밤'의 시절을 그는 형제들과 함께해서 외롭지 않았고 그의 적극적이고 쾌활한 천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을 지탱하고 일으켜 주었던 앙카라학원과 튀르키예와의 인연, 그 시절의 생활과 교육의 실상을 후세에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다.

7. 앙카라학원을 마음에 품고 꿋꿋이 살아온 임덕환

앙카라형제회 회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임덕환의 생애는 형, 누나들과 달리 전쟁고아로서의 서러움과 앙카라학원 후반부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임재희의 조카였던 임덕환은 그녀보다 열 살이 어렸고, 철원에서 전쟁으로 피란 나올 당시 겨우 세 살에 불과하였다. 그의 고모 임재희는 앙카라학원에 입소했으나 임덕환과 그의 어머니는 세류동에서 외갓집 식구들과 머물렀다고 한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임덕환의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고모의 제안으로 그 또한 앙카라학원에 입소하였다. 입소 당시 나이가 가장 어린 축에 속했던 임덕환은 앙카라학원 초창기의 생활에 대한 기억보다는 2~3년 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의 기억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의 학창 시절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고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이후 앙카라학원의 재정 악화가 그 원인이었다.

임덕환은 매산국민학교에 입학했는데 첫날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퇴교를 당했고, 그로부터 2년 뒤 고색국민학교에 입학하였으나 4학년이 되었을 때 집단따돌림을 당해 다시 학교를 나오게 되었다. 이후 1년을 더 쉬고 서호국민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면서 그는 다른 또래들보다 4년 더 늦게 학교를 다닌 셈이 되었다.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교과서 외의 책을 강매하여 아침에 별도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따로 책을 구입할 돈이 없었던 그는 가난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일찍이 겪게 되었다. 5학년이었을 때 6학년을 건너뛰고 삼일중학교에 밴드 특기생으로 입학했지만, 이미 여러 번 학교에서 고아라는 이유로 부조리를 경험한 그에게는 학업에 대한 흥미나 세상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그는 수원 사람들의 텃세와 차별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임덕환 서둔동 그쪽은 변두리잖아. 그 과수원 같은 데서 뭐가 없어지면 다 우리가 바가지 쓰는 거야. 다른 데서도 그쪽으로 많이 오거든? (과수원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걸리면 또 우리를(앙카라학원 이름을) 대서 바져나오고 그랬어.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앙카라학원의 경제적 사정은 점점 악화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경기도 및 수원시에서 서로 오간 문서를 통해 1960년대 중반부터 앙카라학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66년 임원진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1968년부로 인가 기한이 종료되어 갱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971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수원시에서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 그 근거 중 하나이다. 이후 1977년 앙카라학원은 '법인 소재지로 이전 등기하라'는 수원시의 공문을 받았고 1979년 혜광원에 흡수 합병되면서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3]

앙카라학원 운영의 난맥은 튀르키예군의 철수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 주둔하는 동안 꾸준히 앙카라학원을 후원했던 튀르키예군은 1960년 튀르키예 본국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병력을 감축시키고 1962년에는 철수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 튀르키예군의 주둔을 연장하는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여 매년 주둔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튀르키예군은 1966년 의장대 11명만을 남기고 중대 병력을 철수하였고, 최종적으로는 1971년 사실상의 한국 주둔이 종료되었다.[4]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튀르키예군의 잔류 중대가 철수할 때까지는 후원이 지속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후원이 이전만큼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학비가 밀린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오수업 그런 건 없었어. 튀르키예 군인들이 다 원조해 준 건데, 그때 1년에 육성회비가 3천 원인가 했었어. 우리는 튀르키예 군인들이 원조를 많이 해준 거지.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기수 뒤로) 튀르키예 군인들이 줄어들었잖아.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지동익 원장이 정부에서 받은 걸 모아서 보조해 주고 그랬지. 한국에서 튀르키예 군인들이 철수했잖아, 그 뒤로 이제 (지원이) 없어졌지.

임덕환의 청소년기는 바로 이 기간을 지나고 있었다. 순탄하지 않은 정규 교육 환경 속에서 방황하는 그에게 의지가 되어 주어야 할 앙카라학원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는 배고픔과 생활고도 함께 견뎌야만 하였다.

임덕환 일어나자마자 식당에 모여서 점호. 어디 가서 뭐 훔치지 말고, 그런 내용. 점심은 도시락을 싸주지. 학교 마치고 오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 학년이 높으면 밭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일 좀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저녁이 되어 밥 먹고. (중략) 처음에는 점심이랑 다 먹었는데 갈수록 점심이 없어지더라고. 도시락도 없고 그냥 굶었어. "너네들 주워 먹든지 뭘 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거지 뭐. 그런데 주워 먹을 게 있어야지. 난 배고파서 영양실조 걸려서 병원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수원도립병원.

튀르키예군의 원조가 끊어진 시기와 맞물려 그는 연배가 높은 원생들은 전혀 겪지 않았던, 끼니를 거르다 병원에 실려 가는 경험도 하였다. 튀르키예군의 지원 중단은 당시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상급학교 진학도 어렵게 하였다. 일찍이 그는 수자폰을 배워 밴드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남양 유도탄 기지나 오산비행장 등 미군기지로도 위문공연을 가기도 하였다. 이는 앙카라학원이 재정 확보를 위해 미군과의 관계 유지에도 노력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속한 세대의 앙카라학원 원생들에게는 미군조차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는 중학교까지만 다닌 채 학업을 중단하고, 앙카라학원에서 독립한 고모를 찾아가게 된다.

임덕환의 첫 직장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어느 정육점이었다. 그러나 급여도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서러운 경험도 많이 하게 되어 3개월 남짓 버티다가 다시 고모부의 소개를 받아 낙원시장의 정육점으로 옮겼는데 그곳은 급여도 높고 식사도 제공하는 등 직원에 대한 처우가 좋아 3년가량 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군 제대 후에도 그는 한동안 낙원동과 성북동에서 고모부를 도와 정육점 일을 하였다. 그 시기 앙카라학원을 찾아가 지동익 원장을 마지막으로 만난 기억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폐원 소식을 들을 때까지도 다시 찾아가지는 못했다고 한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세류동 피란민촌



앙카라학원 입소



삼일중학교 밴드부 활동



군복무



정육점 취업



결혼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임덕환 나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 번 거기(앙카라학원) 가서 원장 만난 게 마지막이야. 돈이 없어서 (자주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동으로 가게 되더라고, 끌리더라고, 그게 고향이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보는 건 좋은데 주머니 사정이 마음 놓고 갈 수도 없고, 돈이 드니까 가는 것도 진짜 힘들었지. 뭘 사들고 갈 돈도 없었어. 차비나 있으면 다행이었지.

그의 일은 도살장에서 잡은 소를 들여와 부위별로 해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그는 주로 충청도와 강원도, 경기도 북부 등지의 시장에 가서 소를 직접 보고 골라 도축한 후 정육점으로 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도축된 고기는 냉동차를 통해 정육점으로 운반되었고 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는 일은 그가 직접 도맡았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시간이 흘러 경험이 쌓이니 이제는 소의 상태만 보아도 품질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는 마침내 1988년 노원구 상계동이 개발되던 시점에 자신만의 정육점을 차리게 되었다. 그러다 상봉동으로 옮겨 갔으나 생각보다 지역 상권이 잘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고모가 계시고 자신에게도 익숙한 성북동으로 돌아갔다.

그는 앙카라학원이 어려웠던 시기에 있으면서 기존의 선배들이 받았던 것보다 미흡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좌절하지 않고 세간의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전쟁통에 어린 자신을 업고 피난을 나와 준 고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고모 또한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조카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들 가족 간의 강한 우애는 전쟁 후의 험난한 한국 사회를 살아오며 어려움을 견디고 헤쳐나올 수 있는 근원이었다.

임덕환 이제 내가 고모네를 안 가는 걸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셔. 아니 자기네 자식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의지하시는지.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또한 앙카라학원에 대한 애정이 그의 삶에 큰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학원의 사정이 어려워지긴 하였으나 그에게 앙카라학원은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운 공간이다. 20여 년 전 그는 "내가 여기서 자랐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어서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앙카라공원으로 데리고 가 기념비를 보여 주었다.

8. 앙카라형제회와 튀르키예의 교류

앙카라학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들, 특히 앙카라학원 초기 전쟁고아라는 동일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함께 한솥밥을 먹으며 성장한 이들은 학원을 떠난 후에도 서로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만나며 교류해 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앙카라형제회'라는 원생 모임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사실상 연배가 많은 형들을 주축으로 연락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앙카라학원에 찾아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먹을거리나 선물을 가지고 종종 찾아갔던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오수업은 전쟁고아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튀르키예군과 앙카라학원의 지원을 많이 받은 편인 데다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단합력이 좋았지만, 그 이후 유아원 출신들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서 사정이 달랐다고 설명하였다.

오수업 (앙카라학원 초반의) 전쟁고아들은 단결력이 셌어. 군대에서도 휴가 나오면 꼭 거기 가서 자고 오고 애들 힘든 거 도와주고 그랬는데, 애네들(전쟁 후 입소 세대)은 유아원에서 온 거라 우리와는 모임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르지. 애들 때는 경기가 안 좋았거든. 우리 때는 그래도 (학원) 나가서 돈 다 벌었어, 취직시켜줘서. 원장이 다 (알선해서) 자리 만들어 주고 그랬는데, 애네 때는 어디 가서 취직이 안 됐지. 그때 경기도 안 좋았고. 우리 때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었고 경기도 좋아서 다 취직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정이고 신정 때고 다 거기로 갔지, 그 당시에는.

임덕환 그런데 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이틀 있으니까 부르더라고, 철원에 삼촌네로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가라 이거야. 딱 차비만 주더라고.

그럼에도 대체로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바빴던 시기에는 연락을 이어 나가긴 하더라도 쉽게 모임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각자 결혼할 때쯤에, 형제회 회원들이 축의금도 모아서 해주셨나요?

임덕환 해 줬죠, 하지만 소소했지. 다들 살기가 힘드니까.

오수업 다들 각자 생활하기 바빠서 (결혼식에는) 사실 많이 오지 못했어. 그런 대로 잘사는 사람들만 오고. 그리고 많이 부르지도 못했지. (내가 결혼할 때는) 얘네들은 너무 어려 가지고,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났거든. 그 당시에는 1년 차이도 선배고 하늘이야. (중략) (임덕환 가족들은) 친인척이 다 있지만, 진짜로 (친인척도) 없는 사람들은 모임 오기도 사실 힘들어. 우리가 모일 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와서 밥값도 내고 그랬지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그때 당시엔 경제가 어려웠으니까 살아가기 힘들었잖아. 지금은 잘 살지만.

특히 오수업과 같은 시기의 전쟁고아 출신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의 경우 당시 20~30대의 나이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들을 키우느라 앙카라학원에는 발걸음도 하지 못하였다. 임재희는 앙카라형제회 회원들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했으나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식당 경영 및 육아, 남편의 건강 문제 등으로 모임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 드물었고 조카인 임덕환이 형제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어 자신은 빠져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신 성북동에 있는 그의 식당 공간을 제공하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후원을 담당하였다.

임재희 애들 있을 때는 안 갔어. 가기가 싫은 것보다도 결혼 생활하니까 못 갔어. 조카를 거기 두고 나와서 좀 가고 싶었는데 사는 게 바빠서 못 갔어.

면담자 나중에 조카분이 학원 나오신 후에 만나신 거예요?

임재희 응,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지. 내가 장가보냈어. 군대도 우리 집에서 갔고.

일단 모임을 시작한 후로는 자주 모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기도 했으나, 점차 그 횟수가 줄어들어 해마다 한두 차례 정도 정기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은 회포를 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앙카라형제회는 한때는 회비를 모으기도 했으나 사실상 회비를 모으기보다는 모임 때마다 형편이 좀 더 넉넉한 사람이 밥을 사는 등의 자발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단순한 친목을 넘어 후배를 돕고 앙카라학원을 기념하는 활동이나 주한튀르키예대사관과의 교류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공익적 활동으로 모임의 외연을 확장해 갔다. 이는 그들이 앙카라학원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갚는다"는 정신에서 비롯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려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 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는 꾸준히 기념행사가 열릴 때마다 앙카라형제회 회원들을 초청했다고 한다. 길문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한튀르키예대사관이 주도하는 행사는 주로 한국전쟁 참전기념일과 8월 30일 행사(승전기념일, Zafer Bayrami), 10월 29일 행사(공화국 건국기념일, Cumhuriyet Bayrami)가 있으며, 형제회 회원들은 2013년 앙카라공원 조성 행사에도 참석하였다. 이들은 튀르키예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식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튀르키예와 한국 간 민간 외교의 역할도 수행했던 것이다. 오수업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의 주례로 아들 결혼식을 치렀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단지 형식적인 인사나 방문에 그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적 연출이 아닌, 튀르키예와의 유대를 자신의 가족 안에 의미 있게 되새기는 의례로서 튀르키예와 한국 간 외교적 협력과 유대가 한 개인의 삶, 그리고 그 가족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앙카라형제회는 2023년 10월 튀르키예 건국 100주년 행사 및 튀르키예군의 용인 김량장리 전투 73주년[5]을 기념하는 행사에도 초대받아 튀르키예군의 희생을 함께 기리는 자리를 가졌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서 앙카라형제회는 사회 곳곳의 앙카라학원 출신 졸업생들을 연결하는 상호 지원의 네트워크로 기능하며 어린 시절 맺은 인연의 끈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앙카라형제회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 고령에 접어들어 전성기처럼 수십 명이 모여 식사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수업은 앙카라형제회의 쇠퇴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보고 있다. 다만 그는 능력이 닿는 데까지 튀르키예와의 인연을 되새기며 그 사랑을 되갚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2023년 오수업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앙카라형제회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 덕분에 성인이 될 때까지 앙카라학원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답을 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튀르키예로부터 받은 도움에 비하면 이것은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서 "대지진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튀르키예를 도와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6]

2024년 11월에는 튀르키예대사관이 앙카라형제회 사람들을 초청하여 튀르키예 음식점에서 유학생들과의 함께 식사하며 사진도 찍고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날 참석했던 최정자와 길문자는 튀르키예와 한국이 서로 맺었던 인연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이러한 행사가 열리는 것이며, 그런 마음을 알기에 초대받으면 최대한 참석함으로써 보답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길문자 교환학생들이 대여섯 명 정도 와. 한국말을 너무 잘해. 사진도 찍고 선물도 잘 가져오더라고. 스카프 같은 것도, 도자기 시계도 아직 있어.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 애들은) 빈손으로 안 와. 우리는 같이 밥 먹어주는 게 예의지.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지, 아직도 잊지 않고 산다는 거. (중략) 대화가 안 되는데도, 그저 아직까지 한국에 우리의 인연이 남아 있다는 걸,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행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늙고 다리 아픈 거 다 알고, 절뚝거려도 자기네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서 반갑다고. 또 안아 주면 또 '고맙다.' 하고.

"우리는 받은 게 많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오수업의 단호하고도 짧은 이 한 마디는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과 '고아들에 대한 후원'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실제 살아있는 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것은 낯선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었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다시금 다른 생명을 구하고 지킨다는 호혜의 응답이며, 앙카라형제회의 유지와 교류는 이러한 기억과 사랑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참고자료

홍현영, 2022, 『경계를 넘어 : 수원 월남민의 삶과 경험』, 수원시정연구원.
「[월요논단] 앙카라학원은 어찌 되었는지? 터키군 노병이 물었다」, 『경인일보』 2021년 11월 14일.
「6·25전쟁 고아 품어준 터키군…수원 '앙카라학교'」, 『뉴시스』 2021년 6월 25일.
「고아 길러 교육까지, 토이기여단 군인들」, 『동아일보』 1959년 5월 21일.
「터키적십자사 이백만환기금」, 『조선일보』 1958년 1월 29일.
「앙카라학원 기억과 기록] 희망 보이지 않던 전쟁터… 남겨진 아이들 데려와 교육 시작」, 『중부일보』 2022년 9월 28일.
「아시아문화연구원,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100주년 기념행사서 '앙카라학원' 소개」, 『중부일보』 2023년 10월 31일.
디지털철원문화대전(https://www.grandculture.net/cheorwon).

영상자료

춘천 MBC, 〈코레 아일라(Kore Ayla)〉, 2010년 6월 25일.
디지털 프로덕션 하우스, 〈아일라〉, 2018년 6월 21일.
KBS·TRT, 〈내 기억 속의 전쟁 : 앙카라학교〉, 2013년 7월 13일.

註

1 한국학중앙연구원, 「중동 건설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80953).
2 2년 후 올케의 사망으로 열 살 연하의 조카(임덕환)도 앙카라학원에 입소하였다.
3 국가기록원, 『시설관리(앙카라학원)) 1959-1979』(BA0173880).
4 「참전 계기로 NATO 가입 한국 간청으로 1971년까지 주둔」, 『주간조선』 2015년 6월 19일.
5 「'용인 김량장 전투를 아십니까'…중공군 2개 사단 무찌른 튀르키예군」, 『뉴시스』 2023년 10월 18일.
6 「'터키군'이 키운 6·25전쟁 고아, '이제 내가 도울 때'…1천만원 기부」, 『한겨레신문』 2023년 2월 9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자립을 향한 첫발



사회에 나간 양카라학원 여자 원생들(길문자 제공)



퇴소 후 양카라학원을 찾아온 원생들(길문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퇴소 후 양카라학원을 찾아온 양카라학원 밴드부 출신 원생들과 보모들(길문자 제공)



군대에서도 군악대원으로 활동한 오수업(오수업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군대에 입대한 서정태(오수업 제공)



군대에 입대한 길문철(길문자 제공)



군대에 입대한 임덕환(임덕환 제공)



식당에 취업한 임덕환(임덕환 제공)

앙카라형제회의 모임



양카라형제회 회원들(오수업 제공)



양카라 형제회 회원과 지동익 원장(오수업 제공)



양카라학원에서 개최된 양카라형제회 모임(오수업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양카라학원에서 개최된 양카라형제회 모임 후 뒷풀이(오수업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양카라형제회 모임(오수업 제공)



양카라형제회 모임(오수업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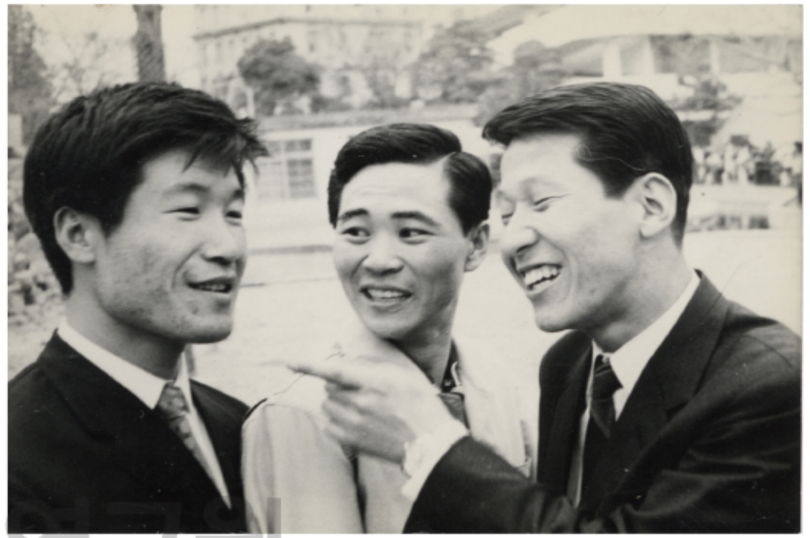








양카라형제회 회원들의 나들이(오수업 제공)





만나면 즐거운 양카라형제회 회원(오수업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
수원학연



모임 후 식사(오수업 제공)



바둑 두기(오수업 제공)









양카라형제회 회원들의 나들이(오수업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길문자의 결혼식(길문자 제공)



오경복의 결혼식(오경복 제공)



임덕환의 결혼식(임덕환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양카라학원 시절 추억이 새겨진 서호로 신혼여행을 온 오경복(오경복 제공)



오경복의 가족사진(오경복 제공)



임덕환의 가족사진(임덕환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가정을 일구어 가는 양카라학원 사람들(길문자 제공)





딸의 피아노 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오수업(오수업 제공)

수원지역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CENTER FOR REGIONAL STUDIES



양카라학원 보모로 활동하던 길문자(길문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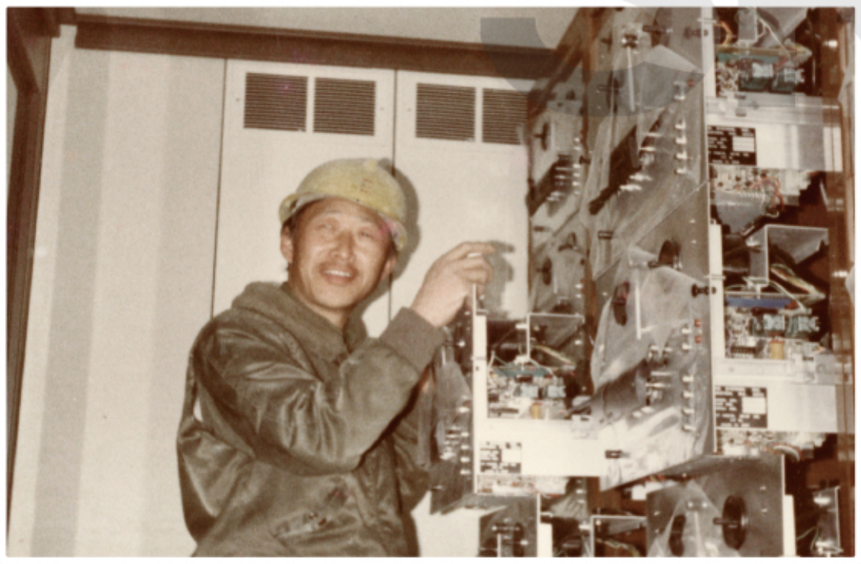


풀무원의 모범사원 길문자(길문자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중동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던 오경복(오경복 제공)



전기기술자로 성장한 오경복(오경복 제공)



진흥기업에서 근무한 오경복(오경복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중동으로 파견된 오수업(오수업 제공)





제1회 서울은행 VIP 고객초청 사은골프대회(2001년)에 초청된 오수업(오수업 제공)



1988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최정자(최정자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구축

75년간
이어진 만남



양카라학원 여자 원생들 모임(최정자 제공)



양카라형제회 모임(최정자 제공)



주한튀르키예대사관 행사에 초청된 오경복(오경복 제공)



주한튀르키예대사 관저에 초청된 양카라형제회 최정자(오수업 제공)



심재덕 수원시장(왼쪽 두 번째), 주한튀르키예대사(왼쪽 세 번째), 백상기 고문(오른쪽 세 번째), 양카라형제회 회원(길문자 제공)



양카라형제회 회원들의 만남(오경복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양카라형제회 회원과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사람들(최정자 제공)



양카라형제회와 주한튀르키예대사의 만남(최정자 제공)

제4부

다큐멘터리와 영화 속 앙카라학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1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와 영화 <아일라>[1]

이난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I. 서론

1950년 북한의 침공으로 발발하여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은 휴전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그 결과가 남북한 분단과 대립으로 고착되어 양 체제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실험 시도 더 나아가 핵보유국가 선언 등으로 그 갈등이 더욱 더 고조되었다. 한반도의 이러한 남북한 긴장관계는 언제든지 다시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 관련 연구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되었던 각국 학계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에 기인한 유엔군의 참전은 한국과 교류가 적거나 없었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와 교류의 시초가 되었다. 특히나 튀르키예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양국 간의 우호 관계와 더불어 양국 국민들이 서로 친밀감과 호의를 갖게 된 이유 중 가장 커다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세계 16개국 중 하나이며, 자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하여 "한국전쟁은 유엔이 세계의 자유를 위해 행동을 개시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튀르키예는 유엔 조약에 따라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군대 파견 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튀르키예군의 보호를 받는 수원의 고아들(『휘리예트』, 1951년 4월 16일)

정을 발표한 두 번째 나라로 자유와 민주의 횃불을 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튀르키예군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진정 우수한 전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며, 다른 국가 군인들과 함께 같은 목적과 목표를 위해 적에 대항하였으며,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전투에 임하였다. 튀르키예군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진 튀르키예군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2]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은 자국의 군사적 자존심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커다란 자긍심을 갖게 된 근간이 되었다.

한편, 튀르키예는 1957년에 한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같은 해 튀르키예에 한국 상주 공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이 한국전쟁 이후 얼마나 가깝게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렇듯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은 양국 우호관계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후 양국은 서로를 혈맹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류가 경험한 고통 중 전쟁보다 더 참혹한 사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겪었던 전쟁의 경험들은 사람들에게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아픔과 참혹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제1~2차 세계대전 및 전후에 발생했던 다양한 전쟁들 그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전쟁은 우리 인류에게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극도의 혼돈과 상실은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일상이 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살, 강간, 약탈, 파괴 등의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통과 혼돈의 일상화 과정에서 우리는 슬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성적 파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깊은 정신적 외상으로 남는다.[3]



튀르키예 군인과 수원의 고아들(『휘리예트』, 1951년 4월 19일)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국전쟁도 예외일 수 없다. 전쟁이 종료된 지 반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이 흘러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게 되었고,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전쟁은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휴머니즘 측면에서도 최악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로 다른 예술 장르들처럼 영화계 역시 휴머니즘을 설파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제작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제작된 한국전쟁 소재 영화 대부분은 스펙터클한 전쟁 신을 전면에 내세운 단순한 오락 영화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 당시의 상황을 재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작 한국전쟁 소재 작품 중 일례로 〈태극기 휘날리며〉(2004), 〈웰컴 투 동막골〉(2005) 등은 단순히 흥미 위주가 아닌 전장의 참혹함, 인간의 고통과 함께 영화 속 인물들의 희생과 용기, 의로운 정신, 인간애를 통해 전쟁의 역사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튀르키예 군인들의 보호와 사랑을 받은 아일라(ATASE 제공)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출발하여 튀르키예 참전 병사와 그가 전쟁 시 돌봤던 고아 소녀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2010년 MBC 춘천 방송국 제작)와 이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튀르키예에서 제작된 한국-튀르키예 합작 영화 〈아일라〉(2017)를 연구 자료로 삼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작품은 모두 한국전쟁 참전용사 쉴레이만(Süleyman Dilbirliği, 1926~2017)의 구술 생애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영향을 받아 영화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반영되거나 추가되었는지에 관한 고찰도 병행될 것이다.

한 인간의 삶은 극적인 순간들의 총체로서 누군가의 실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기도 한다. 이에 수많은 참전군인들이 구술하는 다양한 한국전쟁 경험담을 통하여, 지금까지 접해 본 바 없는, 이미 영화화된 〈아일라〉의 경우와 같이,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새롭게 접하게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전용사의 구술 생애담을 통해 전파될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한국인과 튀르키



배식을 기다리는 아일라와 병사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예인의 이야기이며, 그처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하나가 한터 양국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려한 말솜씨를 동원한 논리적인 설득보다 한 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크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4]

다큐멘터리는 방송 혹은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실제에 기반한 특정 이야기를 제작하고 구성한 줄거리와 주제가 있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영화는 영상과 음향을 통해 전달하는 영상물로, 제작 과정에서 실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창조적이며 허구적인 요소가 가미된다. 〈코레 아일라〉와 〈아일라〉는 이러한 장르적 특성에 입각하여 제작되었으며, 큰 틀에서 스토리라인도 비슷하다. 즉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 참전군인과 고아 소녀가 우연히 만나 튀르키예군 캠프에서 아빠와 딸처럼 함



한국전쟁 60주년 특별기획 <코레 아일라>(MBC 제공)

께 살다가 튀르키예 병사가 본국으로 귀환하고, 60년이 흐른 후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가 커다란 골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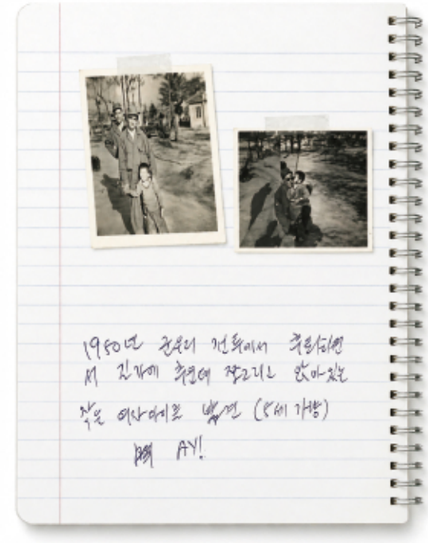
이 글은 스토리라인은 같지만, 실제 이야기만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이를 각색한 영화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튀르키예 제작진이 한국전쟁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두 작품이 많은 차이와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지면 관계상 두드러지는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다루고 추후에 후속 연구를 개진하고자 한다.

한편, 〈코레 아일라〉의 성공에 힘입어, 한국-튀르키예 수교 60주년 특집으로 2017년에 〈아일라-푸른 눈의 병사와 고아 소녀〉가 MBC 스페셜 다큐로 다시 제작되어 방영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코레 아일라〉와 〈아일라〉를 접목하여 제작한 작품이므로, 이 글에서는 영화 제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밝힌다.

2.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와 영화 <아일라>의 주요 내용

1)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2010년)

〈코레 아일라〉는 한국전쟁 당시 한 튀르키예 참전군인이 딸처럼 돌보았던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찾아간 MBC 제작팀이 이 딸을 찾는 과정과 둘의 극적인 해후를 그린 다큐멘터리이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일경언론상 장려상 뿐만 아니라, 2011년 제4회 캄보디아 국제 필름 페스티벌(캄보페스트)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고상인 '골든 버팔로'상을 수상[5]하는 등 해외에서도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실레이만이 소장하고 있던 흑백사진(MBC 제공)

다큐멘터리가 옛날 영상을 보여 주고 생존자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전문가의 분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개되지 않는 이미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젠스콘이 간파하듯, 다큐멘터리가 사건 자체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 스토리나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처음, 중간, 끝의 내러티브 구조에 맞춰 시퀀스 별로 세심하게 배열된 사건의 선택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6] 〈코레 아일라〉도 실레이만의 수많은 구술 내용 속에서 감독이 선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연출 및 제작된 작품이다.

〈코레 아일라〉는 한국전쟁 참전 병사와 한국 어린 여아가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들,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잔잔한 물결 그리고 이제는 늙어 버린 튀르키예 참전용사와 그 부인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후 카메라는 현재 이스탄불에 있는 한국 관련 장소들 예컨대, 이스탄불시(市)가 부여한 거리 이름인 '한국전사자거리', 아버지가 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아일라는 찾고 있는 쉴레이만(MBC 제공)

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간판에 '코레리(한국인)'라는 상호를 붙인 가게의 사연,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군우리 전투[7]가 벌어졌던 장소를 방문한 튀르키예 기자들과의 인터뷰 등 〈코레 아일라〉의 주요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러한 장면들은 곧 영화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들이다.

이러한 서사 방식은, 세일라가 언급한 "이야기는 현재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비록 이야기가 과거의 일을 대상으로 할지라도 현재 진행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뒷이야기의 정보를 흘려 넣으면 현재가 있기 위해 존재했던 과거를 관객이 알게 될 것이다."[8]라는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방식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뒤를 이어 튀르키예 참전용사협회 이스탄불지부의 모습이 나오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게임을 하는 모습,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의 흑백 사진들, 한국전쟁 관련 회고담들을 들려주는 참전군인들의 인터뷰 장면이 나온다. 장면이 바뀌어 이스탄불 소재 튀르키예 한인회 산하 튀르키예 한국전쟁 참전용사기념사업회에 참전용사 쉴레이만이 방문하여 오래된 사진을 보여 주며, 한국전쟁 당시 '아일라'라고 불렀던 어린 소녀를 찾아 달라는 요청을 한다.

쉴레이만은 25세 때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군우리 전투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인 후 철수할 때 시체 더미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부대로 데리고 와 보살펴 준다. 튀르키예 군인들이 달을 닮았다는 의미로 '아일라'라고 이름 붙여 준 한국 여아는 튀르키예군 캠프에서 생활하며, 튀르키예어도 배우게 된다.[9] 이들은 일 년 반 동안 아버지와 딸로 함께 생활하다가 쉴레이만이 귀국하면서 이별하게 된다. 튀르키예로 돌아온 후에 아일라와 연락하려고 만방으로 힘썼지만 성사되지 않았으며 이 기회에 도움을 받아 꼭 찾고 싶다고 말한다.

참전용사의 사연을 전해 들은 한국 제작진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 통역관을 지낸 인물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당시 고아들의 실상도 알게 된다. 당시 수원에 캠프가 있던 튀르키예군들은 고아들을 위해 천막을 세우고 숙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1951년에 '앙카라학원'이 설립된다. 이곳은 1979년까지 고아들을 가르치고 돌본 보육시설이다.[10]

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현재까지도 '앙카라형제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작진은 이 형제회 회원들을 통해 아일라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한다.

그렇게 아일라를 수소문하던 제작진은 마침내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앙카라학원' 출신의 한 제보자가 아일라가 그의 누나와 친하게 지냈다고 하면서 아일라의 이름이 김은자라고 알려 준 것이다. 제작진은 김은자가 인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을 한다. 예순이 넘은 김은자는 제작진이 보여 주는 사진을 보며 꿈에도 그린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울음을 터뜨리며, 과거에 '이산가족' 만남을 주선해 준다는 방송국에도 찾아간 적이 있다는 말을 한다. 이 말에서 시청자들은 김은자가 쉴레이만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쉴레이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선물로 준비한다. 쉴레이만도 튀르키예에서는 명절에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며 아일라에게 줄 미화(美貨)를 제작진들에게 보여 준다.

이후 쉴레이만과 아일라는 여의도 소재 앙카라공원(서울과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의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1977년에 개원한 공원)에서 만나 서로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이들은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 가족사진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후 아일라는 공항에서 쉴레이만과 부인을 환송한다.

다시 카메라는 이스탄불로 이동하고, 제작진은 쉴레이만에게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아일라가 그에게 쓴 감사 편지를 전달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아일라의 집이 나오고 쉴레이만과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모습과 함께 흐르는 세월을 상징하는 잔잔한 물결이 화면에 비춘다.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결과 함께 실제 사진들과 영상 편지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사실성을 부각하는 다큐멘터리 장르의 특징이며, 〈코레 아일라〉가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기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이끌어내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코레 아일라〉가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인터뷰 예컨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의 통역병으로 활동했던 백상기 고문을 비롯하여 앙카라형제회 회원들 등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증언하는 인물들을 통해 작품의 사실성을 높여 주고 있다. 예컨대 쉴레이만이 1950년 11월 26~28일 그리고 30일에 군우리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자세한 날짜까지 언급하는 등 이 작품은 실제적 스토리텔링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듯 이 작품은 사실을 엮어내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 결과는 사실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극적 감동을 준다[11]는 점에서 다큐멘터리의 본질에 충실하게 제작되었다.

2) 영화 〈아일라〉(2017년)

한국-튀르키예 합작 영화 〈아일라〉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 병사 쉴레이만과 전쟁고아 아일라의 감동적인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아일라〉를 감독한 잔 울카이(Can Ulkay)도 "영화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쟁 영화가 아니다. 전쟁은 그저 배경일 뿐이다. 영화는 아버지와 딸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영화다."[12]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아일라〉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이지만, 관람객들을 스펙터클한 전장으로 초대하는 대신 사랑을 기반으로 한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 〈아일라〉의 한국판 포스터



영화 〈아일라〉의 튀르키예판 포스터

또한 잔 울카이 감독은, "영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각색된 부분은 없다. 영화이니 살짝살짝 가미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실화에 근거했다."라고 밝히며, 이 영화가 실화에 근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영화 제작 동기와 과정에 대해, "2010년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알게 됐다. 다큐를 보고 쉴레이만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됐고 이야기를 들은 후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다."[13]고 말하며, 〈아일라〉가 〈코레 아일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튀르키예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양국이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2017 케이프타운 국제영화제 편집상, 2018 세도나 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14]하였고, 2018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아카데미상에 출품되었다. 〈아일라〉는 튀르키예에서 2017년 10월 27일에 개봉하여 5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역대 튀

SWRI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화 <아일라> 속 튀르키예 군인들의 전투 장면

르키예 영화 중 누적 관객 순위 6위에 오르는 놀랄 만한 흥행 성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에서는 2018년 6월 21일에 첫 상영이 되었다. 영화는 튀르키예의 '디지털하우스 프로덕션'이 제작했고, '워너브라더스 픽처스'가 튀르키예 배급을 담당하였다. 설레이만 역할을 맡은 주연으로는 튀르키예 유명 배우 이스마일 하즈오울루(İsmail Hacıoğlu), 한국 고아 소녀로는 아역배우 김설, 아일라의 노년은 이경진이 연기하였다. 이 영화가 튀르키예에서 이렇게나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의심할 바 없이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튀르키예 제작 한국전쟁 소재 영화는 자국의 우월성과 애국심을 국민들에게 설파하려는 선전의 요소가 다분하며,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공산주의에 대적하는 튀르키예 참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눈에 많이 띄게 많다. 다양한 국가에서 제작한 전쟁 영화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이 영화들도 튀르키예군의 한국전쟁 파병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튀르키예군의 용맹성이 영화 소재로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15]

〈아일라〉에도 여타 튀르키예 제작 한국전쟁 영화에서처럼 튀르키예군의 용맹성을 다룬 장면들이 등장하지만, 이는 작품이 추구하는 휴머니즘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튀르키예인 아버지가 한국인 고아 딸에게 베푼 온정에 기반한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 감독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제작된 한국전쟁 소재 튀르키예 영화와는 차별성이 있다.

영화는 평화로운 어느 한국 민가의 모습 그리고 잠시 후 북한군의 공격으로 이 평화로움이 산산조각이 나고,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 이후 본격적인 영화는 1950년 6월 어느 날, 튀르키예 이스켄데룬에 사는 쉴레이만 하사의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된다. 한국전쟁 발발 후 그는 연인과 헤어져 친구 알리와 함께 한국으로 파병된다. 임무 수행 중 주민들이 무차별로 학살된 마을(영화 초반에 아일라가 등장했던 마을)을 지나다 시체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한 아이를 발견한 쉴레이만은 그 아이를 내버려둘 수 없어 캠프로 데리고 오게 된다. 달빛 아래에서 달 같은 아이를 찾았다는 의미에서 튀르키예어로 달이라는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 주게 된다.

그는 캠프에서 아일라와 함께 생활하게 되고, 부모를 잃고 실어증에 걸린 아일라도 쉴레이만에게 마음을 열면서 둘은 유대감은 깊어지고, 아버지와 딸(아일라는 쉴레이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같은 관계로 발전한다. 한국에 파병된 지 1년이 지나 쉴레이만이 소속된 부대원들에게 튀르키예 귀국 명령이 내려지지만, 쉴레이만은 아일라를 두고 가고 싶지 않아 복무 기간을 연장한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고아원에 맡기려다 정을 떼지 못하고 몰래 여행 가방에 아일라를 넣고 튀르키예로 향하는 배에 승선하려다 발각되어 무산되고 만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아일라를 고아원에 두고 떠나야 했고, 후일 다시 만나기를 기약한다. 그렇게 헤어진 두 사람은 60년이 지나 튀르키예로 취재하러 온 한국 기자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된다는 것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이다.

먼저 영화에서 발견되는 고증 오류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위에서 밝혔듯이, 〈아일라〉는 1950년대 한국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의 공터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일라와 사람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춘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이는 민가들은 당시 한국 농가의 모습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화 <아일라> 속 서양식 나무 울타리



영화 <아일라> 속 아일라 어머니의 옷차림

당시 한국 농가는 주로 돌담, 흙으로 만든 담, 싸리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영화에 등장하는 나무 울타리는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양식이다. 고증을 철저히 하지 않고 추측에 의거해 제작한 세트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관객들이 볼 때는 이질감과 함께 영화 몰입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일라의 어머니가 입고 있는 의상도 마찬가지이다. 아일라의 어머니는 개량한복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시대상 재현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실존 인물과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에서 디테일한 시대 고증은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오픈 세트인 만큼 시대적 배경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영화 미학 면에서도 흠결 없는 작품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화의 다른 장면에서도 당시 한국의 모습을 제대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비단 튀르키예 제작 한국전쟁 영화에 국한된 경우는 아니다.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동양계의 구분에 대한 혼동으로 한국인이 중국인의 복장으로 등장하며, 중국어를 사용한다. 미국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으며, 한국에 관한 지식이 거의 전무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튀르키예의 한국에 대한 인식 오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16] 외국 제작 한국전쟁 영화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견되는 것은, 물론 제작비나 기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복장이나 가옥 형태 등은 한국 관객들의 눈에 쉽게 띄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고증 오류를 더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전쟁은 최악의 재난이다. 그러나 이런 참혹한 역사도 다른 기억들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잊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잊히는 기억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 중 하나가 영상 제작이다.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집단적 기억이란 문화적 수단을 통해 재현되고 공유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에 영화만큼 적절한 매체도 없을 것이다. 과거의 숱한 역사적 기억들이 영화의 소재가 되었고 한국전쟁 역시 많은 영화로 제작되었다.[17]

위에서도 밝혔듯이, 현재까지 튀르키예에서 제작된 한국전쟁 소재 영화들 대부분은 튀르키예군의 용맹성과 영웅주의 주제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일라〉에서는 튀르키예군의 용맹성도 일부 다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쉴레이만 하사의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와 영화 <아일라> 비교 분석

영화가 허구성이 가미된 장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허구라고 할지라도 잔 울카이 감독이 언급한 대로, 〈아일라〉는 태생적으로 〈코레 아일라〉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내용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에피소드들을 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가한 장면들이 존재한다.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실화에 바탕을 둔 〈코레 아일라〉가 영화로 제작되면서 가감된 요소들은 바로 감독의 의도임에 다름 아니다.

먼저, 〈코레 아일라〉와 〈아일라〉의 연출 및 제작 특징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코레 아일라>와 <아일라>의 연출 및 제작 특징의 차이점**

구분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	영화 <아일라>
촬영 공간	이스탄불, 서울, 인천, 부산 등 현존하는 실제 장소	사건이 일어난 곳인 한국을 재현한 허구 (튀르키예의 메르신시[18])의 장소
전달방식	성우의 내레이션 위주	대사
연출 방법	한국과 튀르키예 모습 교차편집: 2010년의 양국	한국과 튀르키예의 모습 교차편집: 한국전쟁 당시의 양국
등장인물	쉴레이만, 아일라(노년의 김은자) 등을 비롯한 실제 인물	쉴레이만의 청년 시절 친구들, 연인, 아일라의 어린 시절, 노년의 모습 등을 배우들이 재현
스토리의 시간대	이별한 후 60년이 지나 쉴레이만이 아일라를 찾는 과정과 재회하기까지의 시간	한국전쟁 당시 쉴레이만과 아일라가 함께한 시간이 대부분. 이후의 시간대는 제한적
주요 사건	한국 취재진들이 쉴레이만의 부탁을 들어 주기 위해 아일라를 찾는 과정과 재회 내용 중심	한국전쟁 발발과 쉴레이만의 한국 파병, 쉴레이만의 인도주의적 면모와 아일라에 대한 부성애, 이 두 사람의 유대감 중심
스토리텔링 방법	증언, 객관적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 스토리텔링	다큐를 근간으로 한 허구적 스토리텔링

영화를 통해 전쟁 기억을 재현한다는 것은 다른 장르와는 구별되는 영화적 관습을 통해 전쟁 기억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가 영화에서 재현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한 로젠스톤에 따르면, 영화는 역사를 정서적이고, 개인적이며, 극적인 것으로 구성한다. 이는 영화가 상영 시간이라는 한정된 조건 아래 '상품'의 형태로 특별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 사건을 특정한 이슈 중심으로 통합하는 서사화의 전략이다. 따라서 영화 서사는 특정 전쟁에 대한 모든 기억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19] 〈아일라〉도 〈코레 아일라〉에서 쉴레이만이 진술한 개인적인 기억을 재현하고 있지만, 전쟁에 대한 그의 모든 기억을 다루지 않고,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특별한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는 쉴레이만이 아일라를 찾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들이



〈아일라〉에서 쉴레이만이 개미에게 설탕을 주는 장면

'한국전쟁 이후'에 재회하게 되는 과정과 만남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 영화 〈아일라〉는 '한국전쟁 당시'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들이 재회하는 부분의 비중은 지극히 적다. 예컨대 〈코레 아일라〉와 〈아일라〉는 공통적으로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인연을 다루고 있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과 시간대가 다르다.

〈코레 아일라〉와 〈아일라〉 모두 튀르키예군의 휴머니즘이 부각되고 있다고 위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쉴레이만의 생명 존중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이 에피소드는 한국으로 향하는 튀르키예 군인들을 태운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배에서 개미가 너무 많이 나오자, 군인들이 개미들을 죽이려고 하자 쉴레이만은 개미들이 배가 고파서 그럴 거라며 개미들을 설탕으로 유인해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서 관객들은 미물인 개미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는 쉴레이만의 따스한 마음을 보게 된다.

이 에피소드는 장차 쉴레이만이 시쳇더미 속에서 혼자 살아남은 아일라를 돌봐 줄 거라는 복선이자 암시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코레 아일라〉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감독이 관객들에게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마릴린 먼로의 한국전쟁 파병군인 위문공연 실제 장면



영화 〈아일라〉 속 마릴린 먼로의 한국전쟁 위문공연 장면

〈아일라〉에 등장하는 튀르키예군의 모습은 기존에 제작된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튀르키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튀르키예군 용맹성도 드러나고 있다. 영화에서는 군우리 전투 같은 대규모 전투신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쉴레이만과 알리 그리고 다른 동료 군인들의 용맹성과 영웅적인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 특히 쉴레이만의 고향 친구 알리(Ali)는 영화에서 사뭇 용맹스러운 인물로 묘사된다. 한편, 다큐멘터리는 아일라와 전쟁고아들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군의 용맹성에 대한 장면들은 나오지 않는다. 영화에서 알리는 작전 수행 때문에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전선 위문공연에 함께 올 수 없었고, 대신 쉴레이만과 아일라에게 마릴린 먼로의 사인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다. 알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일라가 마릴린 먼로로부터 알리 이름으로 사인을 받는 장면과 작전 수행에 참가했던 알리가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교차되며 스크린에 비춰진다. 이 장면은 흥에 들뜬 위문 공연장 분위기와 죽어 가는 알리의 모습을 대비시켜 전쟁의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마릴린 먼로의 한국전선 위문공연 장면도 감독이 연출한 것이다. 쉴레이만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1950년 10월에 파병이





영화 〈아일라〉에서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일본 여행 장면

수원시정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되어 15개월 한국에 머물렀다고 증언하였는데, 1952년 1월경에 튀르키예로 귀국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마릴린 먼로는 종전 이후 1954년 2월에 전선 위문공연차 한국에 왔다. 즉, 먼로가 쉴레이만이 귀국한 후 한국에 전선 위문공연을 왔지만, 영화에서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의 위문공연 장면을 넣음으로써 영화에 재미와 색채감을 더해 주고 있다. 영화 속 마릴린 먼로의 의상을 보면, 위문공연 당시 사진 자료와 유사한 디자인과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어 실제 자료 고증을 영화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큐멘터리는 실제 인물과 사실을 담는 신빙성이 필수적이다. 즉, 다큐멘터리에서는 실제 사건들을 제작 측의 주관적 스토리텔링으로 배열할 수는 있지만, 허구적인 이야기를 가공해 연출할 수 없다. 반면 영화 〈아일라〉에서는 감독이 스토리의 매끄러운



영화 <아일라>에서 짐 가방 속에 들어있는 아일라

흐름과 눈요기감,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오락성, 공감대 형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위와 같은 상상력을 가미한 허구적 모티프를 연출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아일라〉에서 쉴레이만이 휴가를 받아 아일라를 데리고 전우들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 간 장면들이 나온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는 휴가를 보낼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코레 아일라〉에서 쉴레이만이 진술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부상당한 튀르키예 군인들이 일본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20]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으로 여행을 간 것은 사실이다. 이 에피소드는 고증에 의거한 것으로, 쉴레이만과 아일라가 군 캠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도 함께 추억을 쌓아 가는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연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여행 시기를 1951년 4월 23일이라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자 하는 연출로 볼 수 있다. 아일라가 튀르키예군 캠프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은 다양성에서 한계가 있고, 계속 같은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여 줄 경우 관객들에게 지루함을 안겨 줄 수 있어 분위기 환기 측면에서 카메라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쉴레이만은 다큐멘터리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지자, 아일라를 남겨 두고 갈 수



<코레 아일라>에서 인터뷰하는 김은자(MBC 제공)

없어 가방에 넣어 몰래 데리고 가려다 발각되어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은자도 인터뷰에서 "궤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곳에 짐을 싣고 나를 넣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생각이 나네요."라고 증언한 바 있다. 영화 〈아일라〉의 후반부에서도 짐 가방 속에 들어있는 아일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영화에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다. 아일라가 숨은 공간이 '궤짝'에서 '가방'으로 변했을 뿐이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이 헤어지고 싶지 않은 감정과 끈끈한 정을 극대화하면서,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살게 될 아일라의 장래를 고민한 쉴레이만이 선택한 방법으로 영화가 추구하는 휴머니즘을 강조한 장면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영화 〈아일라〉에는 쉴레이만이 아일라를 찾는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들이 〈코레 아일라〉의 여러 장면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영화에서 한국전쟁 당시 앙카라 학원에 다녔던 아이들이 튀르키예 군가를 부르는 장면과 다큐멘터리에서 전쟁 후 성인이 된 앙카라형제회 회원들이 튀르키예 군가를 부르는 장면이 각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노래는 리듬과 박자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 쉽게 잊히지 않는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노년이 된 앙카라형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화 〈아일라〉에서 양카라학원 아동들이 튀르키예 군가를 부르는 장면


〈코레 아일라〉에서 성인이 된 양카라학원 원생들이 튀르키예 군가를 부르는 장면(MBC 제공)

회 회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 낸다. 또한 쉴레이만과 아일라가 실제로 재회하는 장소(여의도 소재 앙카라공원)와 감격적인 장면, 옷의 색상 등이 영화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렇듯 영화가 다큐멘터리와 증언에 의거하여, 등장인물들이 머물렀던 공간, 재화 장소, 당시 입었던 의상의 색깔 등을 유사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볼 수 있다. 특히 영화 소재와 관련된 실제 사진들을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배치함으로써 관객들



〈코레 아일라〉(좌)와 〈아일라〉(우)에서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재회 장면

에게 영화의 실재성을 각인시켜 주면서 그 감동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코레 아일라〉에서 쉴레이만이 아일라를 찾아 달라며 보여 준 사진들도 〈아일라〉의 엔딩 크레딧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레 아일라〉와 〈아일라〉 두 작품 모두 아일라가 쉴레이만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같은 연출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코레 아일라〉가 〈아일라〉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한국전쟁 소재 영화는 여타의 전쟁 소재 영화처럼 치열한 전투 상황과 비극적 양상들을 반영하는 공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2017년에 개봉한 〈아일라〉는 튀르키예에서 제작된 여타의 한국전쟁 영화의 주요한 소재, 예컨대 튀르키예군의 용맹성과 영웅주의,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보다는 주인공 쉴레이만을 통해 튀르키예군의 인도주의적이며 자애로운 모습 등 전쟁 속에서 꽃 피운 휴머니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코레 아일라〉는 인터뷰와 증언, 한국전쟁 관련 실제적 자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아일라〉에서는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애틋한 우정 이야기를 영화 장르의 허구성 가미, 다양한 등장인물과 내용을 더해 풍부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두 작품 모두 인물 중심의 서사구조를 통해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 교감을 하면서 점점 부성애 차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으로 승화된 휴머니즘에 도달한다. 즉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피어난 숭고한 정신과 인간적 가치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감동을 선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코레 아일라〉와 〈아일라〉 두 작품 모두 쉴레이만과 아일라가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한국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이 결말 부분은 전쟁으로 인한 가슴 아픈 이별과 해후에 주목함으로써 전쟁의 비극적 측면을 우회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4. 결론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와 영화 〈아일라〉는 튀르키예 참전용사 쉴레이만과 한국 전쟁고아였던 아일라의 이야기를 공통의 소재로 삼아 영상으로 재현하고 있다. 특히 몇 장의 사진에서 출발하여 다큐멘터리로, 이후 영화로 이어지는 이미지로의 진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도 환기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 두 작품을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객관적 사실, 증언들 등 실제의 사실적 재현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장르와 이 다큐멘터리에 허구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영화 장르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 차이점과 공통점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려는 시도를 했다. 〈코레 아일라〉를 바탕으로 〈아일라〉로 제작되면서 변화된 요소들은 바로 영화가 추구하는 의도 혹은 목적임에 다름 아니다.

전쟁 영화는 필연적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쟁이 낳은 폐해와 반전 정서를 담게 된다. 튀르키예 제작 한국전쟁 영화도 이러한 특징을 띠고 있으며, 전후에는 한국전쟁으로 튀르키예 사회가 겪었던 사회적인 문제, 예컨대 상이군인들의 전쟁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등을 소재로 영화들도 제작되었다.[21]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전쟁 소재 영화와는 달리 〈아일라〉는 한국전 참전 튀르키예 군인과 한국인 고아 소녀의 국적을 초월한 '휴머니즘'을 다룬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변별성이 있다. 이 두 작품은 다큐와 영화라는 각기 다른 장르의 특성상 형식적, 내용적, 표현방식에서 많은 차별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코레 아일라〉가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기획된 작품의 성격상 '한국전쟁 이후'의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영화 〈아일라〉는 '한국전쟁 당시'의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일라 김은자와 아일라 역을 맡은 아역배우

〈코레 아일라〉는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스페셜로 전쟁 속에서 맺어진 아버지와 딸의 특별한 관계에 집중하여, 튀르키예군 병사의 휴머니즘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한국전쟁 당시 그들의 모습보다는 쉴레이만과 아일라가 생이별을 하고, 서로를 잊지 않고 살다가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재회하는 과정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 와중에 한국전쟁에 대한 튀르키예인들의 인식, 참전용사들의 경험담 등도 배치되고 있다.

〈코레 아일라〉에서 부각되는 점은 전체적인 영상 편집방식이다. 영상 대부분은 튀르키예와 한국의 현재 모습을 교차 편집하여 보여 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영상의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후반부에는 쉴레이만이 한국에 도착하여 아일라와 만나기 전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각각 번갈아 교차 편집하여, 극적이고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더불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특성에 따라 사실을 기반으로 해 과거는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로 대체하고, 현재 상황은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다. 이 다큐는 이후 제작될 〈아일라〉 영화의 출발점이자 근간이 된다.

영화 〈아일라〉는 쉴레이만과 아일라의 이야기 자체를 휴머니즘적인 시각에서 다루면서, 영화 장르의 특성상 다큐에는 없는 허구적인 에피소드들도 삽입되어 내용적으로 풍부해졌으며, 이들 주변의 다양한 등장인물들도 출연하고 있다. 영화는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재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화를 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실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재현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일라〉에서는 〈코레 아일라〉에서 다룬 쉴레이만의 이야기, 사진,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반영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영화 〈아일라〉의 개봉은 수많은 튀르키예인들이 한국전쟁과 그로 인해 형제의 연을 맺은 한국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하도록 하였고, '한국전쟁',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한국-튀르키예 교류사에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일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22]

〈코레 아일라〉와 〈아일라〉는 인종, 국가, 종교를 뛰어넘는 참다운 인류애를 실천한 쉴레이만의 삶을 사진들과 이야기 조각들을 모아 각각 다큐멘터리와 영화로 기록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우리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후대에도 전달하여 공유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콘텐츠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백상기, 2007, 『터키 사람들과 반세기』, 삶과 꿈.

셰일라 커런 버나드, 양기석 옮김, 2009,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이난아, 2010, 「한국전쟁을 다룬 터키 영화-「북극성」과 「한국의 터키 총검」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30집, 55~79쪽.

이난아, 2016, 「터키 제작 한국전쟁 영화의 특징적 양상 연구-한국과 한국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15-2호, 29~59쪽.

이난아, 2017, 「터키 제작 한국전쟁 영화의 특징적 양상 연구-전쟁 트라우마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7-3호, 187~212쪽.

이난아, 2019,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와 영화 〈아일라〉 비교분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9-3집, 143~168쪽.

이명자, 2011, 「전쟁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역사/다큐멘터리/기억-」, 『통일문제연구』 제56호, 1~35쪽.

조홍윤, 2019,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의의」, 『한국고전연구』 제44집, 99~127쪽.

태지호·황인성, 2014, 「영화에서 드러나는 한국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과 대중 기억 만들기」, 『한국언론학보』 제58권 6호, 279~302쪽.

Hürriyet Gazetesi Arşivi, *1950~1951 yıllar.*

Çakmak, Hüseyin, 2018, "Demokrat Parti Döneminde Uzakdoğu ilelİşkiler", *Akademik Sosyal Araşırmalar Dergisi, Yıl: 6,Sayı: 73*, pp.564-575.

Zeren, Bahar, 2018, *Kore Savaşı ve Ankara Okulu*, Kırklaleli Üniversitesilisans tezi.

T.C. Genelkurmay Başkanlığı, 1992, *Kore Savaşı Şehitlerinin Bibliyografileri*, Ankara Genelkurmay Basımevi, Ankara.

김세미, 2011, 「다큐 '코레 아일라' 캄보디아 국제 필름 페스티벌 대상」,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26232(검색:2019.7.30.).

박도, 2017, 「'20세기 최고 스타 마릴린 먼로가 찾은 한국전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 02369303(검색: 2019.8.2.).

송현숙, 2018, 「국장가 눈물로 적실 6·25 감동 실화 영화 '아일라'」,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80620/7/BBSMSTR_000000010021/view.do(검색: 2019.8.1).

Ataman, Yaprak, 2017, "Ayla Filmi Nerede Çekildi", https://www.milliyetemlak.com/dergi/ayla-filmi-nerede-cekildi/ (검색:2019.7.31.).

https://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169240(검색:2019.8.2.).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이 글은 이난아, 2019,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와 영화 〈아일라〉 비교분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9-3집, 143~168쪽을 수정 및 보안한 것임을 밝힌다.
2 T.C. Genelkurmay Başkanlığı, 1992, *Kore Savaşı Şehitlerinin Bibliyografileri*, Ankara Genelkurmay Basımevi, Ankara, p.1.
3 이난아, 2019,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와 영화 〈아일라〉 비교분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9-3집, 188~189쪽.
4 조홍윤, 2019,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의의」, 『한국고전연구』 제44집, 104쪽.
5 김세미, 2011, "다큐 '코레 아일라' 캄보디아 국제 필름 페스티벌 대상"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26232(검색:2019.7.30).
6 이명자, 2011, 「전쟁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역사/다큐멘터리/기억-」, 『통일문제연구』 제56호, 4쪽.
7 한국전쟁사에 '군우리의 대혈전'으로 기록될 정도로 치열했던 이 전투는 (…) 역전에 전통에 빛나는 터키군으로서는 가장 쓰라린 악전고투였다. 5천여 명의 여단 병력이 인해전술로 기습한 2개 사단 병력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중공군을 상대로 백병전을 전개한 치열한 전투였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계속된 전투에서 터키 여단은 많은 희생자를 냈다. (…) 중공군의 공격을 3일간 지연시킴으로써 유엔군 철수가 조기에 차단당하는 위기를 면하고 우방군이 용이하게 후퇴할 수 있게 된 것도 터키군의 용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백상기, 「터키 사람들과 반세기」, 삶과 꿈, 2007, 38~39쪽).
8 셰일라 커런 버나드, 양기석 옮김, 2009,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4쪽.
9 아일라가 튀르키예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은 다음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Bahar Zeren, 2018, Kore Savaşı ve Ankara Okulu, Kırklaleli Üniversitesi lisans bitirme tezi, p.69.
10 앙카라고아원에 관한 자세한 역사는 위의 책을 참고하시오.
11 셰일라 커런 버나드, 양기석 옮김, 2009,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3쪽.
12 오수연, 2017, 「한국서 관심이 높지 않아 아쉽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729715(검색: 2019.8.3.).
13 오수연, 2017, 「한국서 관심이 높지 않아 아쉽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729715(검색: 2019.8.3.).

註

14 송현숙, 2018, 「극장가 눈물로 적실 6·25 감동실화 영화 '아일라'」,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80620/7/BBSMSTR_000000010021/view.do (검색: 2019.8.1.).
15 이난아, 2016, 「터키 제작 한국전쟁 영화의 특징적 양상 연구 -한국과 한국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15권 2호, 41~42쪽. 더불어 튀르키예 제작 한국전쟁 영화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 관하여, 이난아, 2010, 「한국전쟁을 다룬 터키 영화-「북극성」과 「한국의 터키 총검」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30집, 55~79쪽을 참조.
16 이난아, 2016, 「터키 제작 한국전쟁 영화의 특징적 양상 연구 -한국과 한국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15권 2호, 47쪽.
17 태지호·황인성, 2014, 「영화에서 드러나는 한국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과 대중 기억 만들기」, 『한국언론학보』 제58권 6호, 283쪽.
18 Ataman, Yaprak, 2017, "Ayla Filmi Nerede Çekildi", https://www.milliyetemlak.com/dergi/ayla-filmi-nerede-cekildi/(검색:2019.7.31.).
19 태지호·황인성, 2014, 「영화에서 드러나는 한국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과 대중 기억 만들기」, 『한국언론학보』 제58권 6호, 284쪽.
20 Hüseyin Çakmak, 2018, "Demokrat Parti Döneminde Uzakdoğu ile İlişkiler", *Akademik Sosyal Araştırmalar Dergisi, Yıl: 6, Sayı: 73*, p.573를 참고.
21 튀르키예 제작 한국전쟁 영화에 나타난 트라우마 문제에 관하여, 이난아, 2017, 「터키 제작 한국전쟁 영화의 특징적 양상 연구-전쟁 트라우마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7권 제3호, 187~212쪽을 참조.
22 조홍윤, 2019,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 조사 연구의 의의」, 『한국고전연구』 제44집, 105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2

<내 기억 속의 전쟁 : 앙카라학교>
다큐멘터리 제작기



송재헌 다큐멘터리 연출가, 前 KBS PD

SRI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다큐멘터리 제작일지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와 공동제작을 해 보라는 권유를 본부장에게서 받은 것은 2012년 8월이었다.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측에서 튀르키예와 KBS의 공동제작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 튀르키예는?

2002년 한일월드컵 3~4위전에서 '피를 나눈 형제 어쩌고 하는 중계방송을 듣다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기습 골을 먹고 3대0하고 아쉽게 4위로 끝난 월드컵이 생각난다.

피를 나눈 형제?

저 멀리 유럽의 입구에 붙어 있는 얼고 먼 나라 튀르키예가 왜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인가?

다큐멘터리 제작이 진행되면서 나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에 감추어진 역사적 의미와 숨은 뜻을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튀르키예 측의 희망대로 주제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튀르키예 군인들이 수원에 세웠던 앙카라학원으로 정해졌다.



양카라학원 터와 옛 건물



양카라학원기념비를 바라보고 있는 오경복(KBS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양카라학교〉 : 1951년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이 전쟁고아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에 설립한 고아원 및 초등교육기관. 이 학교는 튀르키예군의 인도적 지원으로 운영되었으며, 폐교될 때까지 7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무상 교육과 돌봄을 제공했다. 6·25 참전 튀르키예 군인들은 이제 나이 80대, 당시 고아원 학생들은 70대로 접어들고 있음.

자료조사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한국전쟁 당시 수원의 거리 풍경들과 함께 군인과 아이들이 담긴 수많은 흑백사진들이었다. 폭격을 맞아 내려앉은 팔달문 앞으로 군용 트럭들이 서 있고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다. 폐허가 된 거리, 시민들은 물건을 구하려고 부서진 가게들 주변에 웅성웅성 모여 있다. 그러나 골목의 아이들은 여전히 재잘거리고 뛰어놀고 있다. 튀르키예 군인들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그저 천진난만하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나 삼촌의 품에 안긴 것처럼.

양카라학원 졸업생들의 모임 '양카라형제회'의 오경복 할아버지와 연락이 닿았다. 할아버지와 함께 수원시에 위치한 양카라학원 터를 가 보았다. 1979년 폐교된 이후 이제 낡고 허물어진 단층 슬래브 건물에 철문은 녹이 슬고,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담벼락은 기우뚱 넘어질 듯하였다. 넓은 마당은 텅 비어 있다. 마당을 가득 채우며 왁자지껄 떠들던 학생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양카라형제회 오경복 할아버지는 그 왁자지껄한 소리가 아련히 들리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그에게는 그만큼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공간이었을까?

제작팀 구성을 마치고 다큐멘터리의 기본적인 컨셉을 적어 보았다.

① 6·25전쟁의 마이너리즘, 상황에 얽힌 개인의 기억들을 찾아낸다.

②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끄집어낸다.

- 신발을 신지 않은 아이들, 모자, 목도리, 교복, 군복, 어른 옷 입기
- 단발머리, 군용천막, 군용트럭 탑승, 무전기, 탱크, 동생을 업은 누나
- 운동회, 학예발표회, 브라스밴드, 군부대 위문
- 튀르키예 유학 속의 군인과 소녀

양카라학원의 단편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스토리 구성의 방향을 잡아 나갔다.

① 기억의 고차구성을 한다. 생사를 넘나들던 전쟁터, 앙카라학교를 중심으로 튀르키예 군인들의 기억을 찾아가고 또 반대편 한국 고아들의 기억을 찰로우해 본다.

② 그 기억이 만나는 지점에서 2명의 재회를 시도한다. 돌아가셨다면 후손과의 만남을 통해 세대를 연결하는 긴 인연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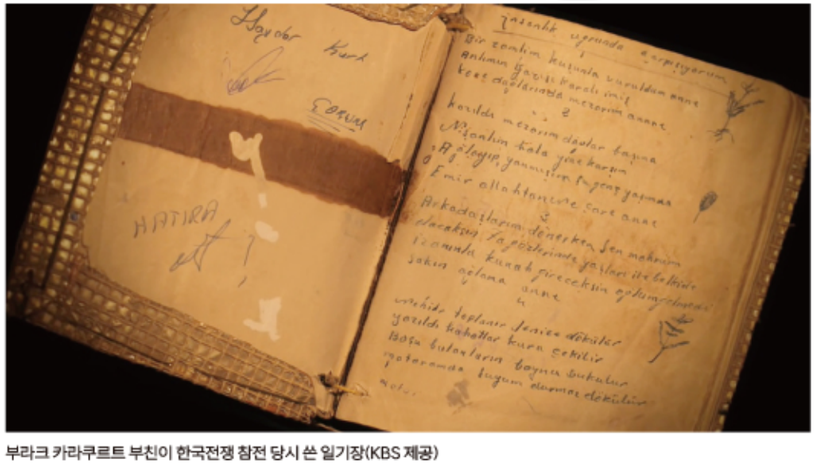
③ 이 과정에서 전쟁의 광기와 참상을 전달하고 반전 평화의 메시지를 담는다.

2. 아버지의 한국전쟁 참전 일기와 아들의 기억 찾기

튀르키예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더 많은 자료들을 리서치하기 시작하였다. 튀르키예대사관을 통해 튀르키예군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의 자료를 받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튀르키예 교민들의 커뮤니티에도 접속하였다. 이때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였다는 국제변호사 부라크 카라쿠르트를 만나게 되었다. 대를 이어 한국과 인연을 맺은 부라크 변호사는 놀랍게도 한국전에 참전했던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다.

멀고 먼 동방의 나라, 낯선 한국 땅에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킨다는 혈기 하나로 병력 수송선을 탄 튀르키예의 젊은이들. 부라크 변호사의 아버지도 군함에 올라탄 젊은이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낯설고 물선 한국 땅에서 그가 마주친 현실은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혹함과 함께 집과 가족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전쟁고아들, 굶주림에 쓰러진 피란민들뿐이었다. 부라크의 아버지는 이 참혹한 하루하루를 일기로 남겼다.

부라크 변호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이 담긴 일기장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일기장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기억"이라 말하며, 죽을 때까지 간직해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하였다.



부라크 카라쿠르트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 당시 쓴 일기장(KBS 제공)

죽은 전우들이 묻힌 묘지를 찾았습니다.
1800영의 튀르키예군이 죽어 땅에 묻혔고
부상자들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이 한국에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이 전지가 고향에 다다르면
가련한 어머니의 손에 닿는다면 이걸 내 손으로 쓴 거냐?라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내가 인사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유종으로 이 시를 썼네.
절쳐서 읽으며 나를 떠올려 주게
한국 최전방에서.
1951. 8. 31.

일기장에는 전쟁의 고통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인들이 겪은 참담한 현실이 생생히 묘사돼 있었다. 특히 수원의 앙카라학원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했는데, 이는 튀르키예군이 전쟁 중 고아들을 위해 세운 시설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굶주린 채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던 기억을 시로 남기기도 했다.

부라크 변호사는 앙카라학원에 매료되어 조사를 시작했고, 2007년에는 실제 졸업생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나이가 이미 60세가 넘은 졸업생들은 여

SW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전히 튀르키예를 제2의 조국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튀르키예 군인들을 "아비(형, 오빠)"라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앙카라학원을 졸업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 "튀르키예는 나의 두 번째 조국입니다. 튀르키예에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나쁜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아파요."

부라크는 16개 참전국 중에서도 튀르키예만이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전쟁터였지만 튀르키예 군인들에게는 인간적인 연민, 즉 휴머니즘이 살아 있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열고, 고아들에게 천막 속에서 빵을 나눠 주며 돌봐 주었던 튀르키예군의 따뜻한 마음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우정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 "전쟁이 아니었다면, 서로를 몰랐을 두 나라가 지금 형제가 된 이유는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앙카라학원의 졸업생들은 이미 80대에 접어들었다. 일부는 돌아가시고 앙카라학원 졸업생들의 모임인 '앙카라형제회'에도 점점 참석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3. 앙카라학원 브라스밴드

'앙카라형제회' 오수업 회장은 학교에서 밴드부 활동을 했던 때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앙카라학원은 튀르키예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재정이 풍부하였다. 튀르키예에서 악기를 공수해 학교 밴드부가 결성된 것도 큰 자랑이었다. 트럼펫, 색소폰, 클라리넷, 큰북, 작은북 등등. 전쟁 중 암울한 분위기의 후방 기지에 속했던 수원에서 음악은 신이 준 선물과도 같았다. 밴드부 학생들은 정부나 군대 행사에 불려 나가 신나게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렸다. 동두천까지 군용트럭을 타고 위문공연을 다니면서 앙카라학원 밴드는 수원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최동석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여섯 살 먹은 아이였다. 철원군 지경리에서 1·4후퇴 시기, 방공호와 산속 바위 밑에서 전쟁의 포화를 피해 숨어 지내다가 미군의 도움으로 신갈국민학교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무를 하러 갔다가 폭격을 맞아 사망했고, 아버지와 누나 등 가족의 생사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당시의 배고픔과 총소리, 폭격의 공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배고픔 속에서 개구리 다리와 아카시아 순을 먹으며 살아남았고, 결국 걸어 걸어서 수원으로 왔다가 앙카라학원에 들어가 삶을 의지하였다.

앙카라학원은 최동석에게 피난처이자 새로운 가족이었다. 튀르키예 군인들이 제공한 빵과 서양식 요리를 처음 맛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앙카라학원은 농사와 가축(젖소, 오리, 닭) 키우기를 통해 자급자족하며, 논과 밭에 농사를 짓는 등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다. 사람들은 앙카라학원을 "수원에서 제일 부자인 고아원"으로 묘사하였다. 앙카라학원의 브라스밴드는 최동석에게 큰 자부심이었다. 그는 앙카라학원 밴드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며 튀르키예 국가, 경기병 서곡 등을 연주했고, 수원 서호 운동장과 서울 운동장에서 위문공연을 펼쳤다.

튀르키예 군인들이 제공한 악기와 코치의 지도로 밴드는 높은 실력을 자랑했으며, 다른 학교 밴드부를 압도하였다. 위문공연은 튀르키예 군부대 차를 타고 다니며 즐거운 소풍 같은 경험이었고, 튀르키예 군인들과의 교감은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다.

튀르키예 군인들은 외모상 우락부락하고 수염이 많아 처음엔 무섭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따뜻하고 인정이 많았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학교는 그에게 교육, 음악, 공동체의 따뜻함을 제공하며 삶의 기반을 다지게 했다. 그는 전쟁고아로 힘든 삶을 겪었지만, 앙카라학원에서의 긍정적인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삶을 헤쳐 나갔다.

길문자는 앙카라학원 밴드에서 코넷을 불었다. 지금도 연습실을 울리던 악기의 멜로디가 떠올라 노래를 흥얼거렸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0년대 양카라학원 (ATASE 제공)







양카라학원 발농사(오수업 제공)

"튀르키예행진곡, 튀르키예 국가 있잖아. 따라라~ 그 노래를, 참 곡이 좋은 거야.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곡이 좋더라. 그거 좋아하고 그거 부르고, 우리가 연주했던 거는 〈경기병 서곡〉 같은 거. 그거는 지금도 멜로디가 기억나는걸."

길문자는 9살 국민학교 2학년 때 평남 순천에서 아버지의 결정으로 가족과 함께 황해도를 거쳐 수원으로 피난을 왔다. 1·4후퇴 때 신갈에서 중공군의 폭격으로 방공호에 있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망했고, 그녀는 시신을 수습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였다. 특히, 동생 문성이의 산산조각이 난 시신과 어머니의 하반신이 폭격으로 날아간 장면은 평생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양카라학원은 길문자에게 안전한 피난처이자 새로운 가족 같은 공동체였다. 그녀는 아홉 살부터 열세 살까지는 학생으로, 그리고 이후 20대 후반까지는 양카라학원에서 보모로 일하며 지냈다. 학교에서는 농사, 감자, 오이 재배 등과 함께 브라스밴드 활동이 큰 추억으로 남았다. 길문자는 코넷을 연주하며 동두천 등지까지 위문공연을 다녔다. 특히, 튀르키예 군인들이 가르쳐 준 노래와 춤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양카라학원은 원생들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이었다. 길문자는 학교에서 일제 세일러복, 구호물자 등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고, 이후 보모로 일하며 어린아이들을 돌봤다. 그녀는 지금도 양카라학원이 전쟁고아들에게 따뜻한 피



양카라학원 브라스밴드(길문자 제공)

난처를 제공한 점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지금도 그때의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며 교가로 불렸던 그 노래를 따라 불러 본다.

양카라, 양카라, 아름다운 양카라
너를 만나 모든 불운은 희망이 되고
너의 도움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리.

수원은 남쪽으로 향하는 피란길의 관문이었다. 그래서 많은 전쟁고아들이 수원 주위를 맴돌았다. 오경복은 13살의 나이에 피란 도중 가족과 헤어졌다. 온양온천에서 잠

SRI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시 오줌 누러 갔다 오니 가족들이 없었다. 혼자 서울로 돌아오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힘겹게 생존하였다. 폭격, 얼어 죽은 피란민 등 전쟁의 참혹한 장면들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수원 거리를 헤매던 오경복은 튀르키예 군인들을 만나 앙카라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튀르키예 군인들은 그에게 형 같은 존재로 다가왔고, 밥, 옷, 잠자리를 제공하며 따뜻하게 돌봐 주었다. 앙카라학원은 고아들을 품었으며, 학교 공부와 자립을 위한 농사, 가축 키우기 등을 가르쳤다. 특히 군인들이 준 통조림, 우윳가루, 치즈 등은 당시 굶주리던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튀르키예 군인들은 외모와 성격이 한국인과 비슷해 친근했고, 그들이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모습과 따뜻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전국에서 모여든 피란민들 그리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수원 거리를 배회하였다. 튀르키예군의 후방지원 부대와 야전 병원도 수원에 있었다. 튀르키예 군인들은 미군과 달리 한국 사람과 생김새도 비슷했고 정도 깊었다. 튀르키예군 막사 주위로 고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정이 많은 튀르키예 군인들은 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돌보아 주었다. 일부 군인들은 아이들을 막사로 데려와 재워 주고 먹여 주었다. 더 많은 고아들이 튀르키예군 막사 주변에 모여들자 튀르키예군 사령부는 수원에 고아원 겸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모아서 돌보기 시작하였다. 앙카라학원의 시작이었다.

4. 튀르키예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만나다

튀르키예 동남부의 시골 도시 아다나의 케밥 레스토랑에는 약속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깨끗이 다려 입은 군복에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고 노병들이 모여들었다. 번쩍이는 훈장이 한 사람당 서너 개씩은 되는 듯하였다. 나이가 80세가 넘어 90세가 다 되어 가는 등이 굽은 할아버지들이 되었지만, 아직 눈빛이 살아있고 기억이 총총한 것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백전노장의 모습 바로 그대로였다.



튀르키예 아다나에서 만난 한국전쟁 참전군인(KBS 제공)

그들은 한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팀을 보자마자 반가움에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서로 뒤질세라 한국전쟁 당시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총알을 머리에 맞고 가슴에 맞고 목을 관통하고, 그날 1개 중대에서 6~7명의 전사자가 났어요. 부상자도 많았고요. 나도 부상을 입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적들을 할 수 있는 한 다 죽여야겠다는 분노가."

장진호에서 중공군에 기습을 당해 부대가 전멸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할아버지는 주먹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고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 줄 아세요? 분노, 욕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죽은 아이들 몇 명을 봤는데 여기저기 총을 맞았나 보더라구요, 길가에 애들이 죽어 있는데, 까마귀, 독수리가 와서 파먹었어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세라네틴 데밀키아(KBS 제공)



가디르 테킨(KBS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추운 눈밭에 쓰러져 있던 아이들의 기억과 그 지옥 같은 하루까지.

"수원 튀르키예군 막사는 주변을 천으로 둘러쌌고 높이가 약 2미터 정도였어요. 거기서 한국 아이들이 울고불고 아주 그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손에 빵이든 먹는 것이든 뭐가 있으면 있는 대로 먹으라고 주었어요. 애들 먹으라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터에서 흠뻑 빠져들었던 한국 아이들과의 애틋하고 끈끈한 정을 이야기할 때는 살며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이 전부 8~12살 정도의 나이였어요. 너무 귀여워서 뽀뽀해주고 예뻐해주고, 서로 장난도 치고 그랬죠. 말하면서 튀르키예어를 가르쳤죠. 빨리 배우더라고요. 한국인은 정말 똑똑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죠."

시간 가는 줄 몰았다. 아다나 케밥을 먹으며 백전노장의 튀르키예 군인들은 아련한 추억에 빠져들었다.

"나는 한국을 내 나라처럼 그리워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마흐무트 가디르 테킨이 품은 한국에 대한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1950년 초, 그는 튀르키예 육군 하스탈 장군의 운전병이었지만, 자발적으로 전장에 나가기 위해 장군 몰래 부대를 빠져나가 열차를 타고 한국행 군함에 몰래 올라탔다. 파병 명령도 없이 자원병으로 전장에 투입된 그는 미군과 튀르키예군 사이를 오가며 통역과 운전을 맡고, 생사의 경계에 놓인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다.

그러나 그가 전장에서 가장 잊지 못한 기억은 전투가 아닌 아이들이었다. 수원 군인병원 근처에서 전쟁고아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찢어진 옷을 입고, 울면서 "오빠, 업어 줘."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 아이에게서 조카를 보듯 애틋한 감정을 느꼈고, 아이는 매일 같이 병원 근처 철조망으로 찾아와 "마흐무트! 마흐무트!"를 부르며 그를 찾았다.



케림이란 소년의 사진을 보여 주고 있는 앨튜를 규벤(KBS 제공)

그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나 남는 초콜릿, 껌, 빵 등을 아낌없이 나눠 줬고, 소녀는 그에게 "아리랑"을 불러 주며 마음을 나눴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수였다.

"나는 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 아이는 내가 준 사랑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어요."

그는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이야기하였다.

"애들이 죽어 있었어요. 길가에 까마귀와 독수리가 쪼아먹고 있었어요. 그때 욕이 튀어나왔어요.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빵을 들고 시골길을 돌며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던 기억도 이야기하였다. "삼촌, 삼촌"! 하며 다리를 붙잡던 아이들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다.



앨튜를 규벤과 케림(KBS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튀르키예 군인들이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찾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스탄불에서 만난 앨튜를 규벤은 80대의 노인이 되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정이 들었던 케림이란 소년을 찾고 있었다.

"한국전쟁 때 전투병으로 참가했어요.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을 보살펴 주었는데 여자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남자아이들은 전쟁 막사로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생활했죠. 당시 남자아이 중 튀르키예 이름으로 케림이란 아이가 이었어요. 보고 싶어요. 찾아 주실 수 없을까요?"

케림의 사진을 보여 주며 노병의 눈에는 촉촉하게 이슬이 맺혔다. 제작진은 모른 체 할 수가 없었다. KBS의 아침마당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담당 PD에게 부탁하여 케림을 찾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케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다. 60년이란 시간은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뀐 긴 세월이었다.

5. 튀르키예 우표 속 소녀 최민자



튀르키예 우표 속 소녀 최민자(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탐색 자료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튀르키예에서 발행된 우표 속에 실린 한 장의 사진. 튀르키예 군인이 한 소녀를 안고 책을 읽어 주고 있고 튀르키예 군인은 마치 다정한 아버지처럼 소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의 주인공을 찾기 시작하였다.

전문 우표 수집가인 여해룡을 만났다. 여해룡은 1950년대 후반 세계 우표 카탈로그에서 튀르키예 우표 중에 한국전쟁 당시 발행된 이 우표를 발견하고 사례 자체가 희귀하고 특이해서 주인공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의 우표는 1952년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해 발행한 것으로, 군인은 튀르키예군 장교 쉴레이만 대위였으며 함께 찍힌 한국 소녀는 당시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1962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우표전시회에서 당시 고려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최민자가 나타나 우표 속 어린 소녀가 바로 자신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후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다. 튀르키예대사관, 앙카라형제회, 한국전쟁 튀르키예참전용사회 등 여기저기 기나긴 수소문 끝에 드디어 우표 속의 주인공 최민자를 만날 수 있었다.

1951년 한국전쟁의 한가운데서 피난길에 부모와 헤어진 8살 소녀였던 최민자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길을 걷다 눈밭에 쓰러졌고, 얼어 죽기 직전 그 위기의 순간에



최민자와 쉴레이만 폴라트(「LIFE」 제공)

SRI 수원역사문화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쉴레이만 폴라트(Süleyman Polat) 대위가 그녀를 발견하였다.

쉴레이만 폴라트(Süleyman Polat)가 흐느끼며 우는 소리 쪽으로 다가갔다. 길 위에 다섯 살, 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가 눈더미에 조그만 발을 디디며 다가가고 있었다. 얼어붙어 파랗게 변한 손으로 눈을 움켜쥐고 간신히 넘어가려 애썼다. 얼굴은 새파랗고, 눈물은 흘러내려 볼을 적셨으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소리는 너무 지른 탓에 쉬어 있었고, 웅웅거리는 소리처럼만 났다. 다리에 힘이 남지 않았는데도, 작은 눈더미를 넘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겨우 눈더미를 넘자, 아이는 좌우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다리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동시에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고, 뒤뚱거리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다,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고, 멈춰 서서 기다렸다. 그러나 아이에게 응답하는 이는 없었다.

죽음과 맞붙은 이 불쌍한 아이는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었다. 폴라트 대위는 흐느낌 소리 쪽으로 달려가, 눈밭에 홀로 남은 아이에게 팔을 벌려 따뜻하게 품에 안았다. 작은 아이는 폴라트 대위의 따뜻한 품 안에서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떨고 있었다. 아이는 눈물 맺힌 눈으로 구원자를 올려다봤다. 폴라트 대위는 얼어 죽기 직전의 이 아이를 데우기 위해,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아 팔로 단단히 감싸 쥐었다. 황량한 길가,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이 나이의 아이가 혼자 남아 있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고결한 튀르키예 장교는, 길이 굽어지는 지점에서 '부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아이를 꼭 안은 채 대대 쪽으로 데려왔다. 병이 들지 않게 담요로 감싸 주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떨고 있는 아이에게 먹였다. 폴라트 대위는, 공산군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는 부모가 잃어버린 이 아이를 대대의 '딸'로 삼기로 결심했다. 전장 한가운데 포병대에 '딸'이 생긴 셈이었다. 그러니 아이에게 이름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을 따 '서울(Seul)'이라고 붙였다. 이 작은 아이는 튀르키예 장교들에게 너무도 깊이 정이 들어, 수천 킬로미터를 포화 속에서 함께하면서도 튀르키예의 따뜻한 보살핌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Ali Denizli, E. Kurmay Albay, 2014, *KORE SAVAŞINDA TÜRK ASKERİNİN KORE HALKINA YARDIMLARI VE ANKARA OKULUNUN AÇILMASI*, Ankara, 튀르키예군 참전기념연구소.〉



튀르키예 군인들의 보호를 받은 최민자(JFE,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수원



쉴레이만 폴라드와 최민자의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부라크 카라쿠르트(KBS 제공)



쉴레이만 폴라드(1919~1987년)의 묘역을 찾은 최민자(KBS 제공)

그렇게 두 사람이 군 막사에서 8개월을 함께 생활하였을 때, 최민자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쉴레이만 대위와 눈물로 작별을 고하였다. 그 후 최민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세월은 흘러 흘러 어느덧 칠십을 넘긴 나이가 돼 버렸다. '쉴레이만 대위는 살아계실까? 살아 있다면 구십이 넘은 나이일 텐데.'하는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

제작진은 튀르키예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통해 쉴레이만 대위를 사방으로 수소문하였다. 그러나 쉴레이만 대위의 행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촬영 마감일이 다가오자, 제작팀은 일단 최민자를 모시고 이스탄불로 향하기로 했다. 쉴레이만 대위의 옛 부하들이라도 만나 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렇게 튀르키예행 항공권을 끊고 이스탄불로 출발을 준비하던 어느 날, 튀르키예어 통역 겸 코디를 통해 튀르키예군 참전용사회의 전갈이 왔다.

"쉴레이만 대위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최민자가 이스탄불 교외의 정원이 아름다운 집을 찾았을 때 쉴레이만 대위는 그곳에 없었다. 그는 이미 1987년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쉴레이만 대위를 대신하여 그의 부인과 아들, 손자들은 따뜻하게 최민자를 맞이하였다. 특히 쉴레이만 대위의 손자는 감격하였다.

"어릴 적부터 집안에 걸려 있던 한국 소녀를 안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늘 궁금해 했어요. 저 사진의 소녀가 정말 우리 집에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최민자도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군인 외투로 만든 옷을 입혀 주시고, 글도 가르쳐 주시고, 항상 옆에서 식사하게 해 주셨어요. 당시엔 친부모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쉴레이만의 가족들은 그녀를 '아블라'(튀르키예어로 누님)라 부르며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최민자는 그 사랑에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살아계셨을 때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지만, 이렇게라도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합니다."

이스탄불 교외의 쉴레이만 대위가 묻힌 묘지에서 최민자는 몇 번이고 비석을 어루만졌다. 60년 만의 재회는 우연이 아닌 운명과도 같은 인연이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전쟁의 참상을 뚫고 이어진 인류애와 약속, 기억의 실현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인간애와 따뜻한 약속은 끝내 서로를 다시 만나게 했다.

6. 앙카라학원공원의 재회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서슴없이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 말한다. 참전용사 규벤은 한국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에 매우 감동받았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하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국은 이제 고속철도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 현대 도시로 탈바꿈해 있었고, 한국 국민은 참전국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어요. 마치 국가대표처럼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규벤은 서슴없이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전쟁 중 자신이 도움을



2013년 6월 25일 앙카라학원공원 개장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준 아이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잘 살아가고 있기를, 혹시 자신을 기억해 줄지도 모른다는 추억을 품고 살아간다.

"전쟁은 너무나 슬펐지만, 한국은 나를 따뜻하게 기억해 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전한 보람이 있었어요."

그의 증언은 단지 군인의 이야기만이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情),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감사와 기억의 힘을 증명하는 살아 있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마무리되어 가던 2013년 6월 수원시에서는 앙카라학원을 기념하는 공원을 단장하고 개막식을 앞두고 있었다. 참혹한 지옥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천

SRI 수원학연구센터



앙카라학원 기념 합동밴드의 공연(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앙카라학원공원 개막식에 참석한 앙카라형제회 회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국의 소리를 들려주었던 앙카라학원 밴드부. 제작팀 중의 한 명이 이 밴드의 연주 소리를 개막식에 다시 울려 퍼지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었다. 수원시장, 튀르키예 대사도 참석하게 될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앙카라학원 밴드부의 음악이 울려 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밴드부를 이끌었던 학생들은 이미 벌써 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폐활량이 부족해 이제 트럼펫을 불지 못하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악기를 다루어 본 지 다들 몇십 년이 지났고 오랜 세월 여기저기 흩어져 밴드부는 인원수도 차지 않았다. 그래도 앙카라학원공원 개막식에 밴드음악이 울릴 수 있다면 고려대학교 브라스밴드에서 도와주겠다는 회신이 왔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할아버지 두 분과 함께 연습해서 공연을 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80대 할아버지 할머니와 20대 젊은 학생들의 '앙카라학원 기념 합동밴드'가 결성되어 맹연습에 들어가게 되었다.

드디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자리한 앙카라학원공원 개막식에 앙카라행진가가 울려 퍼졌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합창단이 되어 목청껏 "Ankara Ankara Güzel Ankara(앙카라, 앙카라, 아름다운 앙카라)"를 불렀다.

Ankara Ankara Güzel Ankara

Seni görmek ister her bahtı kara

Senden yardım umar her düşen dara

Yetersin onlara güzel Ankara

앙카라, 앙카라, 아름다운 앙카라

불운한 이들 모두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네

곤경에 빠진 이들은 모두 너의 도움을 바라네

아름다운 앙카라, 너는 그들에게 충분한 희망이 되네

60년 전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간 듯, 색소폰을 부는 오수업 회장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피어올랐고 합창단이 된 오경복 할아버지과 길문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났다. 학교 터와 공원에 울려 퍼지는 밴드의 힘찬 연주는 앙카라학원의 추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하였다.

7. 에필로그

튀르키예의 중소도시 아다나에 모인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겪으며 살아남았고, 순수한 한국의 아이들을 만났고 한강의 기적을 지켜보았기에 한국을 제2의 조국이라 부르며 깊은 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아다나의 테킨 할아버지는 날마다 부대의 철조망으로 와서 어린 소녀가 불러 주었던 노래 '섬집아기'의 가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20대의 혈기 왕성한 나이에 자원하여 참전해 참혹한 살육의 현장을 목도한 노병이, 이제 고향 아다나의 언덕에 올라 한국의 어린 소녀를 생각하며 부르는 섬집아기. 구슬픈 이 동요가 지금까지 노병의 가슴속 깊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래는 60년의 세월을 넘어 아다나의 들판으로 메아리가 되어 퍼져 나갔다.

〈내 기억 속의 전쟁 : 앙카라학교〉 다큐 제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부모를 잃고 구두닦이로, 신문팔이로, 보일러공으로, 전기기술자로 전쟁 후에도 결코 녹록지 않았던 삶의 궤적들. 그러나 앙카라학원의 끈끈하고 강인했던 삶에 대한 기억들이 이들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시절을 힘들게 살아왔다. 전쟁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했기에 오히려 그들은 작은 것도 나누어 가지려 했고 서로 걱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남았다.

역설적으로 풍요가 넘치는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궁핍을 느낀다. 전쟁 속의 작은 천국 같았던 수원의 앙카라학원에서 그들은 삶의 소중함을 체득하면서 살아왔다. 서로 돕고 걱정하며 적더라도 나누었던 삶. 옛일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은 함께 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바로 삶의 스승이었던 수원 앙카라학원의 아름다운 기억이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리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집필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 수료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손예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송재헌 다큐멘터리 연출가, 전 KBS PD
이난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원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유헌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손예은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조사원
유기정, 이서진, 주민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공간시리즈 4
앙카라학원, 평화와 희망의 보금자리

발행인 김성진

발행일 2026년 1월 25일

발행처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T. 031-220-8058 H. http://www.suwon.re.kr

ISBN 979-11-6819-210-2 94900
979-11-90343-85-5 (세트)

2025년 수원시정연구원 전략연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사진 중 출처가 명기된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받은 것입니다.
수록된 사진과 관련된 초상권 등의 문의사항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에서 확인·조치하고 있습니다.